

KOREAN ARCHITECT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 7월호 통권315호



월간 건축사 1995년 7월호 통권 315호(매월 5일 발행)발행·대한건축사협회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등록·1967년 3월23일 등록번호·(서)라-26 1985년 12월31일 제3종우편물(나)급인가

July
7

J
540.5

대 92 ㄱ

315c.5

회원작품

양천구민체육센터 / 이상림

문원동 마을 공동회관 / 류준수

국제산공사옥 / 송기덕

협 인제군지부 / 한광호+하금현+류기정

사옥 / 원도시 건축+ELLERBE BEKET

비평

도시에서의 인식성(쌍용투자증권사옥) / 이범재

작품노트

혜운대 빌리지 / 조성룡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김정수(2) / 이호진

건축기행

중남미 문화기행(3) / 김인철

기고

"전람회 그림"과 한 러시아 건축가 / 김정동

건축, 건축인 그리고 컴퓨터 / 박찬원

전통 건축

한국유교 건축의 재조명(3) / 김지민

해외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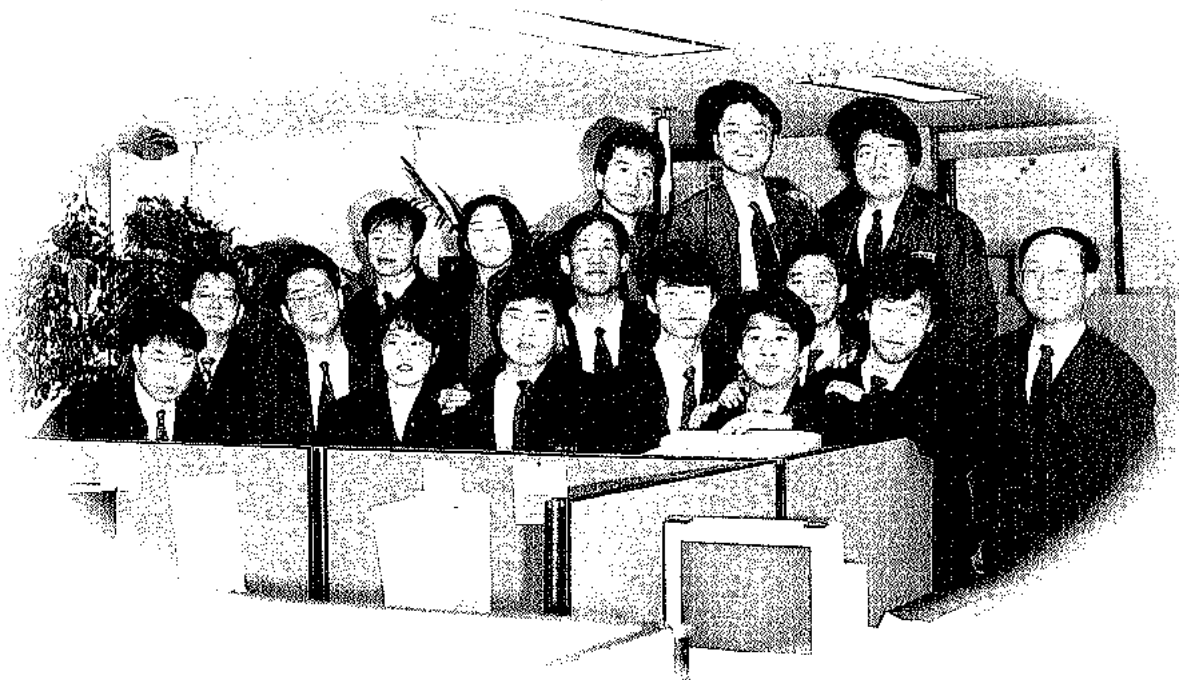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건축(5) / 박호순

현상설계

울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반포 종합사회복지회관

제주 화북지구 아파트



신뢰로 자라납니다.

수많은 컴퓨터회사 중에서
건축설계의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컴퓨터 활용기술을
갖춘 전문회사만이 믿을수 있는 건축CAD의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건축CAD전문회사인 (주)건캐드
그간 250여개사의 성공적인 건축CAD시스템 구축한 풍부한 경험과 차원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선의 정보와 지속적인 기술을 지원하여
고객의 실질적인 만족과 이익을 제공합니다.

성공을 향한 신뢰의 선택 (주)건캐드!

하드웨어



- 최상의 고성능 컴퓨터 486 SYSTEM
- 저렴하고 다양한 CAD SYSTEM 보유
- 완벽한 호환성과 뛰어난 확장성
- LAN, PLOTTERS, PRINTER, MONITOR 등

소프트웨어



- 최고의 건축CAD설계지원시스템
CADPOWER Ver 6.0
- 건축설계지원시스템 MECADPOWER
- AUGICAD R11, R12, 전환급 등 판매

CAD기술연구소



- 효율적인 건축CAD활용 기술연구
- 건축CAD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 건축설계생산화 프로그램 영역
- 건축CAD 3D 렌더링, 모델링 영역

건축CAD교육센터



- 건축설계실무에 바탕요한 교육
- 체계적인 단기/중기 건축CAD교육
- 다양한 시간대의 전문과정 개설
- 건축CAD실무자 양성 및 취업지원

아프터서비스



- 신뢰, 성실의 애프터서비스 제공
- 24시간 신속한 서비스 체계구축
- 고객 업무 과일의 연속성 유지체계
- 실무자의 사생활 관리 능력 교육

건축CAD전문회사

(주) 건 캐 드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2 (풍원빌딩 4층)
대표전화: (02)584-6480 팩스: (02)587-1803

(주)건축CAD기술연구소

서울·서초구 서초1동 1444-15 (중문빌딩 5층)
대표전화: (02)598-1486 팩스: (02)598-1487

입고는 즉시 출고는 38초

삼성셔틀파킹

삼성이 만든 차세대 주차설비, 셔틀파킹

1978년 국내최초로 기계식 입체주차설비를 제작 설치한 삼성이
드디어 미래형 주차설비인 셔틀파킹을 선보입니다.

연속적인 동시 입출고

삼성셔틀파킹의 가장 큰 특징은 입고실과 출고실을 분리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입출고시에 다음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준비되므로 입출고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팔레트 동시교대로 대기시간 제로

셔틀파킹의 최대 비밀은 팔레트 교환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고속 승강기로 옮겨갈 때, 다음 차를 위한 빈 팔레트가 동시교대로 입고실에 대기하므로 종래시스템에서 문제시되던 입고대기시간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분당 120m의 고속 승강기

자동차가 팔레트에 실려 입고되면 고속 승강기를 통해 지시된 층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삼성 셔틀파킹은 1분에 120m를 승강하는 고속 승강기를 내장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신속하게 자동차를 원하는 층으로 이동시킵니다.

분당 300m의 고속이동대차

셔틀파킹 시스템의 고속성능 발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속이동대차는 1분에 약 300m의 속도로 주행하며, 정확한 정지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의 5배 공간효율

셔틀파킹의 한 유니트(Unit)는 3단 기준으로 평균 138대까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선만은 최고 6단까지 설치가능하고, 유니트를 병렬로 연결했을 경우 대규모 주차도 가능합니다. 바닥면적 대비 설비가동효율과 주차공간활용면에서 종래의 기계식 주차장에 비해서 5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문열림 사고방지 시스템 채택

기계식 주차설비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자동차 문열림 사고—이러한 사고는 자동차의 파손은 물론, 전체 주차시스템의 밸런스를 깎아내립니다. 셔틀파킹은 팔레트에 자동차의 문열림 방지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삼성 주차설비의 종류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수직순환방식



대형체인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케이지(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시스템.

엘리베이터 방식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출고 하는 시스템.

다중순환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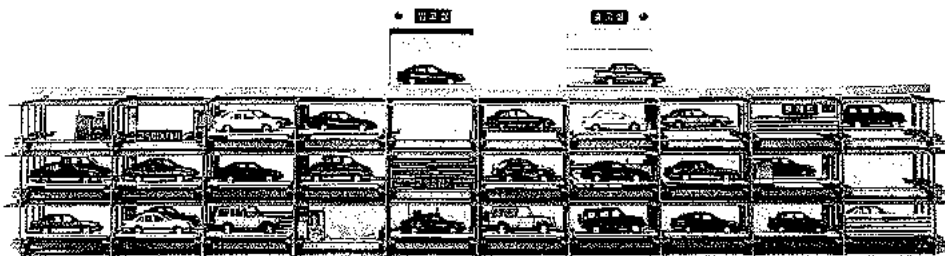


컨베이어 원리를 이용 팔레트를 상, 하층으로 이동시키면서 입출고 하는 시스템.

수평순환방식



주차공간에 팔레트를 평면으로 배열하고 간단히 평면 이동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세계 1등품질에 도전한다

SAMSUNG

삼성중공업



(주)중앙창호

본 사 · 공 장 인천시 서구 석남2동 223-40
 목 재 사 업 부 (032)571-7771 Fax 575-6655
 건 가 구 사 업 부 (032)582-7771 Fax 571-7744
 시 스템 창 호 사 업 부 (032)583-7771 Fax 571-7744
 서 울 전 시 장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0-9
 기 린 건축자재백화점 102호
 (02)548-8033 Fax 549-9234

창호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독일 HARTMANN 社の 정통시스템 창호 — 중앙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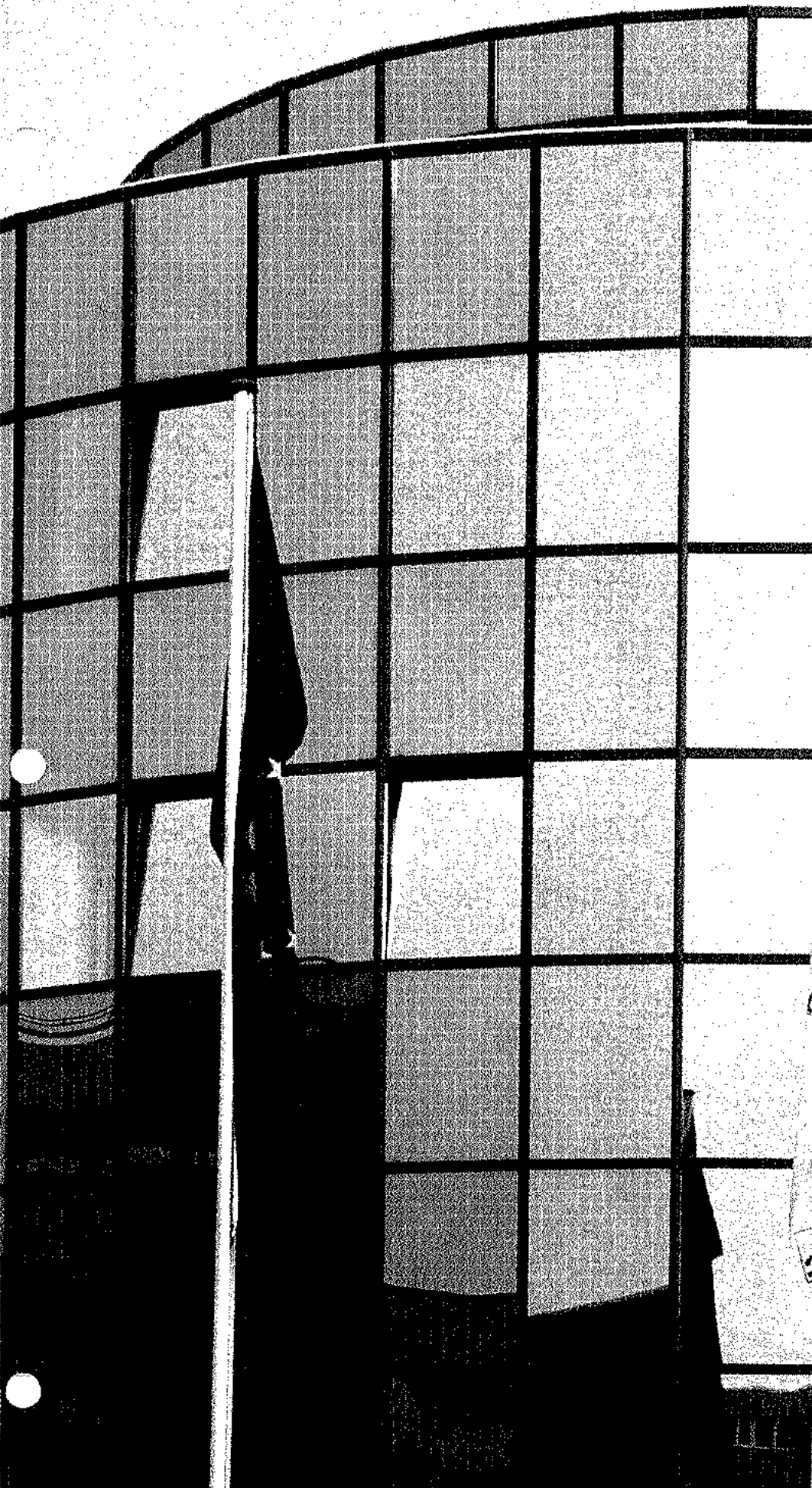
고급 특수목 가공으로 명품의 창호, 건구, 가구를 제작 시공해온
 목재의 명문 중앙창호가 독일 하트만사의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만나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의 새로운 세계를 엽니다.

중앙창호의 모든 커튼월과 시스템창호는 엄격하기로 이름난
 독일 DIN 규정의 폴리아미드 단열바와 하드웨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뛰어난 방음효과, 탁월한 단열효과, 완벽한 결로방지,
 다양한 개폐방식 등 . . .
 독일의 합리성과 견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독일 하트만사의 수백가지 알루미늄 프로파일 기술과 다채로운 색상은
 건축가가 원하는 어떠한 디자인의 건축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알루미늄 커튼월과 시스템 창호는 고급특수목의 건구,
 가구와 함께 설계부터 제작,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결해드리는
 중앙창호와 상의해 주십시오.
 모든 건축물과 주거공간을 한층 돋보이게 해드립니다.





신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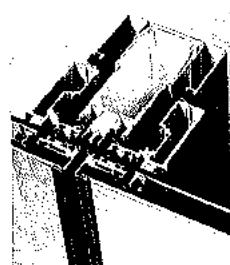
신공간

신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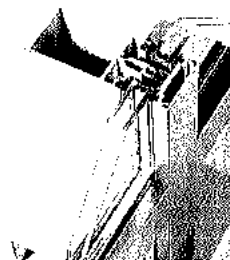
기술이 다르면

가치도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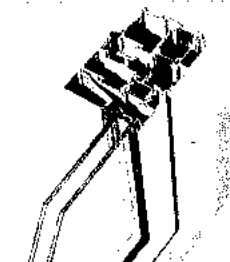
S-5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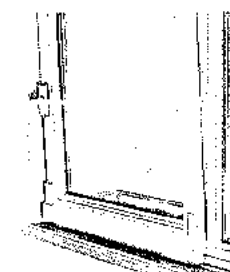
S-4000
단열커튼월
알루미늄+단열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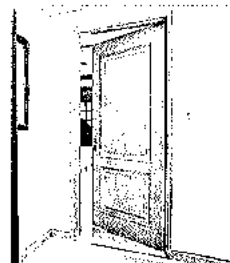
S-3000
단열창호T/T
(알루미늄+단열바, Tilt Turn)



알루우드PST
(Parallel Sliding & tilt)
알루미늄+목재



원목DOOR
목재창호, 건구,
가구, 시스템키친도
생산합니다.



이일 전기 온돌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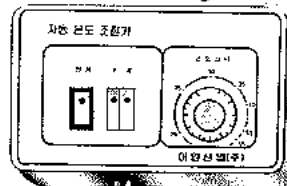
이렇게 따뜻하고 편리할 수가!

당일시공, 당일난방,
보일러가 필요 없습니다.

시공비는 가스, 기름보일러의 60% 가격!
가스, 기름값보다 저렴한 수준의 난방비!

일반용 전기나 산업용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어떤 연료보다도 경제적입니다.

1. 시공이 간편합니다.
2. 경제적입니다.
3.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4. 쾌적한 공간, 소음, 연기, 냄새가 없습니다.
5.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이전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장소

일반 주택은 물론 별장, 여관, 기도원, 절,
놀이방, 현장숙소, 빌딩대기실, 휴게실,
콘테이너 하우스 등의 난방, 특히 음식점,
독서실, 유아원, 공장 기숙사의 온돌 난방에
아주 좋습니다.

■ 설치프랜 예

LP1			LP2
			LP4

공인청 형식승인 3-7-4527
실용신안권출원 제91-11674호
실용신안권 출원 제92-18466호
의정권 출원 제91-10816호

* 본 제품은 1억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방면적 10.2㎡/난방면적 7.5㎡/부실율 73.5%
- 소요자재
 - 온돌판넬 LP1 (220V/240W) × 4장
 - 온돌판넬 LP2 (220V/120W) × 1장
 - 온돌판넬 LP4 (220V/180W) × 1장
 - 온도조절기(종형) × 1대
- 전기용량소요 1.26kw
- 전기요금예상
 - 1.26kw × 10hr/일 × 0.7 × 69원/kwh = 520원/일
 - 520원 × 30일/월 = 15,600원/월
 - * 1일 10시간 사용, 통전율 70%, 전기요금(일반용 전기) 단가 69원/kwh와 월간전기요금.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69-4(덕암빌딩 402호)
TEL. 521-9417~8 FAX. 521-9419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94블럭 14롯트
TEL. (032)813-5407 812-8798

지방지역 총판

대전 : (042)628-2845 강원 : (0392)33-0917
부산 : (051)248-8933 광주 : (062)225-0064
대구 : (053)753-4848 제주 : (064)44-4520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실용신안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충만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퍼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산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라자 · 부산 리베타 쇼핑 · 명동 SS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호텔 · 워커힌호텔 · 숙조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이주대 부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 시공 |
|---|---|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 · 창호 · 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 · 제작 · 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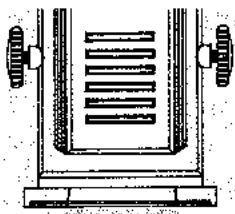
본사 : 서울특별시 九老區 九老6洞 98-6

TEL : 838 - 4545 (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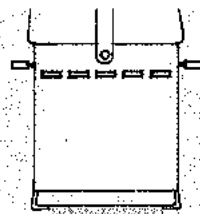
FAX : 838 - 0474

공장 : 인천직할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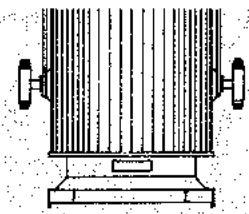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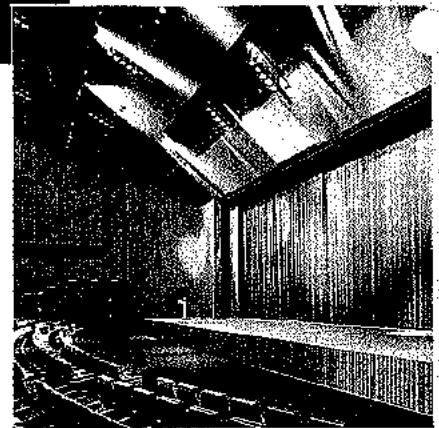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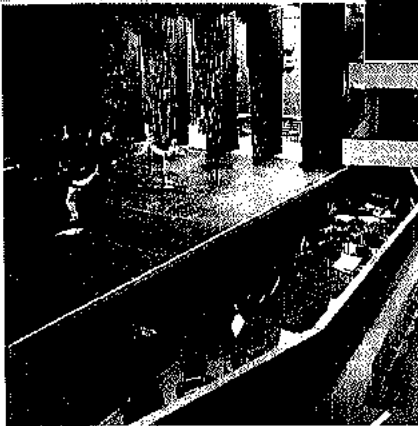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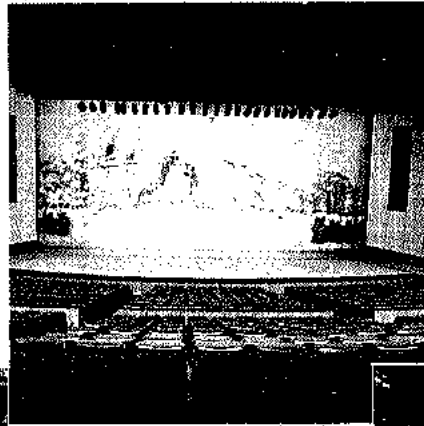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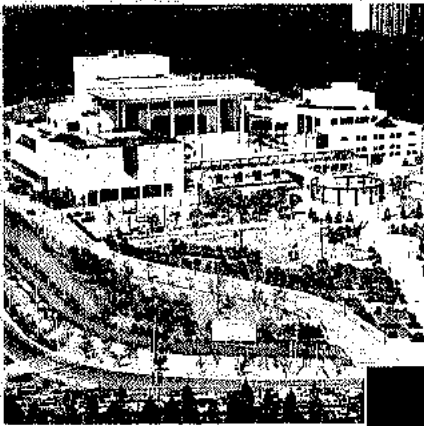
무대기계



무대조명



영상설비



기 획 · 설 계 · 시 공

SSE (주)성스테이지엔지니어링
SUNG STAGE ENGINEERING CO., LTD.

본사 · 공장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60-8(시화공단 2나 209)
TEL : (02)855-5373, (0345)499-8100~4, FAX : (0345)499-8105
서울사무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1(삼호물산B/D A동 813호)
TEL : (02)589-1830~8, FAX : (02)589-1839

앞서가는 기술, 앞서가는 품질



숨은 역사 20년—

No.1을 추구하는 무대기계 전문회사입니다.



설계·시공해 왔으며, 그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명실공히
무대 메카니즘의 최정상위치를 꾸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1969년 국내 최초로
무대기계 첫발을
내디딘 대아공전
주식회사는 선진기술의
도입과 독자적 연구
개발을 통하여 국내 주요
대형 무대를 독점하여

주요 공사실적

- 세종문화회관
- 국립극장
- 웨라튼워커힐
- 롯데호텔
- 부산문화예술회관
- 이화여대강당
- 유관순기념관
- 충현교회 본당
- 문화예술진흥원 (문예회관)
- 라플렌셀스 전용공연장
- 서울·제주 신라호텔
- 수안보 와이키키관광호텔
- 인양문화예술회관
- 중앙대예술대학강당
- 계동 센타 예술극장
- 육군박물관
- 대전시민회관
- 부곡하와이 등

주요 생산품목

- STAGE & STUDIO
- BASIC EQUIPMENT SYSTEMS
- THEATRE STAGE
- TELEVISION STUDIO
- OPERA HOUSE
- CONFERENCE ROOM
- SCHOOL STAGE
- DESIGN & ENGINEERING
- MANUFACTURE
- TURN-KEY PROJECTS



大雅互電株式會社

DAE AH ENGINEERING & ELECTRONIC CO., LTD.

本社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洞 108-1
TEL. (02) 332-4500(代表), (02) 335-4642(代表)
FAX. (02) 392-2751

工場 :
京畿道 金浦郡 金浦邑 大串面 山209-1 松麻里 山209-1
TEL. (0341) 987-4184, (02) 632-0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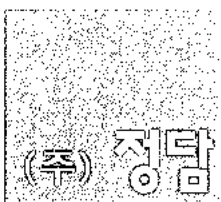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안전과 경제성을 추구합니다.

無支保 逆打設 (N.S.T.D) 工法



무지보 역타설공법 건설세미나 (대한건설협회주최)

건축 지하구조물의
설계, 감리, 시공은
안전제일주의
무지보 역타설 공법



건축기술인과 함께하는 기업

TEL: (02) 594-8100/9
FAX: (02) 533-9187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가설 H-형강 토류벽을 이용하여 건축 지하구조물을 역타설 축조하므로써

1.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원가상승없는 구조보강으로 안전성 증대
2. HANGING 장치에 의한 거꾸집으로 상, 하향 자유자재로 이동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양생 중에도 그 하루 지하굴토 작업의 연속성 보장으로 획기적인 공기단축

종래 개착식 굴토후 구조물 축조공법과 비교하면

30%의 공기단축과 15%의 공사비절감

1. 동바리 사용 불필요
2. 중장비 작업대기 불필요
3. 거꾸집 설치, 해체에 따른 소운반 불필요
4. 지하충수 증가할 수록 원가절감 효과 상승

무지보 역타설공법 안전진단결과

1. 흙막이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결과 각 부재의 휨, 전단, 압축에 대한 작용응력이 허용응력 이내로 나타나 모두 안전함
2. 인접건물 기초 침하에 대한 안전성 검토결과 전체 침하와 부등침하 모두 허용치 이내이므로 안전함
3. 임반층이 높은 도심지 현장에는 안전성, 경제성, 시공성 면에서 매우 유리함

- 한국 건설 안전 기술협회 -

- 대한 산업 안전 협회 -

무지보 역타설 (N.S.T.D) 공법은

공사비, 공사기간절감과, 지하굴토공사 주변피해 민원을 억제하는 안전제일주의 공법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하며, 건축기술인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적산업무 전산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실적

조달청, 총무처(시설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서울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체신부조달사업부, 법무부,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육군본부,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수협중앙회 데이콤 현대건설(주), 공영토건(주), (주)기산, (주)대명건설,
신동아종합건설(주), (주)대동주택, (주)우양건설, (주)삼한기업, (주)삼한까뮤, 성일건설(주), 경향건설(주) 동국산업(주)
신화건설(주), 라이프종합건설(주), 삼성엔지니어링(주), (주)대륙건설, 그랜드종합건설(주), 한주개발(주), (주)씨엠기업, (주)한솔건설
삼안기술공사(주), 동보건설(주), (주)한국종합건축, 승도종합건축, 한강종합건축, 서울주택개발(주), 미주실업(주), (주)범한
거양개발(주), 부성건설(주), 진로건설(주), 두산건설(주), 삼경건설(주), (주)창조종합건축, (주)신한, 서울건축(주)
엄이건축(주), 유일종합건축(주), (주)세마종합건축, 토당건축, 보람종합건축, 한국조형건축, 진화건축
(주)이공건축, 미래건축(주), 동명기술공단(주), 기전종합건축, 도화종합기술공사(주)
한양적산연구소, (주)세원엔지니어링, (주)한국산업경영연구소, 성진건축
삼안건설기술공사(주), 서인적산연구소, 외 500개 업체.

견적비가 설계비의 5%도 인된다고 신경을 못쓰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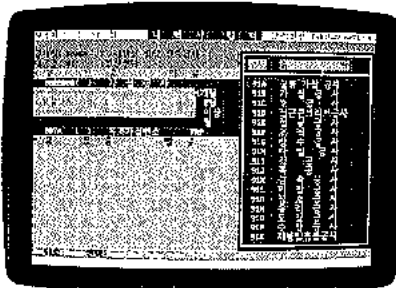
시장개방을 맞아 머지않아 기획에서 설계, 견적, 시공에 이르는 전문 분야를 연계하는
CIC구축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젠 적산업무를 외주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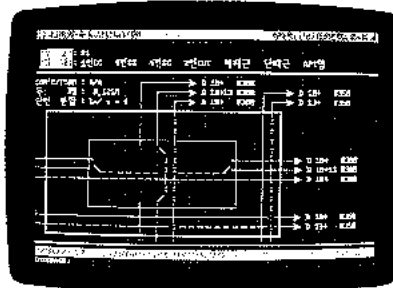
고려전산의 견적관리 프로그램이 **설계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에서 많이
사용하고, 평가가 좋은 이유를 아십니까?

초보자도 사용하기 쉽고, 설계예산 내역서에서 부터 발주처 시공회사까지 DATA가 연계처리
되며 사용하면 할수록 빛이나기 때문이다.

EMS-I(내역관리)



R.C(골조물량산출)



K-FIN(마감물량산출)



효과: ① 외주비 절감 ② 신뢰도 증가 ③ 다양한 분석 및 기술축적

특징: ① 사용하기 편리하다(도움말/화면메뉴/팝업메뉴방식)

- ② 최소의 입력으로 최대의 출력과 집계분석
- ③ 물량산출시 내역으로 자동연결됨
- ④ 자재코드, 일위대가 제공
- ⑤ 설계변경/기성내역 작성이 용이하다.
- ⑥ 관공서(발주처) 전산내역 입찰과 연결
- ⑦ 통신을 이용한 완벽한 애프터 서비스

시/W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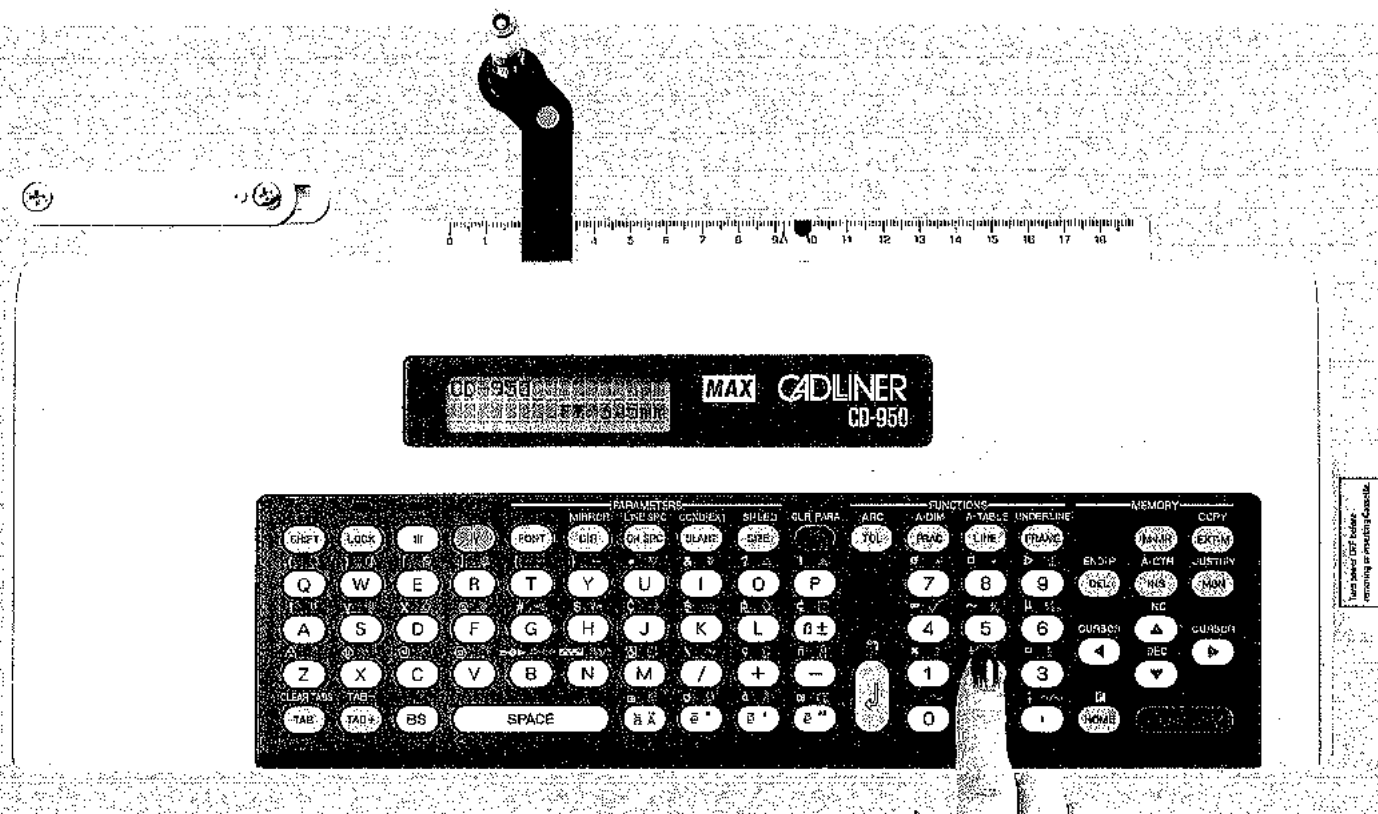
• EMS-I	내역관리 SYSTEM
• EMS-II	전기내역관리 SYSTEM
• EMS-III	설비내역관리 SYSTEM
• EMS-IV	토목내역 SYSTEM
• R.C	골조물량산출 SYSTEM
• K-FINISH	마감물량산출 SYSTEM
• M.M.S	자재관리 SYSTEM
• P.M.S	공사관리 SYSTEM
• A.M.S	건설회계관리 SYSTEM
• P-PMS	인사/급여관리 SYSTEM

“깨끗한 도면, 살아있는 글자체 (한글·영문)”

세계최초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

아직도 글씨를 손으로 쓰고 계십니까?

설계도면 및 레터링 작업시 빠르고 깨끗하게 쓸수있는 레터링 프로터.
자, 이제는 맡기십시오!



CAD LINER CD - 950

■ 특 징

- 세계최초로 개발된 전원이 필요없는 최첨단 레터링 프로터로 정전시에나 현장등 어느곳에서나 사용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7가지 영문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도면 사양에도 적합합니다.
- 더욱 깨끗하고 새로워진 한글체도 기본으로 되어있어 편리합니다.
- 기존제품 보다 훨씬 다양해진 기능과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진 컴퓨터식 보턴.

■ 용 도

- 기계 도면 제도, 건축 도면 제도, 전기 도면 제도, 전자 도면 제도, 토목 도면 제도, 측량 도면 제도, 설비 도면 제도, 연구 논문 작성, OHP 필름작성, CAD 원도작성, 기타 서류 작성 등.
- 각종 설계도면의 내용 표기, 글자, 기호등 표기.
- 정확하고 깨끗한 글씨는 설계도면의 품위와 신뢰도를 높여 줍니다.

CADLINER CD-950

MAX

수입원 : **유 미 교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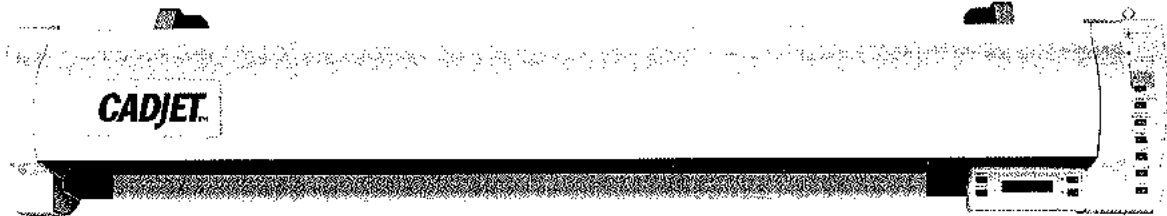
서울 중구 북창동 93-3
(삼육빌딩 603호)

TEL (02) 776-2252

FAX (02) 776-2253

H. P. 011-272-1929

300만원대 컬러잉크젯플로터 - CADJET™



- | | |
|----------------------|------|
| 1. 값싸고 좋은가? | YES! |
| 2. 컬러출력이 되는가? | YES! |
| 3. 600dpi출력이 되는가? | YES! |
| 4. 롤용지를 사용하는가? | YES! |
| 5. 자동커팅이 되는가? | YES! |
| 6. 스탠드와 바스켓이 기본제공인가? | YES! |

다기능 컬러잉크젯 플로터

CADJET™

A1/D size ₩3,980,000
A0/E size ₩4,9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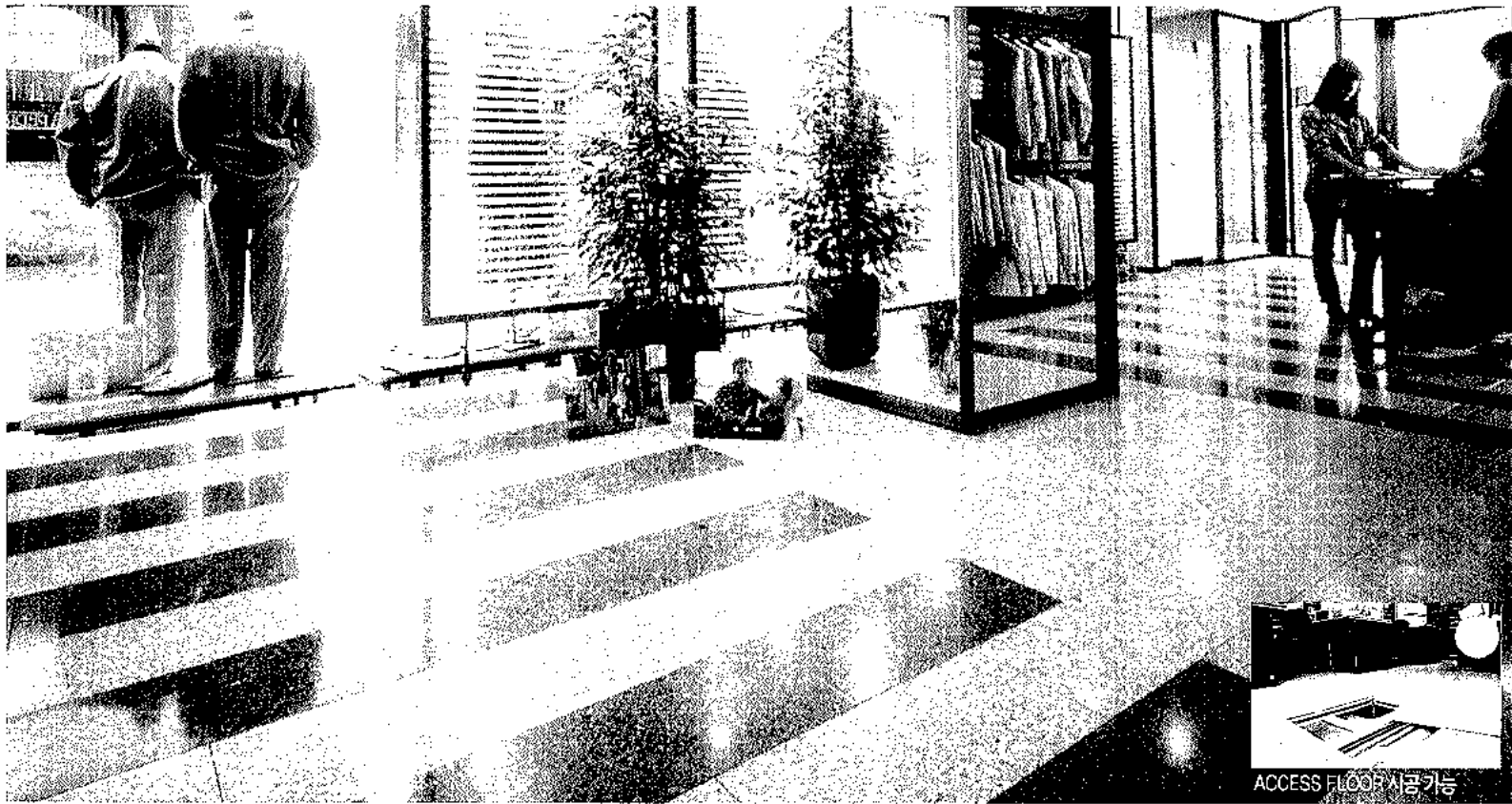
20" Color Monitor- CADmate 2077E

- 해상도: 1280x1024, Flicker Free
- Dot Pitch: 0.28mm
- Dynamic Focus
- Micro Processor Control
- Green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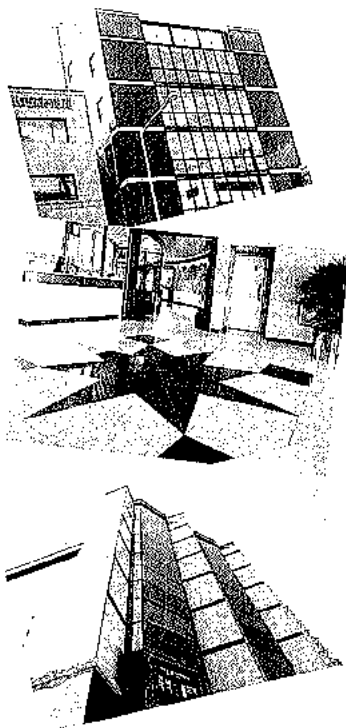
이걸 도면이라고 뽑았어?
세계화시대에 말이야!
CADJET으로 다시해!

CAD & NETWORK
씨앤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성자하이츠 II 빌딩 1009호
TEL: 3452-9870 FAX: 3452-9871

이태리풍의 미래형 건축내외장재- 대림 미라톤



ACCESS FLOOR 시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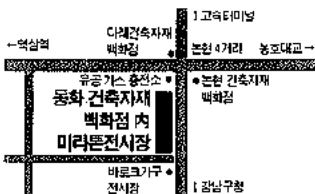


고객신뢰의 대림이 국내 최초로
ITALY BRETON사의
세계특허공정으로 만든 미래형
첨단건축 FASHION 내외장재-
아름답고 한차원 높은 품격을 요구하는
건축물에는 미라톤을 꼭 사용하세요.

대림 미라톤의 특징점

- 천연석이 표출 할 수 없는 색상과 질감을 낼수 있습니다.
- 충격이나 마모, 화학물질에 강합니다.
- 공극이 없는 미라톤은 흡수율이 "0"에 가깝기 때문에 동결융해에 의한 "해"가 없습니다.
- 두께 : 8mm~30mm, 크기 : 3m×1.2m 범위 내
- 건축물 뿐만 아니라 INTERIOR FURNITURE (싱크대, 세면대, 탁자등)에도 좋습니다.

대림 미라톤 상설전시장 OPEN



대림콘크리트공업주식회사

본사: TEL (02) 277-9011~6 공장: TEL (0415) 62-8101~4



건축설계의 토탈솔루션제공

..... 무한 경쟁시대의 동반자 선언 !.....

최첨단의 하드웨어와 전문화된 소프트웨어로 건축설계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젊고 창의적인 케드전문업체인 청우시스템 —
청우가 여는 새로운 세계 — 다이나시리즈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Dyna CAD — AutoCAD 3rd Party SW

설계 의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건축설계지원 프로그램.

- 한글 도움말
- 풍부한 심볼 제공
- 사용자 심볼 등록 기능
- 편리한 자도와 편집기능
- 한글 변환
- 철저한 교육지원



QE-Quick Estimate

건축물의 골조물량인 콘크리트, 거푸집, 철근의 소요량을 내장된 수식과 사용자 정의 수식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물량을 산출하여주는 새로운 차원의 골조물량 산출 프로그램.



QUE 3

입찰견적에서 도급, 설계변경, 실행, 기성청구, 정산에 이르기까지 처리하여주는 공사내역작성 프로그램으로 어떤 내역서라도 작성할 수 있는 융통성과 모든 메뉴에 대한 도움말 기능, 보고서 출력형식의 변경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Dyna P5 / Dyna 486

3차원 및 그래픽 작업이 요구되는 실제업무에 적합한 Dyna P5 시스템과 최상의 효율과 경제성을 지닌 Dyna 486시스템
모델명 : Dyna P560 / P566, Dyna 433 / 450 / 466V

Young Fellows System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0-29
TEL : (02) 587-5168 / 9
FAX : (02) 588-4156



587-5168/9

ARRIS

현대는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ARRIS는 오로지 건축전문으로 태어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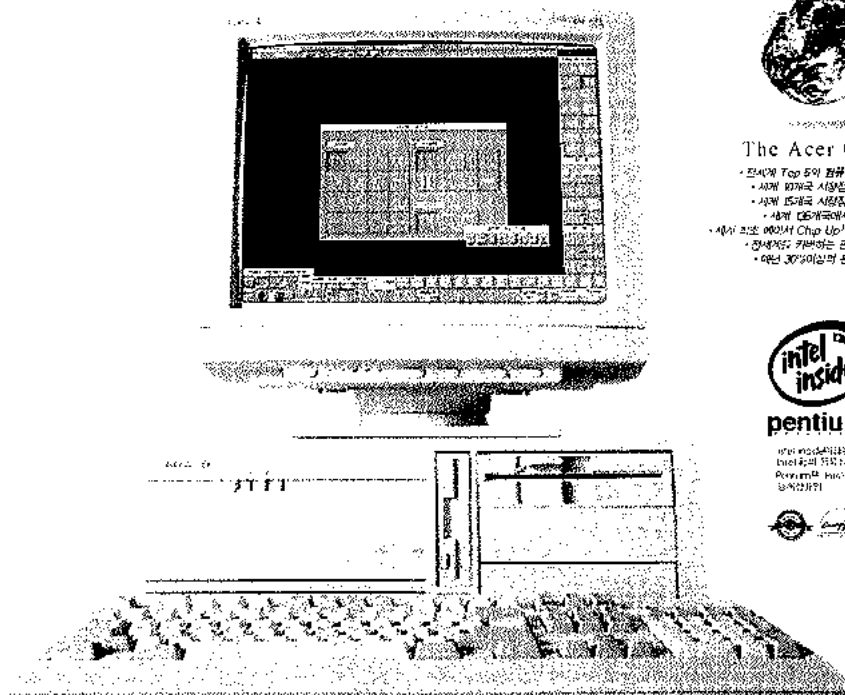
ARRIS를 처음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두가지입니다.
첫번째는 건축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기능에 인상을 받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기능이 많고 다양해서 사용하기 복잡해 보인다는 경우입니다.
또한, ARRIS의 뛰어난 기능의 일부가 우리나라 실무환경과 맞지않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거나 가격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
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일부는 옳고 일부는 틀립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그러한 혼동된 인식은 하나로 통일될 것입니다.
"ARRIS는 강력하고 우리나라 실무환경에 맞으며 사용하기 쉽고 저렴하다."
시그마디자인코리아는 정립건축의 새로운 3RD PARTY 소프트웨어 보급을
시작합니다.
정립건축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풍부한 CAD사용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대규모 건축설계회사입니다.
건축전문으로 태어났던 ARRIS, 이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정립 3RD PARTY v3.0 발표 기념 특별할인판매

- ARRIS (BD&D)
- 정립 3RD PARTY v3.0
- ACER Pentium PC
RAM 16MB/ HDD 540MB/ CD-ROM Drive (4배속)/
Sound Card 한글DOS 6.2/ 한글 WINDOWS 3.1
20인치 컬러모니터
=> 가격 570만원(렌탈이용시 월 22만원)

- * S/W만 구입시
- 1) ARRIS(BD&D) => 150만원
정립 3RD PARTY v3.0 => 70만원
- 2) ARRIS (BD&D)+정립 3RD PARTY v3.0
=> 195만원
- * 모든가격 부가세 별도

ARRIS교육기관안내
태백컴퓨터아카데미 TEL: 511-9400
토바디자인학원 TEL: 563-5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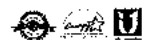


The Acer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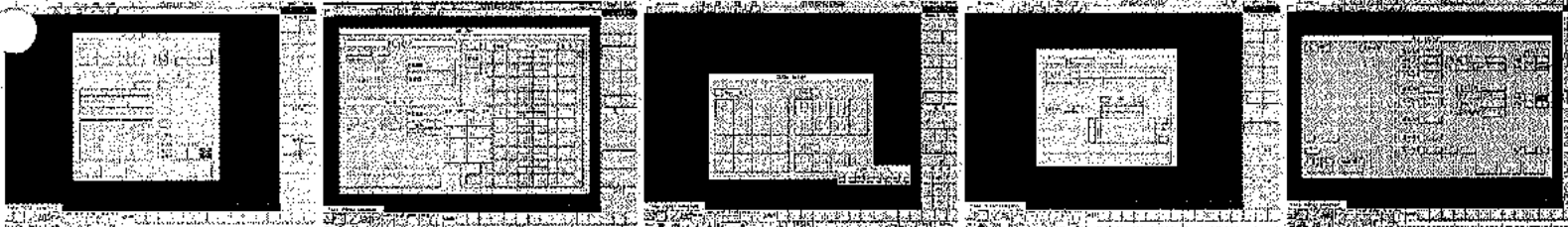
- 전세계 Top 5의 컴퓨터 전문회사
- 세계 10개국 시장점유율 1위
- 세계 15개국 시장점유율 5위
- 세계 125개국에서 판매
- 세계 130여 개에서 Chip Up!의 대리점으로
- 전세계 24시간 서비스 센터 네트워크
- 매년 30%이상의 판매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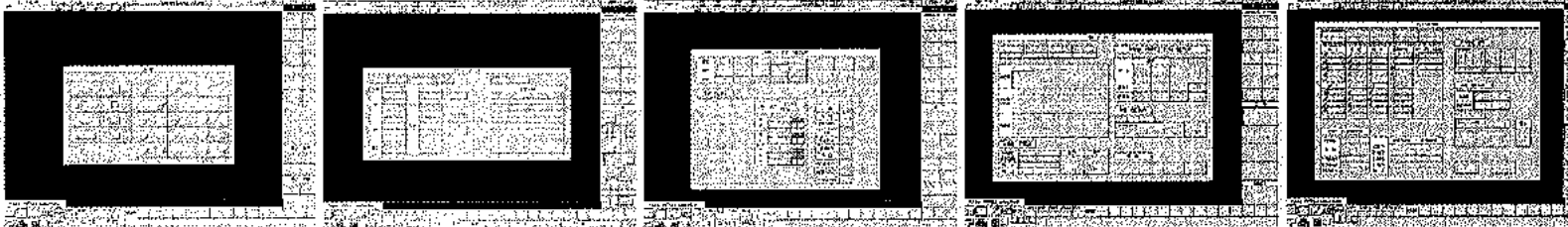
intel inside
pentium
intel inside는
intel사의 상표이며
Pentium은 intel사의
상표입니다



ARRIS



정림 3RD PARTY의 새로운 출발



정림건축은 1984년 부터 이제까지 축적된 CAD분야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그동안 준비해온 ARRIS용 3RD PARTY 소프트웨어를 v3.0으로 발표합니다.

근 30년의 역사와 250명의 전문가들을 보유한 믿을만한 건축설계 전문회사가 오피스,

병원으로부터 영종도신국제공항에 이르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그점만으로도 이미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본 소프트웨어는 정림건축의 모든 경험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 이미지의 신뢰도에

대한 책임감과 미래에 대한 약속을 담고있습니다.

이제부터 정림은 건축설계 소프트웨어라는 전문영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합니다.

정림을 협력자로 선택하십시오.

정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CAD기술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ARRIS는 그 자체가 정식구입없이 evaluation사용이 가능하며 본 소프트웨어도 evaluation mode사용을 제공합니다.

evaluation mode는 기능의 일부만 작동하며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evaluation mode만으로도 계단평면, 구적표 자동작성등 여러가지 기능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문화의 무한한 場! 외장용 삼미 스테인리스강

스테인리스강은 현대건축의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첨단 건자재입니다.

우수한 내구성과 뛰어난 조형미를 바탕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스테인리스강 -
건축 내, 외장용 특수소재/가공기술 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제품의 다양화와 적극적인 기술서비스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는 삼미중합특수강(주)은 현대건축의 공간연출을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지원합니다.

용 도

외벽마감재(CURTAIN WALL), 기둥카바, 샷시,
천정재, 지붕재, 캐노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소품재

특 징

우수한 내식성 및 내구성,
스테인리스강 특유의 미려한 표면외관,
내충격성, 내화성 등이 뛰어난 안전소재

생산품목

EMBOSSED PLATE, DULL FINISH, HAIR LINE,
MIRROR, #4, #8, ETCHING, COLOR 등
다양한 표면의 제품

삼미중합특수강주식회사

서울영업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TEL: (02) 222-4640
FAX: (02) 563-1292

부산영업소: 부산 부산진구 범천 1동 857-6
TEL: (051) 644-6911
FAX: (051) 644-6916

창원영업소: 경남 창원시 신촌동 66
TEL: (0551) 68-4267
FAX: (0551) 64-2616

쇼핑문화의 첫장

동신범랑은 적조있는 쇼핑문화의 시작입니다

동신범랑판넬은 현재
MBC라디오(오전, 오후)에
광고중입니다

동신범랑판넬이 국내 최초로 해외 수출탑 수상(93. 11. 30)과
더불어 KS표시허가(93. 12. 7)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동신은 양질의 제품
공급은 물론 제품의 품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가번호: 제10561호



신촌GRACE
수령: 4,500M²
설계: (주)창조
시공: 한일개발(주)

GRACE
OPEN
11/20

그리스백화점당대축제

동신오미야磁瑯株式会社
Dong Shin Omiya Porcelain Enamel Co., Ltd.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3-2 우암6D 3층
TEL: (02) 512-0728-9 FAX: (02) 514-5897
공장: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삼호리 50-1
TEL: (02) 236-1812 (0446) 78-8076, 877-1788-9 FAX: (0446) 78-7592
무주 시공지정업체
서울/ (주)바우건설산업: 423-6111 류화공업 (주): 421-0471-3 동신산업 (02) 545-0122-4
력원건설: 516-6141-5 B.I.산업: 424-3111 (주)덕진ENG: 557-9043-4
부산: 송원감건 (주): (051) 558-0451-3 대구/ (주)태남: (053) 422-7111
광주: 덕원ENG (주): (062) 951-3007 대전/ (주)세진: (042) 524-0601-4
전주: 흥원ENG: (0652) 222-8043



신촌 그랜드 플라자: 수량: 4,123 M²
설계: 화원건축 시공: (주)그랜드 종합토건



부평동오미야점터: 수량: 4,000 M²
설계: 고려건축 시공: 동이건설

대한민국건축사협회

전국건축사대회

주최: 전국건설총연합회

연세: 1995. 9. 28(목)~29(금)

장소: 제주현대체육관

주요행사: 첫째날: 95전국건축사대회 95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
95전국건축사연수

둘째날: 95전국건축사연수

주최: 대한건설총연합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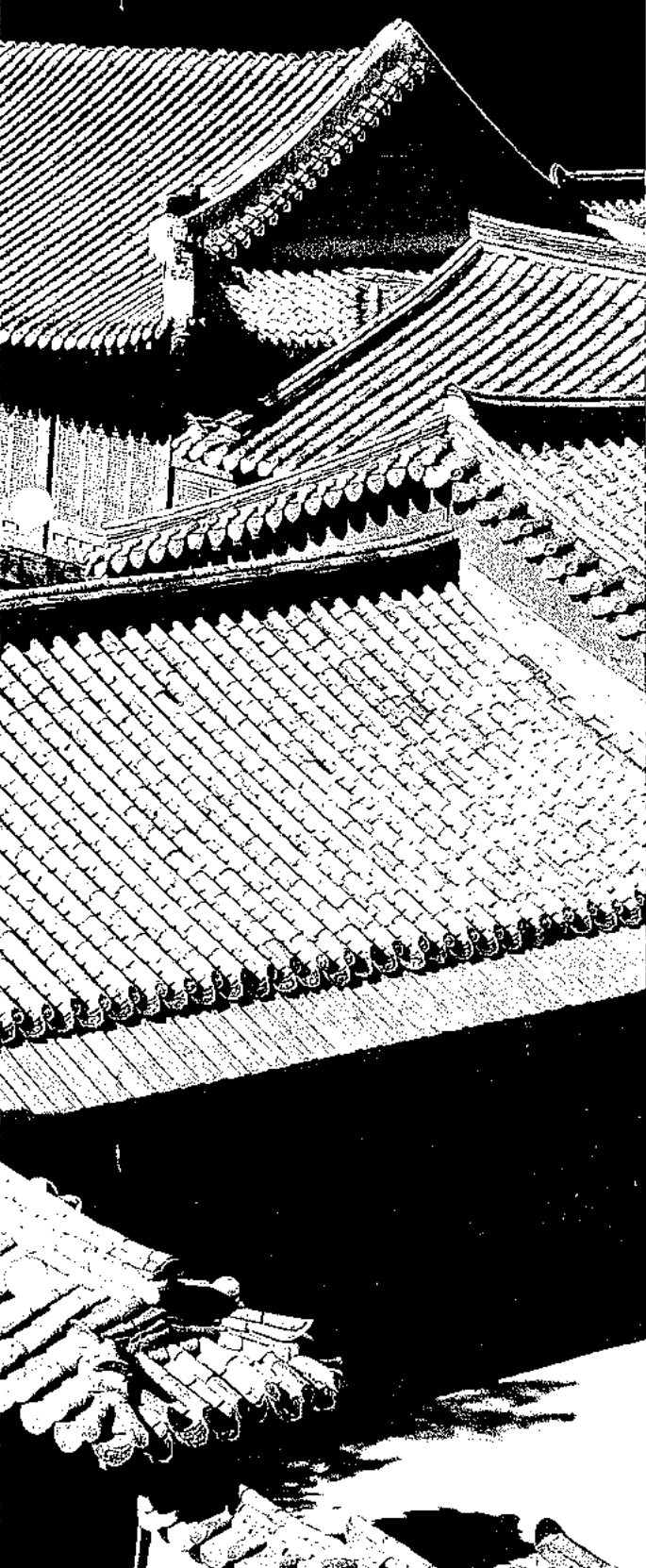
후원: 건설교통부, 제주도, 대한건설협회, 한국주거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 서울경제신문

'95 한국 건축문화대상

작품공모



■ 응모부문 및 대상

1. 준공건축물 부문 (94년 1월~95년 6월 기간중 준공된 국내건축물에 한함)
 -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2. 계획건축물 부문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작품에 한함)
 - 신인부문: 일선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생
 - 학생부문: 대학 및 전문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응모방법

1. 준공건축물 부문
 - 작품설명, 건물사진(8"×10" 사이즈 10매 이내),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제출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간이소개서 첨부)
 - ※ 패널제출은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제출시기는 추후 해당작에 한해 별도 통보
2. 계획건축물 부문 (신인·학생부문)
 - 작품주제는 응모자 자유선택
 - 패널(90cm×120cm) 1매 및 모형(60cm×60cm×50cm) 1점 제출
 - 작품설명서(200자 원고 기준 3~4매 분량) 1부 제출

■ 작품접수 및 수상작 발표

1. 접수기간: 95. 7. 18(화)~8. 18(금)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2. 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3-55 건축사회관 4층 / TEL: 581-5711~4
※ 별도의 참가비(출품료)는 없으며 출품원서는 작품접수자에 한해 접수당일 현장에서 교부함
3. 수상작 발표: 1995년 9월

■ 기타 출품규정

1. 신인·학생부문에 있어 공동작품인 경우에는 2인을 초과할 수 없음
2. 패널 제작시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반사성 재료의 사용을 금함
3. 패널 및 모형은 반드시 규정된 규격을 준수해야 함

■ 작품반출

1. 작품반출 기간: '95. 10. 9(일)~13(금) (5일간)/건축사회관 1층 정문 (단, 입선 이상의 수상작은 작품전시후 반출)
2. 준공건축물 부문의 제출 사진첩 중 1부는 시후 보존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3. 준공건축물 부문의 우수상 이상의 수상작 패널은 상설전시를 위해 반출이 불가함

■ 시상내용

1. 준공 건축물 부문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대상(1점)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동판(건물부착용)
본상 (4점)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해외시찰	트로피, 동판(건물부착용)
우수상(약간)	해당자에 한해 트로피, 해외시찰	---	---
입선작(다수)	상패	---	---
공로상	트로피	---	---

2. 계획건축물 부문

● 신인부문

- 최우수상(1점): 상금 300만원 및 상장, 해외시찰 특전(1인)
- 우수상(1점): 상금 200만원 및 상장
- 장려상(3점): 상금 50만원 및 상장

● 학생부문

- 최우수상(1점): 상금 300만원 및 상장, ARCASIA 학생캠퍼리 파견 특전
- 우수상(2점): 상금 150만원 및 상장
- 장려상(다수): 상금 50만원 및 상장
- 시·도 건축사 회장상(다수): 상금 30만원 및 상장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부 전화(02)581-5711~4, 587-8504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 건설교통부

후원 / 대한주택공사,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KOREAN ARCHITECTS

建築士

대한건축사협회발행 1995년7월호 통권315호

發行人 : 金圭泰
 編輯企劃 : 編纂委員會
 委員長 : 李俊憲
 委員 : 吳龍大, 李柱勳, 梁海潤,
 崔泰容, 李 龍, 金宗植
 編輯・取材 : 弘報部/梁元錫, 鄭孝相,
 趙漢鳳, 李善模, 尹泰日
 發行處 : 大韓建築士協會
 (協會創立日: 1965년 10월 23일)
 住 所 :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 137-070
 電 話 : 代表 (02) 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 (02) 586-8823
 登錄番號 : 서울 라 26(月刊)
 登 錄 : 1967년 3월 23일
 U. D. C : 69/72(54-2) : 0612(519)
 印刷人 : 李鳳秀/正文社

Publisher : Kim Gyu-Tae
 Editor :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 Lee Chun-Heon
 Member : Oh Yong-Boo/Lee Joo-Hoon/
 Yang Hae-Yoon/Choi Tae-Yong
 Lee Bok/Kim Chong-Shik
 Assistant Editor : Public Relations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 137-070
 Tel : (02) 581-5711, 581-5712~4
 Registered Number : Seoul Ra-26
 Registered Date : March 1967
 U. D. C : 69/72(54-2) : 0612(519)
 Printer :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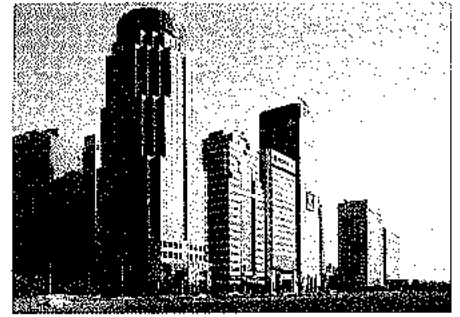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 전재 및 복사
 는 금합니다.

차례

1995년 7월호 통권 315호

05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회사/金圭泰	24
학원작품	
양천구민체육센터 / 李祥林	26
문원동 마을 공동회관 / 柳春秀	34
국제 산공 사옥 / 宋基德	40
농협 인재군 지부 / 韓光鎬+河琴鉉+劉基政	44
쌍용투자증권사옥 / (주)원도시건축+ELLERBE BECKET	50
비평	
도시에서의 인식성(쌍용투자증권사옥) / 李範宰	56
계획작품	
보라매 환타지아 / 金亨泰+全祐健	60
학원갤러리	
사물놀이 / 高昌錫	64
우정은 이내 온가슴을 차지하고 있지만 / 尹汝郁	65
알하며 생각하며	
사고의 전환 / 洪基澤	66
작품노트	
해운대 빌리지 / 趙成龍	68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김정수(2) / 李好璉	72
건축기행	
중남미 문화기행(3) / 金仁赫	76
기고	
'전람회 그림'과 한 러시아 건축가 / 金品東	80
건축, 건축인 그리고 컴퓨터 / 朴贊遠	82
전통건축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3) / 金知民	84
해외건축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5) / 朴孝洵	90
현상설계경기	
울산근로자종합복지관	100
반포종합사회복지회관	102
제주화북지구아파트	104
특계	
1995년도 5월분 설계도서신고 현황	116
협회소식	118



표지사진 / 생음투자증권사옥(원도시건축+ELLERBE BECKET)

CONTENTS

VOL 315. JULY 1995

'95 THE SECOND EXTRAORDINARY GENERAL MEETINGS

Opening Address / Kim Gyu-Tae	24
-------------------------------	----

WORKS

Yangcheon Residence Sports Center / Lee Sang-Leem	26
Munwon-dong Community Center / Ryu Choon-Soo	34
Kukjae Industries Co., Ltd. / Song Ki-Deok	40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nche Branch / Han Kwang-Ho, Ha Keun-Hyeon & Yu Ki-Cheong	44
Ssangyong Investment and Security Co., Ltd. / WONDOSHI+ELLERBE BECKET	50

CRITICISM

The Cognition in Urban Community / Lee Peom-Jae	56
---	----

PROCESS WORK

Boramae Fantasia / Kim Hyung-Tae & Joun Woo-Gun	60
---	----

GALLERY

Korean Music Performance of Four Percussion Instrument / Ko Chang-Seok	64
A Heart Full of Simple Friendship / Yoon Yeo-Wook	65

ESSAY

Conversion of Paradigm / Hong Ki-Taik	66
---------------------------------------	----

WORK NOTE

Haeundae Village / Cho Seong-Ryong	68
------------------------------------	----

SERIAL

Korean Architect, Kim Cheong-Soo / Lee Ho-Jin	72
---	----

ARCHITECTURE TRAVEL

Cultural Travels of the Central South America(3) / Kim In-Cheol	76
---	----

REPORT

"Tableau d'une Exposition" & A Russian Architect / Kim Jeong-Dong	80
Architecture, Architect & Computer / Park Chan-Won	82

TRADITIONAL ARCHITECTURE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3) / Kim Chi-Min	84
---	----

OVERSEAS ARCHITECTURE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5) / Park Hyo-Soon	90
--	----

COMPETITION

Ulsan Total Labor Welfare Hall	100
Panp'o Total Social Welfare Hall	102
Cheju Hwabuk-district Apartment	104

STATISTICS	116
------------	-----

KIRA NEWS	118
-----------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서대문분회/33-6411·관악분회/882-6744·도봉분회/903-3425·영등포분회/632-2143·강동분회/484-6640·강서분회/604-7165·성동분회/446-5244·동대문분회/923-0158·종로분회/735-0905·마포분회/333-6251·송파분회/423-9158·중구분회/279-1415·용산분회/717-6607·서초분회/552-8468·은평분회/388-1486·동작분회/815-3026·강남분회/517-3071·노원분회/933-8076·양천분회/653-2892·중랑분회/437-7355·성북분회/922-5117·구로분회/852-2275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256-9350~4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직할분회/(033')43-6662·인양분회/(0343)49-2698·부천분회/(032)664-1554·성남분회/(0342)755-5445·의정부분회/(0351)876-0458·송탄분회/(0333)666-6153·고양분회/(0344)63-8932·구리분회/(0346)63-2337·이천분회/(0336)635-0545·광명분회/(02)684-5845·연신분회/(0345)80-9130·시흥분회/(032)694-4121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원주분회/(0371)43-7290·강릉분회/(0391)41-7371·속초분회/(0392)33-5081·삼척분회/(0394)31-8708·영월분회/(0373)374-2659

■충청북도건축사회/(0431)56-2752·53-7342
충주분회/(0441)847-3082·제천분회/(0443)43-6253·옥천분회/(0475)33-3502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천안분회/(0417)551-4551·홍성분회/(0541)32-2755·부여분회/(0463)835-2217·대천분회/(0452)34-3367·서산/(0455)64-8500

■전라북도건축사회/(0652)87-6007~8

대리분회/(0653)52-3796·고신분회/(0654)43-3816·남원분회/(0671)32-5000

■전라남도건축사회/(062)346-7567·33-9944
목포분회/(0631)72-3349·순천분회/(0661)743-2457·여수분회/(0682)32-5000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2-8317~8

포항분회/(0562)44-6029·경주분회/(0551)772-4710·구미분회/(0546)51-1537~8·안동분회/(0571)54-4832·김천분회/(0547)434-2541·영주분회/(0572)34-5560·점촌분회/(0581)53-6677·상주분회/(0582)32-5888·경산분회/(053)812-6721·달성분회/(053)634-6336·영천분회/(0536)34-8256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울산분회/(0522)74-8836·진주분회/(0531)745-6403·통영분회/(0557)645-7420·김해분회/(0525)35-5692·밀양분회/(0527)355-4848·거창분회/(0598)43-6090·양산분회/(0523)84-3050·거제분회/(0558)635-3432·상천포분회/(0593)33-9779

■제주도건축사회/(064)52-3248

서귀포분회/(064)62-2233

대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사다망하신줄 익히 알면서도 역대회장님을 비롯한 대의원여러분을 재차 모시게 되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자리가 한국건축계와 우리 협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기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개혁에 동참해 주길...

The Firm Determination to Accomplish
the Reformation

金圭泰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작금의 우리 현실은 세계각국의 경쟁자들에게 우리의 시장을 열어주고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적자생존의 치열한 경쟁에 대응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전 건축계 차원에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 기회를 틈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국내에서 설계점업을 목적으로 한건연은 종합건설업면허제 도입을, 여타 건설업체는

건축사법 23조의 개정을 관계요로에 강력히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이의 저지를 위해 협회의 힘을 소모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부실공사방지를 앞세워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법령들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대응노력에도 협회의 정력을 소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사회 곳곳에서 구호처럼 쏟아지고 있는 세계화, 선진화가 말해주듯이 우리 건축계의 새로운 변화와 변신 또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연적으로 실천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모두의 새로운 각오와 결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생존조건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시장개방이라고 하는 또하나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그동안 변화와 변신을 외면한 채, 기존의 틀에만 안주하려해 왔던 우리 건축의 낡은 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미 지난 임시총회에서 이렇듯 위기에 처한 우리 건축의 어려운 현실을 걱정하면서 우리 건축계가 거듭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강력한 개혁 추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협회는 대의원 여러분의 의지를 받들어 지난 3개월간 개혁추진위원회에서 연구, 보완을 거쳐 대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오늘의 안건들은 지난 3월 임시총회때 제시된 안의 미비점들을 보완하여 단기·중장기로 구분한 계획들 가운데 단기계획만을 담고 있으며 오늘 상정되지 않은 중장기안에 대해서는 차기 총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개혁추진을 함에있어 최소의 인력과 예산으로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우선 95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4억원, 특별회계 10억원을 건축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비제도 개선을 비롯한 연금제도, 공제사업, 정관개정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들을 단기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며, 이러한 단기사업을 기반으로, 한국건축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을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 실천 가능성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회원모두의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는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연금특별위원회가 오랜기간 신중한 협의를 거쳐 최상이라고 판단해 주신 안을 오늘 여러분께 제시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대의원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지난 30년간 지속 되어온 건축계의 문제점을 청산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틀을 벗겨내고 스스로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당위성 차원을 넘어 우리가 필연적으로 성취시켜 나가야 할 절대절명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을 있게한 제도나 체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뒤쳐져 미래의 행보를 막는 걸림이 된다면 과감히 떨쳐버리고 현실에 맞게 재정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지난 시대의 안일과 소모적 논쟁으로 우리가 겪어왔던 갈등과 혼란을 되풀이 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부적 합의와 결집으로 우리의 개혁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 회원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자리가 한국건축의 오늘을 지켜온 우리 건축사들의 일대개혁으로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향한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엄숙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협회는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화합과 결속으로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기 위한 견고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과 협회의 결집된 힘의 과시를 위해, 오는 9월 28,29 양일간 제주도에서 「창립30주년기념행사를 겸한 교육」과 「한국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열리는 행사입니다만 전 회원이 참여하여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시대에 우리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협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곳곳이 헤쳐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모으는 뜻깊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대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오늘의 총회가 큰 결실을 맺게되길 기대하며, 끝으로 회원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드리면서 개회사에 대신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6.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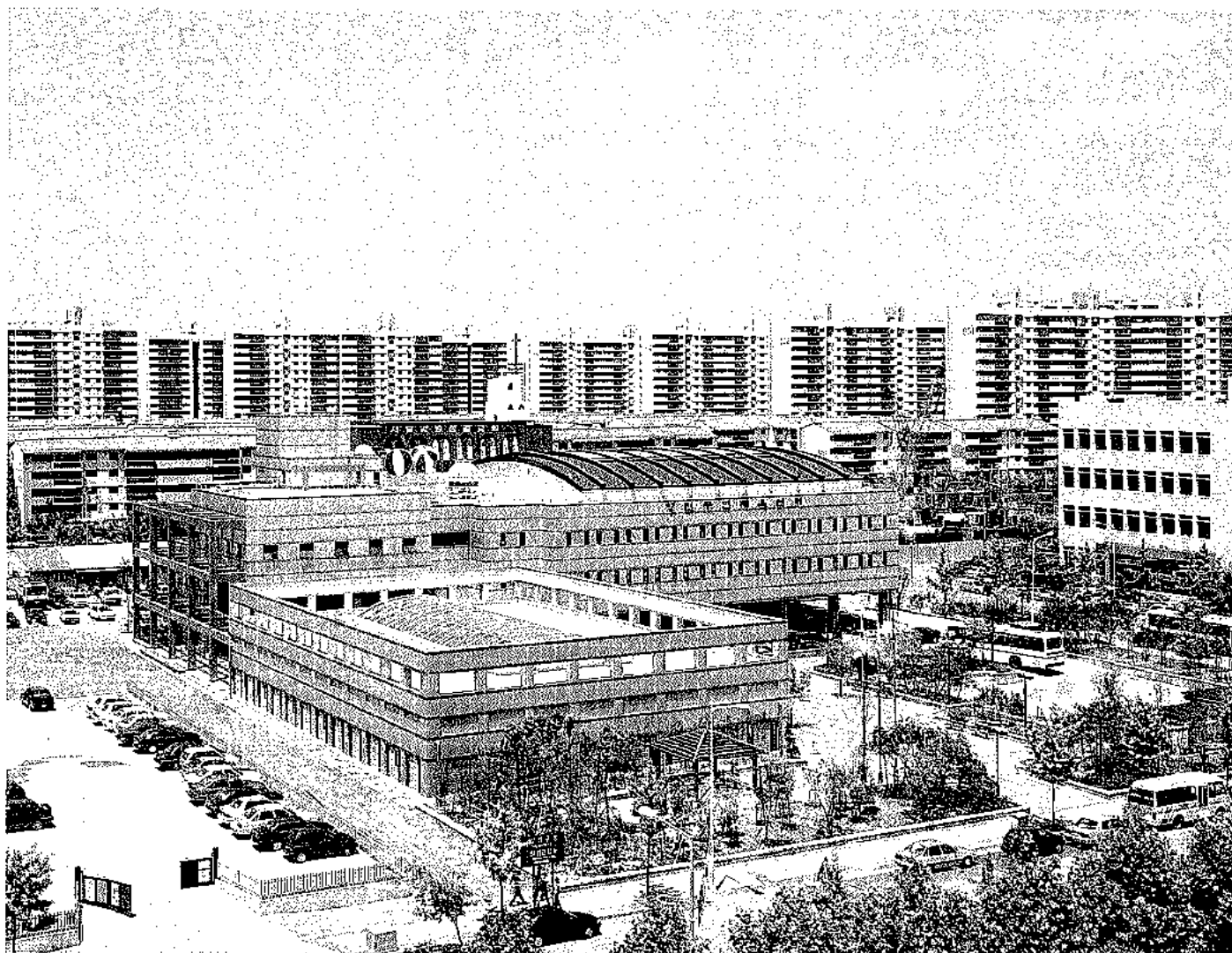
학원작품

양천구민체육센터

Yangcheon Residence Sports Center

李祥林 /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Sang-Leem



전경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22-10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구, 고도3종지구, 주차장별지구, 2종미관지구

대지면적 / 3,877.1㎡

연면적 / 7,982.7㎡

건축면적 / 2,637.3㎡

건폐율 / 38.35%

용적률 / 52.19%

규모 / 지하2층, 지상3층, 옥탑2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Space Frame

외부마감 / THK 4.0 알루미늄복합패널, THK 16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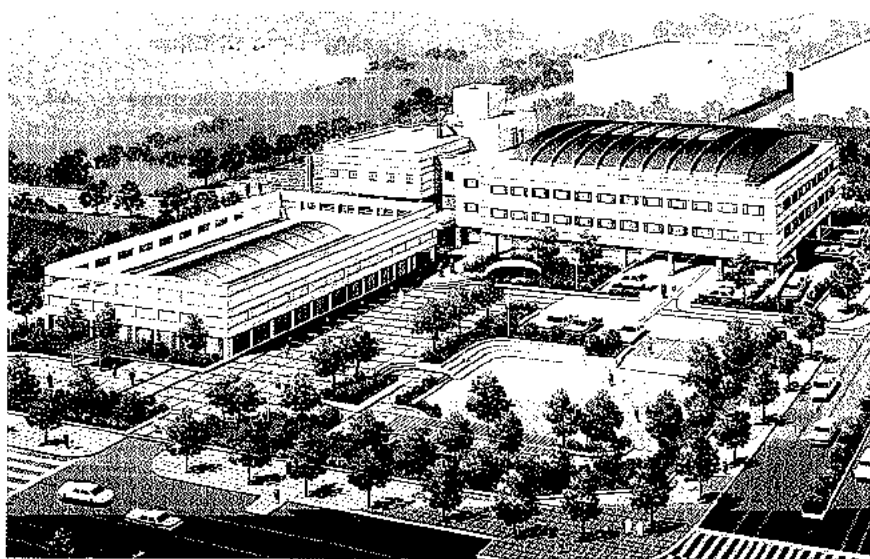
건축 · 토목, 기계설비 / (주) 새한공영

전기 / (주)태림종합개발

조경 / 한림종합건설(주)

공사기간 / 92. 12 ~ 9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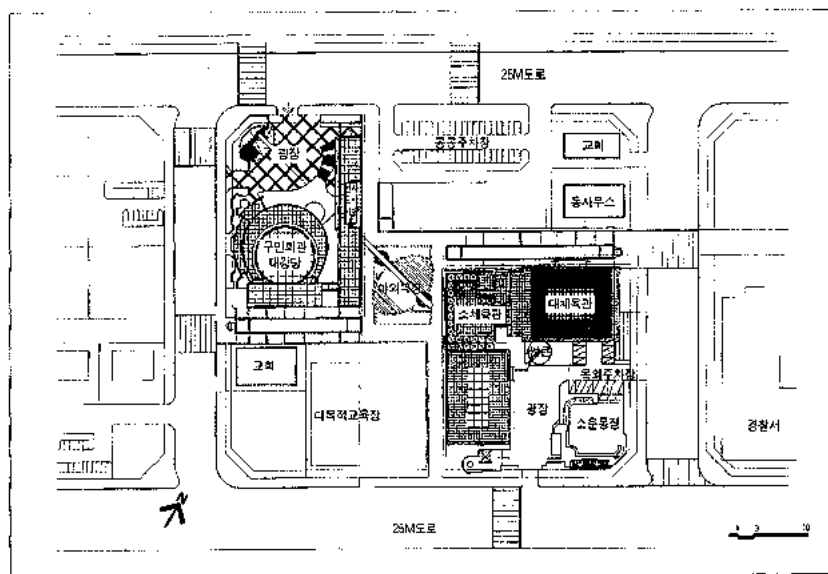
설계담당 / 김남길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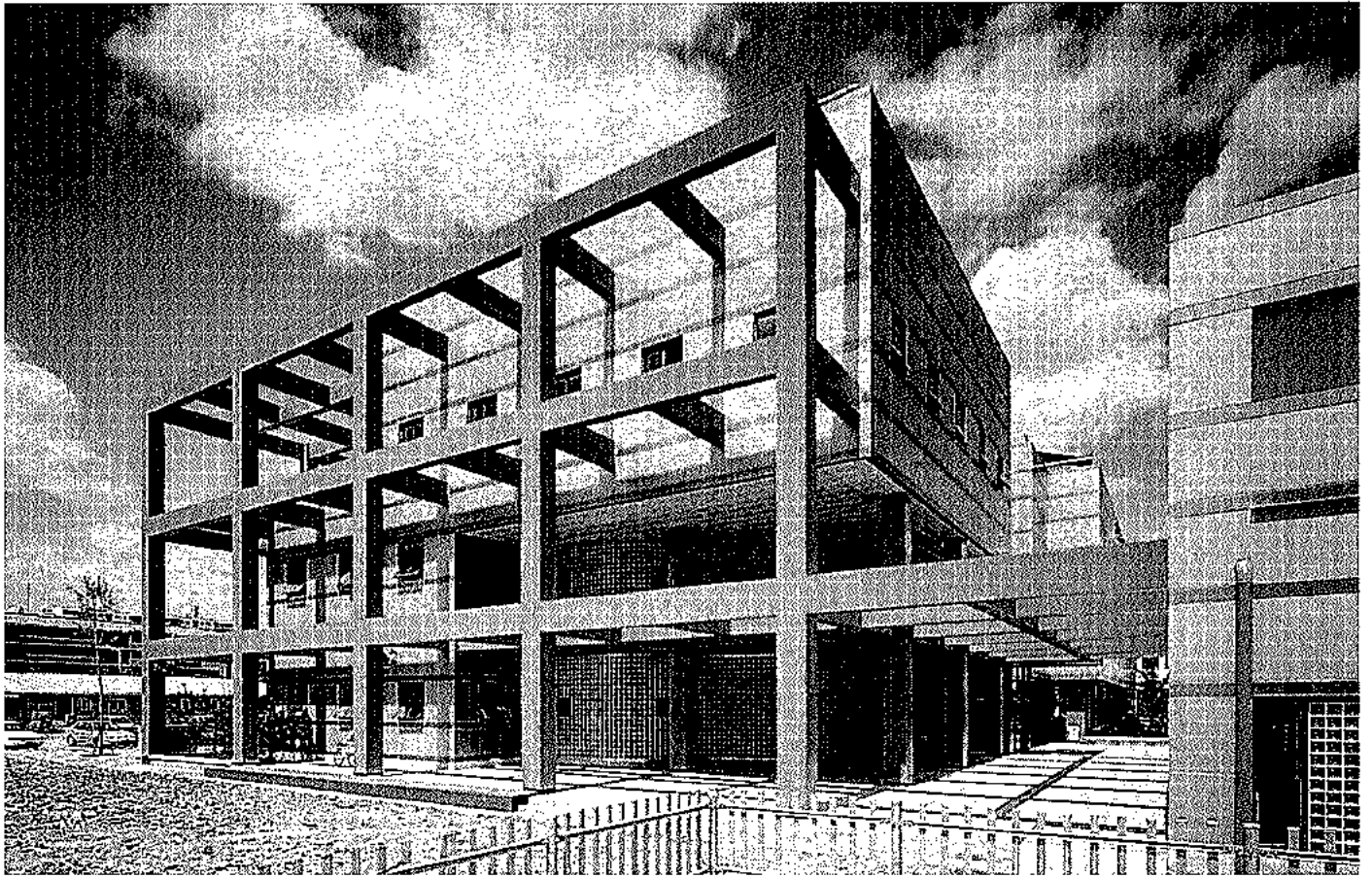


북측에서 본 대체육관 옥외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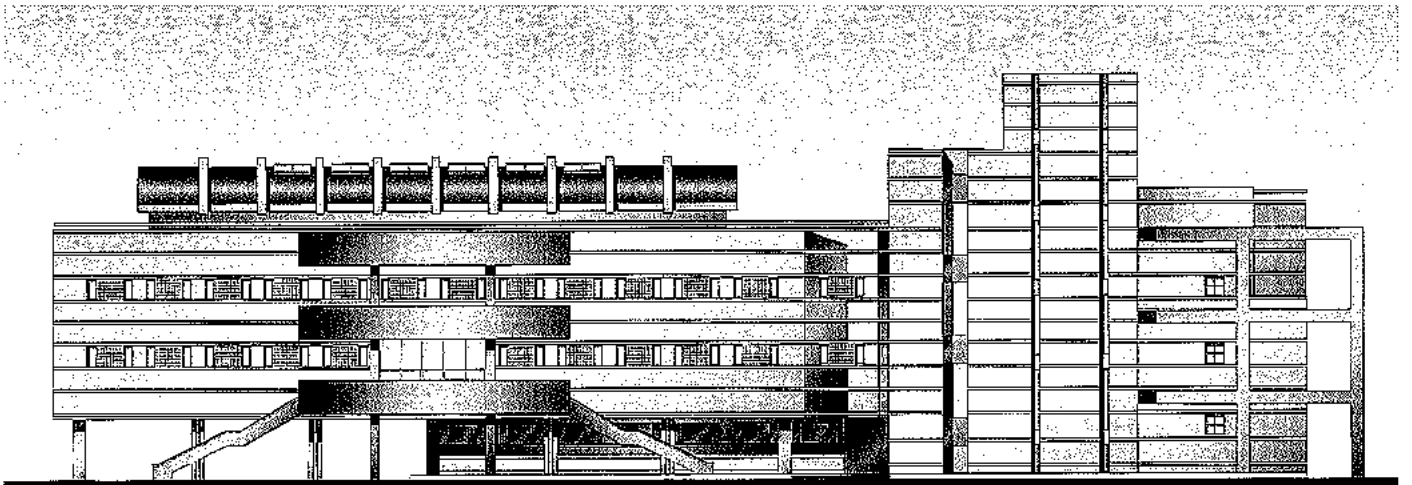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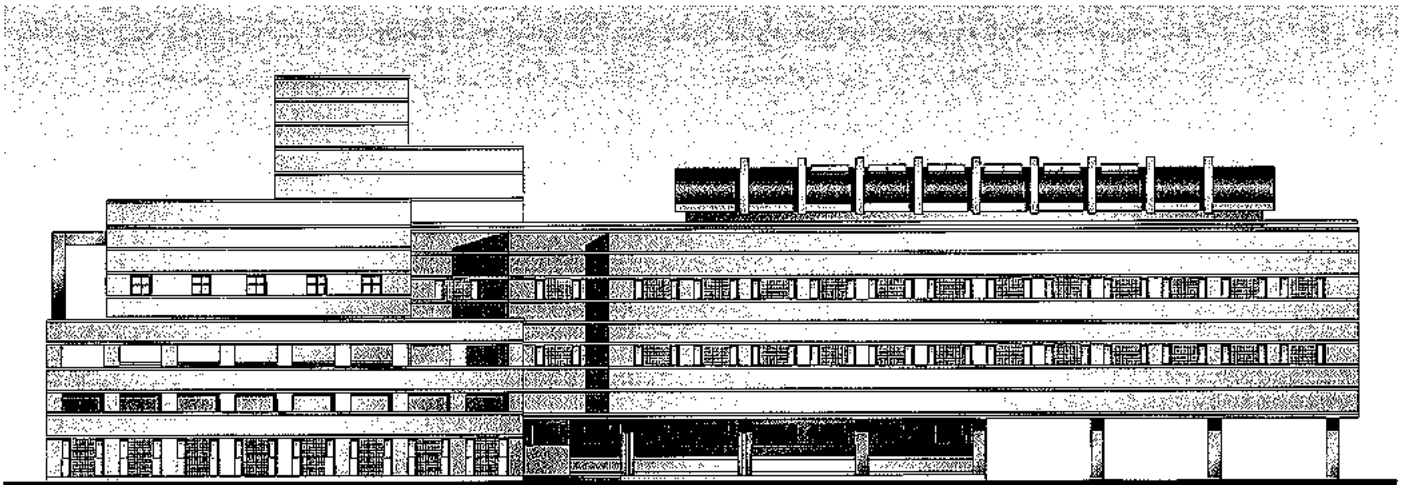
Location / 322-10, Shincheong-dong, Yangcheon-gu, Seoul
 District / Commercial etc.
 Site Area / 3,877.1㎡
 Gross Floor Area / 7,982.7㎡
 Bldg. Area / 2,637.3㎡
 Bldg. Coverage Ratio / 33.35%
 Gross Floor Ratio / 52.19%
 Bldg. Scale / 25Stories Below Ground, 35Stories Above
 Ground, 2Stories Penthouse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pace Frame
 Exterior / THK 4.0 Aluminum Composite Panel, THK 16
 Double Glazing
 Mechanical Services / Saehan Co.
 Electric Installation / Taerim Co.
 Landscaping / Hallim Co.
 Construction Period / 92. 12 ~ 95. 4
 Designer / Kim Nam - Kil



구민회관과 연결 피로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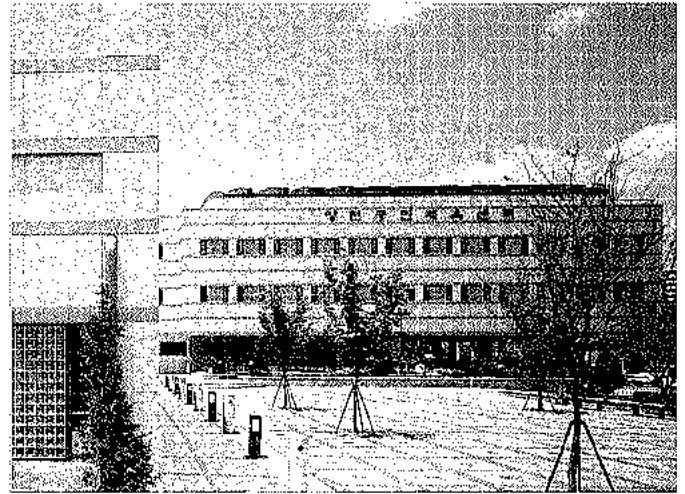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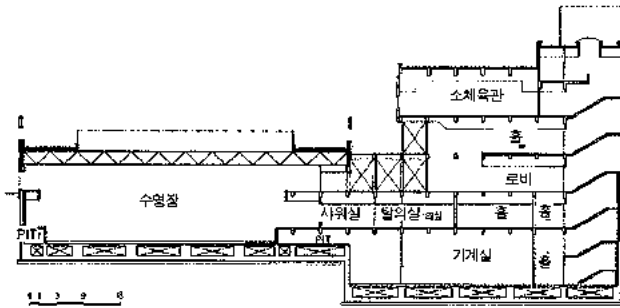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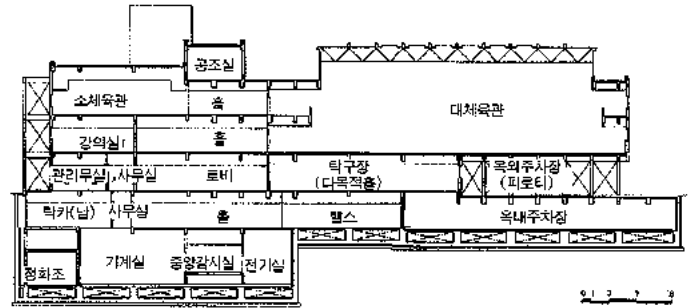
전면광장 및 놀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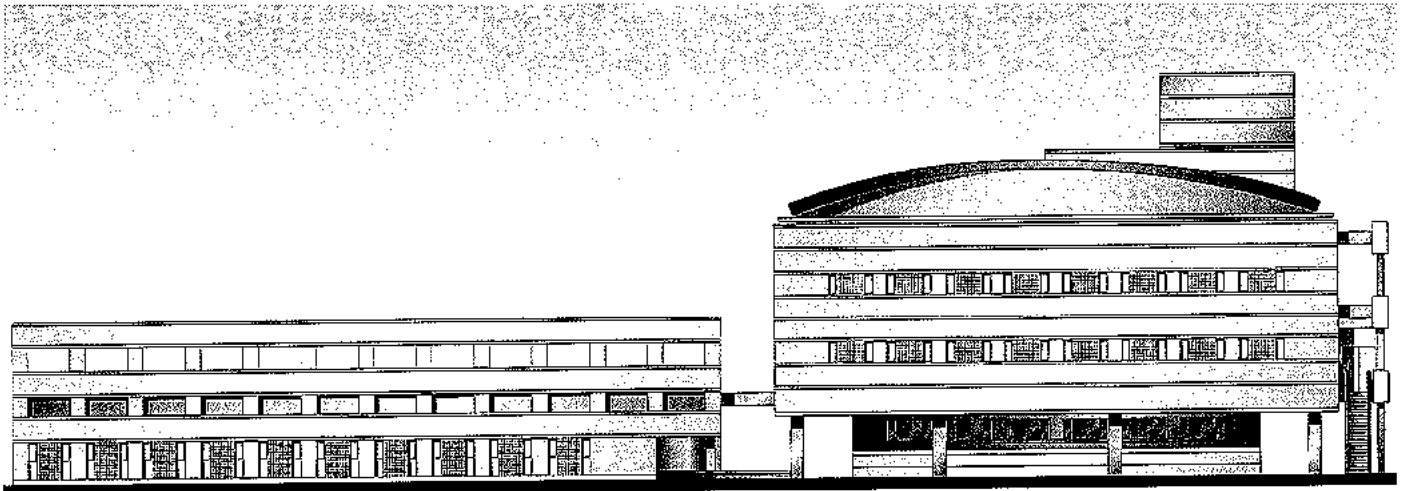
정면 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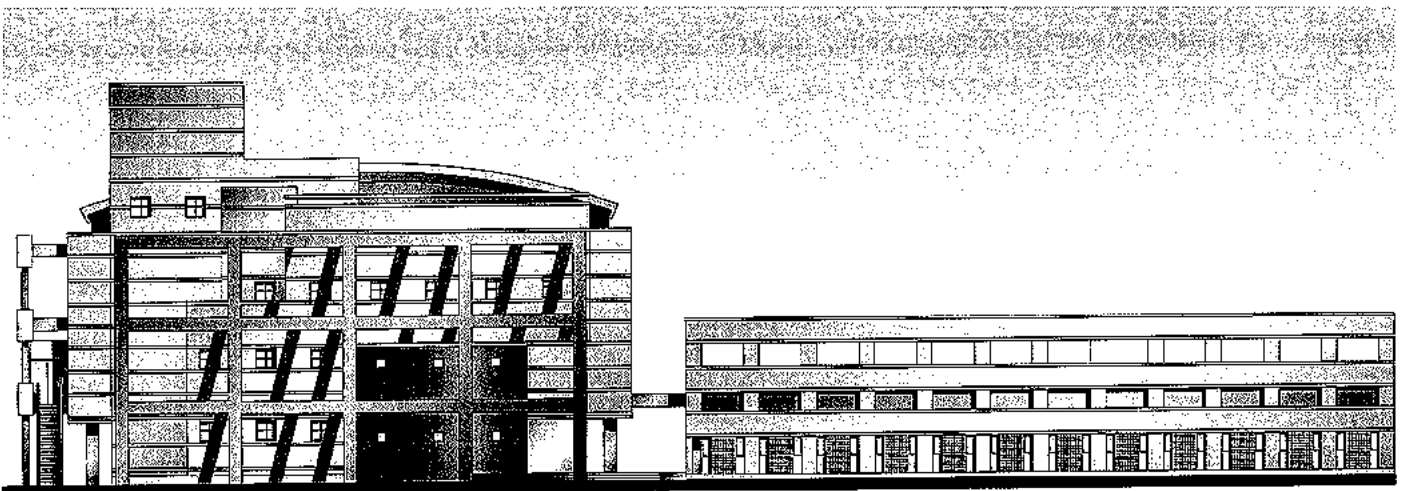
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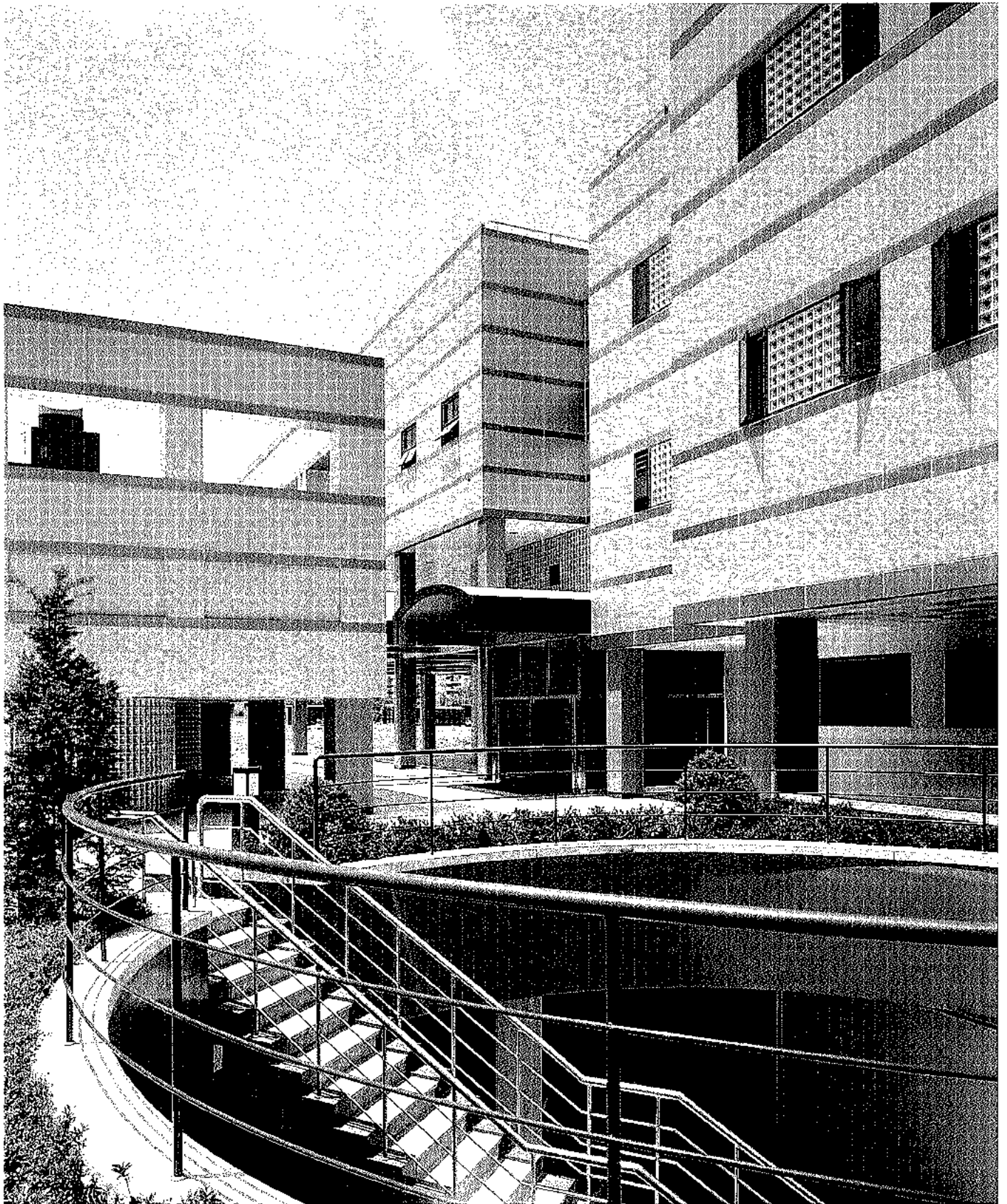
단면도 2



동측면도



서측면도



동쪽에서 본 선라가든 입구 및 주출입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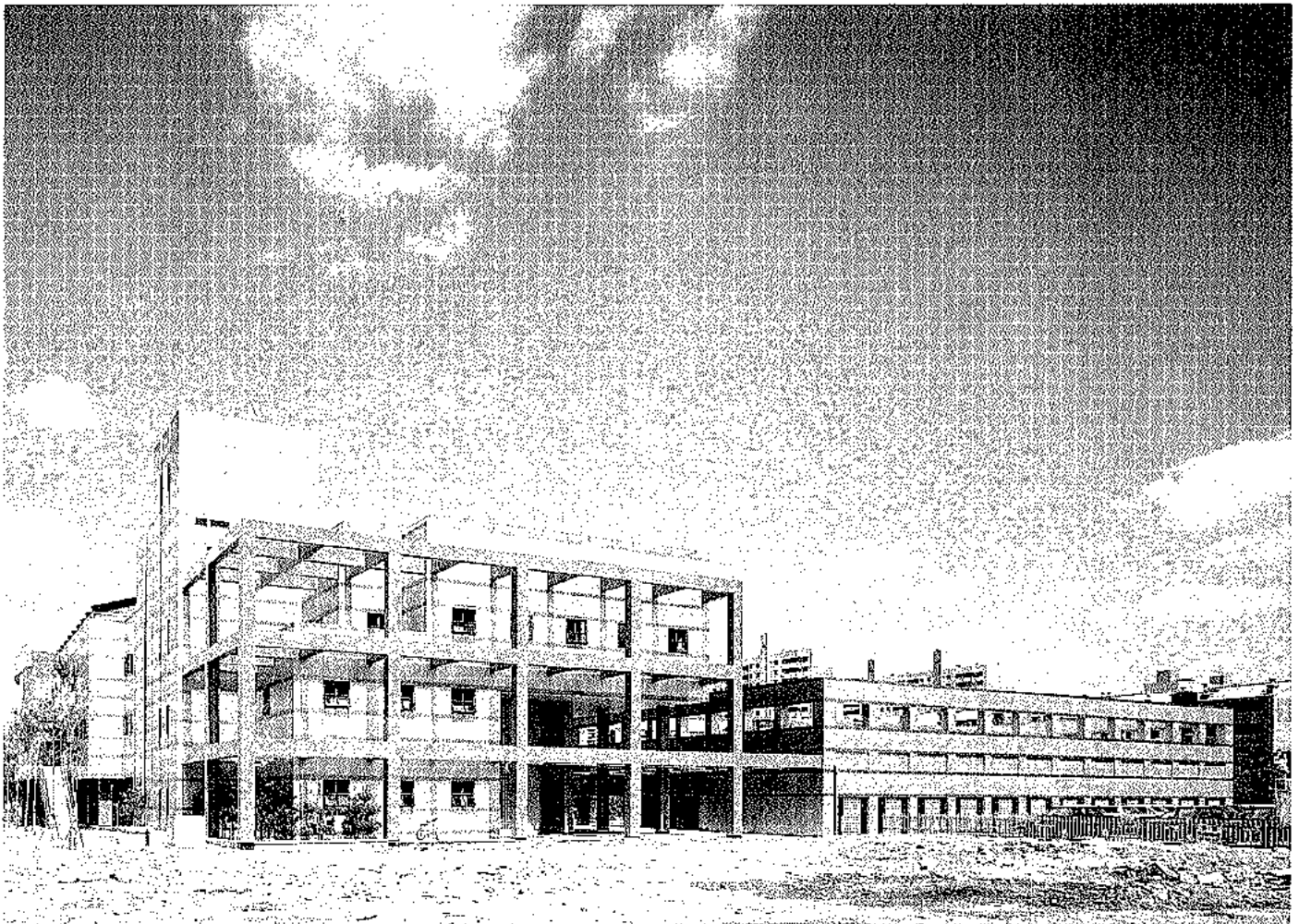
양천구의 중심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건립이 완공되어 이제 쾌적한 주거환경이 어느덧 자리매김을 하고, 중심축이 개발되기 시작할 무렵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목동의 중심축 블록17은 문화복지시설로서 블록16의 공공행정시설과 연계되어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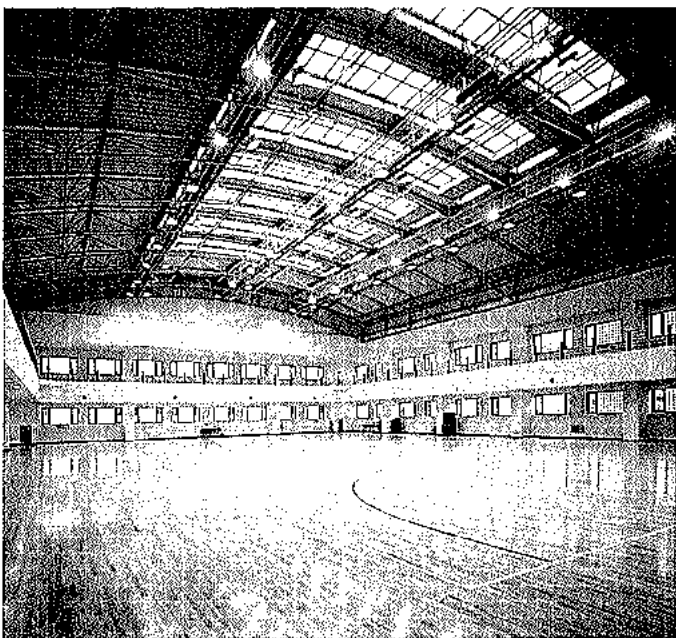
주민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 스포츠 시설이 계획되었다.

건물의 배치는 목동의 도시설계에 의거 건물의 주방향은 제한되고 있으나, 대지의 효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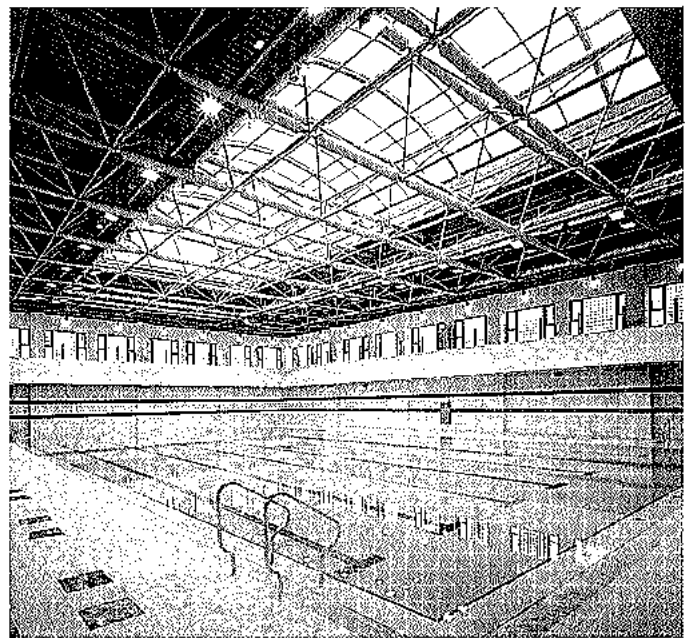
적 이용과 옥외공간에 시민휴게공간, 진입광장, 놀이마당, 운동공간을 고려하고, 블록17의 중앙광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수영장과 대체육관을 분리하고, 연결부위를 필로티처리하여 지상에서 직접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계당시 생각지 못했던 구민회관과도 현상



북서측 전경



대체육관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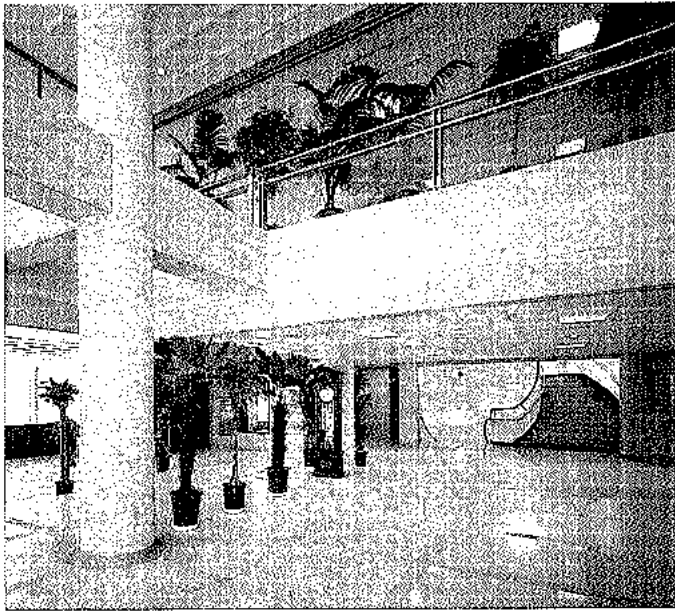
설계를 통해 당선되어 중앙광장을 활성화하여, 야외극장 및 휴게공간을 설치하여 블럭 17의 중심점이 되게 계획되었다.

목동아파트의 단조롭고 평면적인 외관을 탈피하여 체육센터로서의 활동적인 이미지 창출을 위해 경쾌한 금속의 이미지를 갖춘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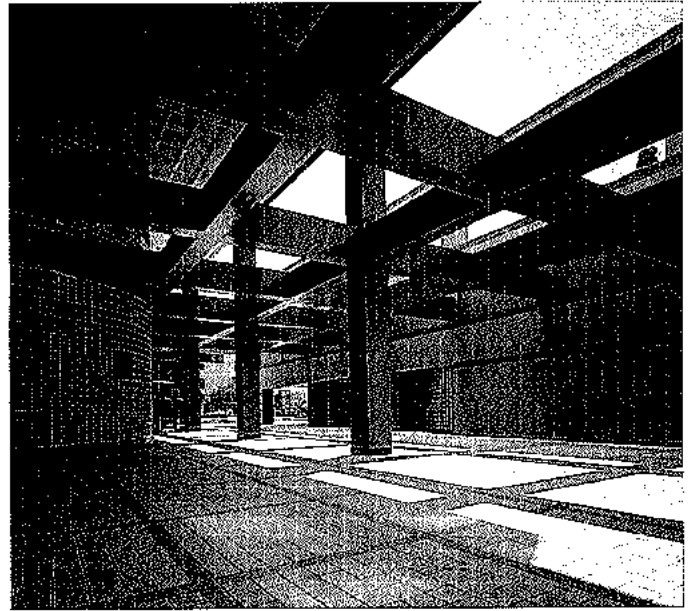
미늄이 사용되고, 자연채광을 적극도입하여 체육관, 수영장의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였다.

당초 예산상의 사유로 공사 계획 당시 반영되지 못한 종합 스포츠시설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보울링장, 각종 구기장, 스쿼시 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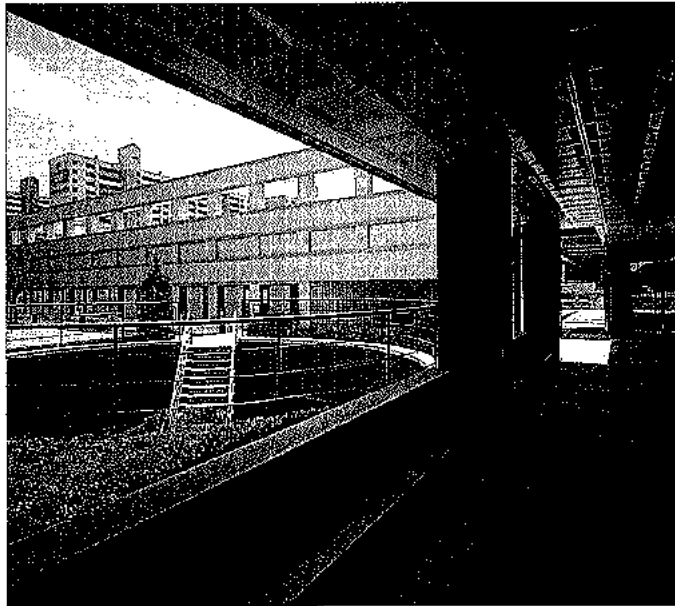
트 등의 충분한 면적 확보와 내외부자재의 고급화, 인테리어 보강 등의 아쉬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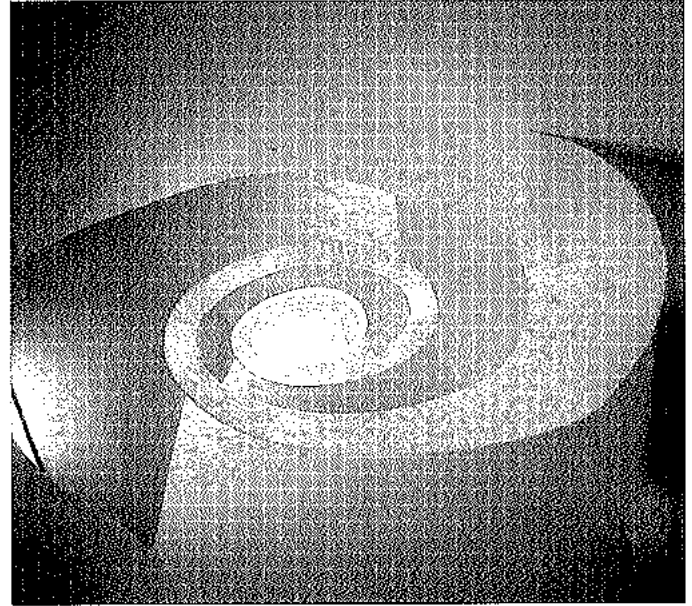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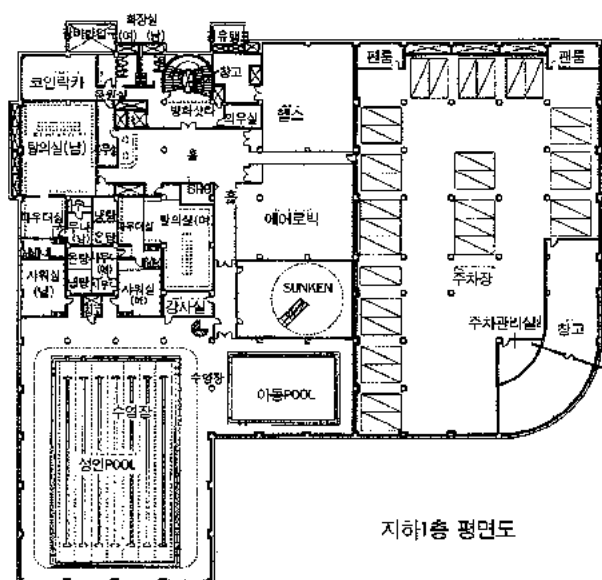
정면 피로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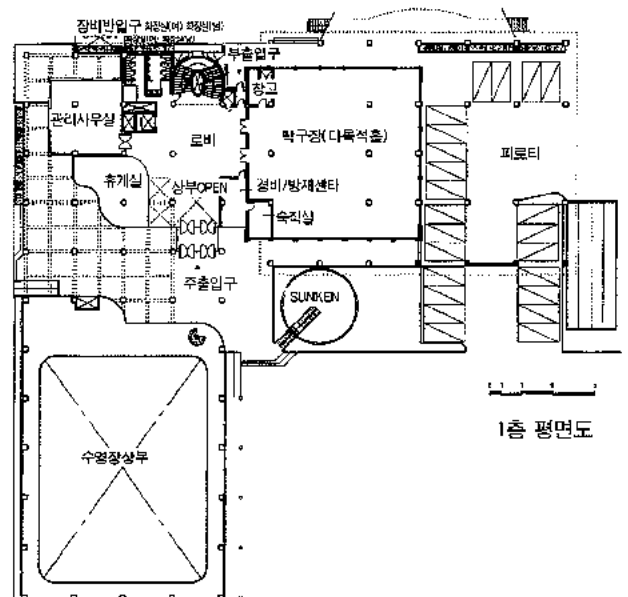
대체육관 피로티에서 수영장을 바라봄



올려다 본 계단실 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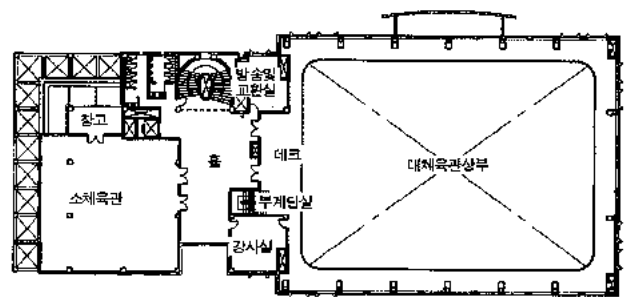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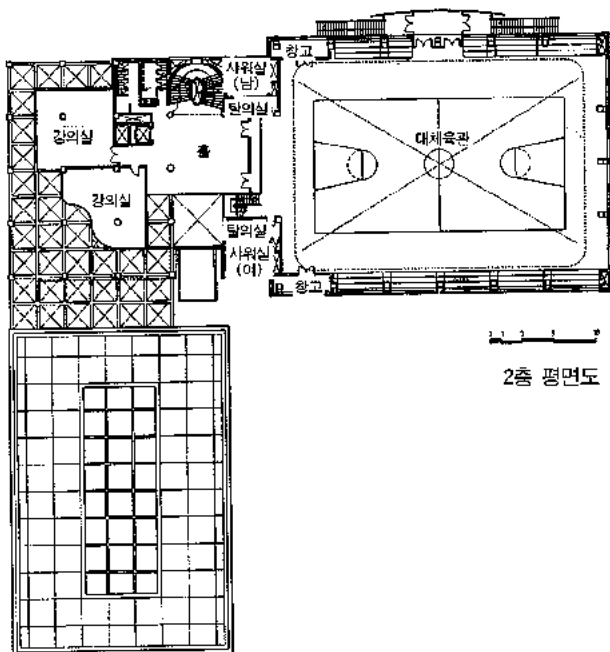
지하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선큰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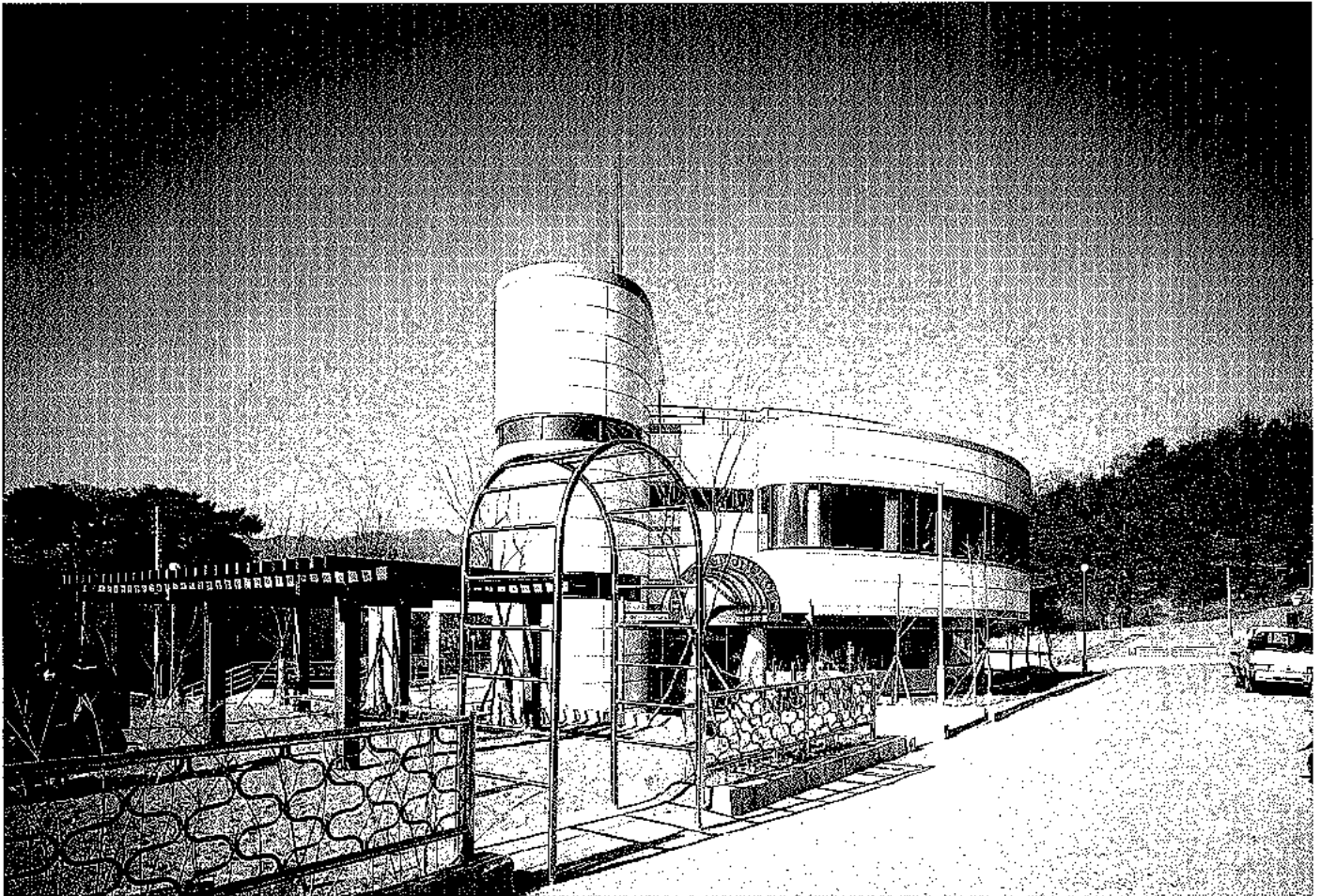
회원작품

문원동 마을공동회관

Munwon-dong Community Center

柳春秀 / (주)아공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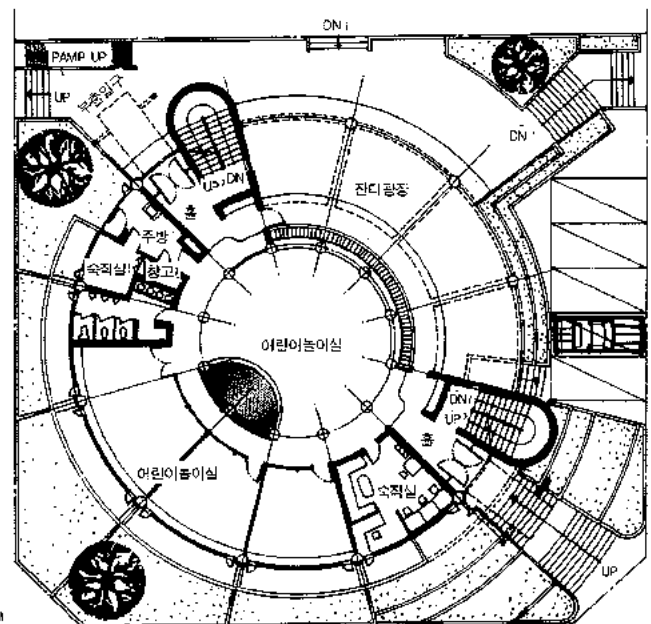
Designed by Ryu Choon-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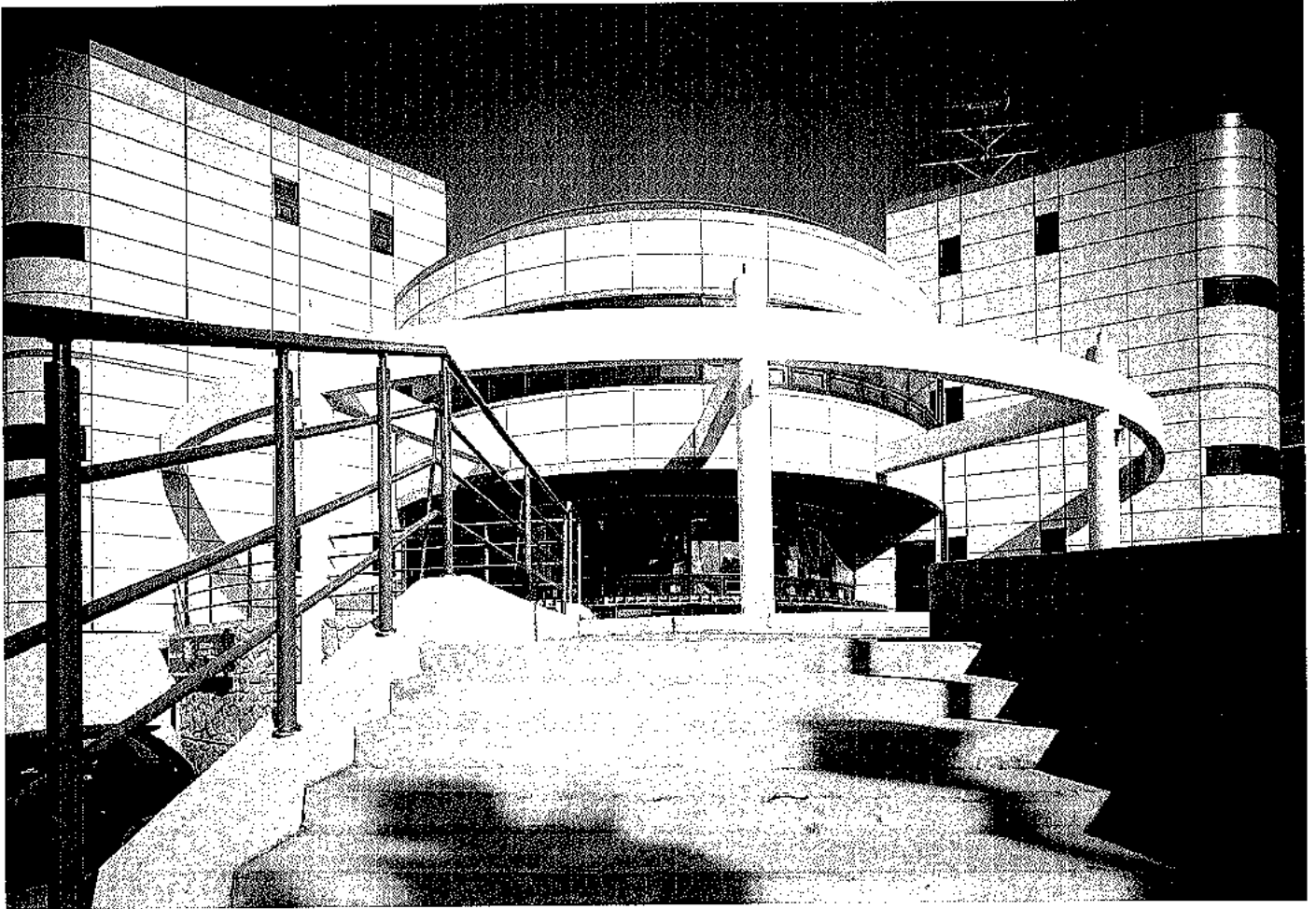
동측전경

위치 / 경기도 과천시문원동
 대지면적 / 981.00㎡
 건축면적 / 416.00㎡
 연면적 / 1,027.97㎡
 건폐율 / 42%
 용적률 / 73%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리멘트
 외부마감 / 알루미늄 쉬트
 주차대수 / 5대
 설계담당 / 김형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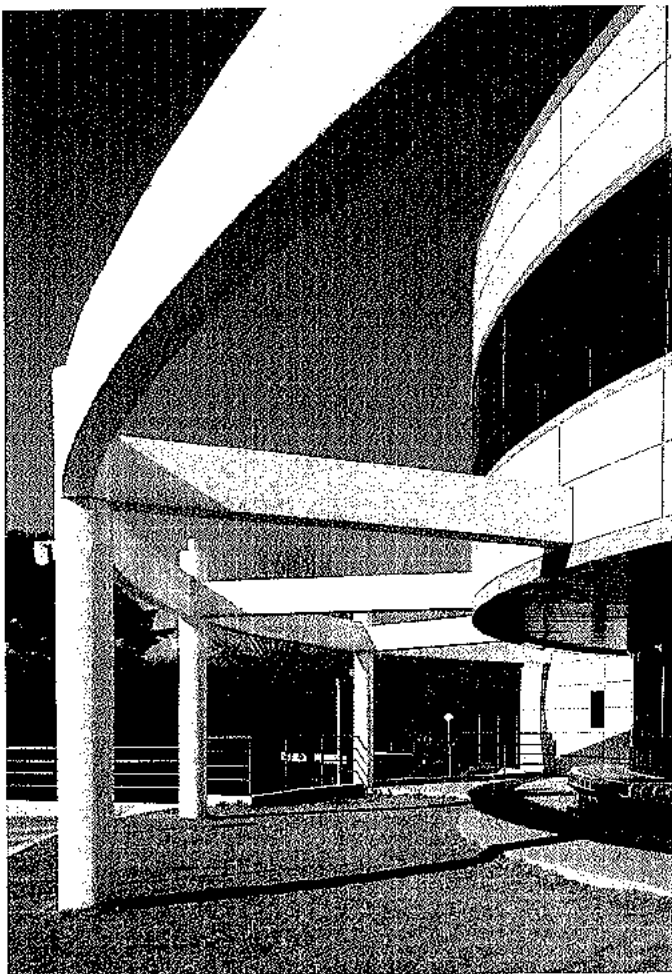
Location / Mounwon-dong, Kwachon-shi, Kyunggi-do
 Site Area / 981.00㎡
 Bldg. Area / 416.00㎡
 Gross Floor Area / 1,027.97㎡
 Bldg. Coverage Ratio / 42%
 Gross Floor Ratio / 73%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2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C
 Exterior Finish / Aluminium Sheet
 Parking / 5Cars
 Designer / Kim Hu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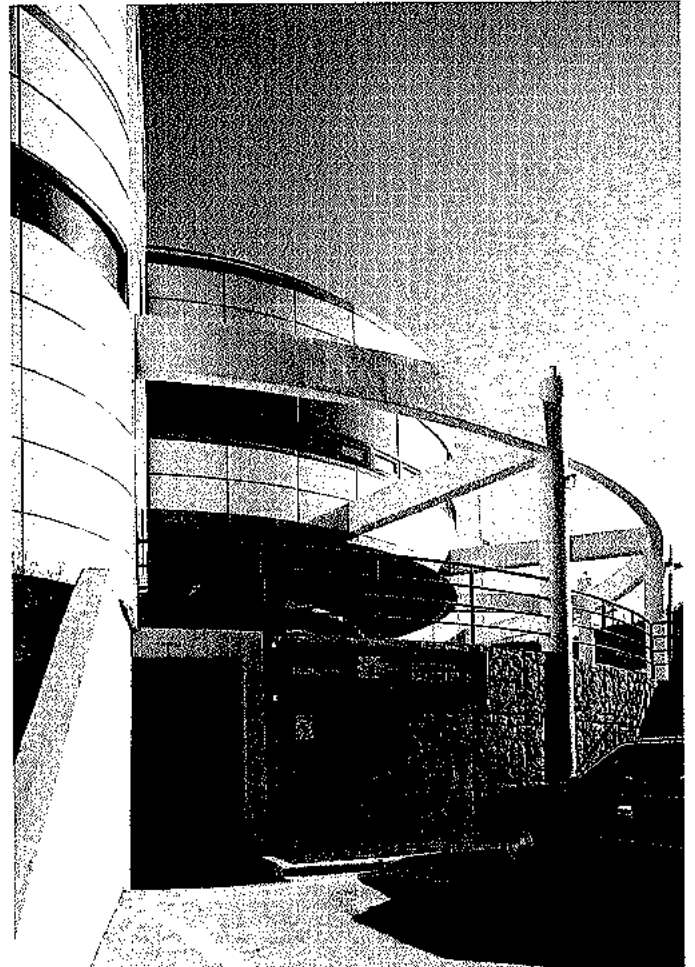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평면도



남서측 계단에서 본 외부상세



남동측에서 본 진디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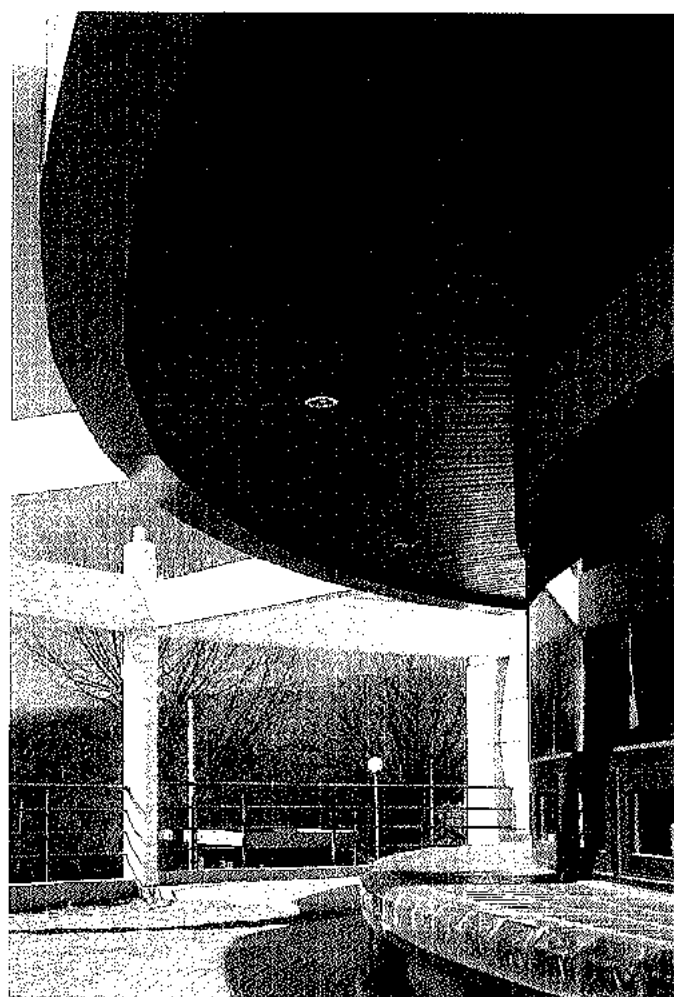
서측 주차장에서 본 벽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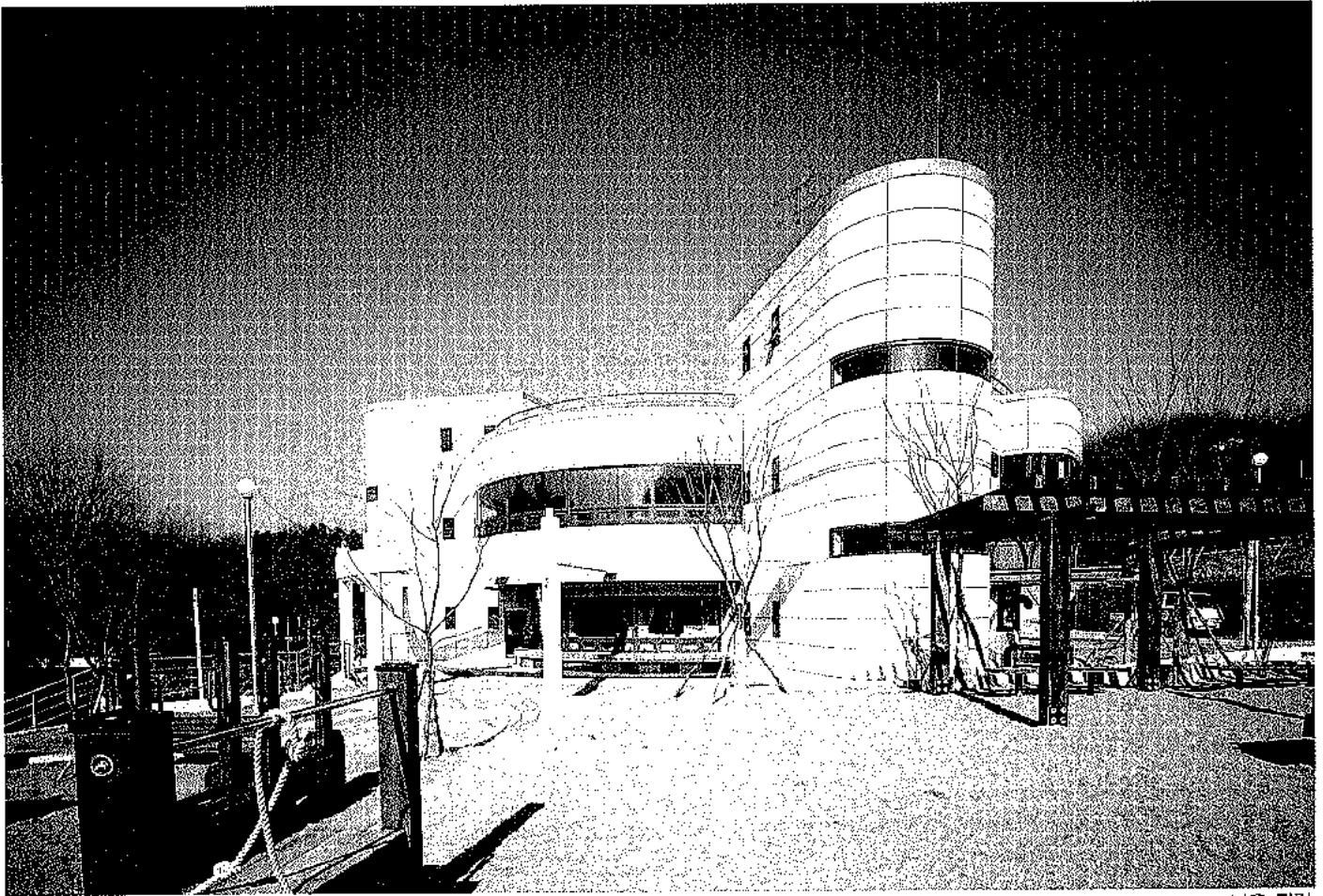
남측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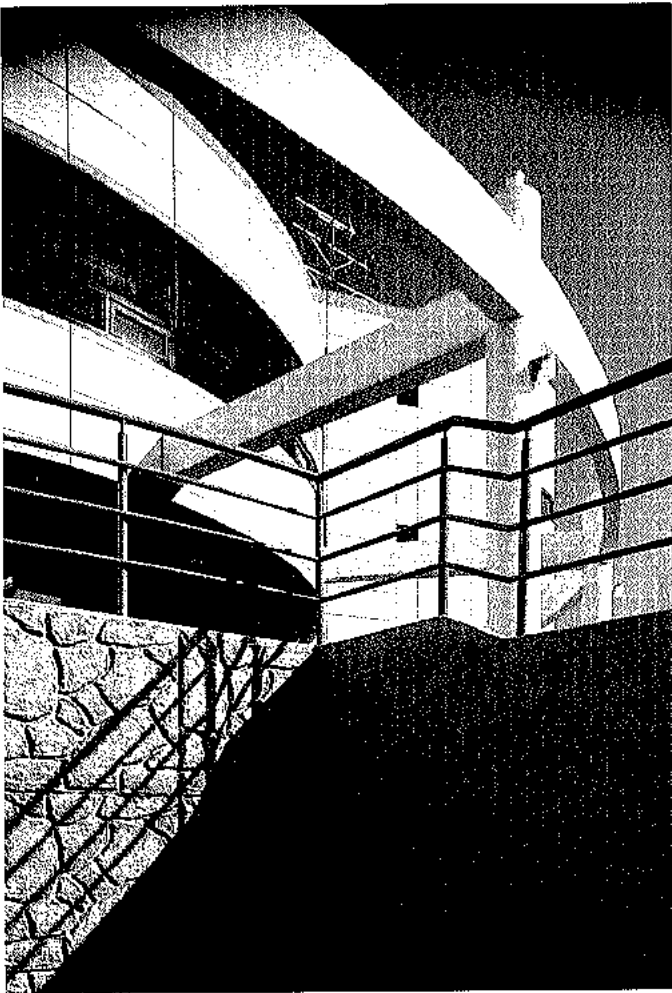
2층 외벽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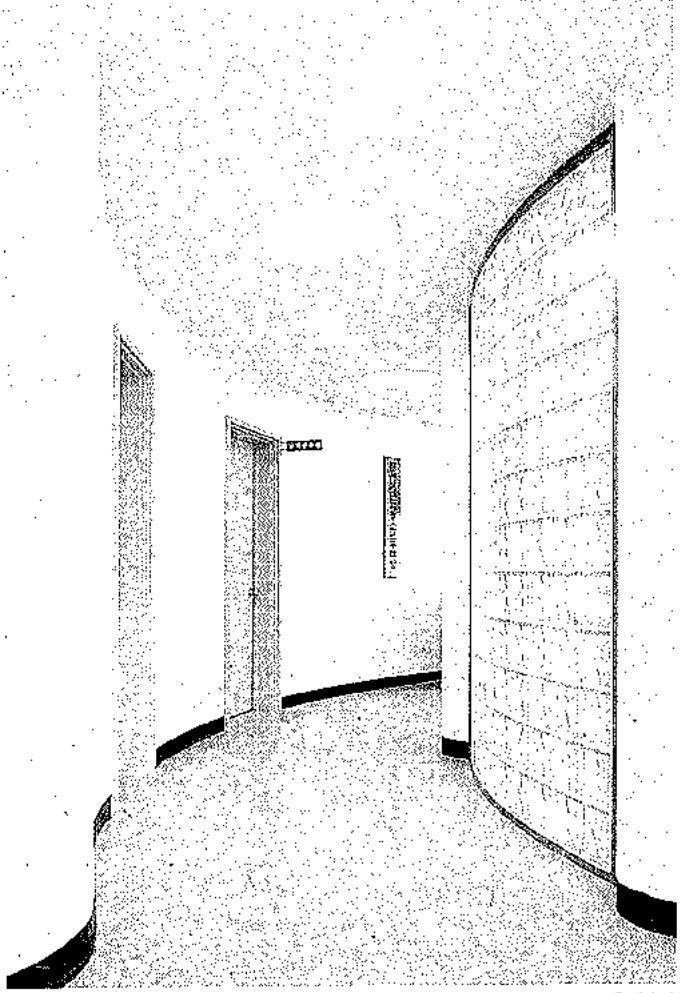
1층 외벽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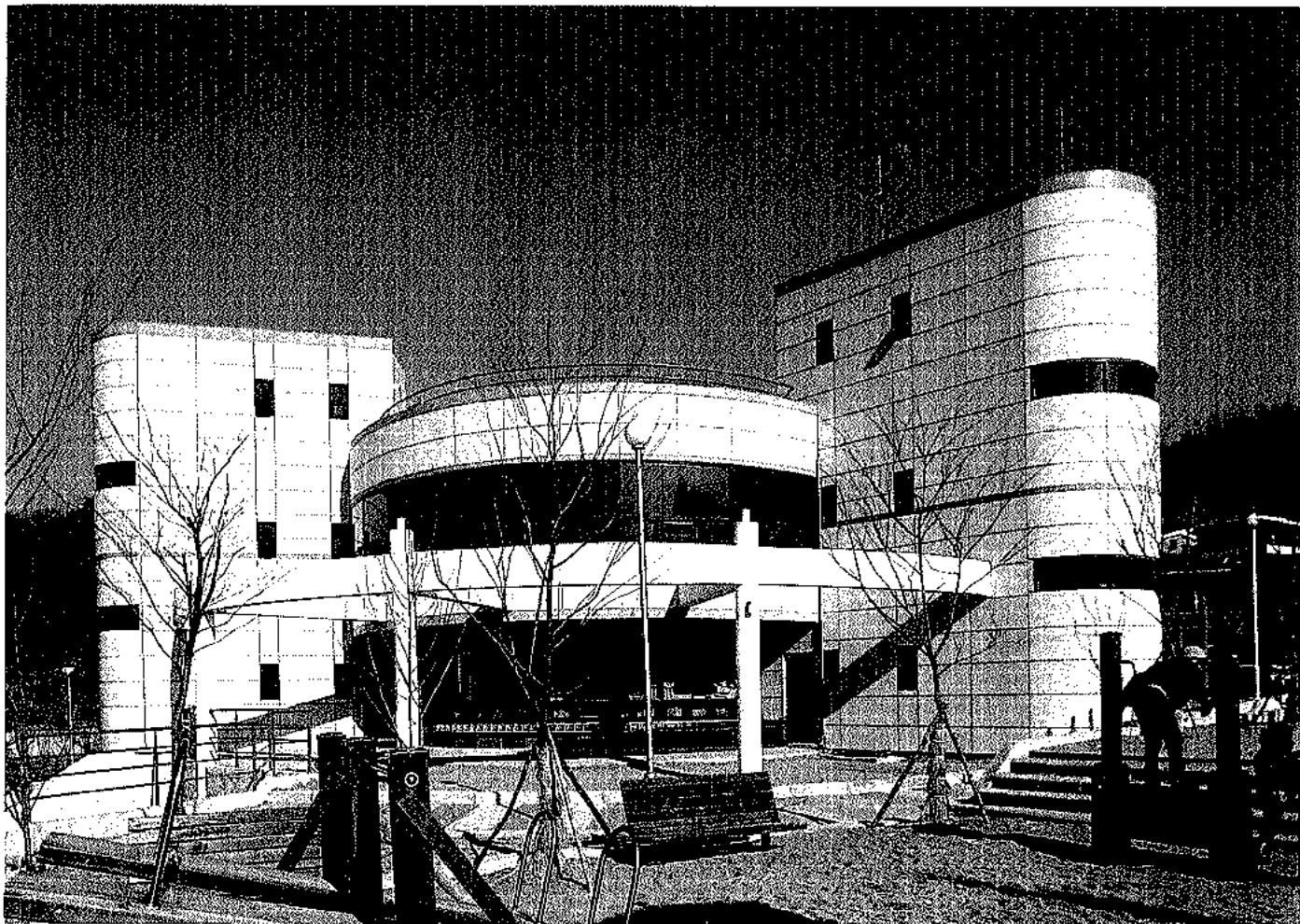
남측 전경



남서측 주차장에서 올라다 본 2층 회의실



2층 복도



남서측 전경

사람들은 일상에 익숙해지면서 일상에서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한 접근이 일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노력에 대한 목적들도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첫째로 공동체 의식속에 자리한 자아실현을 중요시하였다.

마을회관의 설계진행상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개념의 출발이며 완성된 건축물이 보여야 할 언어였다. 마을회관이라는 주제가 지니고 있는 일상적 개념은 지역공동체 발전에 있다.

따라서 기능과 형태에 대한 수사적 기법이 상당히 대중화되어야 하며 친밀감 있도록 표현되어야 하고 그것의 접근성 또한 개방적이지 않으면 안되는 기본요구를 가지고 있다. 동시에 "우리"라는 개념속에서 "나"의 존재를 스스로 확인시키고자하는 것은 일상으로부터의 자아발견을 위한 최소한의 욕구인 것이다.

결국 "복수"와 "단수"가 동시에 성립되기 위하여 양원론적인 접근방법을 택하여 일상속에서 일상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우리가 진행시켜온 마을회관도 공적인 기능을 사적(私的)인 용기(用器)에 담아내는 것이 그 목표점이었었고 더 나아가서 사적인 용기가 스스로 공적인 기능에 융화되어 대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두번째로 시각적 접근을 통한 공간체험을 배려하였다.

문원동 마을회관은 과천중심지의 배면에 형

성되어진 주택가에 위치하며 기존의 어린이 놀이터가 마을공동체의 한 핵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주변의 인문적 환경조건은 양호하였으며, 대지가 약간의 경사를 이루고 있어 접근성 또한 용이하게 실현할 수 있었다.

개방감과 친밀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해결방법으로는 곡선의 인용으로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입면상의 수법과 옥상의 Tent설치로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것이었다. 결국, 곡선과 Tent라는 수사학적 표현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각적 자극을 통하여 접근을 유도하게 되며 전면으로 인식되어지는 열려진 옥외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전면의 옥외공간을 중심으로 좌우대칭되어 돌출된 곡면의 계단실은 건물의 주진입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기에 충분하며 우리는 그러한 혼란을 "충동"으로 환원시키기 위하여 절제된 형태의 출입구를 돌출시켜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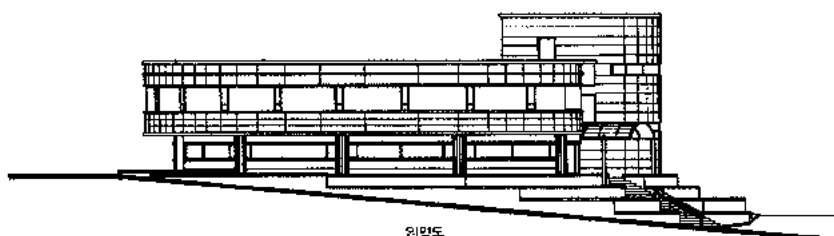
진입계단과 돌출된 출입구 캐노피를 통하여

전개되어질 공간의 기대감을 증폭시키며 시각적 접근을 유도하는 공간구성은 내부에서도 계속되어진다.

세번째 관건이 현실과 이상이다.

우리는 마을회관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고자 했으며 "우리"속에서 "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중적 기능과 고유한 형태를 동시에 성립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빈공간을 실현했으며 대중을 대상으로 한 시간적 체험과 공간의 기대감을 확장시키고자 하였다. 물론 고유한 형태로써 "자아실현"을 구현하고자 하였던 우리의 진행도 결국 현실속에서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였지만 구체적 언어를 통한 "홀로서기"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끝으로 실행상의 문제로 옥상광장에서 이루어질 수 많은 행위가 이상으로 마감되어짐을 안타까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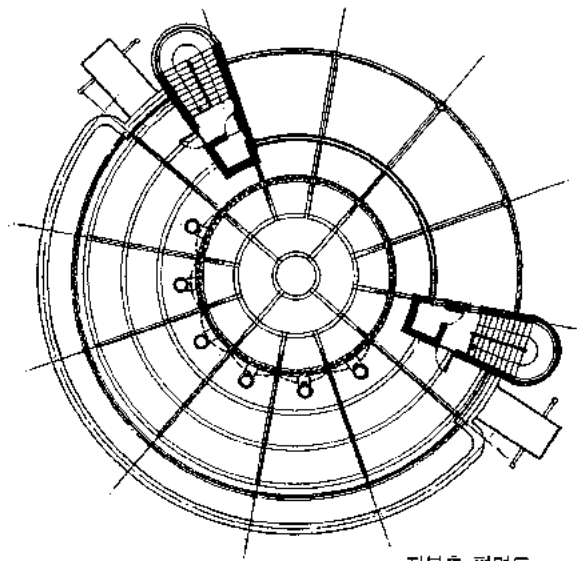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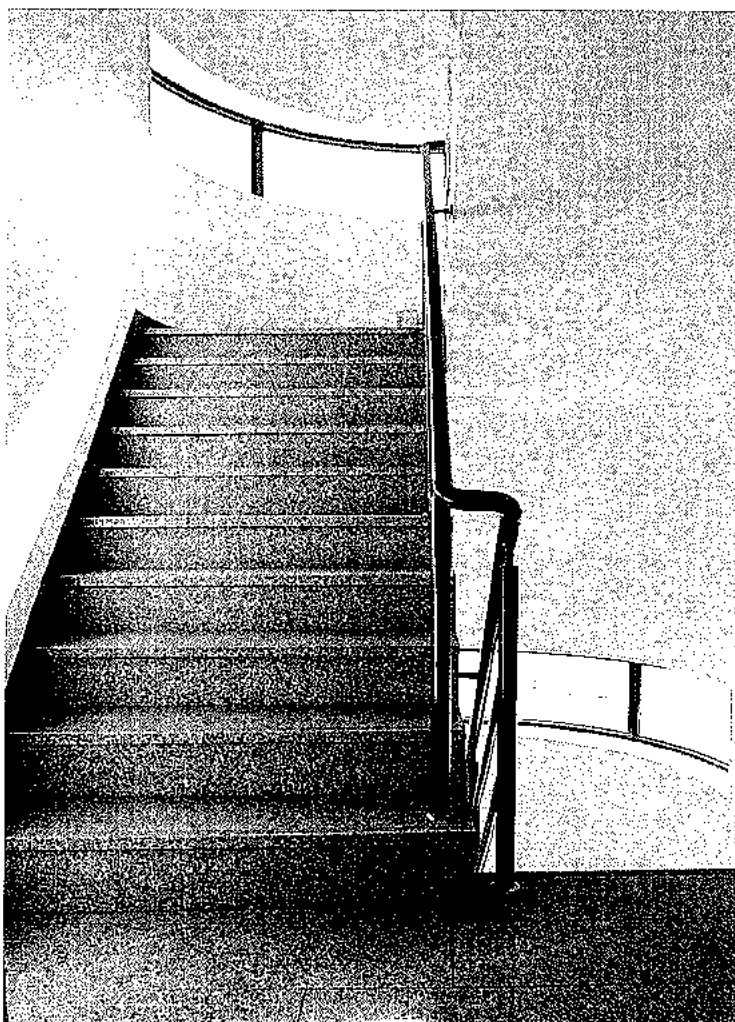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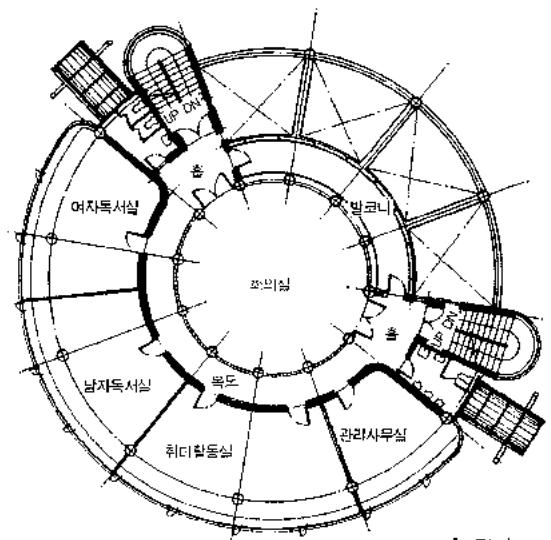
2층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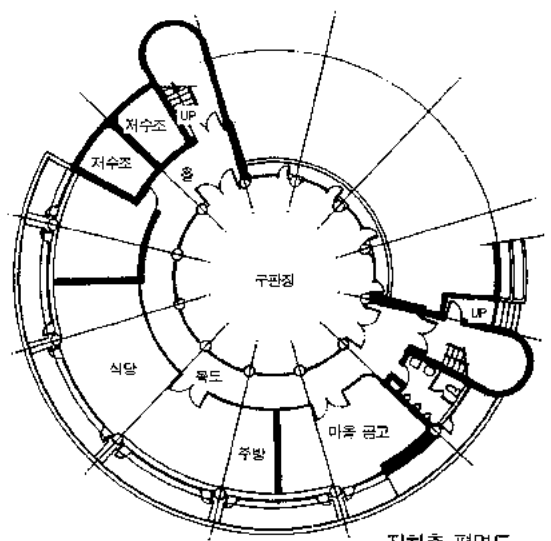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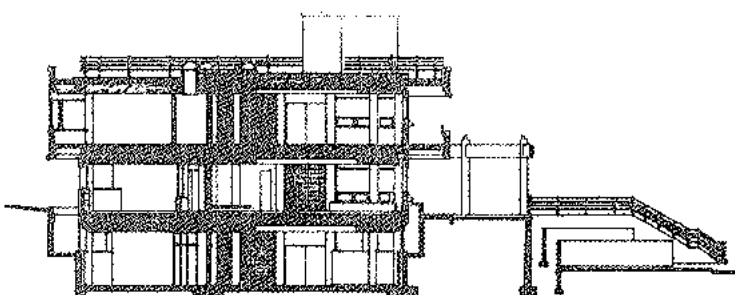
2층 연결 계단실



2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종단면도

외원작품

국제산공사옥

Kukjae Industries Co. Ltd.

宋基德 / (주)정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
Designed by Song Ki-De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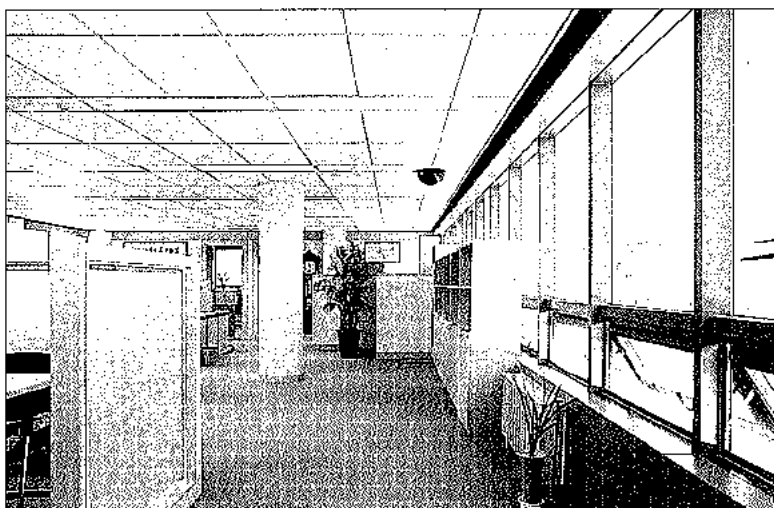
투공측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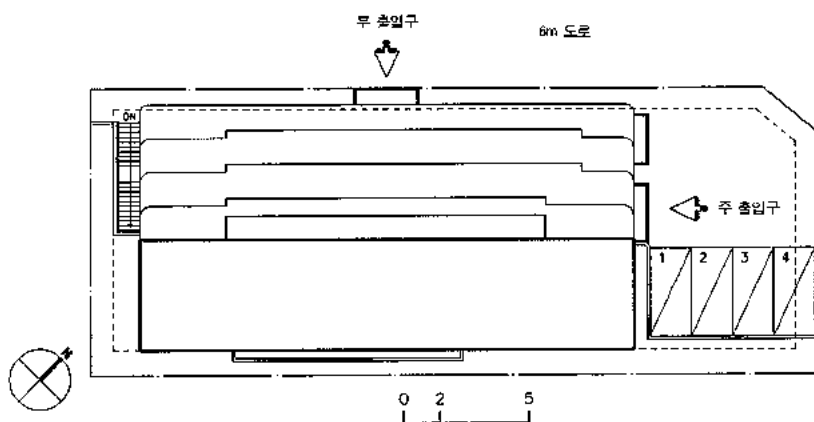
동남측에서 본 계단실 상부 외테일

위치 / 서울시강남구 도곡동 413-4
 지역 · 지구 /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 633.40㎡
 건축면적 / 364.34㎡
 연면적 / 2,993.22㎡
 건폐율 / 57.52%
 용적률 / 327.26%
 규모 / 지하 2층, 지상 7층
 외부마감 / THK 30㎜ 포천석배너+물갈이
 건축주 / 국제산업(주)
 시공자 / 쌍용건설(주)
 주차설비 / 동양기전(주)
 인테리어 / 대원ID(주)

Location / 413-4, Togok-dong, Kangnam-gu, Seoul
 District / Houses, Parking
 Site Area / 633.40㎡
 Bldg. Area / 364.34㎡
 Gross Floor Area / 2,993.22㎡
 Bldg. Coverage Ratio / 57.52%
 Gross Floor Ratio / 327.26%
 Bldg. Scale / 2 Stories Below Ground, 7 Stories Above Ground
 Exterior Finish / THK 30㎜ Pocheon Granite+Water Blinding
 Client / Kukjae Industries Co. Ltd.
 Constructor / Ssangyong Construction Co. Ltd.
 Parking Facility / Dongyang Electric Co. Ltd.
 Interior / Deewon I.D. Co. Ltd.



6층 사무실



배치도



동북측 전경



주출입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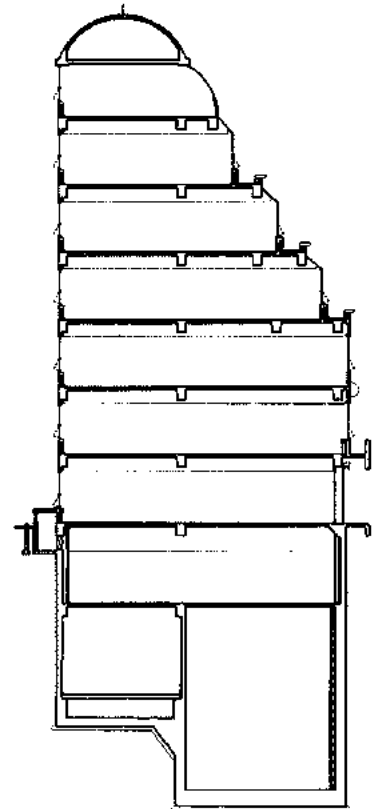
7층 회의실

이 Project는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기다리다 시일이 오래걸려 종전 법규대로 시공중 현 법규로 설계변경하여 완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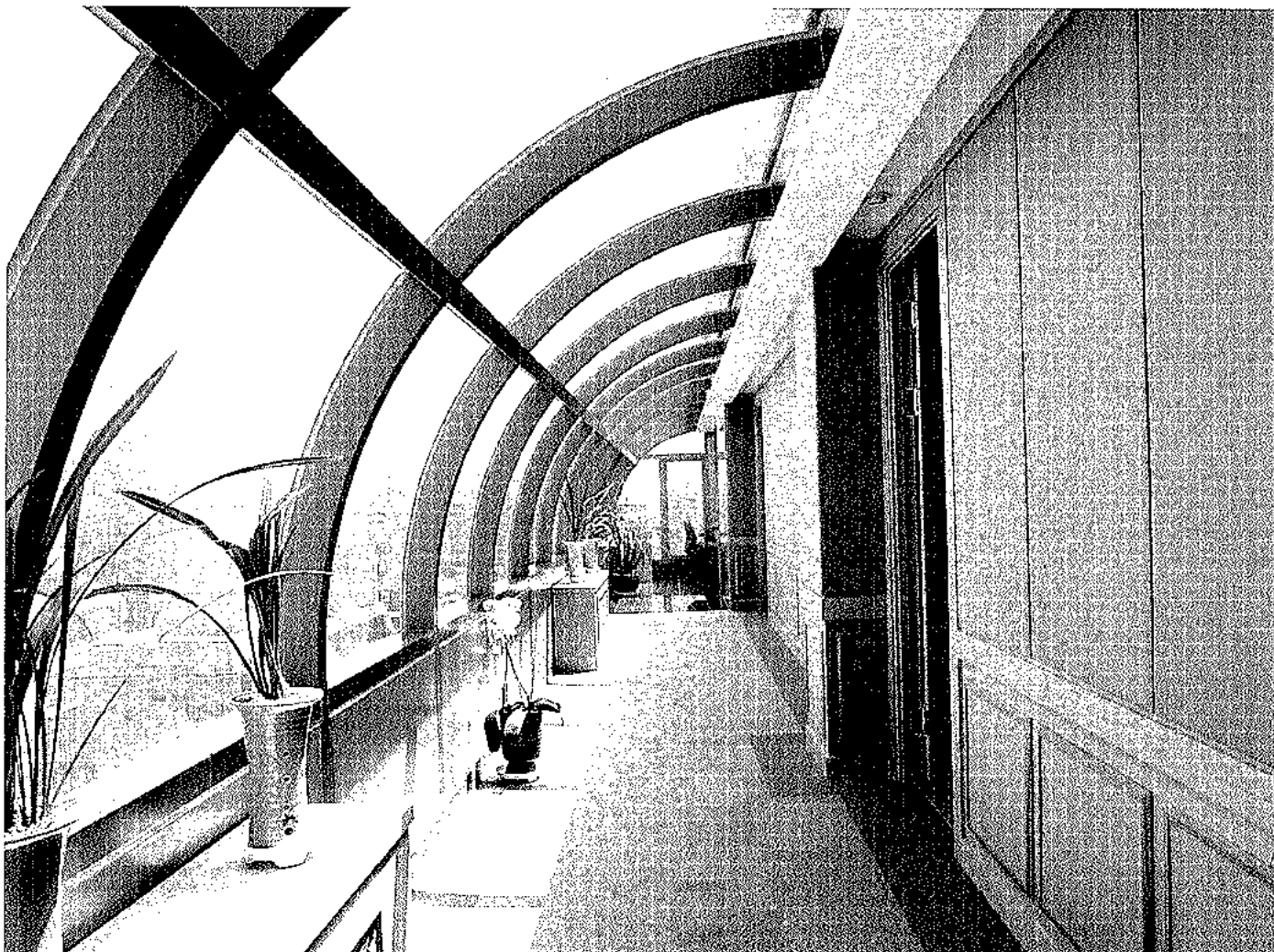
6m 도로와 6m 도로의 교차점에 면하고 있는 이 건물은 큰 도로의 이면에 위치한 서울의 일반적인 지역 모두가 그러하듯이 소규모 근생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자동차들로 뒤엉켜 있어서 건물배치에 많은 신경을 써야 했다. 결과적으로 건물을 서측에 배치하고 동측으로 주출입구를 두어 출입과 주차에 있어 모서리 도로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공간의 Open으로 인한 개방감을 주변에 제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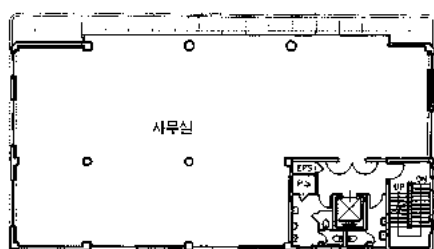
건축주의 용적률 극대화라는 명제하에 어떻게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해결할 것인가가 큰 난제였으나 Round와 경사진 커튼월의 활용으로 해결하고, 사선에 따른 조형적 거부감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상층의 지붕을 Dome으로 처리하여 무거운 화강석의 분위기를 차분하게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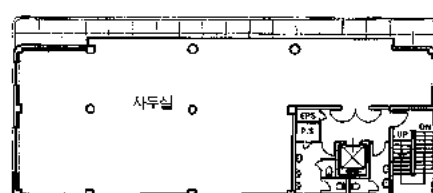
종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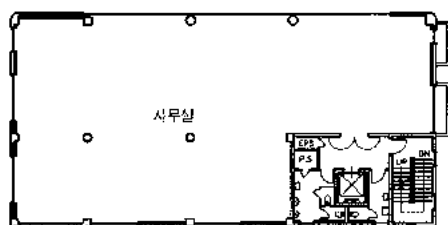
7층 임원실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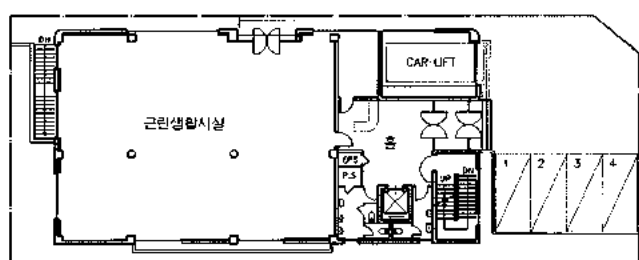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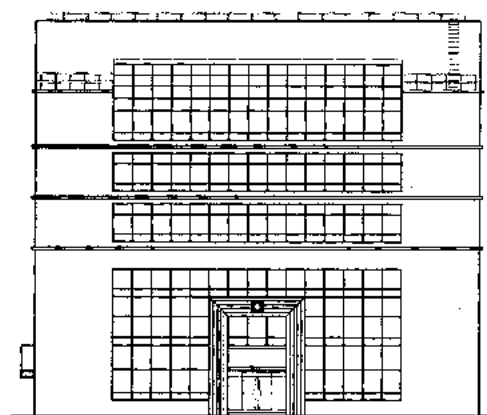
5층 평면도



2~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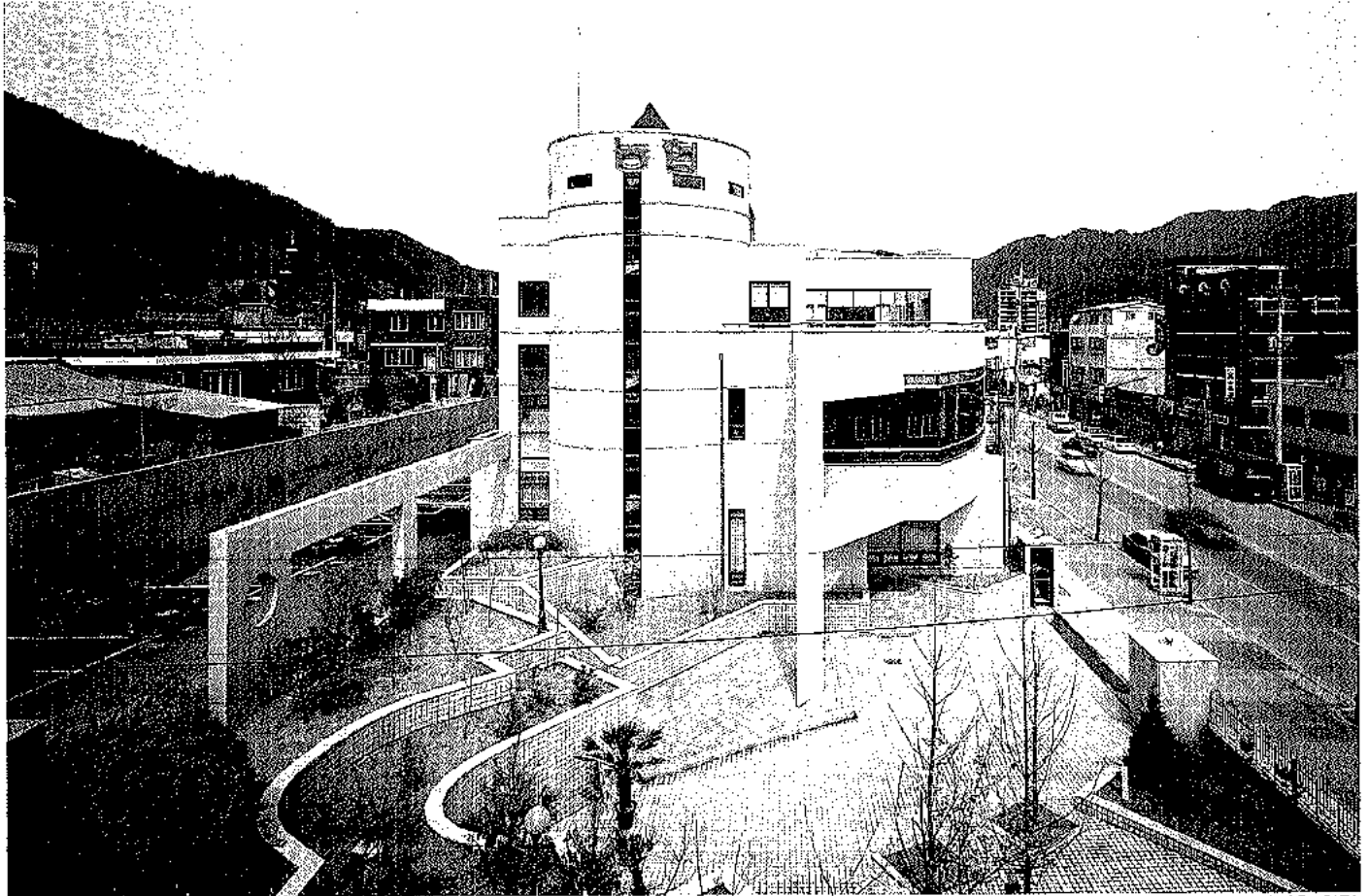
외원작품

농협인제군지부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Inche Branch

韓光鎭 + 河琴鉉 + 劉基政 / 종합건축사사무소 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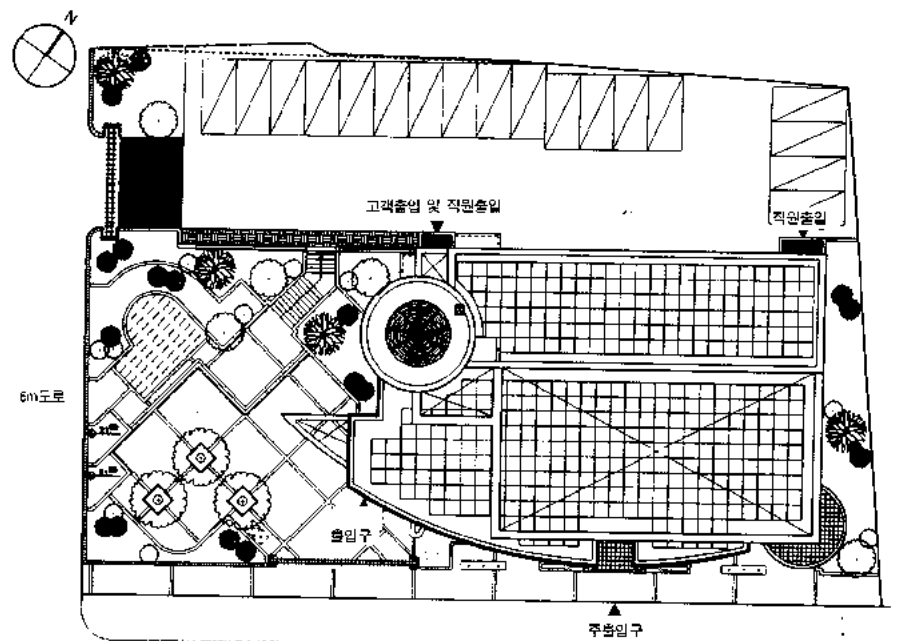
Designed by Han Kwang-Ho, Ha Keum-Hyeon & Yu Ki-J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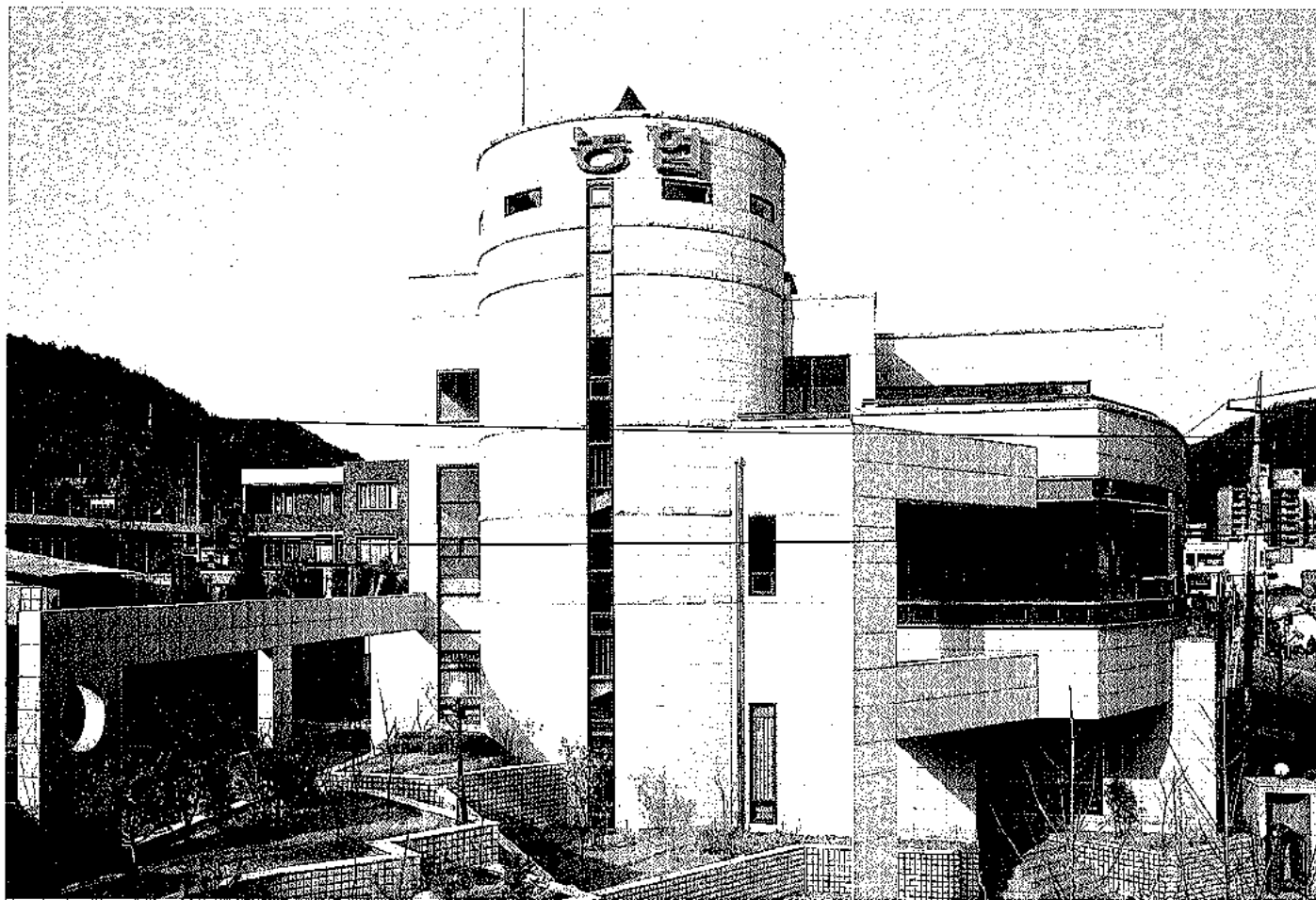
남서측 원경

위치 /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97-3번지의 3필지
 대지면적 / 1,897.0㎡
 건축면적 / 593.17㎡
 연면적 / 1,462.23㎡
 건폐율 / 31.27%
 용적률 / 71.68%
 규모 /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 철근 콘크리트 2면조
 외부마감 / 화강석 바나규이 스톤 스프레이타일 THK 18mm
 열선 반사유리 및 컬러 복층유리
 구조설계 / 이민수
 조경 / 가나조경
 시공 / (주)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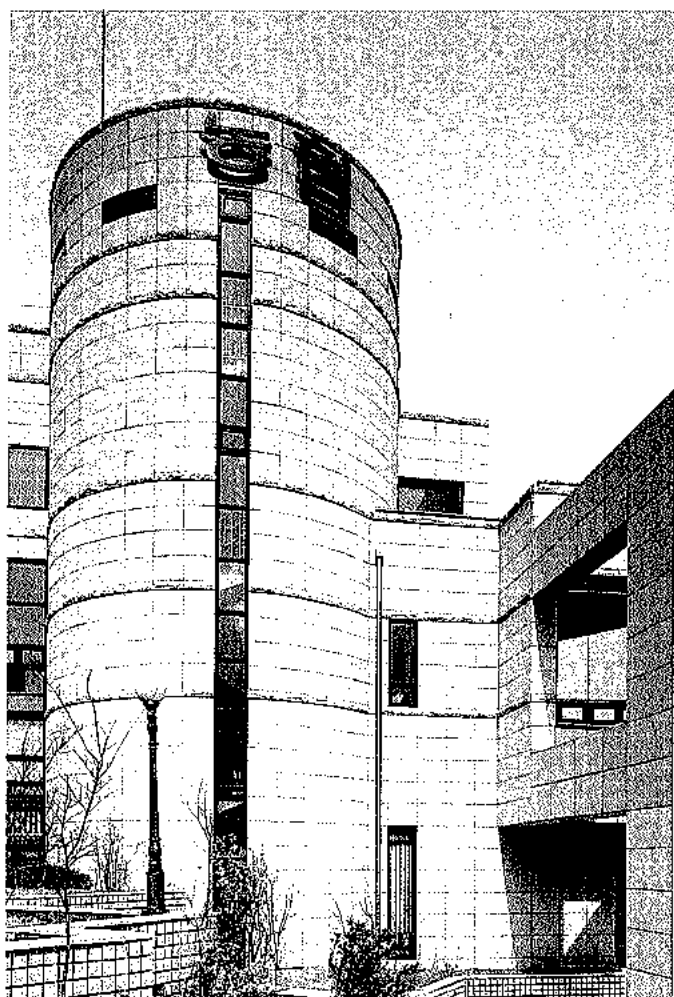
Location / 297-3, Sangdong-ri, Inche-eum, Inche-gun, Kangwon-do
 Site Area / 1,897.0㎡
 Bldg. Area / 593.17㎡
 Gross Floor Area / 1,462.23㎡
 Bldg. Coverage Ratio / 31.27%
 Gross Floor Ratio / 71.68%
 Bldg. Scale / 1 Story Below Ground, 3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Stone Spray Tile THK 18mm
 Structural Design / Lee Min-Su
 Landscaping / kana
 Constructor / Daeil So. L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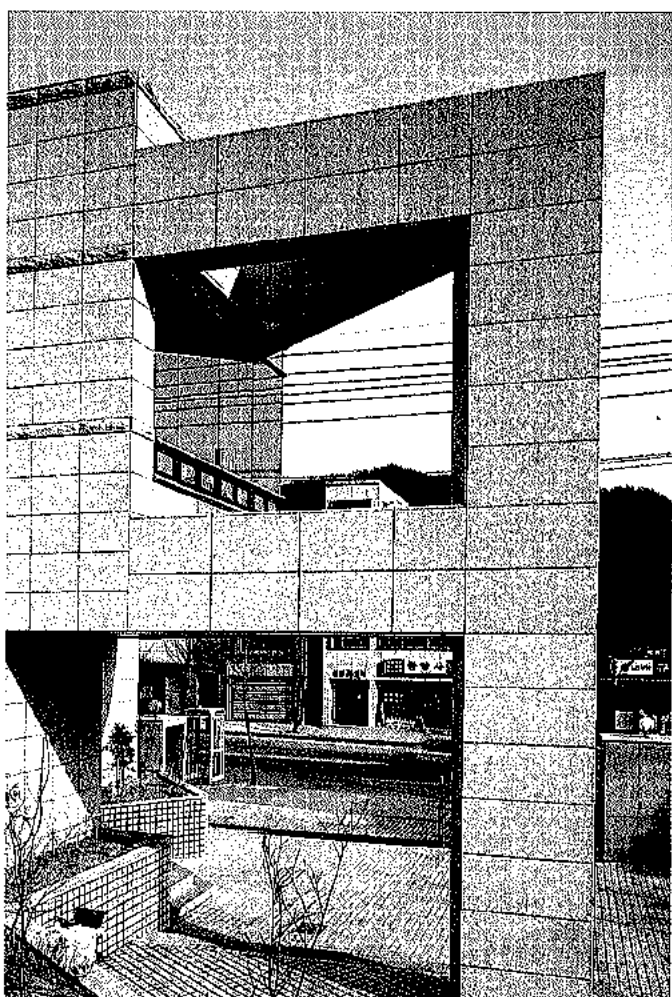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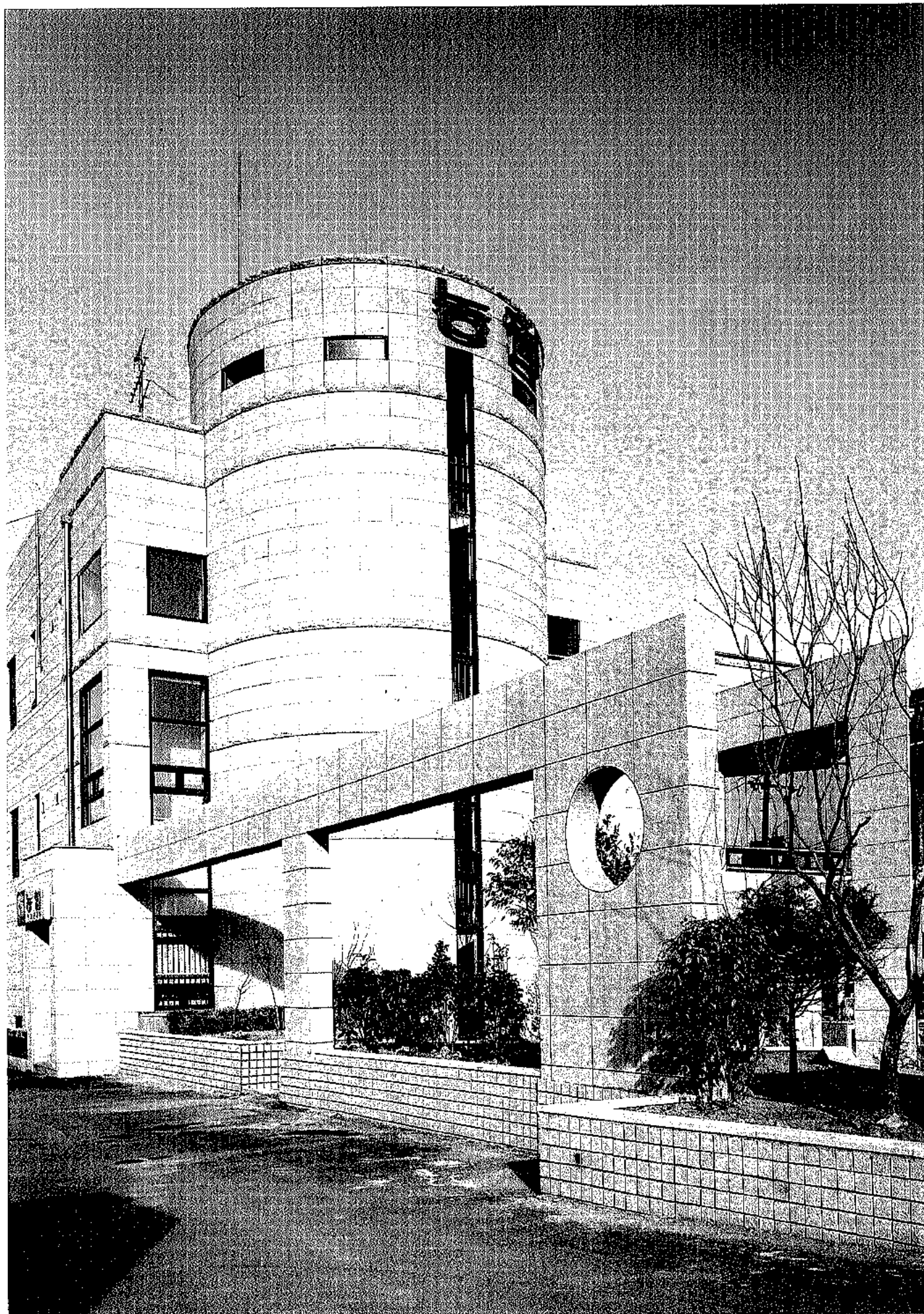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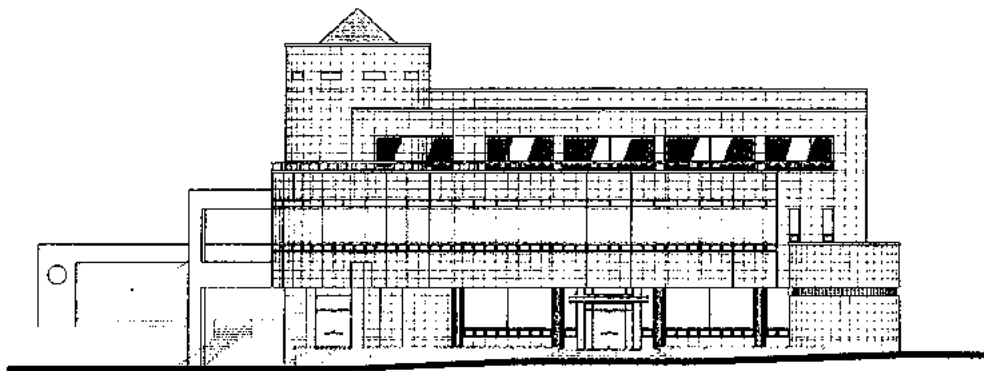
남서측 백면 상세



서측 입면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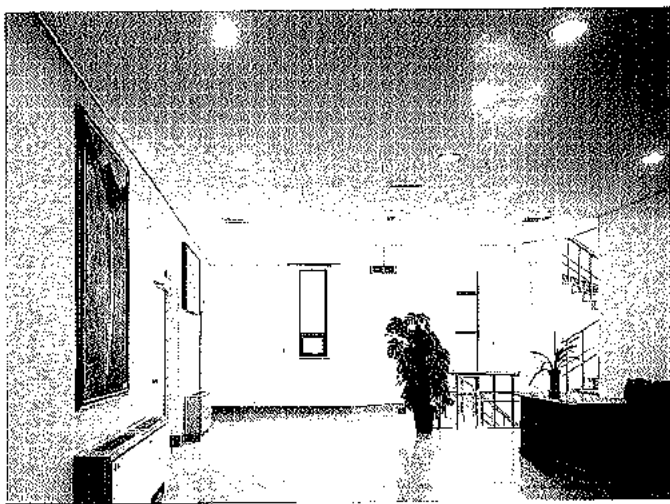
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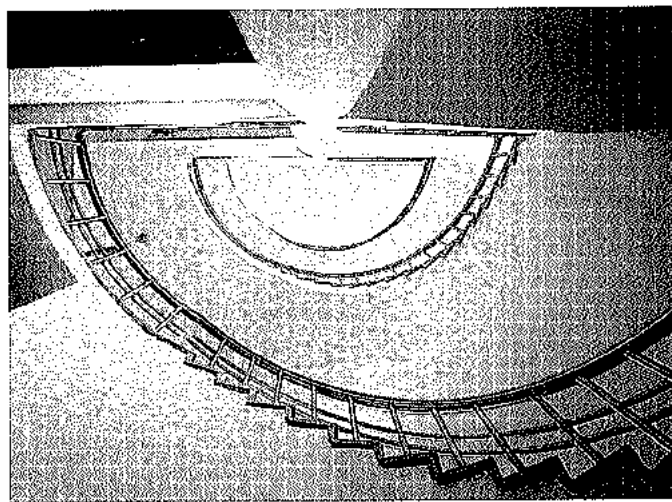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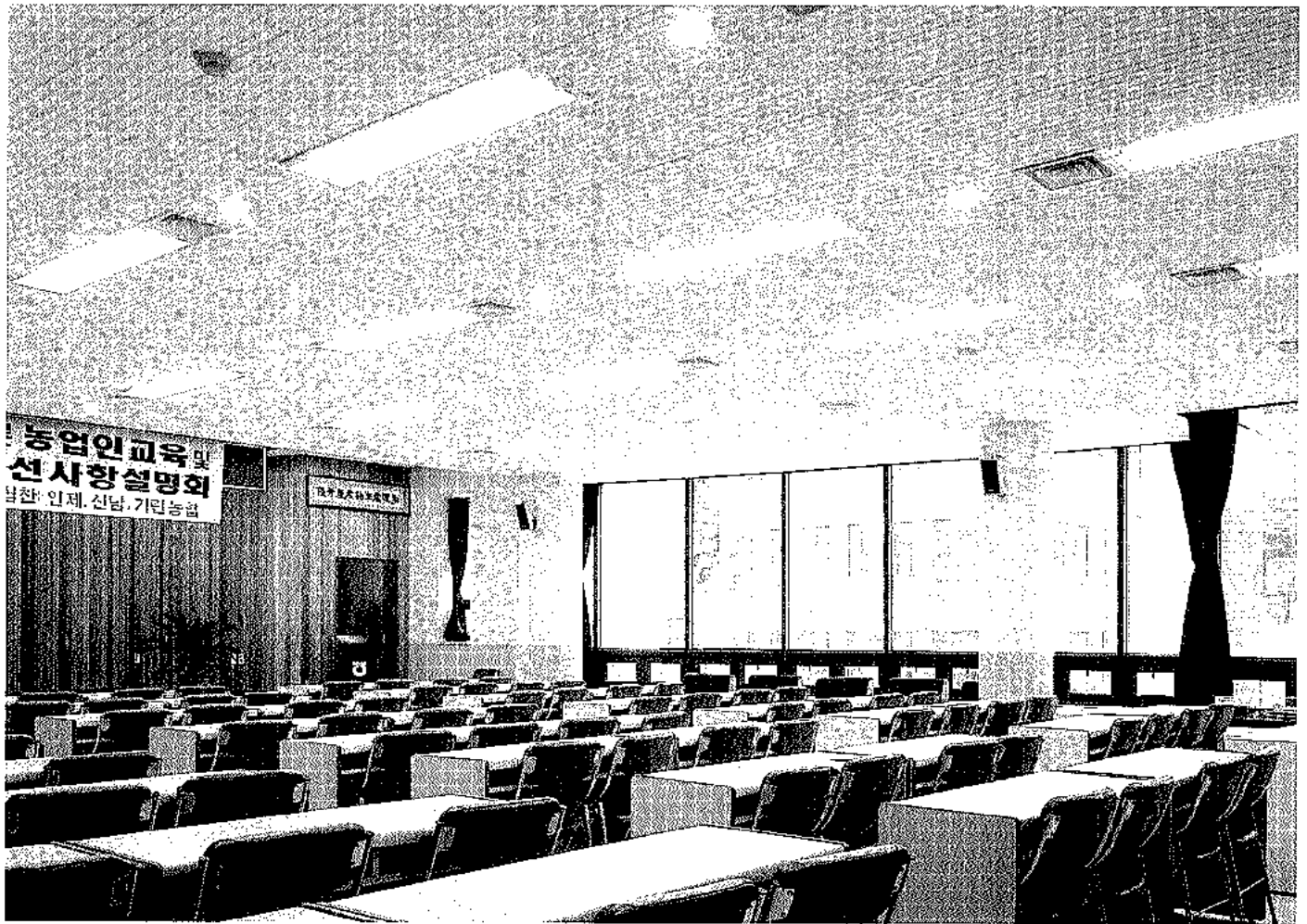
1층 은행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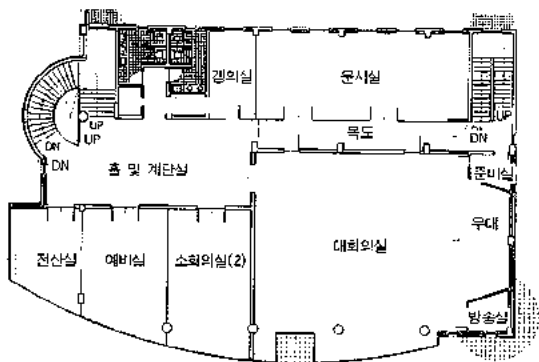
2층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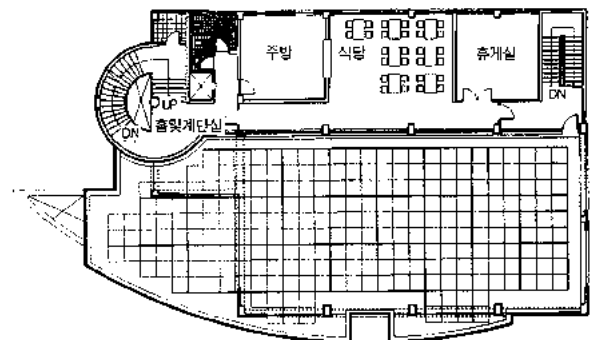
올려다 본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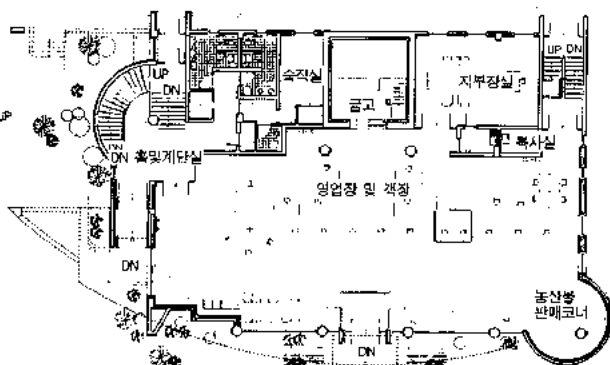
2층 대화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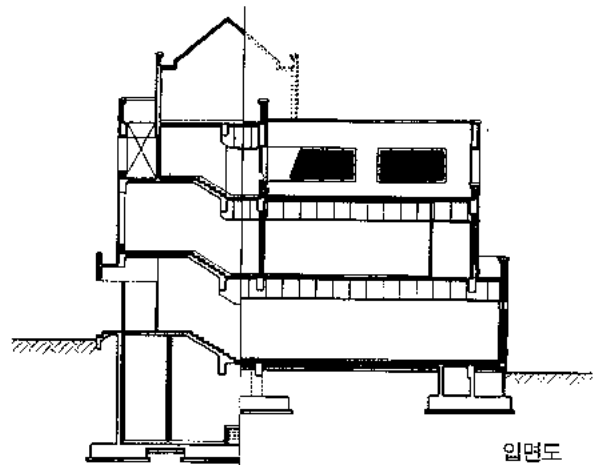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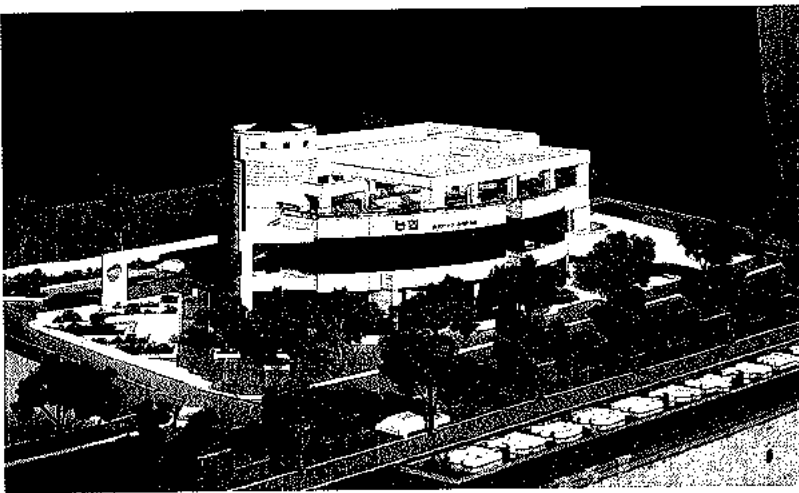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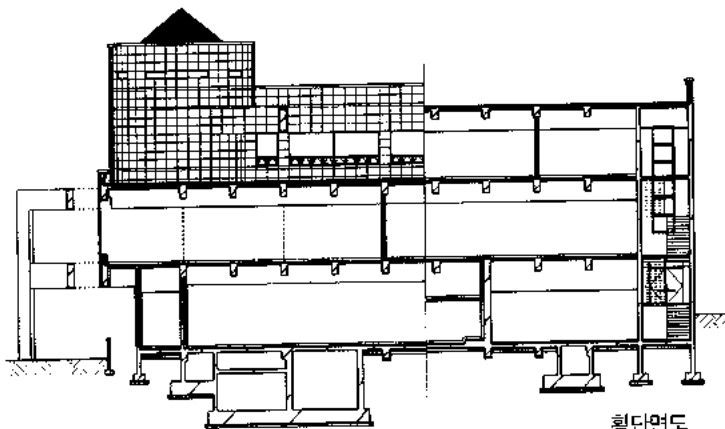
입면도



남동측 전경



모형도



형단면도

강원도 인제군 인제를 성동리 도시 진입로변에 위치한 이 건물은 랜드마크 역할과 지역특성에 부합된 로컬 컨텍스트의 중심점을 유도하도록 배치하였다.

조경공원의 조성으로 인제문화원과 연계하여 휴식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하였고, 정면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주부 및 청소년층 고객을 유도하였다.

이 건물은 일반동선의 흐름에 위계성을 부여하고 공공시설로서의 보완체계에 유념하였으며 주공간과 부공간의 완전한 분리 및 근접화에 신경썼다. 또한 직원동선과 고객동선을 체계적으로 분리하였다.

입면은 Urban Scale과 Human Scale을 조화롭게 적용하여 전체매스의 안정감을 고려하였고 건물의 매스를 단순하게 처리하고 매스를 받쳐주는 요소는 세밀하게 처리하여 다양성을 부여하였다. 이로인해 이 건물은 도심내 공공시설로서의 조화감을 갖게 되었다.

이 건물은 건물의 단일 매스속에서 기능을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남쪽 20m 도로변에 길게 주업무 환경을 배치해 정면성을 강조하고 배면에는 부업무 기능을 배치하고 양측면에 서비스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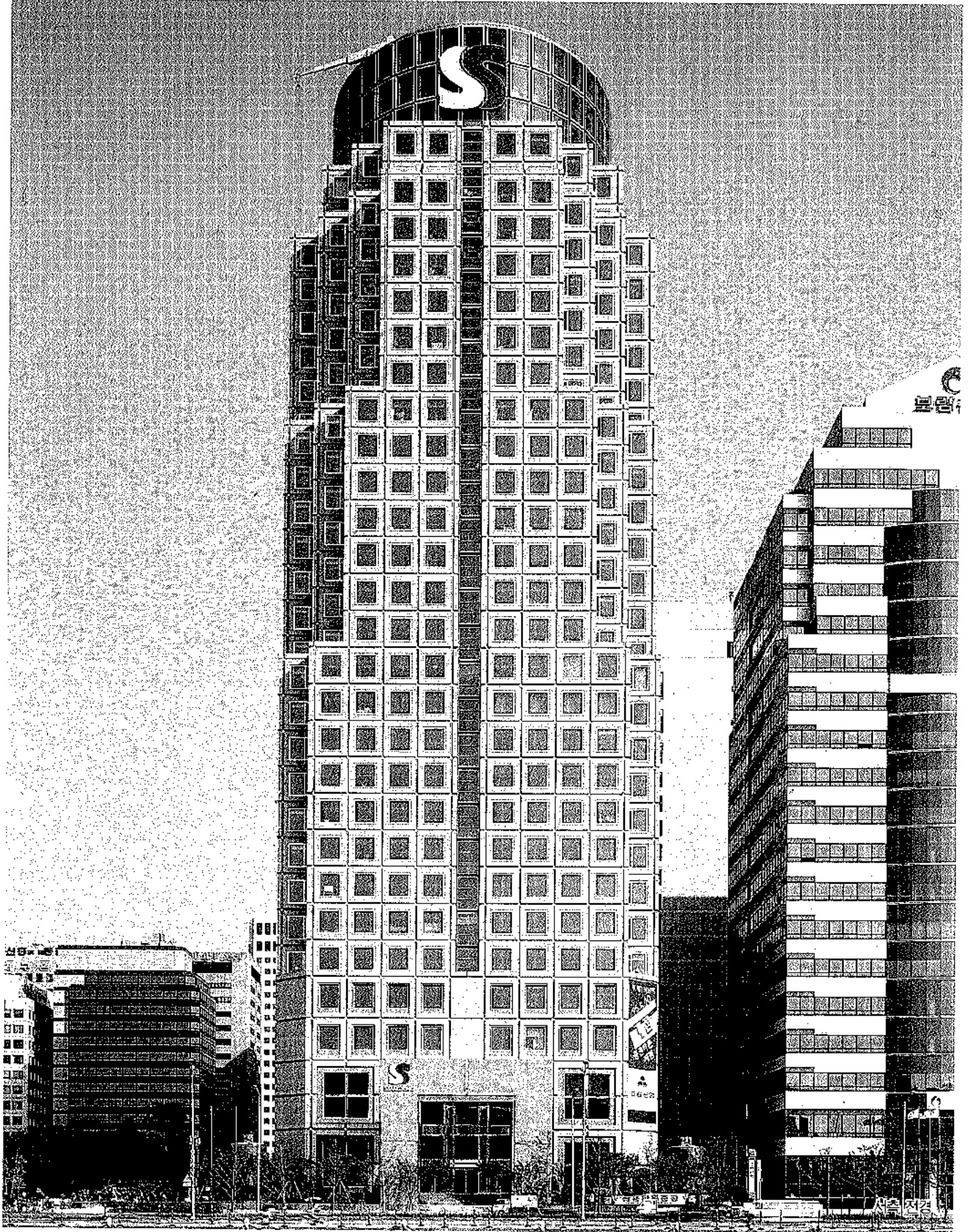
회원작품

쌍용투자증권 사옥

Ssangyong Investment and Security Co. Ltd.

(주) 원도시건축 + ELLERBE BECKET

Designed by Wondoshi Architects Group + ELLERBE BEC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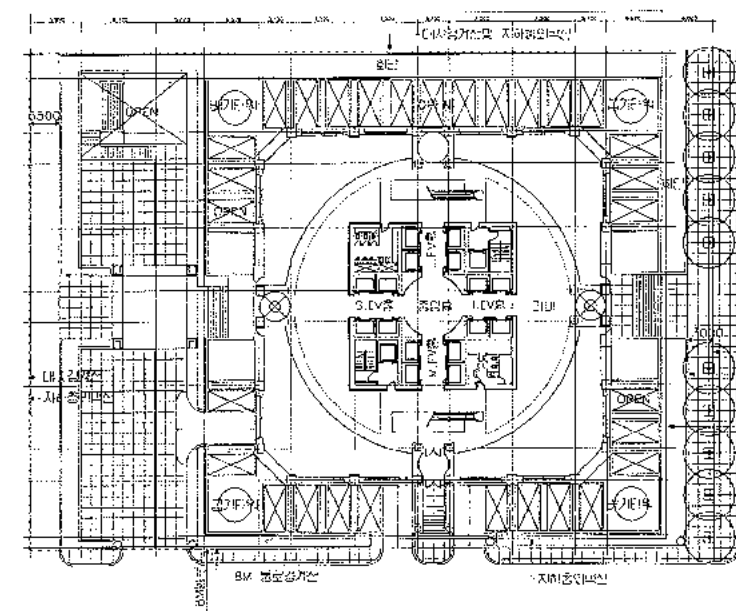


북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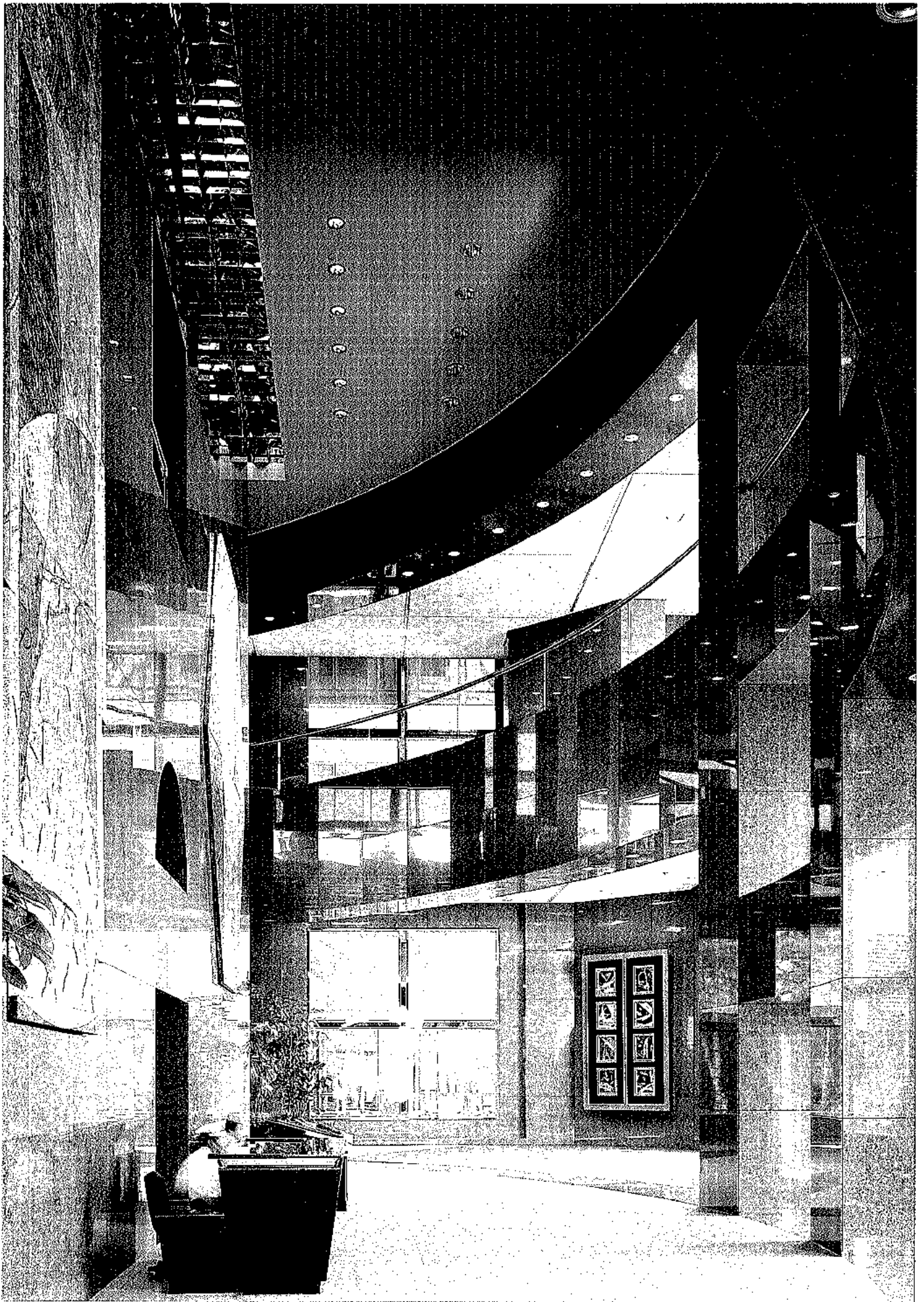
위 치 / 서울특별시 양동포구 여의도동 23번지 2호
 지역지구 / 상업지역, 업무지구, 주차장 정비지구, 1종 집단 미관지구
 대지면적 / 4,765㎡
 건축면적 / 1,969.139㎡
 연면적 / 70,170.33㎡
 건폐율 / 41.32%
 용적률 / 926.38%
 규모 / 지하 7층, 지상 30층
 최고높이 / 134.2m
 구조 /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주요용도 /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외부마감 / 외벽: 화강석바다마감 및 물갈기
 창호: 알루미늄 창 24mm 복층유리

구조설계 / 연구조 연구소
 기계설비 / 한일 M.E.C
 전기설비 / 사한 설계 컨설턴트
 조경 / 쌍용 엔지니어링
 인테리어 / 이웬스, 단 인테리어, 미진이이다
 IBS / 쌍용 컴퓨터

Location / 23-2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District / Commercial etc.
 Site Area / 4,765㎡
 Bldg. Area / 1,969.139㎡
 Gross Floor Area / 70,170.33㎡
 Bldg. Coverage Ratio / 41.32%
 Gross Floor Ratio / 926.38%
 Bldg. Scale / 7 Stories Below Ground, 30 Stories Above Ground
 Height / 134.2m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 / Granite, Water Blinding
 Structural Design / Sen Structural Research In.
 Electric Installation / Sachan Design Consultant
 Landscaping / Ssangyong Engineering
 Interior / Ewes, Min Interior, Mijin I.D.
 IBS / Ssangyong Compu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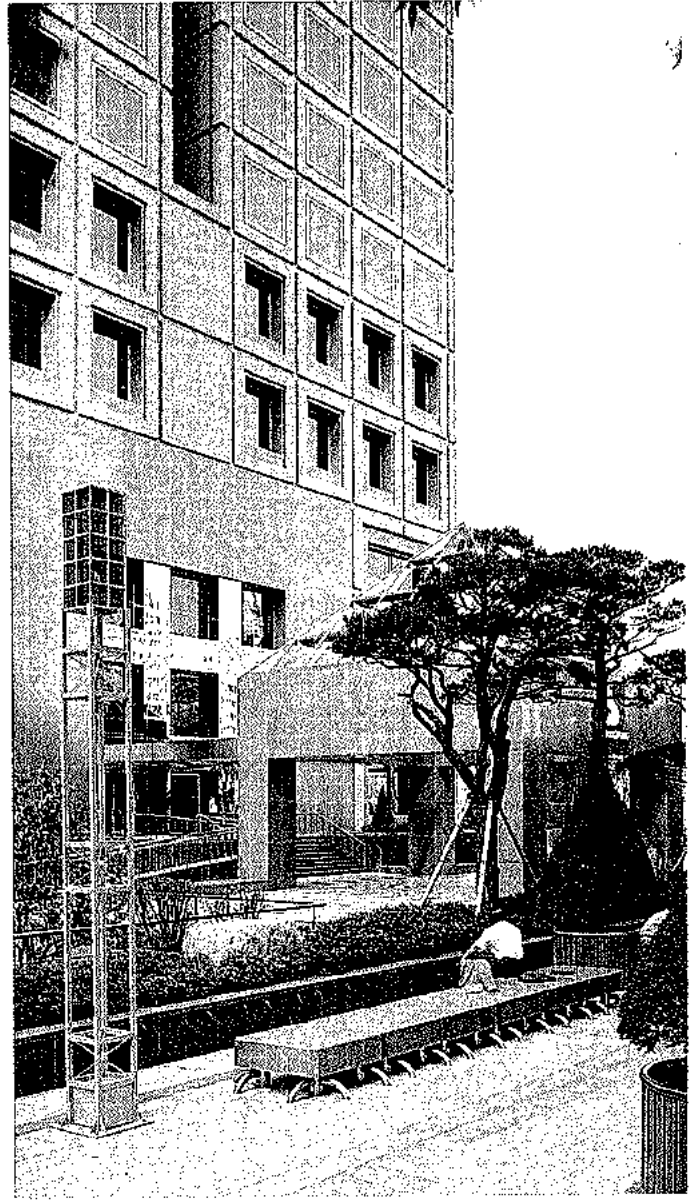
배치도



1층 로비



여의도 광장 숲에서 본 전경



동측 출입구 및 휴게공간

1987년 서울시에서 여의도 안보전시장 옆 10,000여평의 대지를 구획하여 9개 증권사에 매각함으로써 착수된 이 프로젝트는 각 증권사로서 법적인 최대규모를 건축하고자 하는점과 일단의 단지화된 업무지구로서 소화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바람이 작용하여 상당한 시간 공동 협의에 의해 진행되었다. 거의 완성단계에 도달한 현재,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점은 각 건물의 건축선 지정, 9개사 중앙부분의 공동조경에 의한 보행자 통로를 볼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 옆 1차 증권단지의 각 증권사 건물간에 설치된 담장이 본 2차 증권 단지에서는 없어진 점이 달라진 점으로 볼 수 있다.

당초 국내 굴지의 시멘트 회사의 이미지를 위하여 9개사중 최대규모 및 최고높이를 목표로 하였으며 초기 계획안에서 외벽 재료를 프리캐스트에 의한 샌드브라스팅 패설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국내 프리캐스트 회사의 사정에 의해 소화되지 못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오피스 빌딩으로 RC구조로 소화된 30층 건물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할 것이다. 전형적인 오피스 빌딩 타입으로 Core

and Shell Building 개념으로 출발되어, 구조적으로는 콘크리트 Tube in Tube 방식으로 처리된 건물이며, 건축적인 디자인 개념으로 "정사각형 속의 원형" (Circle in The Square) 개념을 소화하여 무방위 형태의 입면과 상부 원통형의 "렌턴"이 탄생된 셈이다.

정보화된 최첨단 현대 기업으로서의 증권회사 업무를 소화하기 위하여 IBS화된 건물을 목표로 하여 BAS, 통신, OA 분야의 인텔리전트화를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 내용으로 전 건물 바닥의 OA후로아 사용, 새로운 시스템의 BAS와 연결된 지하 2층, 주 기계실, 전기실을 위치시켰으며 새로운 통신시스템과 연계된 점 등을 들 수가 있다.

이 건물의 특징으로 지하 1층에 설치된 자동차 승강장층의 설정을 들 수 있으며 건물의 Base형태로 소화된 부분이 상부로 Open되어 밝은 지하 1층으로, VIP 주차장 및 본격적인 주차관리층으로 해결되어 있다. 그외 저층, 중층, 고층, Zone으로 엘리베이터가 구분되어 있으며 특히 지하 7층에 걸쳐 설치된 주차장을 위해 전용 서를 엘리베이터

가 각 주차장 층으로부터 1층 및 영업장 층에 도달 되도록 처리되었으며, 지하 2층에 위치한 중형 강당의 다목적활용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선근가튼을 통한 접근이 되도록 처리되어 사용 및 안전관리에 유의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저가가 고가인 도심지의 대지에 대한 개발유도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도된 방법으로 "을지로 재개발 방식"과 일단의 대지를 분할 매각 후 지역단위의 콘트를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를 볼 수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후자의 방식을 택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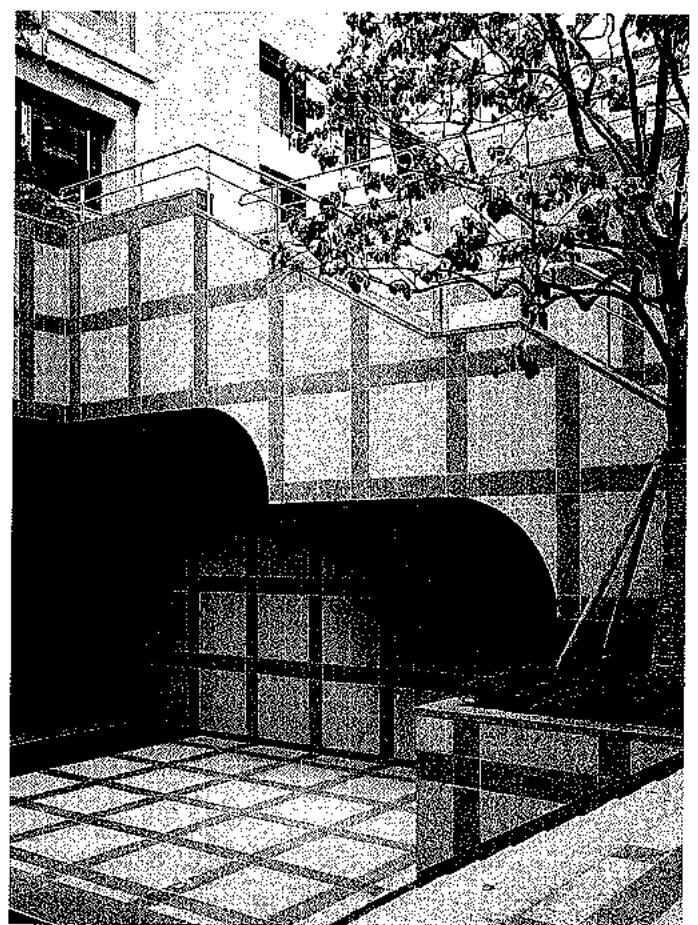
외도적으로 동일용도의 건물을 유지시킨 업무 지구이면서도 각 건축주의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짓고자 하는 요구가 강력하여 거의 비슷한 크기, 또 비슷한 조건이 부여된 상업건물이 결과되어있는 서울시의 여러가지 외지를 배경으로 한 유도방법이 동원되었다 하여도 최소한의 몇가지 성취를 얻을 수 있으나 그 한계가 분명하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장응제)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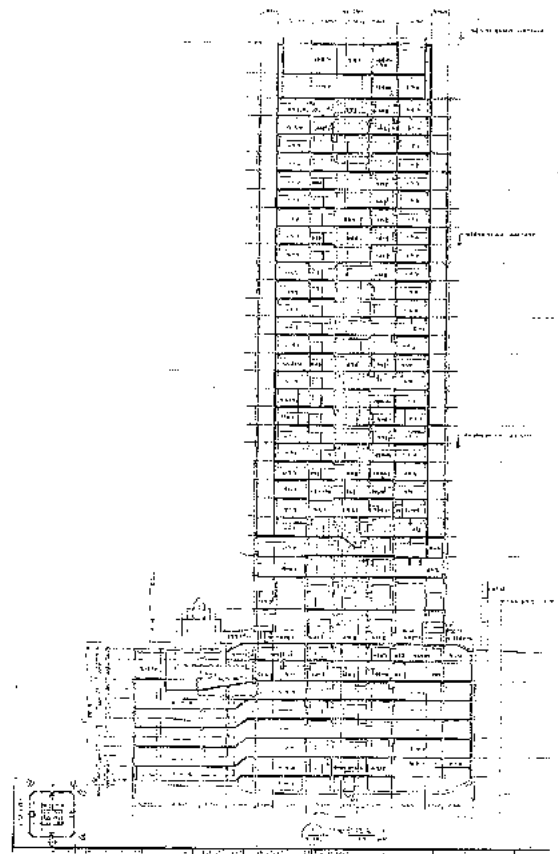
로비에서 본 현관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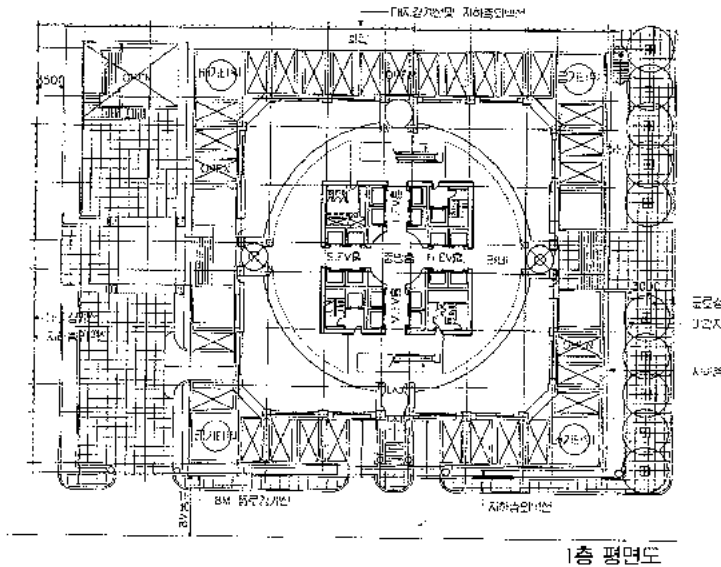
지하 1층 선크가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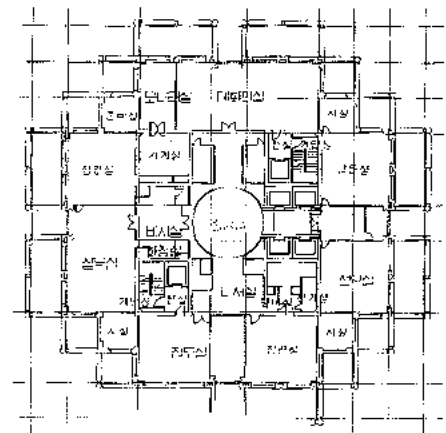
Void된 2층 커피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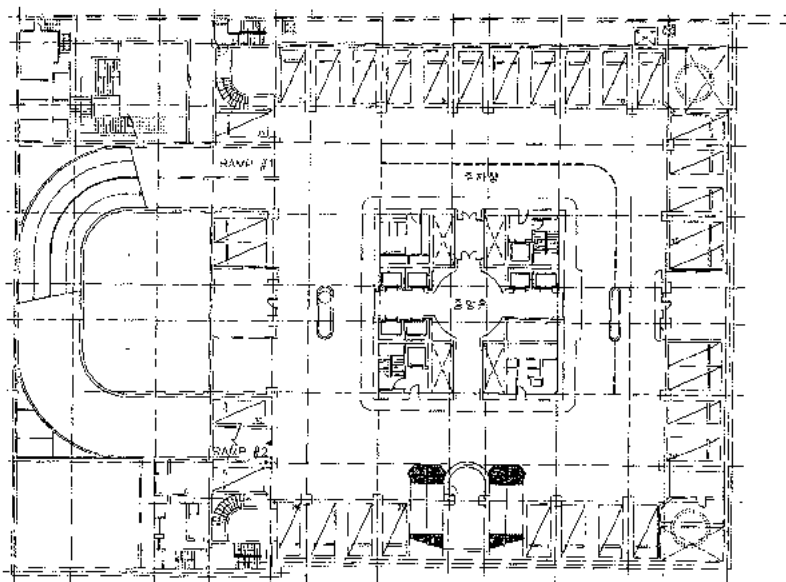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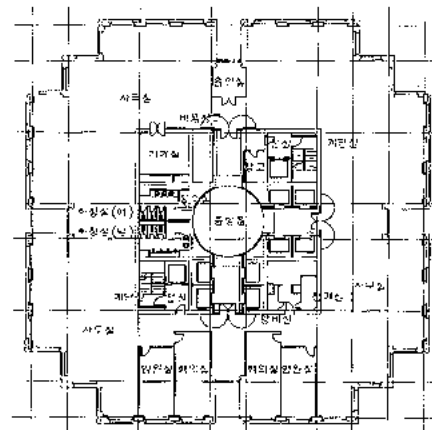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7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18층 평면도

이 건축물은 여의도의 증권회사단지의 북서측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이 건축물을 보면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시대에 적응하는 Modernity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 건축물은 우리 시대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건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이 쌍용투자증권사옥은 다른 건축물과는 다른 몇가지 점이 있다.

첫째, 여의도라는 서울에 있어서 얼마 안되는 대단위 계획지역에 세워졌다는 점.

둘째, 여의도 내에서도 증권단지라는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단지내에 건립되었다는 점.

셋째, 30층이라는 초고층건물 이면서 Intelligent화의 정도가 최첨단이라고 자부한다는 점.

넷째, 국내의 건축설계사무소와 해외건축설계사무소가 협동으로 설계를 하였다는 점 등으로

정리되겠다.

따라서 본 비평에서는 이러한 점에 의거, 우리에게 이 건축물이 시사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가를 정리하는 선에서 논하고자 한다. 또한 건물자체가 가지고 있는 건축적 요소와 개념에 대하여는 인식적 차원에서 논하고자 한다.

여의도—실험적 Modernity의 실패

이 쌍용투자증권 사옥이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는 당시 서울의 새로운 도심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정부의 욕구와 소위 서구화된 새로운 거리를 가지고 싶어하는 서울시 당국의 야심찬 계획을 기본으로 출발하고 있다. 60년대 초의 국가적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투자가 필요하였으며, 당시의 건축가 김수근을 위시한 젊은 건축가 그룹에 의해 여의도의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진다. 이 계획에 의하면, 근대건축의 여러가지 철칙이 응용되어 있다. 입체적인 도로시스템을 이용한 도로망의 설치, 전체를 시스템화한 인위적이고 냉철한 지역의 분할, 녹지와 태양광선, 대지의 활용 등이 주요한 개념이라고 하겠다.

당시에는 우리의 근대성이 이를 따르고 수용하기에는 시간적 격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서구적인 Modernism적 개념으로 풀이하였으므로 그 적용가능성의 문제는 존재하였다고 하겠다.

그후의 여의도의 현상을 보면, 초기의 의욕적인 계획에서부터 많은 부분이 변질되어 버린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크게 변질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여의도광장의 형성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거대한 광장이 형성되므로 해서 여의도는 남북을 잇는 거창한 통로와 거대한 행사 장소로 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여의도 자체의 동서 연계는 절단되어 버린 것이다. 이 광장은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 각기의 도로로는 갈기갈기 찢어진 영성한 바둑판형태로 남아버리게 되었고 길과 대지라는 단순 관계로 하락하게 되었다.

따라서 여의도에서 나름대로 성격을 가지거나 Context를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고, 전체 여의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시 당국은 그래서 결국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도시에서의 인식성

The Cognition in Urban Community

원도시건축+ELLERBE BEKET 作 쌍용투자증권사옥

李範宰 /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Peom-jae

위한 땅장사에 열중하게 되었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무산시켰다. 여의도는 대지를 팔라서 팔아먹는 예비금고의 역할이상이 아니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여의도에 대한 장기적인 건축적 Vision이나, 각 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의도는 거대한 빈땅이 되었고, 이 빈땅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행위만 일어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광장의 스케일에 대한 강박에 의한 대규모 건축물의 신축은 황량한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었다.

여의도는 거리와 시정(市井)이 없다. 있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기능과 그 기능을 만족시켜주는 덩어리들인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황량함과 폐쇄함을 더 부가시키는 것은 각기 자기의 인식성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은 고층건축물들의 군이다.

증권단지의 실체

쌍용투자증권사옥이 위치하는 곳은 여의도에 이루어진 증권단지중 두번째로 형성된 것이다. 이 사옥이 속해진 단지보다 전에 형성된 첫번째 단지는 이미 고층의 건축물로서 형성되어 있고, 이 두번째 단지는 총9개의 증권사가 들어서게 되어 있었다. 이는 증권회사가 서로 한 단지내에 들어옴으로써 월스트리트와 같은 금융가를 형성하였으면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보아도 특수한 성격을 가진 오피스기를 조성하려면 그 단지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방향과 그에 적합한 세부방침이 세워져야 한다. 이는 바로 지역계획 또는 단지계획의 차원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따라서 이러한 차원에서 도시계획가, 도시설계자, 건축가, 건축설계자 등을 비롯한 여러분야에서 하나의 바람직한 모델을 설립하여야 한다. 물론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추진의욕이 기본이 됨은 명확한 것이다. 당시의 서울시는 이에 대한 초기 스터디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의 결과는 것이 단순히 의식행위로 끝난다면 이는 정말로 국가 예산의 낭비 이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 이단지는 초기에 지하층의 공동개발과 단지내부의 Pedestrian Street, Pedestrian Shopping Mall이 계획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현황은 전혀 이러한 흔적을 찾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다만 한가지 남아 있는 것은 각 대지에서 15m씩 후퇴하여 30m의 폭을 이룬 단지내부 중앙의 Pedestrian Road뿐이다. 그나마 이것이 남아 있다는 것은 상쾌한 일이다.

이곳을 제외하고는 각기 건축물이 각기의 대지에 세워져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건축법의 맹점은 바로 이러한 단지내 공동개발을 실질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있을 뿐 아니라 각기 건축물에 저촉되는 하위 법령의 조정역할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너무 시시콜콜한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배타적인 법규의 상이성

으로 말미암아 단지의 융통성있는 개발의 방법을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이왕에 서울시 당국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법의 정신에서 표방하는 건축환경의 개선이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방향제시와 그에 따른 귀찮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도록 시도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없이 단지를 일률적으로 9개의 땅으로 분할하여 9개의 지주에게 매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오늘날의 현상을 초래하게 된 원인(原因)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 대지를 매입한 지주들은 또한 단순한 의미로 자신들의 땅을 자신들의 건축을 부각시켜서 자산의 증식을 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니, 건축주들의 문화적, 건축적인 기초배경과 수준이 오늘날의 현상을 초래하게 된 또하나의 원인(遠因)이 되었다. 각기의 대지를 소유한 건축주에 의해 선택되어진 건축가들은 각기의 건축물설계를 함에 있어서 각기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전체를 생각하거나 단지전반에 대한 유기적 해석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9개의 건축주를 설득하거나 합의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리라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필요했다. 아마 서울시에서는 당시 이러한 점에 우려하여 최중순장까지 9개 건축물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정작업을 하려고 하였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에 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가지의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현재에 보는 것과 같은 제각기 인식성을 중요한 건축적 개념으로 하는 건축물군이 형성되고 만 것이다. 건축물에 있어서의 인식성이라는 것은 즉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과 구별되어 보여진대거나, 나쁜 건축물과 차별성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때, 이것은 건축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속성이므로, 건축물이 이 인식성을 유일무이한 개념적 신조로 하였을 때, 그 건축물이 갖는 도시에서의 비중은 감각적이고 시각적인 표현이나, 입면과 볼륨의 변화이상의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증권단지의 건축물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이해할 수 있다.

증권단지는 여의도라는 섬속에 또하나의 고독한 섬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증권단지라를 섬속에서 각기의 증권회사 건축물은 또다시 각기의 섬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 섬과 섬을 겨우 이어주고 있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단지내부의 30m폭의 Pedestrian Road일 뿐이다. 가느다란 운하하나가 각 섬을 이어주는 통로일 뿐이다.

도시의 다양한 활력과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를 의미있게 연계시켜주는 가로로 상실한 건물들이 제각기 세워져 있는 곳이 바로 이 증권단지로서 도시와 건축, 가로와 건축의 관계설정을 거부한 것이다.

외국건축가와의 협동문제-공동설계의 진정한 의미

건축설계에 있어서의 개방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실제로 우리가 아다시피 많은 외국 건축가나
외국의 유명 건축사무소의 설계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개방이라고 새삼 이야기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것이 공
공연한 비밀스러움이 내포된 것이라면 2년후의 개방이
란 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들의 공개적 개방이라
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확대해석하여 이 글에서 논쟁점을 삼을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쌍용투자증권사
옥이 바로 외국건축사무소와 우리나라 유수의 건축사무
소와 공동으로 설계되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외국 건축
가와의 공동설계라는 행태를 일별하는 것은 다소 이 건
축물을 이해하는 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이
다.

흔히 우리나라 건축사무소와 외국의 건축사무소의 공
동설계라는 것에 대한 관점은 비판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것은 작품의 질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협동의 형식에 대한 것에 국한되는 경향이 아닌가 싶다.
우선 그점에 대하여 정리를 하여보면, 우리와 외국건축
가와의 사이에 누가 실제로 설계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
는가 하는 것에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건축가가 계획하고 디자인한 것들을 국내 설계
사무소가 소위 허가행위를 대행하여 주고 실시설계를
하는 '밀착해주는 일'을 해왔기 때문에, 외국의 건축가
또는 건축사무소와의 공동설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매도되기 쉽다. 또한 사실로 그러한 행태를 흔
히 보여준 예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도매금으로 넘
어 간다해도 무어라고 변명할 도리가 없는 것도 사실이
다.

우리나라 건축주는 실제로 우리나라 건축가나 건축사
무소는 잘 믿지 않는다. 같은 말이라도 외국건축가가 이
야기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나라 건축가가
주장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이
는 소위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계
층의 건축주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건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통터지는 일이지는
하지만, 이는 건축가나 설계사무소 등의 당사자들이 스
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그들 스스로가 외국인들의
'밀착해주기'를 자청한 바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
다고 해도 건축주가 외국 건축가의 뒷바라지를 요구해
도 이를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경우가 더 많을 지도 모
르겠다. 어쩌하였던 간에 '공동'이라는 미명하에 불평등
한 작업에 놓여졌던 경우가 많았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
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외국건축가와 공동설계
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계획하고 설계한 것에 대한 국
내 건축사무소의 마무리작업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의 '공동설계'라는 개념이 성립되
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것은 우리 건축계가 앞으
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사실 외국인과 공동

설계를 한 후 이를 자기들만의 것으로 발표한다거나, 아
예 그러한 설계에 대하여는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을 사실대로 떳떳하게
밝히는 것은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 Concept는
외국인 누구누구, 실시설계는 우리 건축가 누구누구 라
고 밝혀서 명확히 해야 공정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외국
인과 공동으로 설계를 한 작품을 단독으로 한 것같이 중
요한 상을 수상한 경우도 있는데, 같이 설계한 외국인에
게도 그 상을 공동으로 수상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한 것이 밝혀지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는 것
이었다면, 하지를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쌍용투자증권사옥은 미국의 베케트와 우리나라의
원도시건축이 공동으로 계획한 건축물이다. 사실 어느
부분이 그쪽의 아이디어이고 어느 부분이 이쪽의 생각
이고 Concept나하고 다구치는 것은 공동설계라는 의미
와는 동 떨어진 것이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건
축물은 당연히 베케트와 원도시라는 두 사무실의 공동
작품인 것이다. 어디의 생각이 더 강하고 옳았는가, 어
디의 영향력이 더 강력했는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
다. 이미 두쪽에서는 협의와 양보와 끝없는 의견의 대립
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공동작업이다. 우리가 갖는 정서
는 당연히 우리 건축가측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 속
이 시원해지겠지만, 그것은 정말 쓸모없는 생각인 것같
다.

그런데 왜 전부들 그런 부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가?
그것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배
신감같은 것과 일종의 허탈감이라고나 할까하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실제로 외국인과의 협동 또는 공동설계를
할 수 있는 국내 건축가는 그리 많지 않다. 일종의 선택
되어진 계층의 건축가인 것이다. 대규모의 설계사무소
인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건축가들인 것이다. 우리나라 건축계에서 상당한 영향
력을 행사하고 있고 독보적인 경지에서 작품을 발표하
고, 젊은 세대의 후진 건축가들에게 추앙을 받아야 되는
건축가들이 소위 남의 뒷바라지나 하는 물골을 보기가
안스러워서 혹시나 하는 기우에서 나오는 염려인 것으
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공동설계의 역할분담을 공정하게
나타내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럼으
로서 공동설계의 새로운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옳은 것
이다. 국제현상설계같은 것을 하면서, 외국의 건축가
에게 거액의 금액을 건네주고 아이디어를 사오는 행위
같은 것은 그만하고 떳떳하게 그야말로 공동설계를 하
는 것이 더 멋있는 것이다.

건축과 인식성이라는 테마

이 건축물은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있다. 단 하나의 교
리는 무엇인가하면, 다른 어떤 건축물보다 돋보이게 보
여야 한다는 바로 그점이다. 즉 인식성이다. 그런데 그

인식성을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으로 풀이하였는데, 그것은 공간Space로서도 아니고, 도시와의 연계성 Context도 아니고, (사실로 이 증권단지에서 이 Context를 논한다는 것이 무의미하므로) 그 어느 것도 아닌 단순한 차별성 Distinguishness이다.

다른 건물과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테마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건축물은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이 건물은 가각에 위치함으로써 여의도 중심부에서 보면 가장 잘 인식되는 장소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다른 건물보다 고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시각적 효과는 대단하다.

도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소위 인식성을 가진 건축물Landmark로서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가지는 그 강렬한 인식성은 다른 건물을 배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보통 투시도를 그릴 때 쓰는 수법은 자기가 설계하는 건축물은 정식으로 잘 그리고 주위의 건물은 흐릿하게 배경으로 처리해 버리는 것인데, 이 건물은 너무 강력하여, 마치 투시도속에 아직도 그냥 있는 것같이 보인다는 점이다. 그 건축물은 아직 건축주Client의 것이다. 자기것이라는 의미가 강력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의 것이 아닌 것 같다. 건물은 자기 것이지만, 건축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 건물이 세워진 대지는 물론 건축주의 땅이지만, 그 땅은 서울 그라고 여의도라는 영원한 우리의 것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증권단지자체가 도시Urban과 도시성Urbanism의 상설이라는 전제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건축물이 도시와 당당하게 대립하려면 도시에 대한 상당한 배려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실제 건물의 요소 요소에 사용된 모든 부분에 대한 빈틈없고 잘 짜여진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 건축물이 갖는 아주 이기적인 차별성으로서의 인식성때문에 건조한 Dry 느낌을 갖게 된다. 결국 건축물이 그 곳에 서 있을 이유가 인식성이라는 아주 명확하지만 단순한 하나의 테마로서만 풀이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건축주는 이 건물이 심볼Symbol로서 인식되기를 바랐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오히려 다른 것들이 비록 건조Dry하다고 해도 더 좋았을 것 같다. 인식성이 있다는 것과 심볼릭Symbolic하다는 것은 구별하고 싶은바, 오히려 이 건물이 인식성의 단계를 포함하거나, 넘어서서 심볼릭했으면 한다. 우리의 심볼, 여의도의 심볼...이 되면 더 가까운 건축물이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도시와의 관계나, 거리와의 관계도 연계성이라는 심리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여진다.

Post-Modern Sky Scraper?

이 건물은 30층을 R.C구조로 형성하였다. 저층부에서 상부로 올라가면서 점차 요철이 사용되면서 무방위 형

태의 입면과 최상부 원통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도시를 밝히는 '랜턴'을 상징하였다. 건축적인 디자인 개념은 '정사각형속의 원형circle in the square'라고 밝히고 있다.

R.C구조를 사용한 것은 건축적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30층의 건물이라면,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당연히 철골로 하여야 하겠지만, 그러한 상식을 뒤집는다는 것은 그 사고의 다양함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 주저할 필요는 없다. 또한 이 쌍용투자증권이 국내 굴지의 시멘트회사를 모태로 하여 이를 건축에서도 인식성과 심볼의 하나로 삼을 수도 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그 점이 구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적용될 수는 없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된다. 외부의 마감재료가 돌로 되어있는 것은 건설하는 도중에 변경된 것이고 원래는 샌드브러쉬였었다는 것은 건축적인 디자인 개념의 실현과 인식성의 명료성을 부가해주는 좋은 요소였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점은 아쉬운 것이라 생각된다.

전형적인 Center Core형식으로서 중앙부에 원형의 홀을 두고 네 귀퉁이에 각각 엘리베이터, 계단, 설비실, 화장실 등을 설치하였다. 중앙부 내부 홀은 전체 평면 구성이 그렇듯이 부방향성이 되어 다소간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는 한데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 건축물이 부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정확한 이유는 아마도 언제 어디서라도 잘 보이고 잘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라고 이해된다.

이 건축물에서 가장 좋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2층 휴게공간과 1층의 입구홀 부분이다. 1층 출입구로 들어가면, 앞뒤로 서로 연결되어 관통하는 공간과 2층의 휴게실공간과의 수직적 연계공간이 아주 인간적인 스케일로 처리되어 있다. 이는 상당한 세련도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서 이 공간과 뒷부분의 Pedestrian Road와의 연계는 전체의 잘 짜여진 공간체계와 더불어 의미 있는 장소로서 인식되어진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모듈이 3.75m 사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모듈이 벽면, 평면, 천정, 층고 등의 모든 구석구석을 형성하는 기본이 되어 있다. 그래서 건축물내부는 잘 정돈된 안방과 같은 차분한 분위기를 나누어 주는 것은 호감이 가는 부분이다.

외부와 내부의 모든 것에는 이러한 모듈때문만은 아닌 내재하는 질서가 있다고 보여진다. 구태여 부연한다면, 평면은 우리것과 같은 스케일과 느낌을 준다면, 외피는 소위 익숙해지기에는 좀더 인내가 필요한 외국적 입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이론마 현재 미국에서 유행하는 'Post-Modern Sky Scraper'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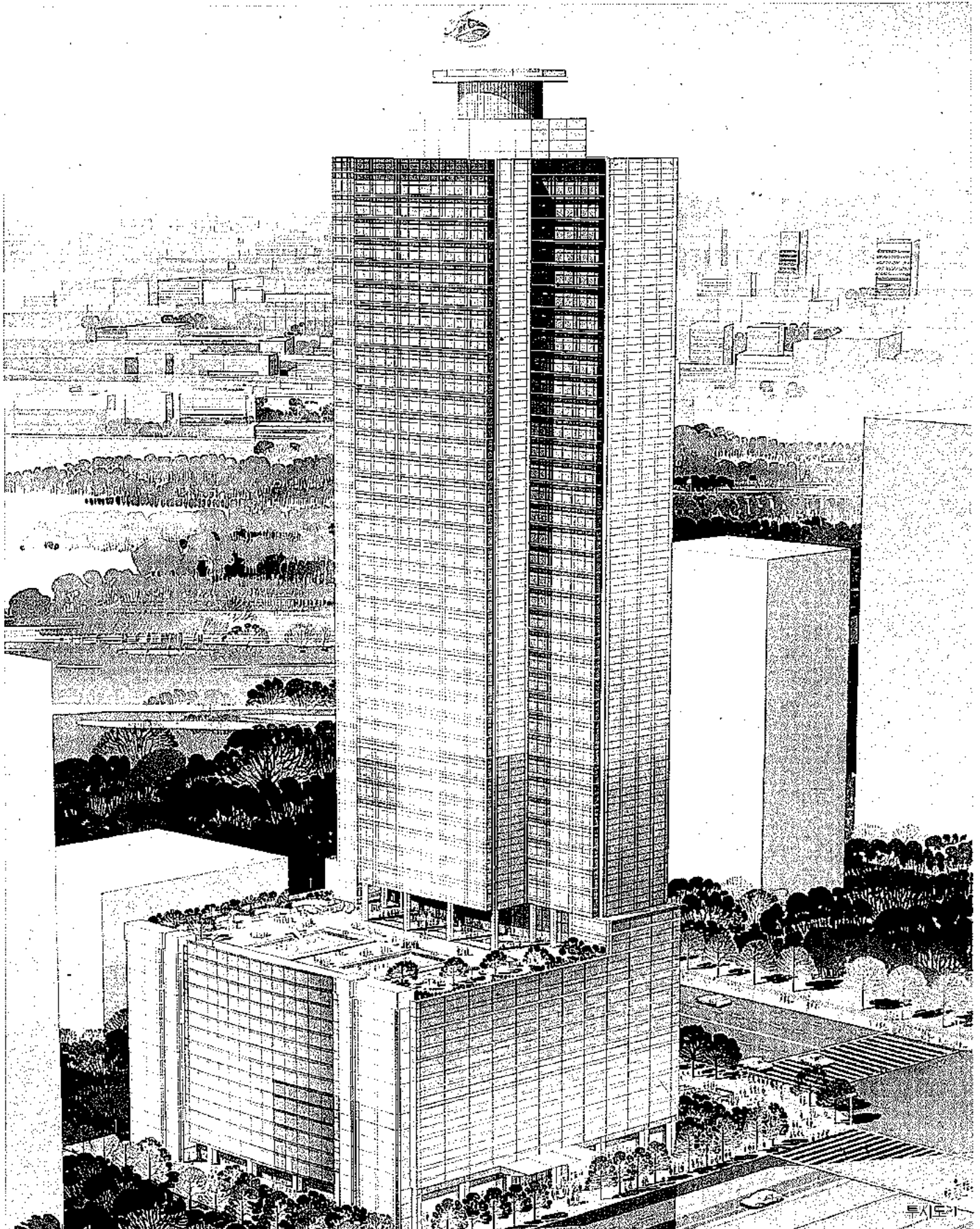
계획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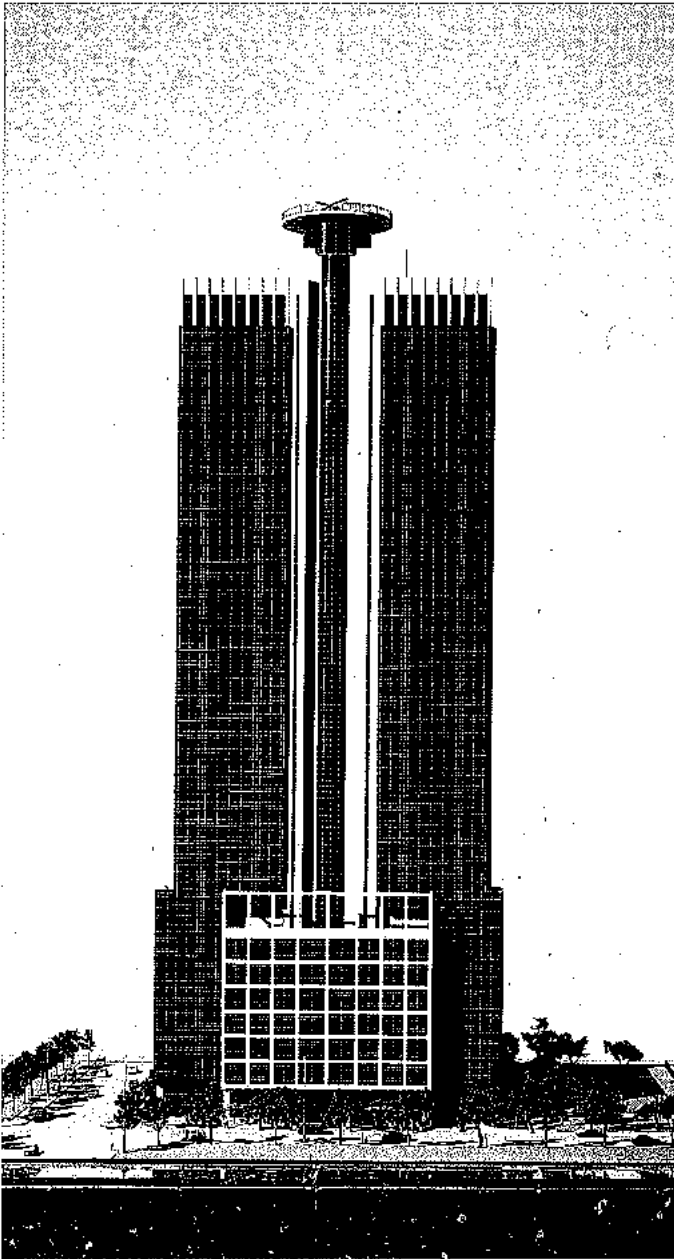
보라매 환타지아

Boramae Fantasia

金亨泰 + 全祐健 / (주)도인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Hyung-Tae & Joun Woo-G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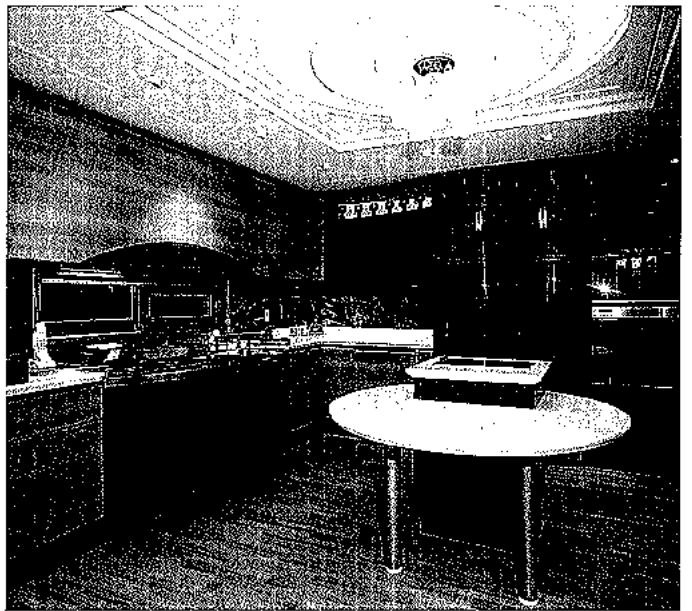




모형도



86평형 현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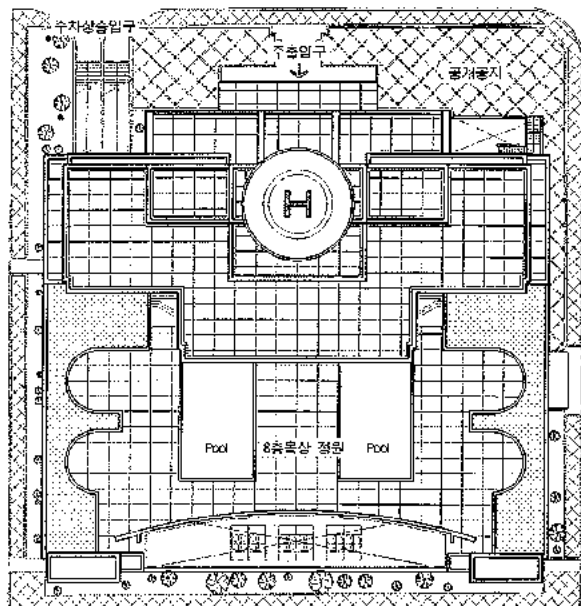


86평형 부엌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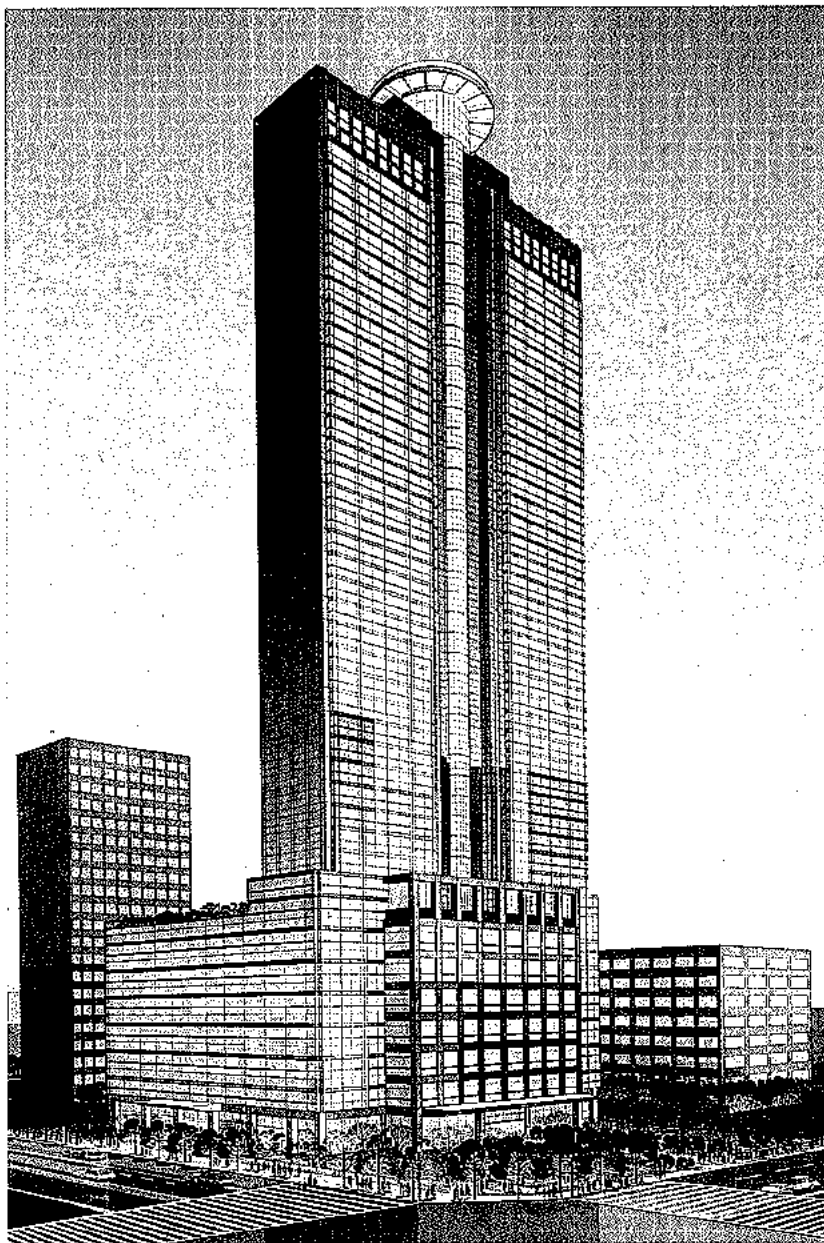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69번지
 지역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4,758㎡
 건축면적 / 2,992.46㎡
 연면적 / 81,930.26㎡
 건폐율 / 62.89%
 용적률 / 1,083.86%
 규모 / 지하 7층, 지상 42층
 최고높이 / 142.5m
 건축구조 /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용도 / 공동주택(175세대),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주차대수 / 668대
 외부마감 / 알루미늄 커튼월+24mm 파스텔 복층유리
 설계담당 / 정보영, 왕정현
 건축주 / (주)라성건설
 시공 / (주)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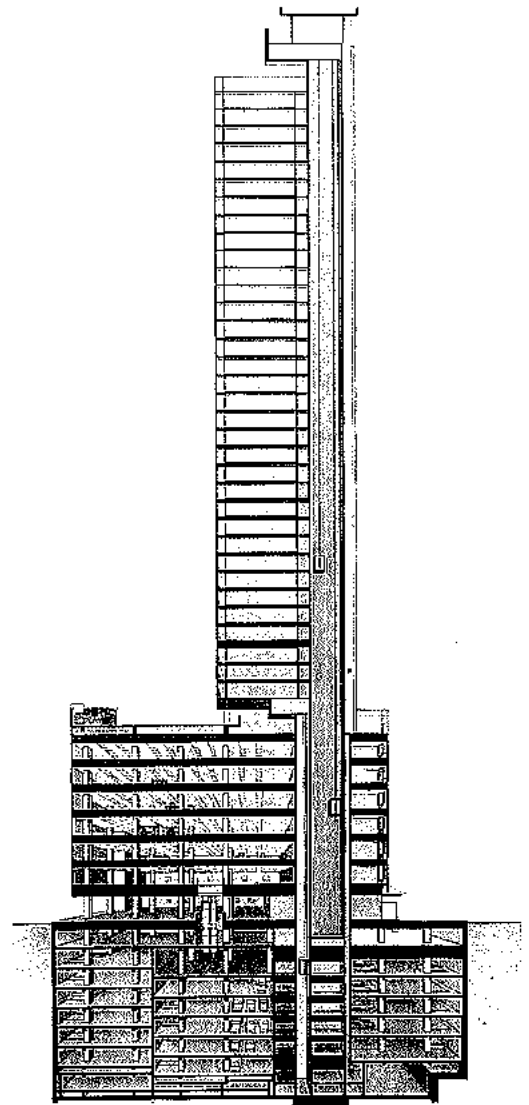
베 치 도
 0 1 2 3 4 5 10m



베치도



투시도 2



투시단면도

국내 건축계에서 주상복합이라는 건축형태가 1980년대에 등장한 이후 대규모의 주상복합단지가 옛 공군사관학교 부지(보라매 공원 옆)에 계획되는 것은 건축설계사무소 및 건설회사 등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은 사실이다.

“보라매 한타지아”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주상복합으로서는 국내최대규모의 지하7층 지상42층의 규모로 계획되었다.

2년여 동안의 설계와 변경을 거친 후 현재 시공 중인 이 프로젝트는 향후 3년후에 보라매 주상복합단지내의 여러건물들과 함께 그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Mixed-use building” 건물은 2차대전 이후 상업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상업건축물의 새로운 건축 형태로서 서구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이후 국내에서는 1980년대 들어 와서 본격적인 주상복합건물의 형태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주상복합은 건축 계획적으로 볼 때, 주거기능과 비주거(상업, 업무, 운동 등) 기능이 하나의 건물에서 통합되는 관계로 상당한 설계기술을 요구하는 건물이다. 호텔 건물, 병원건물이 계획적으로 독자적

인 영역과 전문성을 갖는 이유는 인간의 여러활동이 건축을 통해 수용 되어져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프로젝트에서 다른 주상복합과 마찬가지로 주거생활에서의 안락함, 편리함의 증대와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주거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기타부대시설을 적절한 관계설정에 의한 건축적인 해결사항이 많이 요구되었고 또한 프로젝트의 사업성, 지가의 고가, 경제성에 따른 초고층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성으로 계획적, 구조적, 건축 재료, 설비 등에서도 새로운 해결이 요구되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대규모로 건설되기 때문에 도시적 이미지와 주상복합에서 고층부를 차지하는 주거시설의 기능과 어떻게 대응할것인지도 해결을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배치계획

북쪽으로 12m 도로, 동쪽으로 15m 도로의 비교적 좁은 모서리에 위치한 대지는 자연적 환경과 도시적 맥락에서 비교적 명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건물의 계획적 특성상 고층부, 저층부로 형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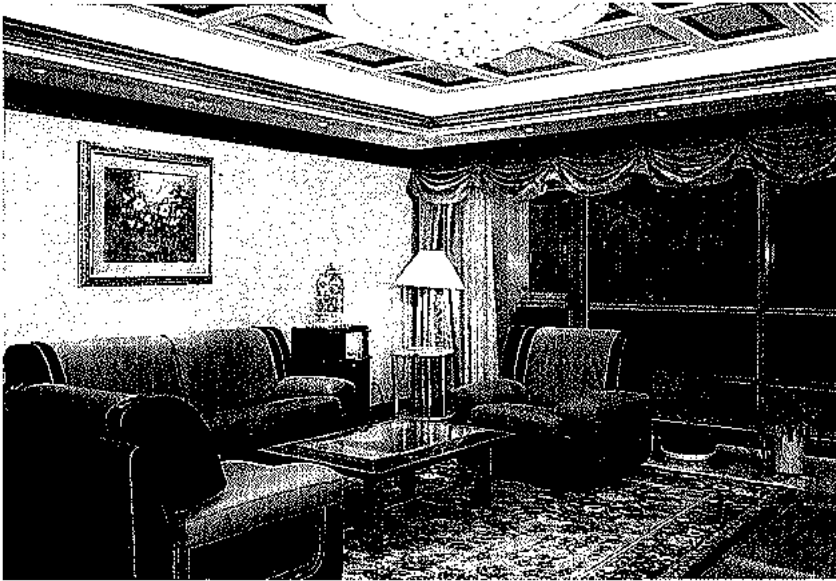
분리가 요구되었고, 건물의 정면성과 접근성은 특히 자연적 환경이 중요시되는 주거의 향에 의해 남북을 주축으로하여 12m 도로쪽에 주거시설, 업무시설의 주출입구와 공개공지를 전면배치함으로써 해결 하였다.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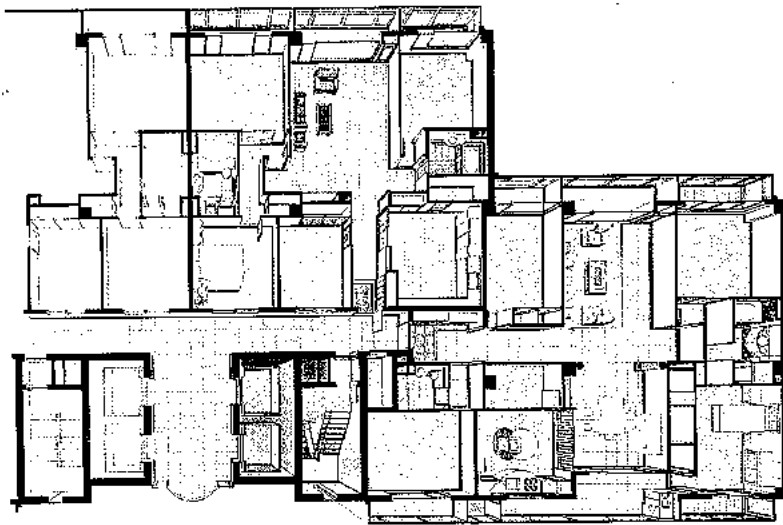
지하 7층, 지상 42층인 이 프로젝트는 지하 7층에서 지하 3층까지 기계실, 주차장, 지하2층에서 지상2층이 판매시설, 지상 3층에서 지상 6층이 업무시설, 지상7층이 운동시설, 지상 8층이 아파트 거주자들의 전용 옥상정원 및 야외풀장, 9층부터 42층까지 주거시설인 아파트로 계획하였다.

여러시설이 복합되는 관계로 기능별동선의 분리과 연결이 중요한 계획요소가 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기능별선의 단축, 명확성, 코아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었다.

코아는 하나로 계획되어 주출입구 쪽에 주거용 ELEV.를 설치하여 주거동선의 효율성을 높혔고 코아의 다른 한편에 비주거시설 ELEV.를 설치하여 주거와 비주거의 수직동선 및 수평동선을 명확



86평형 거실 모델



단위 투시도

히 분리하였다. 주거용 ELEV.는 지상 1층에서 최고층인 42층까지 운행된다. 물론 비주거 부분인 지상 2층에서 지상 8층까지는 이용할 수 없다. 비주거용 ELEV.는 지하 7층에서 지상 8층까지 운행되게 계획 하였다.

업무시설은 코아를 북쪽으로 배치하고 업무공간을 남쪽으로 계획하였고, 아파트 층은 침실, 거실은 남쪽으로 부엌식당을 북쪽으로 남향 평면이 되게 계획 하였다.

입면계획

이 프로젝트의 대지는 단지계획에 의한 상업지역으로서 주상복합 및 업무시설등 총 13개의 초고층 건물군이 형성되므로 지역 도심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하게 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콘텍스트에서 업무시설인 저층부는 도시적 텍스처를 고려한 알미늄 패널, 복층유리, 화강석으로 도시적 이미지와 상업시설의 기능적 특성을 건축적으로 표현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고층부 아파트는 특히 초고층이라는 제약성으로 주거로서의 기능과 도심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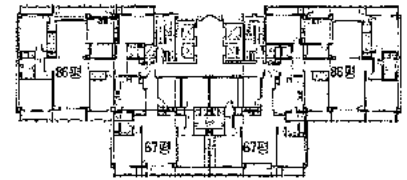
이미지사이에서 이에 부합되는 건축적 표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들중 주거로서의 환경적 요구는 기계적 방법과 지역적 방법과 병행하여 해결하였고 외관은 도시적 콘텍스트와 첨단 주거시설로서의 이미지에 부합되게 저층부와 같은 이미지로서 커튼월로 계획하였다.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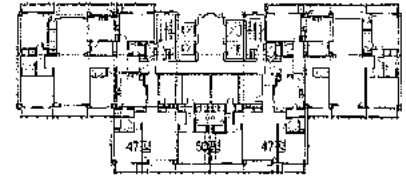
각 시설별 층고의 계획은 건물의 구조시스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프로젝트는 저층부의 업무시설과 고층부 아파트 시설을 모두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함으로서 특히 아파트 시설의 층고를 계획하는데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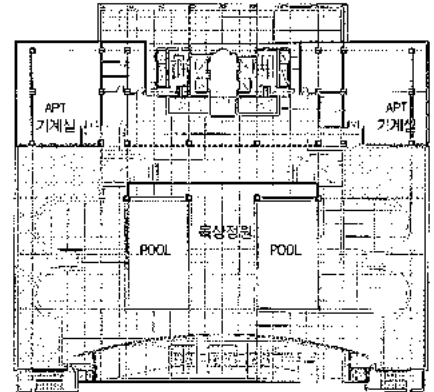
아파트 층고는 천정고(2.4m), 철골보, 데크플레이트, 설비(스프링 홀더등)을 고려하여 계획 되었고 업무시설은 천정고와 설비 스페이스, 데크플레이트 등을 고려한 4.2m층고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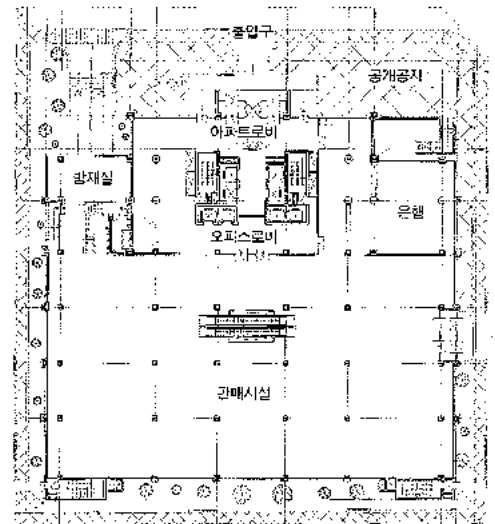
12~4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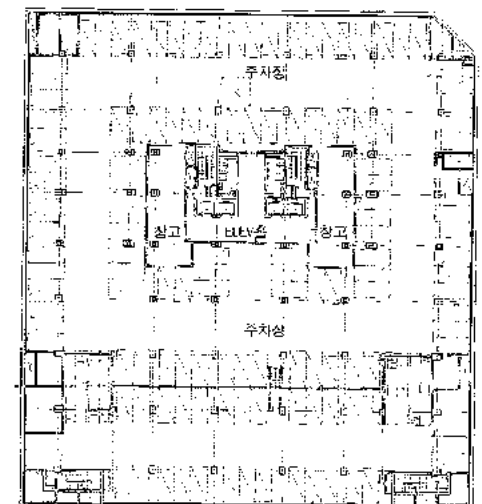
10~1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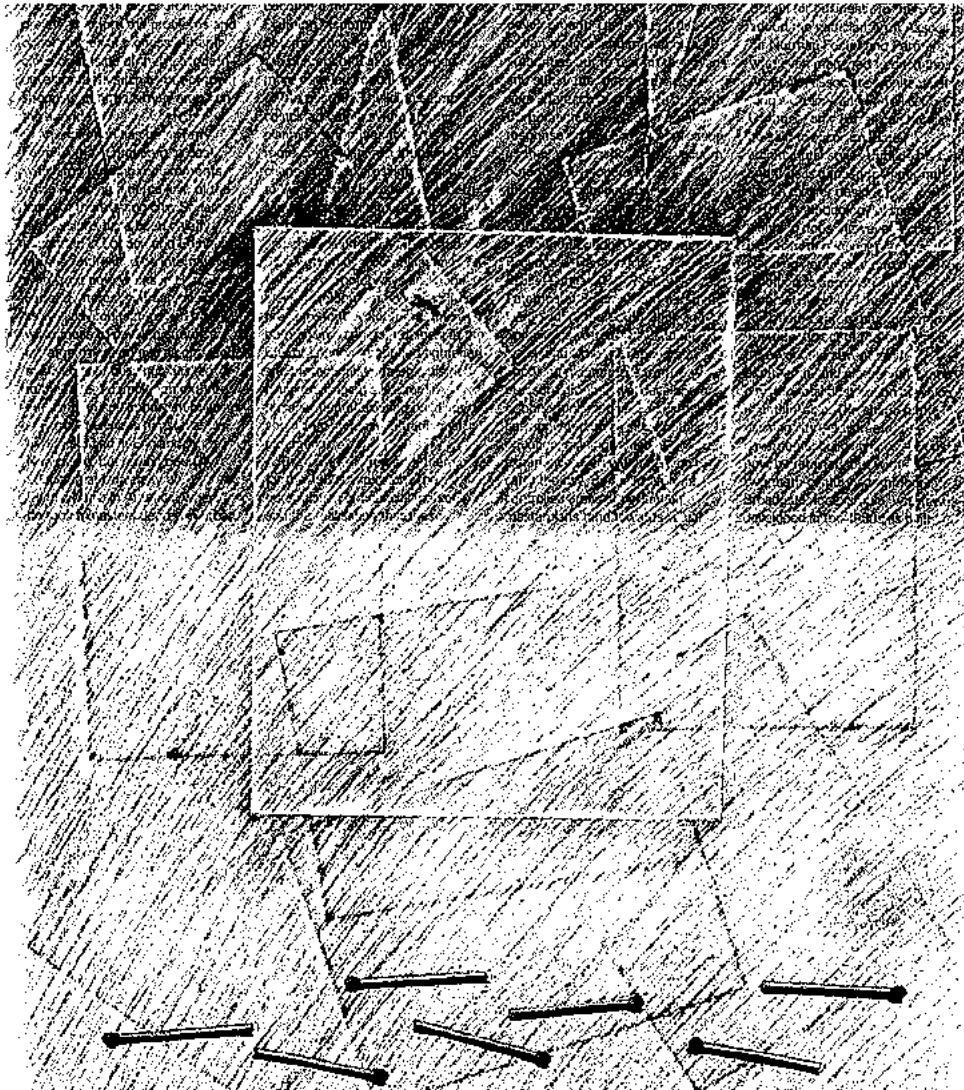
8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3~5층 평면도



사물놀이(4호F), 고창석 /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원

“건축”이 내 삶의 장이었다면 그림은 나의 존재를 자리매김시키는 사고의 생성물이라 여겨왔다.
 나의 그림은, 사물을 그린다는 행위=사물을 지운다는 행위=사물화작업의 행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등의 질문은 접어두고 그냥 이렇게 이러한 작업을
 끈질기게 해보려는 자신의 의지표현이라면 설명될 수 있으리라.
 아무튼 나에게 있어 그림작업이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의지의 표현이라 해두고 싶다.
 왜냐하면 이러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를 즐겨보고 싶으니까……

우정은 이내 온가슴을 차지하고 있지만

A Heart full of Simple
Friendship

尹汝郁/건축사사무소 도심환경
by Yoon Yeo-Wook

우정은 이내 온가슴을 차지하고
여윈 덧철을 지우고 있지만
하나, 둘 그리고 셋 초석을 다질 즈음
자연은 그 부드러운 호흡으로 우릴 살핀다.

뒤켠 한구석에 남아있는 우정의 흔적이
거친 바람, 비, 눈속에 스러져갈 때
태양의 환희 그마저도 옛꿈의 번두리로
밀려나고 말았으니……

우정과 우정을 통한
생의 대화는 이름모를 유리벽에 막혀
그 소리를 잃었으나 사람과 자연의 무한 대화는
이 순간에도 저 바다와 그 위를 씹없이 넘나든다.

우정은 신록속에 만가지 색으로
이내 가슴속을 차지하지만
주인 잃은 도덕심은 타락의 명예로 술한
연민과 수치의 산터가 되었다.

서로를 향한 사모의 눈길과
그를 지켜내려는 우정의 안간힘들
이미 준비되었던 홀연한 벽에 치어
맥없이 울먹이는 의지가 되었다.

아 들어라
감출 수 밖에 없는
위선과 체면으로 점철된 나날들……
아 들어라
입에서 입을 통한 결코 부활치 못할 찌꺼기들…
이제 떨쳐 버리리라
모든 것을 떨치리라……



사고의 전환

Conversion of Paradigm

洪琦澤/종합건축사사무소 하나그룹
by Hong Ki-Taik

역사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양적 확대와 외재적 구속력에 끼워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환경에 맞는 우리 모두의 사고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아키텍터로서 역할의 변화와 그 개념의 확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서는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며, 건축 문화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면 사고의 전환도 혁명적이어야 한다.

세상에는 눈에 잘 보이는 것과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일반적으로 눈에 잘 띄이는 것은 보기 좋고 인기가 있으며 주위의 사랑을 받는다.

반대로 눈에 잘 띄이지 않는 것은 보기 흉해서 남들이 알아 주지 않고 버림을 받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남과 대중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지 모른다.

그러나 세상엔 보이지 않는 힘, 알아주지 않는 힘이 꼭도 그리울 때가 있다. 보이는 여러개의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힘이 전체의 질서를 지탱해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릇된 Model Personality

우리에게 주어진 건축문화의 형성을 과정이나 결과로 어렵게 따지기 보다는 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총 도서신고 중 연면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주거부분이다.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주거 부분까지 합쳐서 거의 70% 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체 건수의 80%정도이다. 이 정도면 현재 건축문화의 모습이 어떻고 이 모습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하며 해결해야 하는지 우리의 숙제를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수의 요구에 의한 다수의 건축이라고 하는 우리의 주거 건축물이 우리의 건축문화의 Personality로 굳어져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주거 집단을 제외한 소위 엘리트적 건물군만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건축문화를 보여 주는 것일까?

Archi-Director로서의 역할

이러한 주거문화 현실은 사회적 사실을 외재성(外在性)특히 구속성의 표식에 의하여 파악하고 이것을 사회적 사실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정서 속에 있다.

첫째로, 골목길 개체 보존으로서 그 장소가 갖는 맥락에 거의 무관심한 경우.

둘째로, 새로운 생존 방법을 구하고 변신하지만 결국은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무작위적인 자기의 길을 가는 경우.

셋째로, 지구 정비적 관점에서 장기적이지 못하고 계속 변질되는 경우.

넷째로, 유전자적으로 기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환경구성의 동기가 되는 경우이다.

건축문화를 이끌어 가야할 아키텍터(Archi - Director)는 이러한 문제를 자기 중심적 사고가 아닌, 문제 중심적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 일련의 작업들은 아키텍터의 창조적 만족감을 위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목적에 알맞는 시각적 해결을 찾아내야 한다.

문제의 답은 이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 오랜 역사가 경과하는 동안에 서로 다른 문화가 형성된 내용 즉 문화의 변이성(變異性)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인은 머리가 좋아서 수저를 발명했고 서구인은 전투적이고 저돌적이라서 나이프와 포크를 만든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음식은 점착성(粘着性)이 있는 주식에다 김치나 야채류를 부식으로 먹기에 수저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수저를 사용하거나 포크를 사용할 때 어느쪽이 고문화(高文化)이고 저문화(低文化)나 하는 차등 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동물의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환경을 바꾸어 보아서 그 나타난 영향을 보아 그것을 종합 분석해서 각각의 법칙성을 찾아낼 수 있지만, 인간의 경우에는 이러한 설정 방법은 불가능하다. 그대신 민족 정서를 함양했던 민중의 생활사 중심으로 공간을 인식함으로써 미래 생활사 중심에 알맞는 새로운 우리 주거문화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히 우리 주거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질때 해결되리라 본다.

작업에 대한 또다른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건축 계획의 특성은

미래-불확실하다.

미래-변화-진보를 그 전제로 한다.

결국은 현상학적 대상으로 ON과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이라든 For, 그 행위로서의 Why.

정리하면 어떤 대상에 대해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것이다. 또 계획의 범위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며 그 행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된다.

-환경으로부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상태 즉, 「문제의 파악」

-물리적 형태에 의한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혹은 「변화의 예측」

-파악된 문제를 해결하여 바람직한 미래의(예측된)상태에 이르게 해주는 「물리적 상태의 창조」

-위의 방법에 필요한 기술을 동원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결과물이라도 그 작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지어지고 연출되어지느냐가 작품의 이미지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거주후 평가(P.O.E)이후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거주후 평가(P.O.E)란 건축에서 새로운

용어라 할지라도 그 개념은 시대적으로 이미 여러 방면에서 대단한 영향을 끼쳐왔다. 이와같은 거주후 평가의 목적은 인간의 공간 사용 결과를 분석하여 사용자와 건축가들에게 기존 건물의 구조적 문제점과 환경적 부조화를 인지하여 새로운 설계에 그와같은 오판을 방지함과 건축물을 생태계의 관점에서 인간을 둘러싸고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문제삼아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접근 방법을 시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거주후 평가는 인간에게 적합한 물리적 생활 공간을 창조하기 위해 합리적인 과정과 절차를 수반하여 문제의 본질을 찾아 그 해결을 추구하고 미래의 설계를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인간의 생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의 주거 문화의 올바른 Model Personality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한다.

패러다임의 전환

제 키의 몇십배나 되는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다는 벼룩을 1센티미터의 높이만 띄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 방법은 유리판을 두장 위, 아래 1센티미터 되게 장치하고 사방을 막아 그 속에 벼룩이 제멋대로 뒹굴 뒹굴하다가 여지없이 뒤통수를 얻어맞게 되고 뒹뒹때마다 머리를 찰자 피를 내어 점점 뛰는 힘을 잃어주어 적응하게되면, 유리판을 치워도 1센티미터씩만 뛰면서 결국은 제 키의 수십배라는 높이뛰기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요즘 들어 나는 가끔 생각해 본다.

벼룩처럼 유리판 사이에 끼어 1센티미터 뛰기에 익숙해진 나머지 넓게는 우리 사회가 좁게는 아키디렉터나 사용자가 유리판이 치워진 다음에도 그 습관 때문에 「나는 1센티미터를 뛰는 벼룩이요」하고 있는 것만은 아닌가 하고 뒹뒹때마다 부딪치던 마알간 유리 천정이 두려워 무릎을 조금 오무렸다가 조금 펴면서 뛰는 시늉만 하고 뒹뒹했다고 생각해대며 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역사는 때가 되면 우리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한다. 양적 확대와 외재적 구속력에 끼워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환경에 맞는 우리 모두의 사고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인 것이다. 아키디렉터로서 역할의 변화와 그 개념의 확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서는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을 것이며, 건축 문화의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면 사고의 전환도 혁명적이어야 한다.

해운대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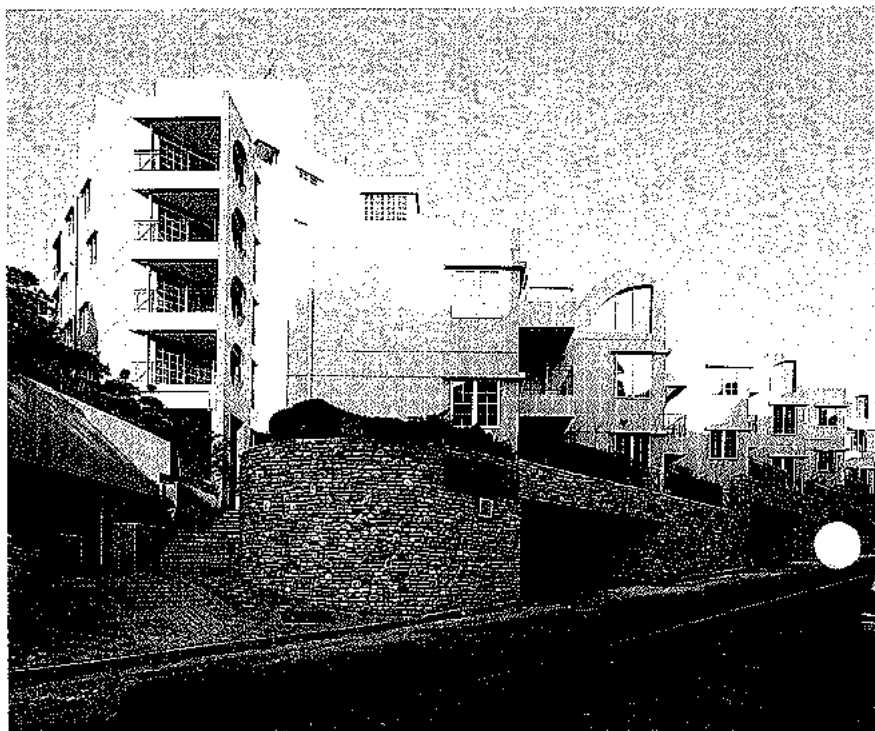
Haeundae Village

趙成龍 / 우원건축
by Cho Seong-Ry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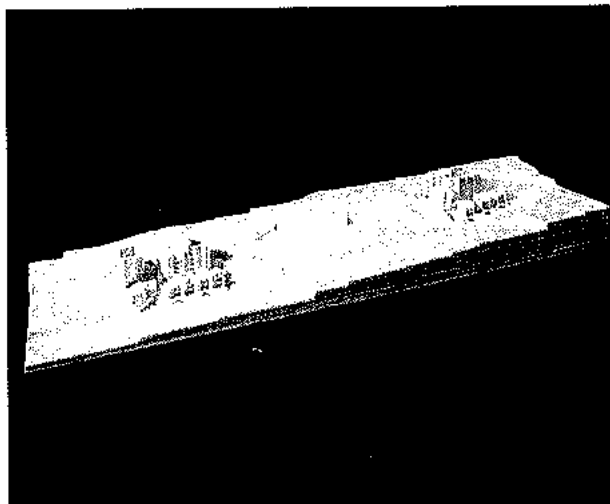
언제부턴가(아마 올림픽이 끝난 즈음이라) 주택이 여기 저기에 이른바 빌라라고 부르는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빌라는 작게는 두 세대에서부터 20세대미만의 주택으로 구성된 공동주택을 이르는 말이다. 요즘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슨 무슨 하이츠, 빌리지, 빌라 타운 등 그 이름으로 따지자면 꽤 규모가 될 성싶은 광고가 늘어났다. 그래서 지난 20여년동안의 아파트 붐이 빌라 붐으로 바뀐 것처럼 느껴질 정도지만 실은 주택의 구성방식으로 보아 연립주택이거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택공급업자나 입주자들은 이 빌라를 연립주택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과는 관계없이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싶어한다. 그러나 동네 구석구석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이 들어차버려 이제는 그런 인식마저 뚜렷하지 않게되어 버렸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북쪽을 쳐다보면 바다로 특 튀어나온 언덕이 눈에 들어온다. 이 일대를 달맞이고개, 달맞이 언덕이라고 부른다. 낭만적인 이름에 걸맞게 송림과 잡목이 우거진 낮은 언덕아래 풍경과는 달리 그 위는 오래 전에 들어선 아파트와 몇년 동안 집중적으로 세워진 빌라들로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다.

경사진 언덕길을 따라 뺨뺨이 들어찬 빌라들은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분양될만치 요란한 모습이다. 붉은색 일색의 벽, 번쩍이는 스테인레스 난간, 울긋불긋한 지붕들로 이 일대의 풍경은 그야말로 몇 해 사이에 새로 개발된 서울의 남쪽 지역 주택이 그대로다. 굳이 다르다면 그 형태나 구성에서 유행?에 뒤떨어진 듯한 디자인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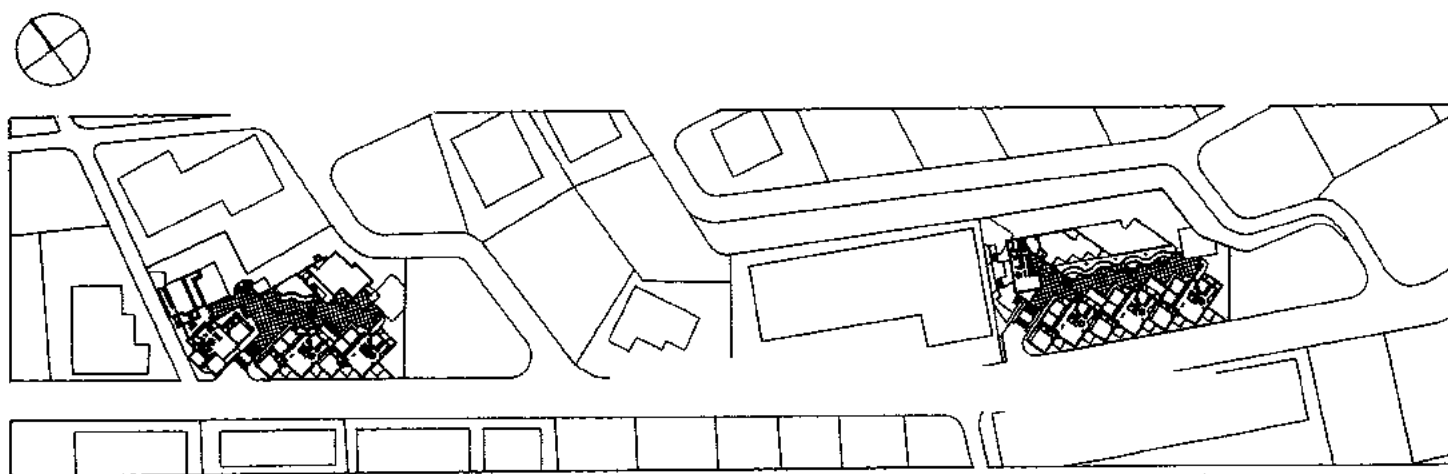
외관처럼 내부도 전혀 다르지 않아 비싼 값에도 싸구려처럼 보이는 마감재료나 위생기구가 눈에 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집들에 만족하는 것일까? 국적불명의 스타일에 세련된 감각도 모자라는 이런 종류의 주택을 바랄까? 주택이란 어차피 쓰는 사람의 욕구에서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집을 짓는 주택업자나 건축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일까? 안타까운 마음은 이 풍광 아름다운 언덕에 섰을 때 노여움으로 바뀌었다. 수많은 쓰레기와 밀려오는 부끄러움에 치를 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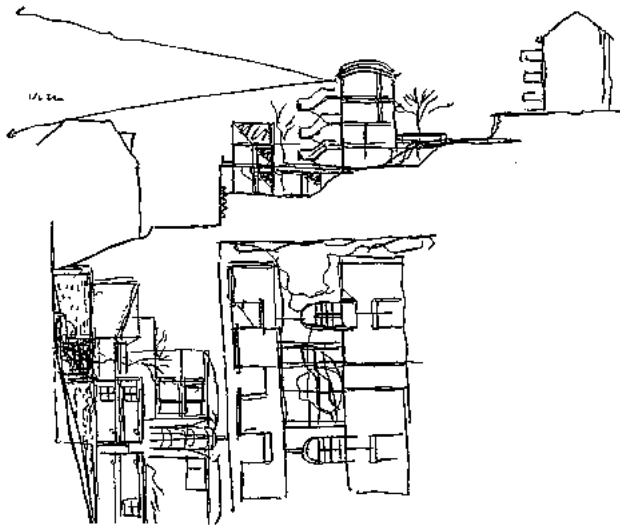


달맞이 언덕에 짓는 집은 붉은 벽돌과 아스팔트 싱글을 써야 된다는 것이 맨 처음 해운대 구청에서 알아 본 적용지침이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건축심의에 통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가 이 황당한 지침을 만들었을까? 부산시장의 지시라고 했다. 앞으로 민선시장이야 그리하지 않겠지만 이처럼 우스운 일은 그 때는 어느 도시에나 흔히 있는 일이었다. 관련된 여러가지 법과 지방별로 제정된 조례를 지켜야 하고, 앞서와 같은 시장방침에 더하여 서울에서는 구청장방침이란 것도 있던 시절이었다. 당시의 시장이나 구청장에 따라 심의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도시의 모습이 이상하게 변해나갔다.



아니나 다름없어 해운대지역의 환경에서는 적절치 않음을 강조하였음에도 철석같은 지침은 우리가 계획에 손을 댄지 몇 개월만에 새 시장에 의하여 백팔십도 바뀌어 버렸다. 이제 붉은 벽돌을 쓰지 말고 밝은 색이어야 된다는 것이었





다. 그렇잖아도 곤혹스러웠던 터라 이 변경은 무척 다행스러웠지만 뒤끝이 영 시원치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오백평쯤되는 필지 3개가 한 길을 따라 150미터 가량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경사지에 필지마다 50에서 70평의 공동주택 18세대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다양한 단위세대를 만들고 싶었다. 말이 공동주택이지 현대의 도시주택에서는 실제로 어떤 공동생활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집합주택이라 함이 옳다. 다양한 삶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공간상호간의 관계와 각 세대의 가족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작고 사소한 행위를 통하여 연대의식과 동질성을 발견할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생각은 아시아전수촌 이후 줄곧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해운대빌리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제안한 가회동11번지계획에서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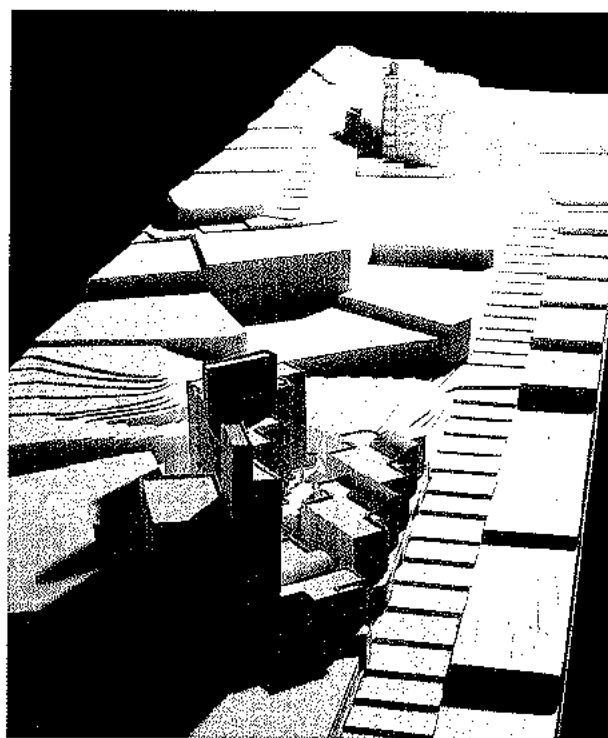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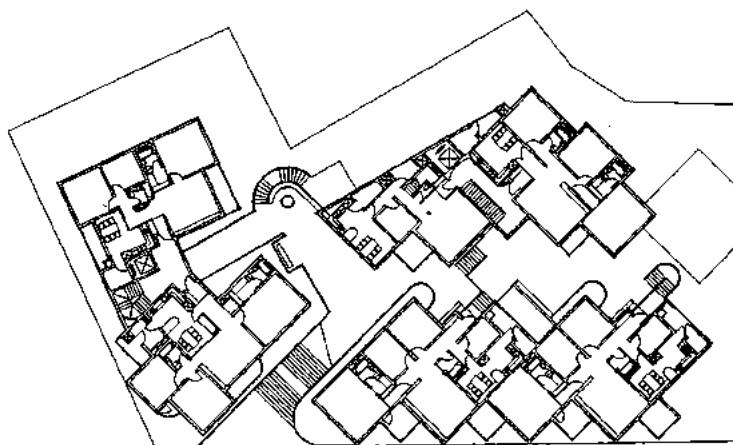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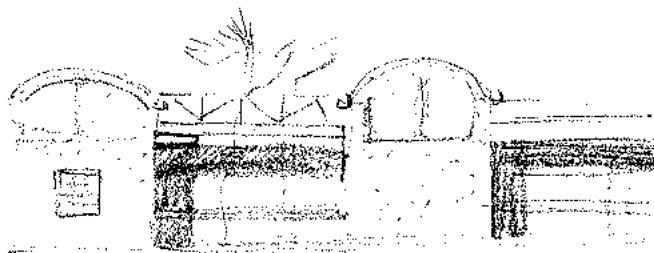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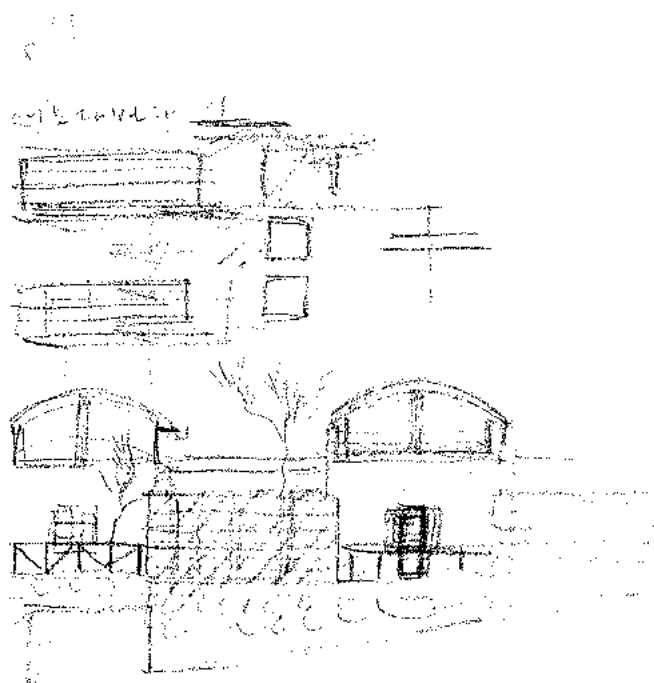
집과 집사이의 공간을 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좁은 골목길의 성격으로 만들고 세대 현관은 모두 이 길에 면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마주치게 한다. 흔히 강조하는 프라이버시라는 개념도 우리 사회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란 성격은 선택적인 것으로 내가 필요한 때 주변으로 부터 차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벽을 둘러쳐서 고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이를테면 공용 마당에 면한 거실의 창에 커튼을 설치하면 시선은 막더라도 마당에서 뛰어 노는 어린이의 즐거운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높은 위치라 바다가 시원스럽게 보여야 하건만 이미 앞쪽에 장벽처럼 서 버린 고급?빌라 탓에 2층정도에서는 어림도 없게 되어 도로에 면한 집은 아예 두개 층으로 만들고 45도로 어긋난 방향으로 멀리 해수욕장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앞동을 낮춘 덕에 뒷집에서는 바다가 바라보인다. 바다와의 관계는 이 단지에서 중요하다. 그것은 단지 비치나 수평선을 바라보는 일만이 아니라 이 지역의 장소성을 잘 분석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바닷가의 집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다. 밝은 빛깔의 외벽은 지그재그모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경쾌함과 리듬이 느껴진다. 비록 공사도중에 잘못되어(강도로 엉뚱하게) 바뀌어 버렸지만 언덕너머 어촌의 들담을 차용한 것도 달맞이 언덕의 장소적의미를 강조한 뜻이다.

가운데 골목은 안으로 들어갈수록 대지의 경사를 따라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계단과 경사도가 중간중간에 놓여 있어 움직이며 바뀌는 풍경을 보여준다. 넓고 곧은 길보다 집을 따라 오르내리며 좁은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즐거움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나쁜 상황(이 일대의 빌라들이 호화스럽다는 편향된 방송보도때문에 분양이 어렵게 되었다.)과 조전이 겹쳐 이 프로젝트는 전체 세 블록중에서 2개만 완성되었고 지은 지 2년이 넘도록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아니라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손을 떼게 되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지 못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4. 건축사상

한국에 근대건축이 시작된 것은 해방을 기점으로 하여 이뤄졌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해방을 전후하여 한국근대건축의 터전을 마련한 몇 분중에 김정수의 역할과 그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에 근대 건축의 태동에서 부터 발전 과정의 길목에서 한국 건축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하여 이를 실현시킨 초창기 건축가라는 명의를 부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작품의 사상적 근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건축의 신기술과 신소재를 실현시켜 그 기초를 잡아 나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실증은 그의 대학 강의나 세미나에서 남겨 놓은 작품에 나타난 사상에서 역력히 얘기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작품 사상은 중세시대의 Gothic건축의 특성이 그 기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Gothic에 표현된 내밀적 요구가 건축적 해석을 통해 외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근본 원리가 이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건축가 - 김정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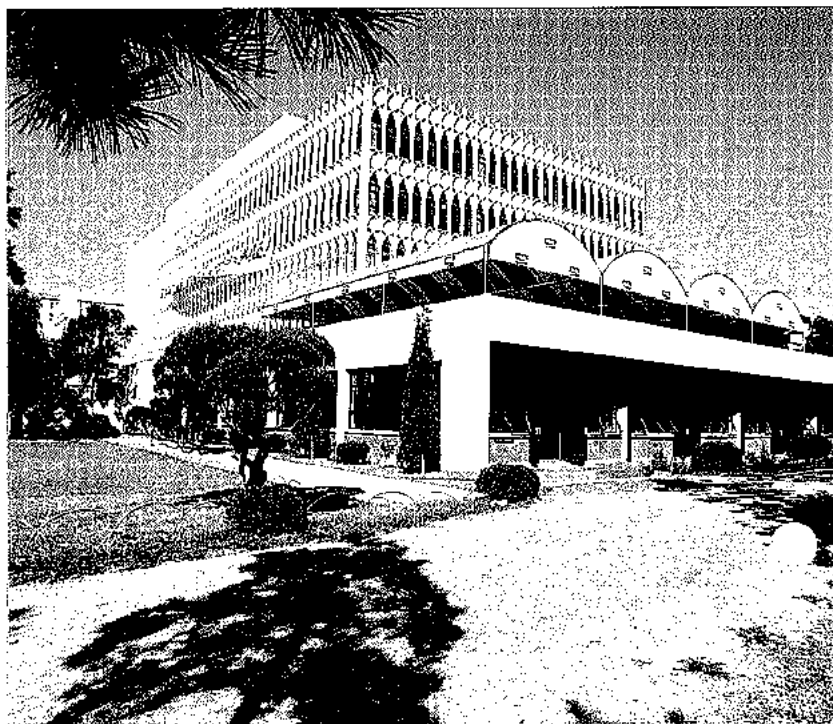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 Kim Cheong-Soo

李好璉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Lee Ho-Jin

중세 시대는 모든 것이 인간의 가치보다는 신에 대한 신앙적 감응 유발에 근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당건축의 그 외적 표현은 그 내부에 의한 것이고 그 요

소를 미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Romanesque 건축보다는 수 많은 군중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한 큰 공간이 필요하므로 큰 span이 요구되고 햇빛이 적은 나라에서(영국, 불란서 등) 발달되어 많은 채광을 위한 넓은 창호가 필요하게 되므로 높고 넓은 창을 계획하게 되었다. 또한 내부의 넓은 폭에 비례에 맞는 높은 천정이 요구됨에 따라 조적조의 한계성 때문에 당연한 구조적인 해결에서의 Vault구조와 Buttress구조가 당연한 표현 방법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기능과 구조의 필연적 결과가 외적 표출로 그대로 나타났고 신에 대한 절대적 신앙심의 표출은 하늘에 계신 신을 향하는 수직의 강조가 미적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



연세대 학생회관 남측 전경

이러한 내적 필연성을 외적표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축의 대원칙으로 이뤄진 Gothic Pathos적 사상이 김정수의 작품사상에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내밀적 구조성과 기능성이 합리적 해석을 통해 미적 표현성과 부합되며, 이것이 표현될 때 건축의 완성이라는 그의 사상이 대학에서의 강의 시간에 강조되었던 부분들이다. 이러한 사상은 그의 작품에서도 말해주고 있다. 성모병원의 Curtain Wall에서의 내부의 공간 분할과 내외의 조절 통제로의 유리벽의 구성이 아름다운 Mass의 비례적 해결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장충체육관의 구조에서 나타난 철골 돔의 구조적 형태가 그대로 외적 아름다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종로 YMCA의 구조적인 이상적 기둥간격을 살려서 표현된 외형적인 비례적 표현성이 더 이상의 틀임이나 조형성을 주지 않으면서 나타내고 있는 형태 창출이 Pathos적 작품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Pathos적 원리에 의한 그의 근대건축의 발전이 합리주의적 모더니즘의 표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양 세계건축의 사상적 흐름에서 양대 큰 맥을 찾는다면 Pathos적과 Logos적으로 이분할 수 있다고 보아서 김정수의 사상은 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이를 바탕으로 한 작품을 한국에서 시작하고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수의 건축 작품세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첫째는 Pathos적 직설적 표현 작품과
 - 둘째는 Pathos적인 사상을 합리적 Modernism 으로 표현한 작품과
 - 셋째는 이들을 신 공법과 실 재료를 이용하여 Pathos적인 것의 감성적 표현주의를 시도한 작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 그래서 다음은 이 분류방법에 의하여 그의 작품사상

을 정리하려 한다.

PATHOS적인 직설적 표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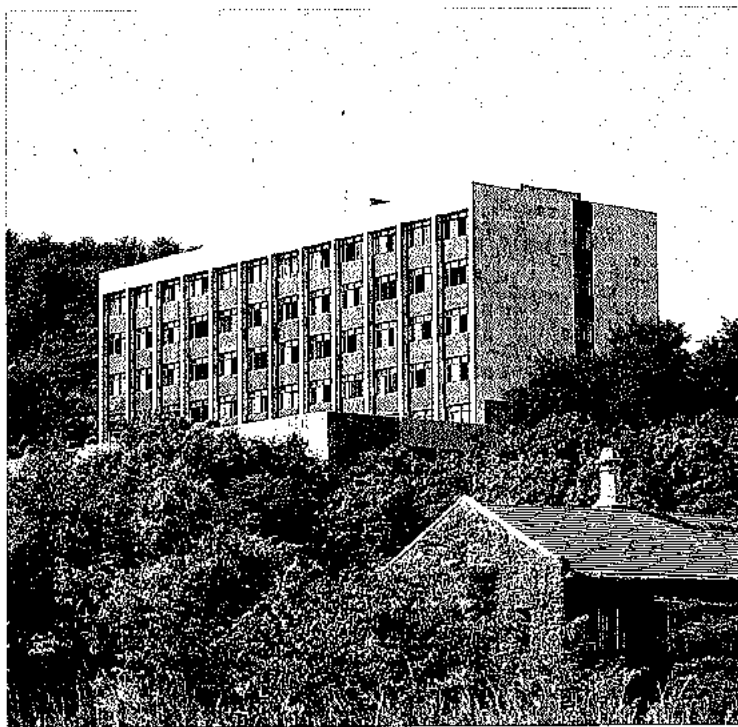
Pathos적인 표현의 시발은 Gothic 이라고 볼 수 있다. 먼 이에 대한 표현의 세부적 요소를 현대에 그대로 표출한 것을 「직설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정문과 Chaple과 강의동에서 낭만주의적 표현이 Gothic에서의 발전적 표현성이라 볼 수 있다.

Chaple에서는 기독교 건축의 신에 대한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수직적인 미적 요소를 전면 탑에서 강조를 시켰다. 본당의 높이에 비해 비례적으로 조화가 안 되리 만큼 높은 Mass를 준 것은 대조성을 주어 그 부분을 더 강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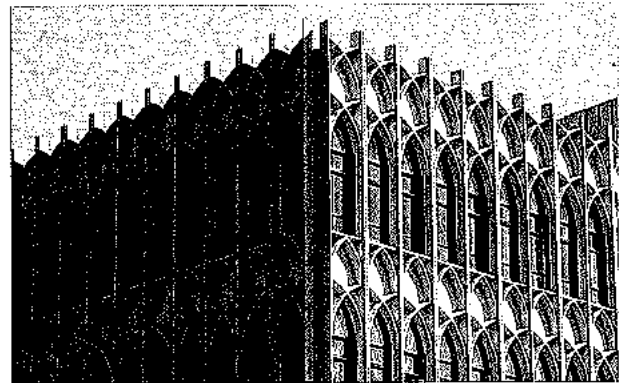
벽체에 버팀기둥(Buttress)을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점이성을 주어 상승적 시각감응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유리창은 침두아치를 반복시켜 수직선을 강조시키고 있다. 옆의 교사건물동과 정문도 이 Main Chaple에 조화된 표현기법으로 계획하여 Gothic에 영향을 받은 낭만주의적 양식을 대학 Campus의 보수적인 성향의 이미지로 직설적인 표현을 강하게 나타내므로 김정수의 건축작품 세계의 사고의 시작을 Pathos적인데 두고 있음을 이 감리교신학대학의 채플건축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적인 표현을 이 건축에서는 재래식 시공법으로 이루어졌지만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하여 1967년에 연세대학 학생회관의 외형을 Gothic의 섬세한 곡선 부분과 Rib의 돌출부분을 정교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PC패널로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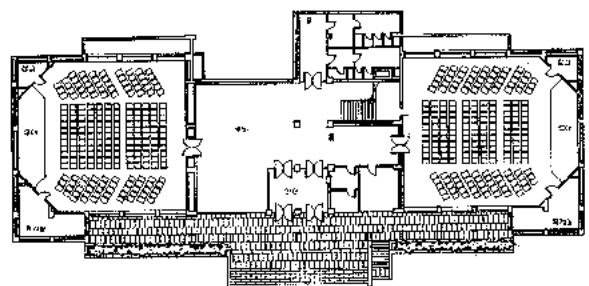
여기에는 합리주의적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단순성에서 내부에서 풍기는 이미지를 외피에 표현하겠다는 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즉 “연세대학교는 종교단체가



연세대 종합교실



연세대 학생회관 외벽 디테일



연세대 종합교실 평면도

이론 미션 스쿨로써 기독교 정신을 가져야 하는 이미지를 생각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연세대학의 학생생활의 중심이 되는 학생회관은 기독교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야 하겠다.”(김정수 교수와 본 집필자가 같이 작품을 구상하면서 토의되었던 의견임) 이 표현 의미는 Gothic적 첨두아치가 종교건축의 전통적 표현이므로 여기서 모티브를 찾을 수 있었고, 이 Gothic의 표현성이 Pathos적인 사상의 근간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의 동기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변 사회환경의 지루하고 단순한 생활 형태와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감응적이고 사고적이며 탈모더니즘적인 경향에 부합된 작품표현으로 수공예적이며, 섬세하며 의미적인 형태의 창출이 김정수가 이 시기에 추구하였던 작품사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건축외피의 감성적 표현을 Pathos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Gothic의 직설적 표현으로 작품이 이뤄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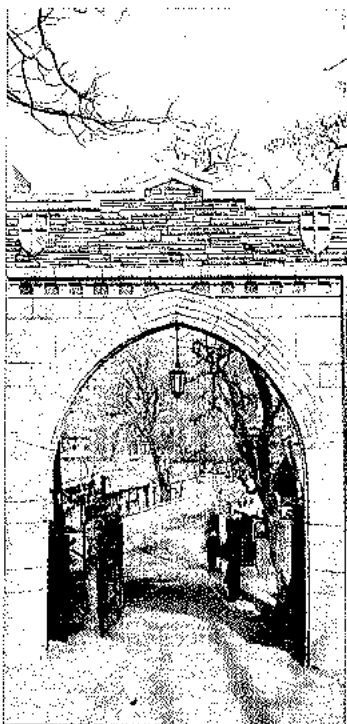
합리주의적 모더니즘 표현

건축에 요구된 기능성이 평면형태를 결정하며 그 평면의 상호성에서 연관된 동선과 관련 위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능에서 요구되는 구조계획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김정수의 작품에서는 우선 이것을 모두 만족시키고 이 형태가 내·외부에 표출된 요소를 미적인 구성요소와 원리를 적용하여 과장된 시각언어를 쓰지 않고 Pathos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작품을 창작하여 나간 것이다. 이 천승과 같이 작품을 한 우남회관에서 이 사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면의 회랑식 수직 기둥노출은 필요한 구조 기둥을 비례와 음영을 이용한 디자인원리로 장엄성과 고전성을 덧붙임이나 장식성이 없는 반복성의 표현을 하고 있다.

측면은 대로에 면하여 있지만 복잡한 시각언어의 과정 없이 필요한 창문의 크기를 그대로 나타내는데 디자인 원리성을 살리고 전면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우뚝한 탑에서 수직선 반복의 크라이막스를 주므로 서울의 상징성과 문화거리에서의 강조를 이룩하게 하는데 디자인 원칙을 둔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의 근대건축이 소실됨이 아쉽게 느껴지고 있다. 1961년도에 서강대학교는 한국의 우수한 건축가에게 설계게 하였는데 과학관을 김정수가 맞게 되었다. 이 설계도 기능적 공간 배분과 합리적인 구조적 스팬이 결정되고 이를 외부로 그대로 노출시킴으로 수직적 기둥이 강조되고 기둥사이의 면의 비례를 아름답게 분할시키고 그 반복된 기둥의 노출이 모더니즘적 형태로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층부의 큰 Mass와 고층부의 수직적 Mass가 대조를 이루게 하는 Block과 Mass 디자인에서의 조형성을 추구한 것이다. 미시적인 Elevation의 의미보다는 더 크고 원초적인 Mass와 Block디자인에서 김정수의 디자인 과정을 짐작할 수 있다. 평면적이고 입면적인 구성은 Block과 Mass에서 결정된 합리적 구획과 의장성의 보충으로 그 과정을 이뤄 나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와같은 기법은 연대 교양학관 건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Span이 크게 요구되는 합동 강의실의 매시브한 것과 일반적 강의실로의 고층의 선적인 구성이 기능적인 요구와 구조적인 필요성이 공간을 분할되게 하였고 이것이 형태의 Contrast를 주어 현대적 공간배분의 기법을 구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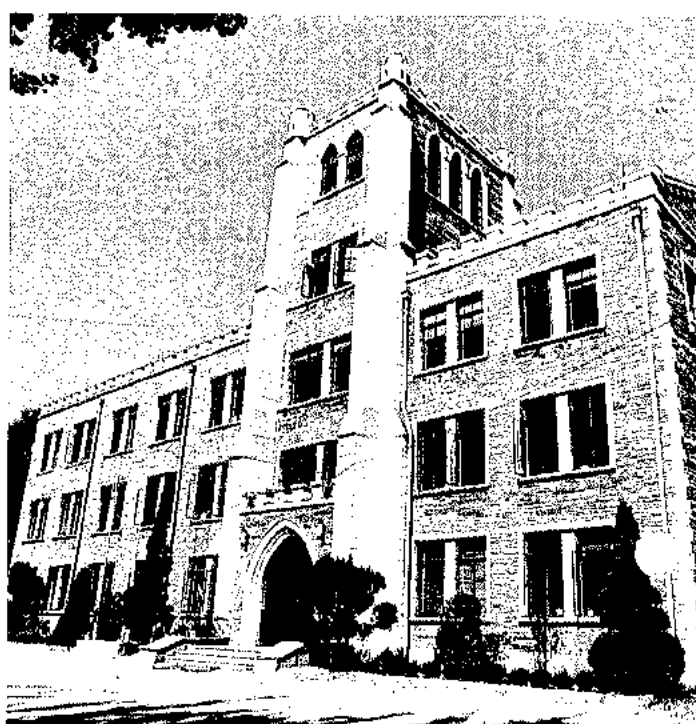
이러한 공간배분과 조형성은 한국 현대건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1960년의 사회는 기독교 문화가 일반사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시기다. 이때에 기독교청년회의 본산인 종로 YMCA건물이 신축되는 모습



감리교 신학대 교문



감리교 신학대학 채플



감리교신학대 교사

은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문화적 중심으로의 새로운 건축이므로 서울의 최고의 현대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임에 틀림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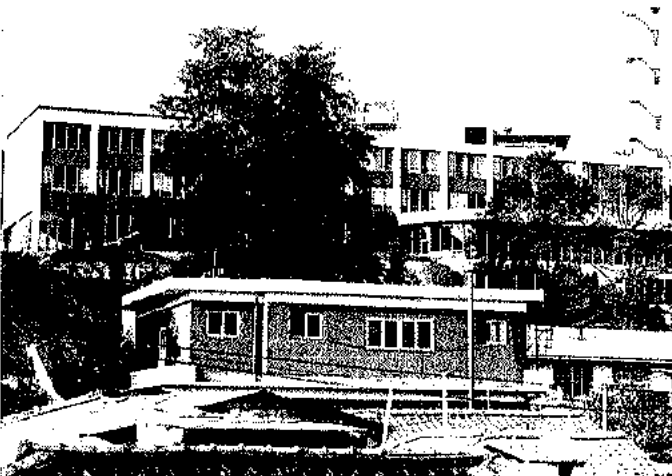
이러한 면에서의 YMCA건축설계는 김정수에게 보람 있는 창작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작품의 사고 원리도 Pathos적인 모더니즘적 표현으로 말쑥하고 단아한 모습이 온 서울인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평면적 기능 배분과 구조적 구획이 외부로 노출되므로 각 기둥과 정두리벽 등의 입면 요소를 명암과 요철의 차이로 기둥을 강조하고 면분할이 아름다운 비례를 두므로 합리주의적 표현구성을 이룩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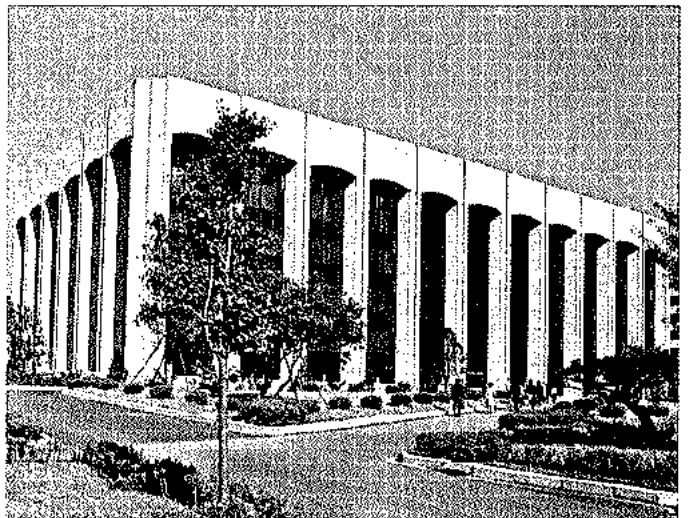
단지 후에 이뤄진 8층의 증축부에서 오는 디자인 원리가 좀 더 조형성을 가지고 디자인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

이 있다. 1979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연세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서 작업을 하면서 거의 마지막 작품으로 세상에 완성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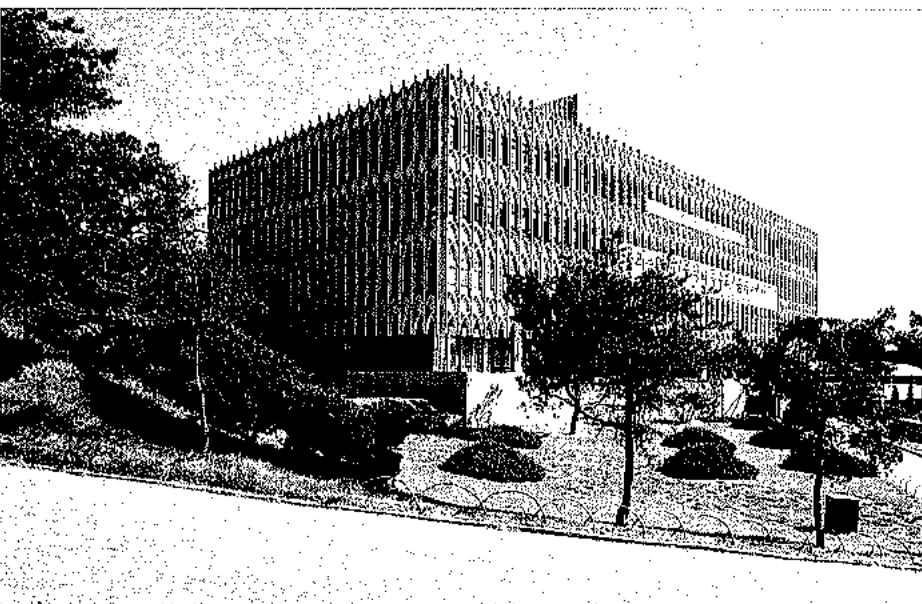
외형으로 보기에 Logos적 표현성이 되어 보이나 김정수의 Pathos적 사상에서 기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외곽의 회랑형식의 기둥을 장식적인 표출로 보기에는 내밀적 요구에 대한 표현성으로 볼 수 있으며 구조성에서의 형태 창출이 디자인 요소의 적용으로 미적인 표현성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지부할 정도로 반복된 열주 패턴에서 대학의 아카데미한 보수성과 위험성을 반복하면서 강조시키는 이미지의 표출이 내밀적 감응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김정수의 엄격하고 과묵하고 변치않는 마음이 건축작품에 그대로 나타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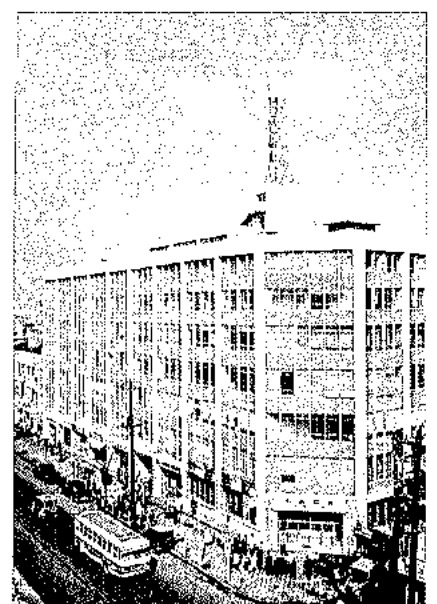
서강대 과학관



연세대 중앙도서관



연세대 학생회관



종로 YMCA

『1911년 7월 24일 오후 팜파코나스계곡에서온 작은 인디오 소년은 우리를 넓직한 테라스로 안내하였습니다. 숲을 헤치며 길을 만들던 나는 갑자기 폐허가된 집의 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잉카의 석조 기술로 만들어진 훌륭한 벽이었습니다. 수세기를 자란 나무와 덩굴에 가려진 그것은 쉽게 찾아지지 않았지만 길은 그림자속에 화강석의 벽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마추 피추의 발견자 - 하이람 빙햄(Hiram Bingham)의 보고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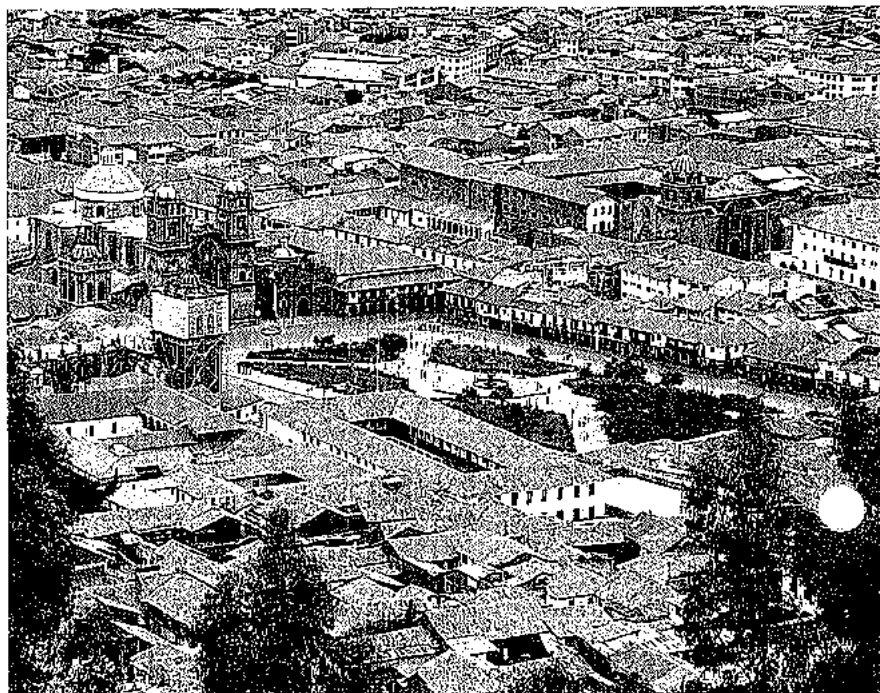
중남미 문화기행(3)

Cultural Travels of the Central South America

그 셋-인디오의 종절모, 잉카

金仁喆 / 중립건축사사무소 인제
by Kim In-Cheol

아즈텍의 도시였던 멕시코시티를 떠난 것은 오후 늦게였다. 여섯시간여를 남쪽으로 날아서 자정 무렵에 내린 페루의 수도 리마는 한여름중이어서인지 후덥지근한 태평양의 습기를 품고 있다. 숙소로 도착하여 방을 배정받았지만 새벽비행기를 타야하는 일정에 맞추려면 샤워조차 제대로 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잉카제국의 도시인 쿠스코(Cuzco)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하여는 기상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아침 시간동안이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비출 수도 없다. 선잠으로 몽롱하던 정신이 안데스산맥의 흰봉우리에 반사적으로 번뜩 정신이 든다. 쿠스코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스페인의 어느곳인 듯한 느낌이 든다. 붉은 기와가 얹혀진 마을의 모습은 곧 스페인의 모습과 다를게 없다. 스페인의 피사로(Pizarro)에게 제국의 영광을 건네준 1532년 이후 잉카의 건축은 철저히 파괴되지만 채 허물지 못한 잉카의 석축은 그대로 남아 스페인의 건축이 덧씌워진다. 면도칼도 드러낼 틈이 없다는 석조의 나무림은 정복자의 폭력을 무력하게 만든 증거로 남아 있다. 모두들 고지대의 적응에 전전긍긍한다. 혈압이 높아서 걱정, 낮아서 걱정이다. 코카차를 마시거나 노란색 잉카콜라를 마시는 것으로 마음을 가라앉힌다. 우루밤바(Urubama)로 가기위해서는 더 높은 곳을 넘어야 한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이지만 시가지를 돌아 삭사이후아만에 올랐을 때는 모두 잊고 만다. 재규어의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쿠스코의 도시형태중에서 재규어의 눈에 해당하는 위치한 삭사이후아만은 빈틈없이 다듬어 맞추어진 석조



쿠스코 전경

의 성체이다.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위에 폐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한가롭게 서 있는 라마의 표정과 굳게 맞물려있는 성체의 돌벽이 대조적이다. 샘터를 지나 안데스의 고개턱으로 오르는 버스의 창으로 안데스의 경이로운 풍경이 가득히 들어온다. 멕시코의 밋밋한 풍경과는 전혀다른 감각으로 다가오는 풍경에 압도되어 다른 세계로 옮겨와 있는것을 실감한다. 중미와 남미를 비슷하게 여기고 있는것 만큼이나 풍토와 역사를 동질시키고 있었던 오해를 푼다. 대서양 쪽 저지대의 올멕(Olmec)문명을 모태로 한것이 마야와 아즈텍이라면 잉카는 대평양쪽 안데스 산맥의 차빈(Chavin)문명을 모태로 한다. 두 문명권이 교류하였다는 흔적은 아무곳에도 남아 있지 않으나 흥망의 과정이 너무도 유사하여 우리에게서는 하나의 묶음으로 보이기도 한다. 동시에 발생한 두 문명은 15세기에 이르러 각각 아즈텍제국과 잉카제국으로 팽창한다. 그리고 두 제국은 16세기가 되면 바다를 건너온 스페인의 무력으로 나란히 무너져내린다. 끈의 색깔과 묶은 마디의 수로 의미를 표현하는 결구법외에는 문자를 갖지 않았고 말에 비하면 능력이 떨어지는 라마를 길들이고 있었지만 수레를 만들지 못하였던 잉카는 통치자 비라코차의 시대에 이르러 제국을 형성하기까지는 안데스산맥의 고지에 산재하고 있던 여러 지역국가 중의 하나이었다. 1438년 쿠스코를 공격한 찬카족을 물리친 여세를 몰아 세력을 확장하게된 잉카는 비라코차의 아들 피치쿠티가 왕위에 올랐을때 안데스세계의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 대를 이어 1471년에 즉위한 토파 잉카의 시대에 이르면 제국의 크기는 페르시아, 중국, 로마제국의 그것과 견줄 수 있는 정도가 된다. 험난한 지세와 인구수를 비교하면 중미의 아즈텍제국을 능가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미대륙의 전역에 걸친 영토의 확장은 대단한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지금도 남아있는 국토를 종단하여 연결되는 두 개의 평행하는 긴 도로로는 당시의 토목기술 수준이 상당하

였음을 보여준다. 산맥을 타고 이어지는 고지대의 도로와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저지대의 도로가 중간중간 횡단도로로 연결되어 통신과 수송이 계주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우루밤바계곡으로 접어드는 이길이 그때의 그 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곡의 사이사이에 모습을 드러내는 마을들과 산의 경사면을 계단식 경작지로 만들어 놓은 풍경이 그때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귀가 멍해지는 하강의 시간이 지난뒤 피삭(Pisag)에 내린다. 산위에서 보았던 마을의 패턴은 사각공간의 집적으로 이루어진 격자의 틀이다. 자갈을 박아 포장한 골목길의 가운데에는 하수구가 만들어져 있다. 원주민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여 보지만 아무래도 서로 서툴다. 장신구와 공예품 등을 만드는 부부와 흥정도 해보고, 흙벽돌로 갖지은듯한 집안을 기웃거리려도 본다. 색깔이 꽃이 길러있는 집이 주막이라고 하지만 들여다보기만 한다. 성당이 있는 광장의 나무그늘에 앉아 묘한 치장을 하고 있는 마리아상과 십자가를 살핀다. 스페인의 정복이 마무리되었을 때 피정복민족의 수난은 예정된 것이었으나 도미니코회의 수도사 바르톨로메 드 라스 카사스의 집요한 옹호를 받아 무차별적인 폭력을 면한다. 그러나 그것은 카톨릭으로의 개종이 전제되는 것이었고 개종자들은 정복자와 통혼하여 육체적인 인종의 차이를 초월하는 영적인 유대를 맺지 않으면 안되었다. 뉴 스페인의 수호신인 과탈루페의 성모는 피부의 색깔과 복장으로 그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네 무당의 색깔처럼 울긋불긋하게 치장된 성모상의 모습을 여행의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정복자의 종교를 수용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에 정복자의 이론을 접속시킨 단순성과 나아가서는 토착성의 끈질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까마득히 올려다보이는 산중턱의 궁전터에는 아무도 올라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대신 해지기전에 오안타이탐보(Ollantaytambo)를 마저 보기로 한다. 우루밤바계곡의 요충지에 세워진 요새와 마을이다. 우루밤바



피삭의 골목길



우루밤바 계곡의 풍경



쿠스코의 거리

강의 급류와 산의 급격한 경사가 만나는 곳의 바위언덕에 세워진 요새는 수십단의 테라스위에 견고하게 맞추어진 석조의 건축이다.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산비탈에 붙여세운 구조물들이 이슬이슬하다. 따라올라온 동네 꼬마들이 죽석에서 민속공연을 벌인다. 인도에서 마주쳤던 맑은 눈의 아이들과는 또다른 느낌이다. 불결한 환경에서 오히려 순수함이 느껴졌다면 수려한 풍광에서 때론 모습은 연민의 느낌을 일으킨다. 동전 몇뎡으로 아이들을 달랜다. 계곡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마을로 들어선다. 오기는 차량들로 번잡한 광장의 건너편에 잉카의 여인네들이 좌판을 벌여놓고 있다. 땅거미가 짙어지는 빛의 여운속에서 그네들의 표정을 읽을 수가 없다. 짧은 목위의 큰머리에 씌어진 중절모의 실루엣이 유난히 거슬린다. 정복자들이 던져주었을 것이 분명한 남정네의 중절모를 깊게 눌러쓴 말없는 표정에 감상적인 느낌을 받게되는 것이 여행객의 사치인것 같아 혼자 미안해 한다. 짙어진 계곡의 어두움속에서 숙소에 든다. 옛수도원을 개조한 호텔이다. 잉카의 계곡속에 있는 이 호텔의 이름은 알함브라이다. 목조의 뼈격 거림과 칙흙같은 어두움 때문에 맑은 얼굴은 아무도 없다. 웅크린 채 잠을 청한다.

선잠으로 깨운치 않은 멍한 상태에서 낯선 새들의 소리가 들린다. 하루가 다시 시작되어 여행이 계속된다는 긴장감으로 오래 몽기적거릴 수가 없다. 창가로 다가가 뒷문을 밀친다. 그 영롱함, 찬란함은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다. 계곡 가득히 쏟아져 들어와 손끝에 만져지는 햇빛, 초록의 투명함과 공기의 정결한 냄새, 새들과 꽃들, 우리의 여행에는 결코 없었던 기념사진 촬영이 이미 여기저기서 있다. 간밤의 어두움은 간곳이 없다. 즐거운 아침식사와 잊저녁에 귀찮아 하던 인디오들과의 기념품 흥정도 일사천리로 이루어졌다. 『신혼여행은 우루밤바의 알함브라에서』라는 표어를 생각하며 『잃어버린 도시』, 『공중도시』, 마추피추로 가는 기

차를 탄다. 차창에 펼쳐지는 강과 계곡, 나무와 숲, 산과 구름을 헤아리며 다시 역사의 시간속으로 거슬러 오른다. 역사의 각본은 두갈래의 줄거리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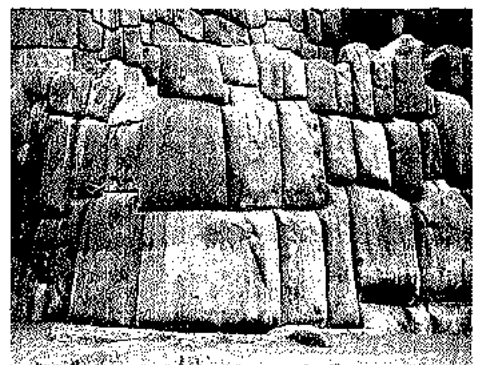
토와 잉카의 치세로 잉카제국의 영역은 오늘의 칠레 전체와 볼리비아,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서북부까지 넓혀졌다. 토파잉카의 아들 티투 쿠시 후알파는 에쿠아도의 북부를 정벌하였는데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그곳에서 전쟁을 수행하며 제국을 통치하던 중 쿠스코로 돌아오지 못한 채 1527년경에 죽고 만다. 황제가 요절하자 북방의 정벌군과 쿠스코의 귀족들 사이에 후계자툼의 내전이 일어난다. 군대는 황제의 서자인 아타후알파를, 쿠스코의 귀족들은 적자인 후아스카르를 내세운다. 결국 쿠스코를 점령한 군대가 후아스카르를 포로로 잡아 승리자가 된다.

1513년 파나마의 태평양 연안에 도달한 스페인의 바스코 누에즈 드 발보아는 식민지 경영을 시작하여 1519년 드디어 파나마를 건설한다. 이때 이들은 남쪽 해안의 어딘가에 엄청나게 풍요로운 나라가 있다는 소문을 듣는다. 새로운 도전의 목표를 찾은 발보아는 그 임무를 프란시스코 피사로에게 부여한다. 1519년에서 1521년에 걸친 헤르난도 코르테스이 아즈텍 정복에 뒤이은 또하나의 정복이 시작된다. 피사로의 일차원정(1524~25)과 이차원정(1526~27)은 태평양 연안지대의 탐색정도에 머문다. 내륙 깊숙히 진군했다면 아마 원정은 실패하였을지 모른다. 티투 쿠시 후알파가 건재하던 때였으므로 잉카제국의 막강한 군대와 조우하였을 것이다. 아무 사정도 모른 채 피사로는 1532년에야 본격적인 원정에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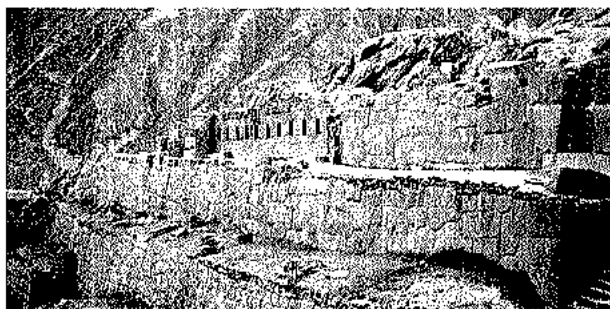
내전의 승자인 아타후알파의 정치적 지배력이 채 굳혀지지 못한 절묘한 시기에 화약과 강철, 그리고 엄청난 힘을 가진 말을 타고 스페인의 무력이 제국을 덮친다. 침략자들의 가혹할 공격으로 초래된 일시적인 충격에서 회복된 잉카는 반격과 저항을 시도한다. 내전에서 패배한 잉카의 일부세



계곡풍경



식자이후이만의 석벽



오안타이탐보의 성벽



오안타이탐보의 광장

력과 잉카에 예속되었던 주변의 종족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었던 피사로는 얼마 안되는 병력으로 그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 밀려난 잉카는 최후의 거점을 안데스 산맥 동쪽의 사면에 위치한 몬타나지역의 열대산림에 마련하여 1572년까지 버틴다. 몬타나에서의 최후 피난처였던 마추 피추(Machu Picchu)가 미국인 탐험가 하이람 빙햄에 의하여 발견된 것은 1911년이다. 삼백여년동안 유지되었던 잉카의 폐허는 사람만 사라진 채 아무 상처도 입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있다. 빙햄의 발견이후 고고학자들의 손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정리되기까지는 30여년의 세월을 거친다. 남미지역 최고의 유적지가 된 마추 피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쿠스코로부터 철도를 이용하거나 우루밤바계곡을 따라 오안타이탐보까지 온뒤 기차를 이용하여 푸엔테스 루이나스역에 내려 유적지로 오르는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아시아자동차의 버스가 마추 피추를 오르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미쳐 신경을 쓰지 못할 만큼 주변의 경관은 장대하다. 가파른 기슭을 구불구불 타고 오르면 광장이 나타나는데 어디에서도 공중도시는 보이지 않는다. 한사람이 겨우 비집고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지나야 후아이나 피추의 봉우리를 배경으로 전개된 『사라진 도시』를 만날 수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이 장소에서 한참을 머뭇거린다. 폐허의 도시속으로 곧바로 들어가기 망설여지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장대한 마야의 피라밋과 아즈텍의 신전과 같은 초인간적인 스케일의 건축도 없는 어찌하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폐허는 웅대한 자연을 무대로 하는 인간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다. 오만가지의 학설과 추측이 있지만 어 느것하나 확인되지 않는 미스터리인 도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느낀다는 것외에는 없다. 자동노출 기능의 카메라조차 하늘 가까이 솟아있는 공중도시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다. 폐허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알듯 모를듯한

공간을 체험하다가 가운데 큰 마당에 모여 앉는다. 축축히 배어오는 풀밭의 습기를 매만지다가 바닥을 두드리니 아래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온다. 정부관리들의 시찰행차를 위한 헬리콥터 착륙장으로 쓰이는 바람에 넘어져 있다는 돌기둥의 아래 어딘가에 또 다른 미지의 공간이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본다. 전투와 기후에 지친 병사들에게 피사로가 『이쪽은 빈곤, 저쪽은 부귀』라는 말로 선택을 재촉하며 이끌었던 황금의 보고가 이 아래에 있을지도 모른다. 파보지는 부질없는 농담을 주고 받다가 모두들 일어선다. 입구에 있는 식당 앞에는 엘 콘돌 파사를 붙어내는 피리소리로 가득하다. 테입 몇개를 손에들고 산을 내려온다. 찾길의 내리막 사이를 건너뛰며 따라오는 군바이 보이외의 배웅이 차리리 엄숙하기조차 하다. 동전 한낱에 하얀이를 드러내는 소년의 가쁜 숨소리를 뒤로하고 쿠스코로 방향을 잡는다. 어스름이 깔리고 드리운 구름속에서 번개불이 갈라지는 안데스의 고원을 달리는 차창으로 띄엄띄엄 민가가 보인다. 보자기 양끝을 어깨에 걸쳐 무엇인가를 지고가는 아낙의 머리는 한결 같이 중절모를 쓰고 있다. 우리의 시골노인네들이 바지저고리에 즐겨쓰는 중절모와 어떤 연관이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든다. 양복이 소개되던 근대화과정에서 갖 대신 모자를 집어들어 고무신에 대님 매고 장죽에 중절모를 어울리게 하였던 풍경과 땅아늘인 땀기머리위에 얹혀진 인디오의 중절모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있음직도하다. 아내와 다투고 있는 후지모리의 대통령궁앞 광장에는 세계의 인간들이 모여들어 있고 안구석에 세워진 피사로의 동상은 안데스의 어딘가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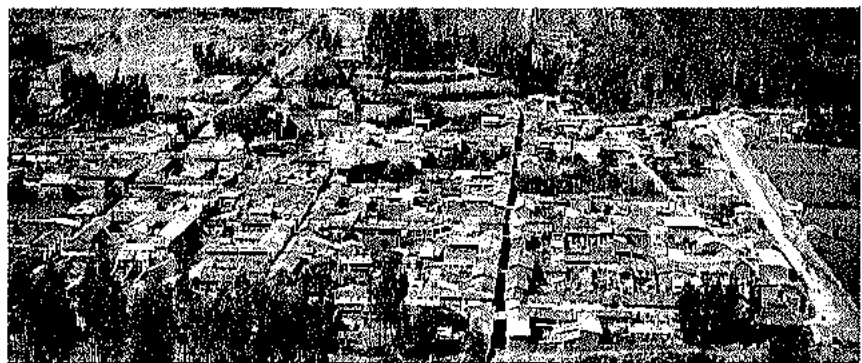
마추피추 전경



마추피추



라마



계곡전경



‘전람회의 그림’과 한 러시아 건축가

“Tableau d’une Exposition” & A Russian Architect

金晶東 / 목원대 건축과 교수
by Kim Jung-Dong

한국과 러시아의 건축은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근대건축사에서 우리와 러시아와는 무슨 관계에 있었는가. 미국과의 관계 못지 않은 관계가 있었을 텐데. 더구나 우리 땅에서는 1904년, 러일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물론 1945년 이후에는 소련이라는 나라로 우리를 괴롭혔지만.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최근 조선일보(1995.5.10)에는 <사바친의 수기>도 발굴되어 러시아 건축가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도 했다.

러시아와 우리와의 관계에서 건축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한편 1896년 5월 26일 러시아 페테스부르크(Petersburg, 聖彼得斯堡府)에서의 황제(Nikolai 2세) 대관식에 참석한 조선 진권공사 민영환과 러시아 외상 로바노프(Lobanov)의 개별 회담이 있던 후, 러시아 군사장교를 서울에 파견하고 조선의 경제상태를 연구, 원조한다는 명분하에 고문관 외에 군사장교, 학자, 기술자들을 보내 왔다...1883년 봄, 러시아인 건축가도 들어 왔다. 그는 이바나시이 이바노비치 세레진 사바친(Afanasij Ivanovich Seredin Sabatin, 1860?-?)이었다...”

한국에 와서 활동했던 러시아 건축가들에 대해 이것저것 자료를 뒤지다 흥미있는 사실 하나를 찾게 되었다.

평소 이 책 저 책을 뒤지다 보면, 그동안 모르고 있던 것을 부수입으로 주워 담을 때가 있다. 미술, 음악, 영화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가운데 하나 얻어들은 것이 모데스트 무소르그스키(Modest Petrovich Mussorgsky, 1839.3.21-1881.3.28)의 <전람회의 그림, Tableau d’une Exposition(1874)>이라는 음악이었다. 그의 이름과 음악을 우리는 익히 들어 알고 있기는 하다. 무소르그스키의 조곡 <전람회의 그림>은 지금으로부터 1백 20여년 전 피아노 곡으로 작곡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것은 리베레에 의해 관현악곡으로 편곡된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간혹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심심풀이로 몇 가지 의문을 품어 왔었다.

그것은, 전람회에 걸렸던 그림은 어떤 종류의 그림이었을까, 전시장은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었다.

어느날 우리 대학의 음악대학 교수에게 심심파적으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무슨 그림이 걸렸었느냐”고 물어 본 적이 있다.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어떤 러시아의 그림이 아니었겠느냐”고 그는 답했다. 답이 역시 불확실하기에, 그림 도대체 <전람회의 그림>에는 어떤 종류의 그림이 걸려 있었기에 그런 불멸의 음악을 만들었을까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음악의 주인공인 러시아의 건축가, 빅토르 하르트만(Victor Hartmann, 1834-1873)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하르트만과 무소르그스키

하르트만을 알기 위해 우선 러시아의 음악가 무소르그스키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무소르그스키는 16세기말 이래 러시아 프스코프주(州) 카레보에서 대지주의 네 아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15만 정보가 넘는 광대한 땅을 소유한 대지주로서 뿌리 깊은 귀족 계급의 자손이었던 것이다. 행복이 보장된 러시아의 귀족자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농노(農奴)의 딸이었다. 이것이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다. 귀족의 피와 천민의 피가 함께 섞여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대지주, 어머니는 그의 노예... 무슨 신과조갈지만, 그는 열살 때 페테스부르크로 이사했다. 페트로파브로프의 국민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관습에 따라 10세 때(1849.8), 근위 사관학교(近衛士官학교) 예비학교에 입학했다. 이후 사관학교를 다니고(1852-56) 졸업한 후에는 프레오브라 젠스키 수비연대에 장교로 배속되었다. 우리 조선과 러시아는 아주 무거운 관계에 있을 때였다. 그들은 극동에 부동항을 찾아서 내려 올 때이고.

보장된 미래가 열리던 22세 때(1858.7), 그는 초급 장교시절에 군을 떠나게 되었고 무직의 음악가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자신의 출신 성분과는 반대로 나갔던 것이다. 이제 그는 그의 출신성분 그룹으로부터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그 즈음(1861) 농노

해방에 따른 지주계급의 몰락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민중은 비참했다. 무소르그스키의 집안도 망해 버렸다.

백작 친구(아르세니 골레니시체프 쿠투초프)의 집에서 더부살이도 했다. 또한 퇴역 해군장교 파올나우모프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의 집에서 하숙생활도 했다.

그의 음악친구로는 같은 해군사관학교 생도였던 림스키 코사코프와 오페라 가수 오시프 페트로프가 있었다. 그들은 어려울 때 그에게 위로가 돼 주었다.

한 때는 어울리지 않게 운수통신성의 관리가 되기도 하고 (1863-67), 또한 궁내성 산림과와 겸열국(검열원) 등에서 근무하며 17년간 입에 풀칠을 하였다.

하르트만의 건축을 노래해

그는 이론파 국민주의 음악가였다. 그의 독특한 삶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민중, 빈민에 깊숙이 들어가 노래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음악은 처절하고 비애에 찼다. 그러면 전람회에 걸려있던 그림은 과연 어떤 종류의 것이었을까.

그 의문의 하나는 여러 자료를 통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그림은 순수회화가 아니고 '건축 드로잉 작품'이었던 것이다. 우리 건축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항목이 이것인 것이다. 무소르그스키가 32세 되던 해 그와 절친했던 건축가, 하르트만은 요절해 버리고 말았다. 하르트만은 채 40살밖에 못살고 떠난 불세출의 러시아 건축가였던 것이다. 그래서 하르트만의 이름은 어떤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무소르그스키는 그보다 다섯 살 연상이었던 하르트만의 유작 건축작품 전람회가 열린 1874년, 상트 페테스부르크의 한 전람회장장에서 그의 건축설계도면, 스케치 등 10여장을 보고, 하르트만을 애도하는 마음에서 10편의 피아노 곡을 작곡해 그에게 바쳤던 것이다.

이는 아마 건축가의 작품을 음악가가 작곡해서 세상에 내놓은 첫 작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곡들의 타이틀도,

카타콤베 (Les Catacombes²⁾)

옛 성 (Le Vieux ch teau, 古城),

튀일리 궁전 (Tuilleries Dispute d'enfants apres jeux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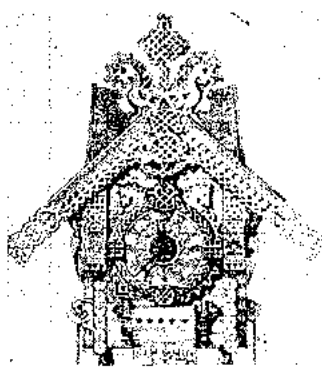
프롬나드 (Promenade, 산책로),

리모주의 시장 (Limoges- le march⁴⁾)

키에프의 대문 (La grande porte de Kiev),

오두막 (La cabane sur pattes de poule, 닭의 다리 위에 있는 오두막),

발레를 위한 무대장치 (Ballet des poussins dans leur coquille, 달걀껍질 속의 병아리 발레), 등 건축과 관련된 주제들



암탉의 다리 위에 선 바바 야기의 오두막, 러시아식 시계



키에프 시의 문, 정면

을 달게 된 것이다.

그 중의 하나, '오두막 집'의 도면이 한 장 남아 있다.

그리드가 있는 종이에 먹선을 사용해 그렸는데, 마치 탁상시계 같은 정면을 갖고 있다. 기단은 두껍게 느껴져 안정감이 있고 몸체는 원형기둥과 보를 갖고 있다. 지붕의 박공이 뿔자형으로 길게 뻗어 있다. 장식이 몸체전체를 휘감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이라기 보다 조각적인 소품으로 보인다.

그러면 하르트만은 누구인가. 국민주의 건축가라는 것이 러시아에 있었는가. 국민주의 건축은 무엇일까. 나의 무지를 스스로 탓할 수밖에 없다. 무소르그스키가 국민주의파 음악가였으니 그의 절친한 친구 하르트만도 능히 어떤 동지적 결속이 있었을 것이다.

하르트만은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Ukraine) 공화국의 주도(州都) 키에프에 (키에프의 대문(大門))을 설계해 세운 것으로 건축사에 남아 있다.

키에프의 대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개선문의 타입이 아니다. 오히려 동양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돼 있는 아라비안나이트에나 나올법한 대문이다. 3개의 아치와 1개의 탑이 붙어 있다. 문은 비례가 맞지 않으나 곡선을 이용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탑에 달려 있는 3개의 종은 직설적이기까지 하다. 대문의 아치와 탑의 둥근 지붕 (돔)은 모스크다. 대문은 도시의 문 같지가 않고 목가적인 문으로 보인다.

키에프는 9세기이래 러시아의 3대 도시중에 하나였으며, '러시아 도시의 어머니'라 불렸다. 흑해(Black sea)에 면해 바잔탄, 페르시아와의 교역루트로 발전해 왔으며 1686년에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하르트만과 무소르그스키는 출생신분이나 교육도 비슷했으리라 보여진다. 어린시절부터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러시아의 중심, 페테스부르크에서 함께 활동했던 것이다.

무소르그스키는 페테스부르크의 뒷골목 간이술집에서 항구 하역인부나 불광패들과 어울려 지내다 말년에는 알코올중독자로, 행려병자로 지내다 1881년 42세의 짧은 나이에, 간질 발작이 일어나 육군병원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다. 그리고 페테스부르크의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묘지에 묻혔다. 도스토예프스키, 글린카도 그 가까이 누워 있다.

이제 이 작은 글을 끝낸다.

무소르그스키의 작품이 더 이상 <전람회의 그림>이란 투로 알려지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전람회의 건축 작품>이라 정정되길 바랄 뿐이다.

"...예술은 그 자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 를 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무소르그스키의 말이 지금도 우리 귀에 남아 있다. 음악가 무소르그스키가, 죽은 건축가 하르트만을 영혼 불멸의 세계로 이끌어 내 준 것이다.

우리 음악 작곡가들도 우리 건축가들의 작품을 보고 그런 명곡을 하나 작곡해 주었으면 하고 초여름 밤의 꿈을 한번 꾸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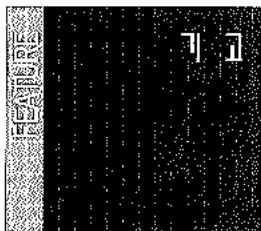
다음에 페테스부르크와 우크라이나에 가면 그의 묘지와 '키에프의 대문'도 찾아가 하르트만의 못다이룬 건축이야기를 그에게 들어봐야지 하고 다짐해 본다. 또한 혹시 그 시대의 그들을 통해 우리 조선에 왔던 러시아의 건축가들에 관한 흔적을 다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없지 않다.

1) 카레보는 그의 탄생 1백주년을 즈음하여 무소르그스키로 개명됐다.

2) 여기의 카타콤베는 로마의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것이다.

3) 프랑스 제정시대에 파리에 있던 궁정인데 세느강에 인접한 아름다운 공원이었다. 지금은 그 궁전의 일부가 루브르 미술관이 되어 있다.

4) 프랑스 중부 리무쟁의 시장도시이다. '칠보'로 유명하다. 파리에서 남행열차로 3시간 정도 걸린다.



건축사 사무소에서의 컴퓨터활용

컴퓨터를 활용하자면 우리가 폭 넓은 컴퓨터관련지식이 있어야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해도 활용에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마치 자동차의 세부적인 구조나 학술적인 내용을 모르더라도 주말의 멋진 드라이브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컴퓨터 활용방법 또한 그러하다. 최근 건축사사무소의 컴퓨터활용은 각기 사무소마다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만 이 글에서는 지난호(93년 12월호, 95년 3월호)에 이어 기초적인 활용방법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기기선정

건축, 건축인 그리고 컴퓨터

Architecture, Architect & Computer

朴贊遠 / 한국조형건축사사무소
by Park Chan-Won

자동차는 발명이 되고 100년 후에도 국내에 선을 보였는데 이제는 지구촌시대라서 외국에서 몇주일전 개발된 컴퓨터가 전문잡지에 소개되어 좁은 지구촌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하드웨어(기기)쪽으로 보면 IBM 호환기종이라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래픽에

뛰어난 애플사의 매킨토시와 왕컴퓨터 등 여러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IBM호환기종인 것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 추세를 보면 8bit시절(80년대초)때는 애플컴퓨터사의 것을 주로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IBM호환기종들이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보통 컴퓨터하면 최신, 최고의 기종이 가장 좋은 것이며 능률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투자비용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CAD는 속도나 메모리의 비중이 크지만 O.A.나 기타 정보통신에는 80286(16비트 AT급) 정도이면 훌륭하게 업무를 볼 수 있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 요사이의 중고(특히 컴퓨터는 마모율이 적고 주로 게임위주로 하던 학생사용 컴퓨터는 키보드만 교체하면 훌륭히 사용이 가능)컴퓨터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이동성을 고려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면 O.A.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좀더 욕심을 부린다면 CD-ROM DRIVE가 부착된 노트북을 권장하고 싶다.

활용소프트웨어

종합예술인 건축에 컴퓨터를 소프트웨어 분야로 생각한다면 크게 7가지분야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O.A.분야에서-워드프로세서,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전문분야의-캐드, 구조부분, 감리및 공사부분-그리고-정보통신부분-등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각 분야별로 보면 워드프로세서의 경우에는 우리 회원들이 여러 기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각 기종별로 나름대로의 프로그램들이 나와 있다. 학생층에 저변확대된 것은 국내 개발된 아래한글이라는 한글 프로그램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컴퓨터를 맨처음 접할때 도스를 배우는 것보다도 정보통신을 접하면서 이 워드프로세서를 접하는 것이 손쉽게 컴퓨터와 친근해질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다.

이미 잘아시겠지만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해 보면 타자기두드리는 사람이 안타까워 보일때가 있다.

특히 시방서를, 이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각 프로젝트별로 활용

하여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타자기 기능에 컴퓨터 기능을 겸한 소프트웨어이다.

스프레드시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계산기능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으나 각 기능들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요사이에는 그래프 기능이 뛰어나 Presentation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가로세로의 열(Column)과 행(Row)의 바둑판 같은 셀(칸)에서 각 셀간의 상호 사칙연산관계 등을 적용시켜 전체적 계산관계를 순식간에 처리하기 때문에 수정 및 변동결과를 순쉽게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데이터베이스는 이 프로그램의 우리업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며 현재 본 사무실에서 업무일지, 건축주관리, 질의회신, 공문 관련자료들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히 얼마전 발표된 프로그램은 윈도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키보드 두드리기에 불편한 미숙련자(특히 본인도 아직까지 키보드를 3-4손가락으로만 두드리는 미숙련자 임을 자인함)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얼마전에 모회원 사무실에 가보니 워드프로세서로 건축서식을 그려놓고 그곳에 건축주 성명, 주소, 연락 등을 기입하여 타자기 쓰듯이 하는 프로그램을 구하여 업무에 쓰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즉 매 서식을 일일이 써놓고 다만 프린터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는 타자기나 다름이 없었다.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자료 입력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서식을 만들어 원하는 매수만큼 출력하는 것이 몇십배 효과적이라 생각이 든다. 또한 원하는 시기(년말등)마다 설계 프로젝트 전체 연면적과 건물동수, 용도별면적 집계, 지역별 등의 분석을 데이터 베이스화하지 않으면 컴퓨터 활용의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캐드(CAD)는 건축전용과 범용의 꾸준한 발전과 많은 진보가 있었다. 여러회원들의 사무실 직원들이 주축이 되어 캐드 분야에 연구활동하고 있는 한국건축캐드 협의회(KACA)가 전반적 건축관련 자료화, 표준화, 세미나 등을 통하여 질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매우 반가운 일이다. 특히 93년도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등 건축 3단체의 후원을 받아 무역센터(KOEX)에서 치른 "93 FAIR"에서의 학생 캐드 작품등을 보면서 애니메이션기법 등이 외국 프로들의 기법을 능가(?)하는 작품을 보면서 우리나라 건축캐드 분야의 발전과 아울러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몇달전, 어느 회원 사무실에 가보니 오토캐드 오리지널 프로그램을 갖고 설계를 하면서 별로 수작업과 차이가 없다고 가우뚱한다. 당연한 일이다. 오토캐드는 범용 프로그램으로 우리건축에 바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즉, 전용 프로그램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나 자료(라이브러리) 부분에는 사용의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부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을 2차로 조정(LISP)하여 건축에 쓰기 편리하게 만든 것이 있다. 즉, 원하는 작업을 골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사용하기 쉽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 도움이 많이 되도록 하여 놓았다. 캐드 전문업체에서도 이러한 프로그

램을 만들고 있으므로 건축사무소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활용하는 방법은 효과적이라 할 수 있겠다. 그동안 2D 위주의 개념에서 3D개념으로 변화가 되었고 C.G(Computer Graphic) 분야의 애니메이션과 가상의 현실(V.R), 최종적으로는 홀로그램의 분야가 종합예술인 건축과 어우러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보인다.

정보통신 분야 역시 건축사협회 차원에서도 하이텔이나 천리안, 나우콤 등의 통신부분에 정보은행 창구를 만들어 대민, 대외적인 홍보나 질의 상담, 회원간의 자료 협의 등을 할 수 있는 사랑방(?)기능을 마련하는 것도 가까운 장래를 생각하면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즉, 전국 회원업무의 각종 공문과 설계 수탁 등의 자료 등을 정보은행(멤버가입)에 기록하여 두면 누구나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활용하여 효율성도 늘릴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우리 업무 및 실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것이라 판단이 든다. 감리및 시공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건축시방서와 감리일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각 업무의 프로젝트 코드를 만들어 기입한 후 내용을 입력해 놓으면 아무때나 출력을 하여 그동안의 과정을 손쉽게 알아볼 수 있으며 별도의 감리일지를 손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이 바로 사무 전산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든다.

그리고 추천할만한 국내 O.A.프로그램에서는 최근 우리 현실에 알맞게 도스 기능이 내장된 순환글의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다. 영문판 데이터베이스와 내용이 비슷하여 사용및 기능이 편리한 반면에 가격도 저렴(10만원 미만)하여 대기업 및 정부 여러공공기관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의 필요한 서식 및 재활용프로그램을 각 회원들이 작성하는 것보다도 일괄적으로 희망 회원들을 파악하여 개발업체에 협조받는 것이 비용이나 기능면에서 훌륭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 본다. 서울 부산간을 국도로 구불구불가는 것보다 고속도로를 달아 수많은 차들이 시간과 경비를 줄이며 운행 하듯이 앞으로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그리고 각 프로그램들의 공통 사항으로서 각 기능의 90%이상을 알아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50~60%정도 기능만 파악해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수작업보다도 못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경험담을 적어 본다. 특히 사우디에서 10년전에 스프레드시트인 "LOTUS"에서 소숫점이하 2자리까지 정리하는 기능을 못찾아 업무에 애를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전 프랑스에 갔다가 유학생을 만났다. 그 학생은 컴퓨터를 전공하고 있으면서 건축에 취미가 있고 마침 건축관련 CD-ROM(그리이스 건축 등)을 번역중에 있었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번역이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처지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조를 하고 완성후에는 저렴하게 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우리 건축계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배치상에 나타난 儒敎的 規범

性理學에서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우주만물을 形而上의 理와 形而下의 氣의 二元的 복합체로서 파악하여 理는 物性を 결정하고 氣는 物形을 결정한다고 보면서, 理와 氣는 나누면 둘이지만 氣를 떠나 理가 존재할 수 없고, 理없는 氣는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理와 氣는 둘이면서 동시에 하나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연의 性은 純善하여 仁義禮智로 나타나나 인간은 또한 氣를 타고나므로 氣質에 의하여 본연의 性이 흐려져서 喜怒哀樂의 행동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성리학에서의 理는 자연법칙인 동시에 도덕규범이기도 하였다. 성리학의 天人合一說에 의하면 각종 죄악을 일으키는 氣質의 性을 변화시켜 온전한 본연의 性을 되찾아 발휘하는 일이 사회적 인간의 최대 과제라고 하여, 인간 사회의 결함과 혼란을 막기 위하여 敎化가 적극적으로 요청된다고 하였다. 즉 君과 臣, 父와 子, 夫와 婦, 主와 奴, 班과 常, 그리고 華와 夷 사이에는 사회적 분수에 따라서 上命下服의 관계속에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와 명분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중세사회의 현실적 인간질서를 일관된 하나의 세계관으로 수용하고자 한 것이라 하겠다.¹⁰⁾

이상으로 볼 때 新儒學인 性理學이 내세운 “人倫”, 특히 忠·孝·禮·信은 新興士大夫들의 지방중소지주로서의 가족도덕과 신진관료로서의 정치도덕·사회도덕이 되었다. 이러한 도덕질서는 결국 수직적인 位

한국 유교건축의 재조명(3)

A Study on the Confucian Architecture in Korea

金知民/목포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by Kim Chi-Min

10) 崔述基 韓國 性理學의 脈, 브리타니카 1991, P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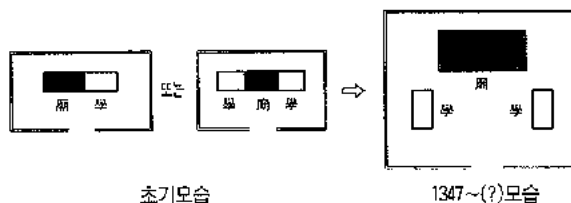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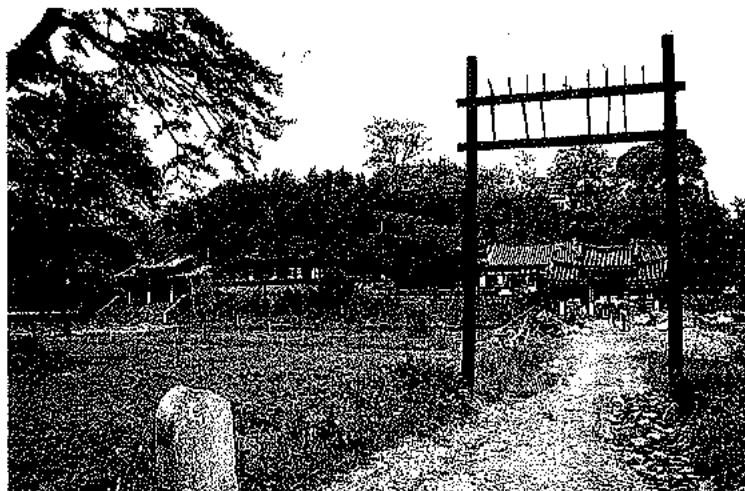


그림8. 寧海學교 배치 推定圖



“左學右廟” 배치의 영암향교

階秩序體系가 성립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孔子를 先聖으로 모시고 유교적 이념의 실천장이었던 향교에서는 그 어느곳 보다도 유교적 질서체계가 확립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종교적으로 祭儀禮가 규범화되고 아울러 도덕적 윤리 질서가 정립되어 사회적으로 향교는 유교이념의 보급에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음에는 틀림없다. 사례로 고려말 寧海鄕校¹¹⁾의 경우 한 건물에 공자의 상을 모신 사당과 강당이 함께하고 있는 無禮가 있어 별도의 건물로 독립시킨 예만 보더라도 그 사실이 입증된다. 결국 이러한 이념과 사고는 건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조선시대 향교건축의 배치는 “前廟後學”과 “前學後廟”라는 규범¹²⁾이 확립된다.

전자의 경우는 앞쪽에 문묘가 오고 축선상의 뒷쪽에 강학구역이 들어서는 유형으로 이 경우 향교가 들어선

곳은 지형은 반드시 전체적으로 평지이다. 즉 동일한 선상평지에서 유교적 위계성은 “後”보다 “前”이 당연히 앞선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聖賢의 위패를 안치한 文廟區域이 講學區域보다 앞쪽에 들어서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일 것이다.

이 형식의 건축적 규범이 잘 드러난 향교로는 조선시대 府와 牧의 큰 고을로서 界守官이었던 경주·전주·나주향교와 현의 고을에 세워졌던 咸平鄕校 등이다. 이외 靈光(郡)·井邑(縣)鄕校 등도 그에 속하는 중요한 유적들이다. 또한 1932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左學右廟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大邱鄕校도 그 이전의 위치에서는 前廟後學의 배치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북의 慶山鄕校도 그와 유사한 향교다. 현재 전국의 231개 향교중 前廟後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11) 東文選 卷5 記寧海府新修學記: 本國鄕校之制 廟學同宮 機乎後矣 而又請諸童子 使之靜居於大成之庭 其爲便益甚矣 乃與諸生 議於父老 卜地於府之東北 役以農隙 不日而成

當中而殿 以垂魯司寇之像 左右爲無 以爲學蒙之所 通師道垣 既既既與

고려조의 향교에서는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향교처럼 文廟과 講學區域이 확연히 독립된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寧海향교 뿐만 아니라 堤川향교의 경우도 명륜당없이 土殿 앞의 東 西廊에서 학업을 하였다.

場材庭瓦 堅堅 間 左右前後 皆與以崇 奉安先聖之藏 以爲釋菜之殿

東西置廊 各四階 以爲諸生講業之所 基南置門一間 旁置石坊兩楹

仍前殿室 以爲教習息之處 制約而位備 以前而事成(新增東國輿地勝覽 卷 14, 堤川縣 學校條)

12) 향교에 있어서 文廟區域과 講學區域이 언제부터 확연하게 分化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조선초기까지는 아직도 여러 郡縣에서 한 境域內에 聖殿과 東·西廡를 설치하고 廡를 講學堂 소로 사용하는 즉, “廟學同宮”의 체제가 계속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1402년에 창건된 利川鄕校의 경우 權近이 1403년에 쓴 記文 “聖廟峙巽以義廡東則 爲樓以涼於夏”(新增東國輿地勝覽 卷 8, 利川 學校條), 1428년에 창건하고 1429년에 鄭以吾가 쓴 陰竹縣學記 記文 “作大成殿三楹東西廡 皆五楹南樓三楹以垣墻”(新增東國輿地勝覽 卷 8, 陰竹 學校條) 龜山鄕校의 記文(정인지 著) “其制聖殿三楹 講學堂也 東三楹 便講業也 西三楹 冬煖居也 南樓五間夏涼處也 若廟若碑亦不備 而祇以垣墻”(新增東國輿地勝覽 卷 29, 龜山 學校條) 등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1442년 정인지가 쓴 海州牧學記 記文 “聖殿北明倫堂 莫然於其南左右夾室東西兩廡南廊 爲間共有三十有五”(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3, 海州 學校條)에 의하면 海州향교에는 방 50칸이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C 말에 들어서는 이미 전국의 모든 郡縣에 향교가 갖추어진 시기이므로 시설 또한 상당히 발전된 체계를 갖추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당시 大都府에서 쓴 고을이었던 江陵의 향교 경우 1486년~1488년에 걸쳐 重建이 있었는데 당시 쓴 記文을 보면 “其聖殿及東西廡又明年構東西兩廡 廳室如前而總於舊所教衛有司房皆新焉又明年 南樓與前廊總七十餘間 鄕校之巨麗無與匹”(新增東國輿地勝覽 卷 44, 江陵學校條), 즉 聖殿과 동·서우로 구성된 文廟 일곽과 함께 다음 해인 1487년에는 강학당, 동·서재로 구성된 학교 시설이 완비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는 현재의 강릉향교 규모와 거의 같고 배치 역시 두 구역이 분리된 “前廟後學”의 배치형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의 향교(光山)도 조선초기까지 존속했던 “廟學同宮”의 체도를 완전히 벗어나 완전한 전학후묘의 배치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500년 상진이 쓴 기문을 보면 “先作聖殿 以安五 聖十哲 又作東西廡 以安七十子歷代諸賢 前置明倫堂 以爲講學之所 又有東西夾室 東則政官所坐 而西則 名口 司馬府 邑中上舍人之所 爲肄業 又有東西 齊 卽諸生之所居 西齊後有尊經閣 東齊後有教官衙門 於是神人咸寧 師生有舍 堂庑廊廡 各有取處 無虛六十餘間”(新增東國輿地勝覽 卷 35, 光山學校條)이라고 되어 있어 향교건축 구성의 기본 건물들을 모두 갖추고 배치 또한 整然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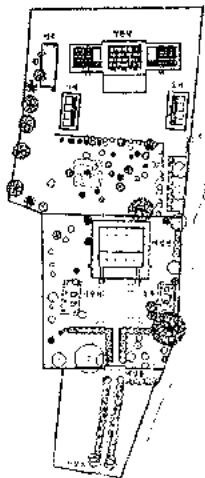


그림9. 羅州향교 배치도



함양향교 교육공간



안위향교 교육공간



청주향교 대성전

향교는 위에서 사례로 들은 8개소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건축적 規範은 儒敎的 질서체계를 최대로 準用한 造營法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前學後廟” 유형은 講學地域이 향교 전면에 들어서고 그 뒤편으로 文廟區域이 오는 한국 향교건축 배치의 절대적인 類型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배치 유형을 결정짓는 물리적 요소는 무엇보다도 지형인데 거의 대부분 선택된 立地는 앞으막한 야산의 산록 경사지가 되고 있다. 즉 경사지역을 보통 3段으로 정지한 후에 낮은 단부터 進入區域, 講學區域, 그리고 맨 높은 단에 文廟區域이 들어서서 지형적으로도 上·中·下의 位階性이 확연히 드러나고 정신적으로도 제일 높은 곳에 文廟를 두어 聖賢에 대한 존엄과 외경심을 높이는 주의깊은 배려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는 건축적으로도 공간의 位階性과 부합되는 기법으로 특히 자연지리상 평지의 발달보다는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의 형편을 감안할 때 前學後廟의 배치기법은 자연과 건축, 그리고 유교의 기본정신이 3박자로 조화된 우수한 조영규범으로 생각한다.

이 형식은 전체를 가로지르는 중심축이 건축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이러한 直進性은 또한 대칭성을 구성하는 요소(東·西廡와 東·西齋)와 함께 균형과 엄숙을 자아내고 있다. 즉 각각의 고유영역은 담에 의해 구별되고 문에 의해 결합되어 聖域의 位階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높아져 가고 있다.

한편 文廟와 講學區域이 左·右, 즉 병렬형식으로 놓이는 유형도 일부 향교에서 보인다. 즉 左側(左·右 기준은 坐向개념, 즉 등진 方位에서 正面으로 바라보이는 방향)에 文廟區域이 놓이면 ‘左廟右學’, 그 반대이면 ‘左學右廟’ 형식이다. 이 유형은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數的으로는 그리 많지 않다. 이 형식의 형성

요인은 물리적인 지형관계도 다소 내포된 듯 하나(從으로 單一直線軸을 형성하기에는 대지가 협소, 光陽鄕校 등)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즉 경사지뿐만 아니라 완전히 넓은 평지에 입지한 향교도 이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제주·정의·돌산·영암·청도향교 등은 평지에 立地) 건립(조성)시기는 주로 조선후기로 한정되어지며 지역적으로는 주로 호남과 영남, 그리고 제주 등 주로 남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현재 전국의 15개소중 左廟右學 형식이 4곳, 左學右廟 형식은 11개소로 나타나 上位인 文廟가 주로 우측에 위치하고 下位인 講學區域이 좌측에 자리하고 있다. 左와 右의 위계적 질서는 古禮에서는 右(西)上의 질서를 따랐으나 조선시대 五禮와 家禮 등에서는 左(東)上의 원칙을 따랐다. 문묘의 위치는 고례에 따라 상위인 좌측에 놓이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건축형식의 배경은 물리적인 지형(평지 또는 경사지)이 일차적인 기준이 되고 그위에 성리학의 근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敬”의 공간이 위계적 질서 체계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敬은 경서에서 말하는 덕목의 하나로서 특히 程朱學派의 정신수양의 방법으로 중요시 되었다. 이는 성리학에 있어서 誠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성리학의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석학 退溪는 敬이 聖學의 始終이라고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 이를 보아 敬이 우리 전통사상에서도 骨髓를 이루는 개념인 것은 틀림없다.

이렇듯 경은 성리학의 정신적 중심이 되어 문묘, 종묘, 가묘 등에서 제사라고 하는 의례와 연결되어 인간생활의 절대적 정신규범으로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문묘의 경우는 學의 구성과 차원이 다른 성스러운 敬의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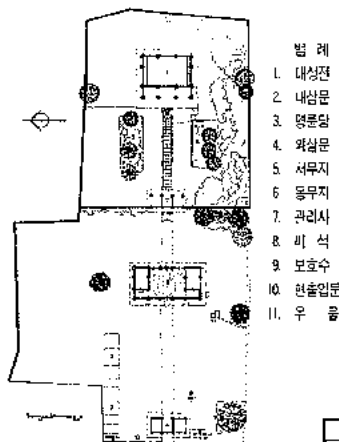


그림10. 仁同향교 배치도
(자료: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단성향교 명륜당. 양끝의 지붕처리가 독특하다.



경사지형을 이용한 “樓”형식의 명륜당이 여러 향교에서 건립되었다. 옥과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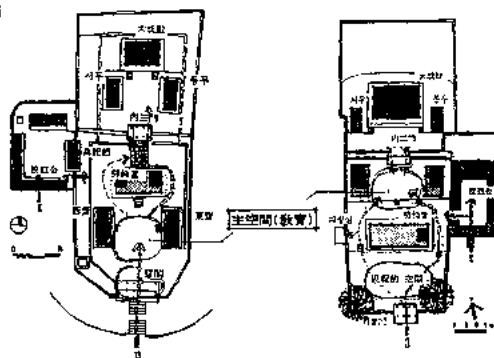


그림11. 講學구역의 배치구조



협천향교 詠歸樓

역으로 구별되어 평지와 경사지의 입지 여건에 따라 전후와 상하의 질서 개념이 확립되고 그러한 질서는 건축의 배치체계에 규범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여겨진다. 물론 조선후기에 창건 또는 새로 조성되어진 향교에서는 평지의 경우라도 “前學後廟”나 병렬형의 배치가 간혹 보이기는 하나 이는 당시 향교기능의 쇠퇴와 함께 유학의 성격이 변화한데서 오는 건축적인 시대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조선시대 유교이념이 가장 강하게 뿌리내렸던 향교에서는 그러한 유교적 사상이 건축시대적 배경으로 존재하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사실인지도 모른다.

향교에서는 유교적 이념에 입각하여 신사회체계를 확립하려 했던 조선초기 사회의 관계적 기구였기 때문에 건축에 있어서도 획일적이고 통일적인 요소가 타 건축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적으로 배치구조에 차이점이 드러나 건축의 다양성이 보이기도 한다. 그중 제일 두드러진 요소는 배치형식중 “前廟後學” 유형이고 또 하나는 강학구역의 건물 조합중 명륜당과 동서재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前齋後堂” 형과 “前堂後齋” 형이다.

“前廟後學” 유형은 앞에서 사례로 들었듯이 지역적으로는 전라도 지역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또한 조선시대 都邑의 규모에 관계가 없다. 경기도나 충청도, 강원도 그리고 경상도 남부지역 등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 건축의 지역적 특성이 돋보인다. 자연 지리적 여건으로 전라도 지역이 특별히 평지가 많아 “前廟後學” 형이 선택된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강원도를 제외한 남한의 모든 지역은 그 여건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도 향교 營建의 주체는 守令과 鄕社社會의 막강한 지 지기반을 갖고 있었던 儒林들이었고 또한 당시의 사회

적 여건으로 보아 의도적으로 평지에 향교의 입지를 선정하려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경남지역에서는 평지에 장소를 택한 경우라도 “前廟後學” 형식이 한곳도 보이지 않는데 이는 조선후기에 새로 조성되거나 창건된 향교로 시대성과도 연관이 된다.

한편 全州, 羅州, 慶州 등 조선초기 大都邑들이 成均館의 “前廟後學” 造營規範을 의도적으로 準用하려 했다면 오히려 지역적으로 한양과 더 근접해 있는 충청, 경기, 강원도 지역에서도 그러한 형식을 따랐을 법도 한데 이곳에서는 한곳도 보이지 않아 주목이 간다. 사실 당시의 成均館은 유학교육의 최고기관으로서 향교는 교육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講學區域은 前學後廟의 배치의 경우 건물의 조합방법에 따라 공간의 형성 및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향교의 정문 가까이에 明倫堂을 두고 內三門쪽으로 兩齋를 배치하여 祭享儀式 區域과 바로 연결되어지도록 계획된 구역과 그 반대로 外三門쪽으로 兩齋를 배치하고 그 안쪽으로 明倫堂을 두어 祭享儀式 구역과는 완전히 분리된 듯하게 구역을 형성시키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두가지 유형의 건물 조합방법은 건립시기 또는 지형에 관계없고 다만 지역적으로만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 경상도 지역에서는 東西齋가 전면에 오는 소위 “前齋後堂” 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前堂後齋” 형식은 전라도 지역의 거의 모든 향교에서 차지한다. 중부 지역인 충청도와 경기도, 강원도 지역은 두 형식이 혼재되어 있어 통일적인 요소는 없다.

절제된 단순미—구조와 造形

향교에는 공자를 聖人으로 간주하여 숭배와 함께 종교적 개념의 祭를 올리는 文廟가 있기는 하나 엄격한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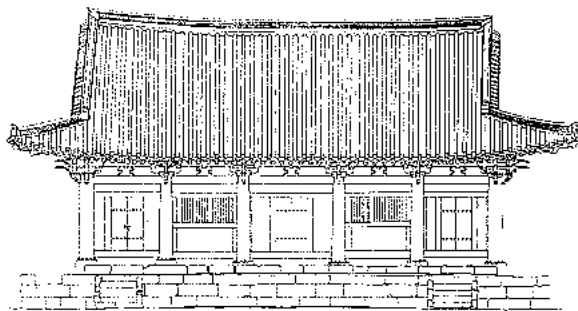


그림 12. 羅州향교 대성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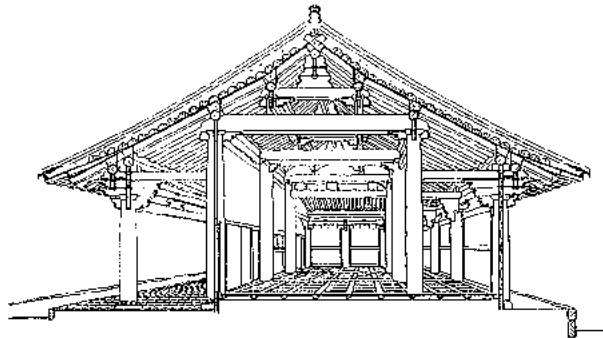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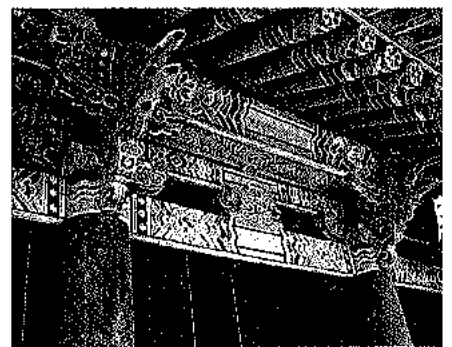
그림 13. 羅州향교 대성전 실내 투시도 (자료: 예그린 건축사사무소)



인근시찰의 석등 부재를 옮겨와 대성전 초석으로 사용된 창평향교



전주향교 외삼문. “持敬門”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나주향교 대성전 공포(주심포)

표4. 건물별 구조와 조형

건물명 건축내용	부요구역		강학구역	
	大成殿	東·西廡	明倫堂	東·西廡
가 단	높음	낮음	중간, 낮음	낮음
기단재료	다듬돌, 막돌	막돌	각돌	막돌
초 석	막돌, 기공초석	막돌초석	막돌초석	막돌초석
기 동	원주	원주, 방주	원주, 방주	방주
공 포	주로 익공식, 주심포 • 민도리식(일부)	민도리, 초익공	민도리, 익공식	민도리
처 마	결처마	홀처마	결처마, 홀처마	홀처마
내림기와	막새기와	아귀도마감	막새기와, 아귀도마감	아귀도마감
지붕	맞배	맞배	글락, 맞배	맞배
가 구	3량, 7량(일부)	3량	3량	3량, 4량
마루대공	파련대공, 판대공	동자주	판대공	동자주
도 리	굴도리	굴도리, 남도리	굴도리	남도리

에서 교단, 교당이 없고 아울러 종교적 실천의식도 없다. 종교의 본질은 신을 숭배하고 피안을 추구 하는데 있다고 있다. 유교의 현실구세의 관념은 이원론적 세계관에서 볼 수 있는 기본적 신앙행위에 찬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교는 통념상 종교건축으로만 이해 할 수 없다. 어쩌면 향교는 유학의 사회적 관습, 그리고 爲政者와의 관계속에 건립된 일종의 制度化된 건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의 구조 및 외장에 있어 나름대로의 독특한 형식을 갖고 있다.

향교건축의 조형미는 단적으로 말해 절제된 단순화에 있다. 유교의 이념중 절약과 검소는 禮의 기준이 되어 사회의 윤리규범을 정립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

표5. 홍주향교의 문묘구역내 건물 위계성

건물명 건축내용	大成殿	奉天殿	祭器庫	內二門
건축규모	3間 * 2間	3間 * 2間	3間 * 2間	3間 * 2間
기단높이	1300	800	400	100
기단재료	강대석	막돌	막돌	흙
초석재료	막돌(퇴주·현향장 초석)	막돌	막돌	막돌
가 등	圓柱(직경:400)	圓柱(직경:250)	方柱	方柱
공 포	二翼工(一出目)	初翼工(無出目)	민도리	민도리
지붕	맞배(풍판)	맞배(풍판)	맞배(풍판)	맞배
처 마	점처마(후면 홀처마)	홀처마	홀처마	홀처마
가 구	1高柱5梁	3梁	3梁	3梁
도 리	굴도리(장회)	"	남도리	"
마루대공	판대공	판대공	동자주	동자주
장방과 도리사이 (전면주간)	화판2塊	소로4塊	장방없음	장방없음

적인 면에서도 화려하거나 필요이상으로 규모가 증대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조선시대 지방 유교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대성전도 정면 5間이 최고의 규모였고 상당수의 향교에서는 정면 3間이 보편적인 건축으로 받아들여 졌다. 유교사회에서 당시 국가적 배려나 지방 유림들의 관심으로 본다면 그 이상의 규모로, 또는 단층이 아닌 중층의 건물로도 造營이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중앙의 成均館이 5間이고 단층이었던 관계로 上下의 位階的 질서가 건축의 한계로 작용했을런지도 모른다.

외장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상징적이거나 장식적인 요소는 모두 배제되어 있다. 갑상이나 용두 등도 볼 수 없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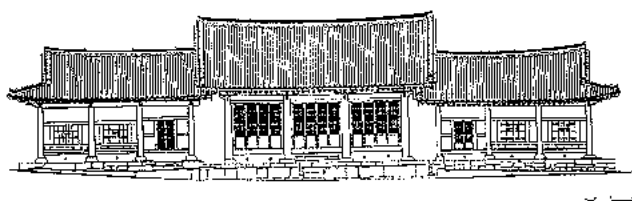


그림14. 羅州향교 명륜당 정면도 (자료: 예그림 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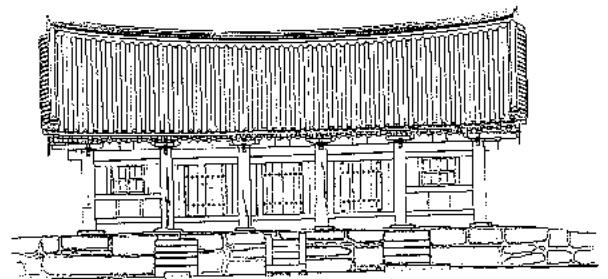


그림15. 東萊향교 대성전 정면도 (자료: 삼성건축사무소)



괴산향교 서문 '西廡'라는 현판을 걸어 격을 높여 줬다



충남 남포향교 서재, 이 지역 살림집 모양으로 지어졌다.



서천향교 대성당 공포(익공)

공포의 구성도 익공식이 절대적인 유형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후기에 사찰건축의 본전에서 일 반적으로 쓰여진 다포양식과 크게 대조되는 현상이라고 하겠다. 명륜당의 경우는 더 단축하게 민도리 양식이 상당수 향교에서 등장한다. 전반적으로 통일적인 요소가 강하다. 표 4는 건물별 개략적인 구조와 조형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조선시대 유교가 “禮” 중심으로 민중교화에 이바지 했으나 縱的인 上下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념때문에 서열 의식과 권위에 대한 맹종을 낳았다. 이러한 체제는 건축 에서 위계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性理學的 사회윤리는 신분계급에 따 른 家舍規制를 낳았고, 남녀관계를 규제한 內外法은 男 女의 居主空間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또한 三綱五倫에 있어 長幼有序는 가족의 장남을 夫權繼承者로 중요한 위치에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동일 주택에 있어서 長男 을 위한 공간이 중요시 되어 官位에 出入하게 될 때에는 작은 사람을 큰 사람 옆에 배치하기도 하였다.

향교는 그 어느곳보다도 유교적 倫理規範이 자율적으 로 행해졌던 곳임을 감안할 때 외형적인 건축의 현상도 그에 못지 않게 위계적임을 알 수 있다.

文廟區域의 경우 大成殿과 東西廡는 명칭상부터 殿 과 廡로 하여 현격한 인식차를 갖게 하였다. 즉 孔子를 비롯해 四聖을 모신 건물은 “殿”으로 명명하여 대궐과 같은 위계를 갖게 하였고 반면에 我國十八賢 및 中國의 하위 先師를 모신 건물은 “廡”라고 하여 행랑의 정도로 격하시켰다.

건축구조에 있어서도 東西廡는 3樑架前退를 둔 경우 는 4樑架가 일반적인 유형으로 채택된 반면에 대성전은

5樑 내지 7樑으로 꾸몄다. 部材 사용에 있어서도 대성전 은 원주를 사용한 반면 동.서무는 상당수 향교에서 방주 를 사용하였다(전면 退柱의 경우는 圓柱). 대공도 대성 전의 파련대공 내지 판대공 사용에 반해 동.서무는 등자 주 내지 판대공을 놓았다. 공포의 구성도 대성전이 出目 을 둔 익공식인 반면에 동.서무는 민도리 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상당한 위계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면의 구성상 중요한 시각효과를 보여주는 기단도 사 용 재료와 높이차로 두 건물간의 위계적 계층을 더욱 심 화시켰다.

사례로 조선시대 中設位였던 충남 홍주향교의 文廟구 역내 각 건물의 위계성을 살펴보면 표5와 같다.

강학구역의 경우도 명륜당과 동.서무는 규모나 구조, 양식적인 면에서 文廟구역의 건물과 같은 질서체계를 갖고 있다. 이는 유학을 강학하고 스승이 머무는 “堂”과 제자들이 기거하는 “齋”는 신분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건 축윤리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성전과 명륜당과의 관계에서도 위계성이 뚜렷이 나 타난다. 표4에서 보듯이 기단, 가구형태, 공포, 처마, 기 와 등 전부분에 걸쳐 고루 차이를 두고 있어 유교적 서 열 관계가 향교건축의 구조에도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사례별로 보면 수원, 청풍, 곡성, 산청, 영주향교 등 전 국의 상당수 향교에서는 대성전이 익공식을 취하고 있 는 반면에 명륜당은 민도리 양식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처마의 형태도 대성전은 겹처마로, 그리고 명륜당은 홑 처마로 하여 위계성을 표현한 향교도 많다(창령, 안의, 음성, 청풍, 지예, 고흥, 남평향교 등). 초계, 함양, 거창, 순천, 옥파, 진도, 청하, 개령, 영주향교 등 전국의 많은 향교에서는 대성전에는 내림막새기와를 사용하였으나 명륜당은 동.서무와 함께 백색 아귀토로 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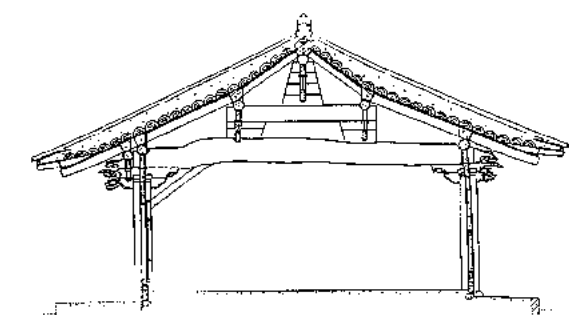


그림16. 東萊향교 대성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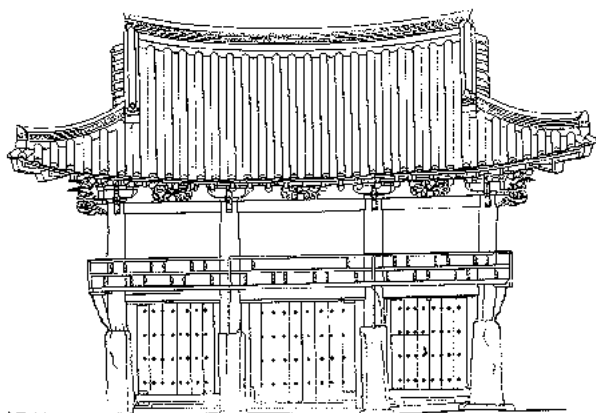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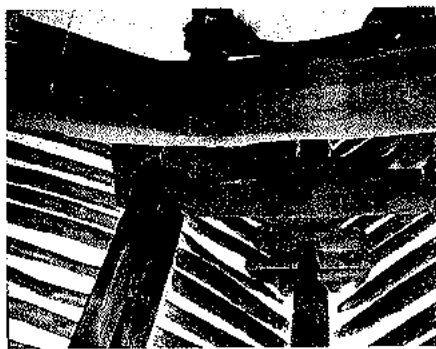


그림17. 東萊향교 한화루 정면도 (자료: 삼성건축사무소)



은진향교 명륜당 공포



진주향교 명륜당 가구



사원하게 올려진 들어열개창. 보은향교

1. 개요

오베르뉴 지방의 로마네스크 양식 예술의 아주 좋은 본보기인 12세기의 이 건축물은 도르(Dore)산 기슭의 아름다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매우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오베르뉴 지방의 대성당이 될 만큼 균형에서 완전함을 이루고 있다. 특히 로마네스크 양식 예술의 이 절 작품은 독특한 위치 때문에 다른 성당과 구별된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는 파리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타고 프랑스의 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클레르몽 페랑(Clermont-Ferrand)에 일단은 도착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고속전철을 타고 산업의 중심지인 리옹(Lyon)을 경유하여 클레르몽페랑으로

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곳에서부터 생 넥테르 성당까지는 40Km로 먼 거리는 아니지만 쉽게 방문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그러나 그곳까지 가는 길과 주위 경치가 너무도 아름답고 우거진 숲과 잔디가 교대로 나타나 지루함을 전혀 느낄 수 없으며 또한 아주 오래된 옛 모습을 지닌 인근 마을 건물들은 방문객을 수 백년전의 역사 속에 있게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도 한다. 숲이 우거진 야산으로 싸인 깊은 계곡 중심부 현무암의 토

대위에 우뚝 서 있는 생 넥테르 성당의 모습은 주위와 알맞게 어우러져 한 치의 어색함을 발견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당의 명성은 성당 주위에 있는 마을의 규모보다는 성당 건립 배경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데 이 생 넥테르 성당 역시 배경에는 오스트르무안느(Austremoine)성인의 친구인 넥테르 성인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립배경을 가진 생 넥테르 성당은 전형적인 오베르뉴 지방 건축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막강한 기둥에 의해 성당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되어 있는 중앙 회중석의 첫번째 트라베(기둥사이의 간격)는 두 탑에 의해 측면으로 연장된 배랑과 같아 보인다. 측랑은 교차궁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중앙 회중석 기둥들은 각기둥이 아닌 원기둥들로 처리하여 내부에 무거운 느낌을 덜고 경쾌한 느낌이 들게했다. 이

프랑스의 성당 및 수도원 건축 (5)

Catholic Church & Monastery Building in France
- Saint-Nectaire 성당 -

朴孝洵/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공학박사
by Park Hyo-Soon



성당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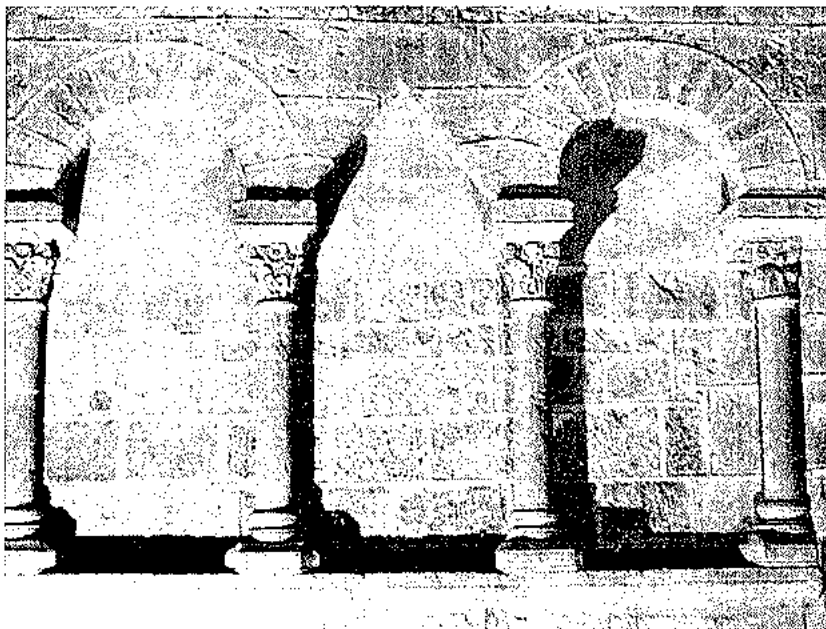
와 같은 특징을 지닌 쥘레페르 성당은 같은 오베르뉴 지방에 있는 클레르몽 페랑의 성당들이나 이수아르(Issore) 또는 오르시발(Orcival)의 성당과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성당의 길이가 38m로 오베르뉴 지방에서 특별석이 있는 성당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작지만 특별석에는 대형 홍예문을 모방한 쌍생의 홍예문을 만들었고 좌우익랑은 작은 제단이 있는 쪽과 트게 하였다. 후진은 내진의 트라베와 방사상의 세 작은 제단이 반원형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2. 쥘레페르 성당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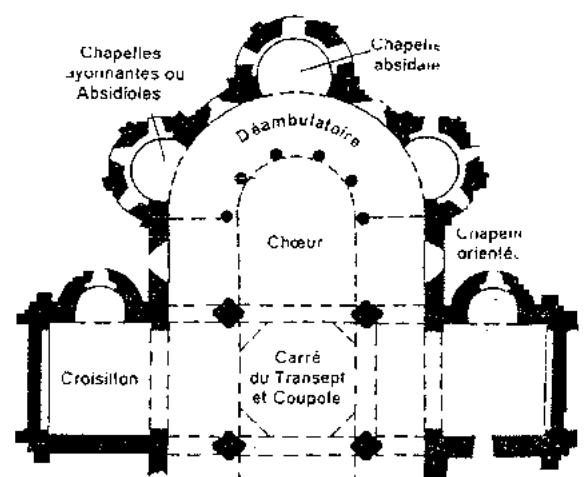
이곳 오베르뉴 지방은 3세기경부터 기독교가 전래되기 시작 하였다. 그레구아르 드 투르(Gregoire de Tours)에 의하면 넥테르(Nectaire)는 이수아르(Issire)에서 몽 도르(Mont-Dore)에 이르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후 298년-300년 경 고령으로 생을 마쳤으며 그의 시신은 그가 성당을 짓게 했던 코르나도르(conadere) 산에 안치되었고 후일, 그의 두 친구 보딤(Baudime)과 오디외르(Auditeur)도 넥테르곁에 나란히 묻혔다. 성당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하였고 순례지의 중심이 된 이곳은 쥘레페르(Saint-Nectaire)라고 불리게 되었다. 12세기 오베르뉴의 백작 기욤(Guillaume) 7세가 라셰즈 디외(La Chaise-Dieu) 수도원에 1146년에서 1178년 사이 쥘레페르의 영지를 기증함으로써 라 셰즈 디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성당의 남쪽 익랑 곁에 있던 수도원에 거처하게 되었다. 그 당시 성당은 오베르뉴 지방의 모든 대형 성당과 유사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1462년 클레르몽(Clermont)의 주교 자크 당부아즈(Jacques d'Amboise)는 성당 소유의 성유골들을 조사하게 하여 1488년 수도원장 기욤 마스(Guillaume Mas)의 감독하에 넥테르 성인의 시신을 무덤에서 발굴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성당의 주제단 양쪽면에 새겨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5세기의 이 제단은 넥테르 성인의 시신과 성당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성유골을 안치

하기 위해 브라썩(P. Brassac)이 건립한 것이다. 1673년 8월 26일 신학자이며 쥘레페르 크루아 드 샹페이크(Saint-Croix-de-Champeix)의 수도원장인 루이 드레르(Louis Delaire)는 클레르몽의 주교 질베르 드 브니 다르부즈(Gilbert de Veny-Darbouze)의 명으로 쥘레페르 본당에 있는 오디외르 성인의 유골을 이전시켰다. 발굴한 유골을 일반인들에게 전시하기 위해 호두나무와 금장을 한 떡갈나무 성골함에 넣어 밀봉을 했다. 현재는 벽화가 있어 성인의 무덤과 유골을 꺼냈던 날을 상기시킨다. 1793년 11월 4일과 1794년 3월 1일 포고된 꾸통(Couthon)의 법령으로 도 소재의 모든 종루를 허물게됨에 따라 1794년 쥘레페르 성당의 종루도 파괴되었다. 이러한 야만적인 일에 협력하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자 리모주 지방의 벽돌공인 뉘제(Nuger)가 이일을 하게 되었다. 화가 난 몇몇 장정들이 총격을 가하여 뉘제의 일을 방해하였고 여자들은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며 불쌍한 뉘제가 아래로 굴러 떨어지기를 빌었으나 자비로운 하느님은 이 불쌍한 인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살려두었다.

그 당시 성당의 훌륭한 보물들은 주물공장으로 보내졌다. 방화범들이 술을 마시러 간 사이를 이용하여 마그리트 방탈롱(Marguerite Ventalon)이라는 용감한 여성이 몇 점의 귀중한 보물을 훔치는 데 성공하여 보딤 성인의 유명한 흉상만은 다행스럽게도 보존되게 되었지만 넥테르 성인의 순은 흉상에 에나멜칠을 한 아름다운 동 성골함, 수많은 예술품들이 약탈과 파괴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크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1875년과 1876년 쥘레페르의 본당 신부인 포레스티에(Forestier)의 부탁으로 건축가 브뤼에르(Bruyere)가 성당의 완전 복원사업을 시도하게 됨에 따라 좌우익랑의 대종루를 본래의 상태로 재건축하면서 대종루의 두번째 아케이드를 재건축하였다. 1901년 15세기의 제단을 신 로마네스크 양식의 제단으로 대체하고, 15세기의 제단은 북쪽 익랑 속으로 옮겼다. 1962년 6월 10일에서 18일까지 마르셀 샤보지(Marcel Chabosy) 본당 신부하에서 문화부의 협력으로 쥘레페르 성당의 내진 속에서 중요한 공사가 시행되었다. 프랑스



중앙회중석과 성당정문안의 현관



내진과 후진 평면도

대혁명때부터 내진의 원주사이에 그릴로 대체하였던 낮은 벽들을 제거하고 주제단 뒤의 장식벽도 없었다. 제대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제작했으며 위로 곧게 올라와 있는 작은 감실은 볼빅(Volvic)의 돌로 제작했다. 감실의 문은 옛날 감실의 문으로 금은 세공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작품이다. 1977년 3월 제작된 파이프 오르간은 성당 정문 안의 현관 2층에 설치되어 있다.

3. 생 넥페르 성당의 건축구조

3-1 성당의 규모

- 성당의 길이: 37.65m
- 성당의 폭: 10.86
- 회중석의 기둥과 기둥의 간격: 5.10m
- 기둥과 측벽의 넓이: 2.88m
- 회중석의 기둥의 직경: 0.78m
- 내진의 기둥과 기둥의 넓이: 5.35m
- 후진의 넓이: 2.32m
- 회중석의 높이: 15m
- 성당 정문 안의 현관(narthex)의 특별석 상부 궁륭의 높이: 4.85m
- 회중석의 커다란 아케이드의 높이: 7.50m
- 둥근 지붕의 높이: 18.5m
- 내진 아케이드의 높이: 6.15m
- 내진 기둥의 높이: 3.45m
- 내진 기둥의 직경: 0.44m
- 벽체의 두께: 0.99m

3-2 외부

오늘날, 코르나도르(Cornadore)산 위 성당주위를 생 넥페르 르 오(Saint-Nectaire-le-Haut), 호텔과 온천장 등이 있는 쿠랑송(Courancon)계곡은 생 넥페르 르 바(saint-nectaire-le-bas)로 부른다. 매우 독특한 화산지방으로 아주 좋은 기후를 가진 생 넥페르 온천장에는 오베르뉴의 로마네스크 양식 예술의 걸작품인 성당이 있

다. 산각위에 건립된 성당은 아름다운 원곡 한가운데에 있어 더욱 더 돋보이며 베네딕트회 수도사들의 비할데 없는 훌륭한 작품으로 남아 있다. 생 넥페르 성당과 같이 이처럼 광활한 풍경과 장대한 주위 환경을 갖춘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은 극히 드물다. 이 건물을 처음 대할 때의 느낌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앙드레 지발(Andre Gyal)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작은 제단”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했던 것처럼 이 성당은 매우 작지만 굉장히 웅장하다. 외부를 둘러보면 후진과 후진둘레의 소후진, 그리고 좌우익랑의 직사각형 토대 아래쪽으로 소후진을 조화롭게 배열한 점에 경탄을 하게된다.

3-3 내부

내부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체적으로 절제된 아름다움과 오베르뉴 지방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전형적인 특징 세가지를 볼 수 있다. 즉 좌우익랑이 중앙회중석과 교차하는 정방형공간 위쪽에 큰 기둥과 궁륭이 바쳐주고 있는 둥근천정이 벽귀의 작은 홍예들 위에 있고 좌우익랑 속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두 홍예 사이에 뾰족하고 높은 삼각형의 홍예가 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역시 삼위 일체의 상징이며 전세계에서 유일한 특별석이 있는 건축을 들 수 있다. 들어오는 빛과 조화를 이루는 내진 그리고 매우 유명한 다색주두(기둥머리)들을 감상할 수 있다.

3-4주두(기둥머리)

성당을 장식하고 있는 주두(기둥머리)의 수는 103점이며 세 범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첫번째는 나뭇잎 장식의 주두(기둥머리), 두번째는 투사들로 장식한 주두(기둥머리), 세번째는 사람의 얼굴로 장식한 주두(기둥머리)로 나눌 수 있다. 사람의 얼굴로 장식한 주두(기둥머리)는 전세계에 있는 기둥머리들 중 가장 아름다운 것에 속한다. 모든 주두(기둥머리)를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성서속의 이야기를 나타낸 22점의 주두(기둥머리)들과 특별히 훌륭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조각된 내



아치와 원주



성당 후진 전경

진 주위의 여섯 점의 큰 주두(기둥머리)들이다. 이를 세밀히 관찰해 보면 매우 흥미로우며 경탄을 자아내게 한다. 먼저 자세히 관찰하기 전에 기본적인 특징을 본다면 쉥넵테르 성당의 조각은 거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사용한 재료가 조면암으로 결이 거칠고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부르고뉴 지방의 부드러운 석회암처럼 돌을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오베르뉴 사람들은 갈로 로마(로마의 영향을 받은 옛 프랑스)의 매우 엄격한 조각 기준을 고수했다. 즉 매우 큰 머리, 흉부 그리고 짧은 다리가 그 특징이다. 한 예로 후진 주위 회랑에 있는 한 주두(기둥머리)에서 자케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의 머리는 16cm 이지만 몸전체 길이는 50cm 밖에 되지 않는다. 몸전체에 대한 머리의 비율은 거의 1/3이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코린트식 주두(기둥머리) 속에 인물들을 중첩시켜 놓은 것이다. 제단의 왼쪽에 있는 채색칠하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주두(기둥머리)가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코린트식 주두(기둥머리)의 모퉁이에서 두 다리위에 상반신은 셋이며 그 위로 다섯 명의 군인 머리를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쉥넵테르의 주두(기둥머리)들은 매우 활기차고 단순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고대의 영향으로 조각가들은 코린트식 주두(기둥머리)의 모퉁이나 코린트식 외형 장식에 있는 곳에 인물의 머리를 조각해 넣은 간단하고도 독창적인 방식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은 조각에 안정감을 준다.

먼저 인물들의 얼굴을 본다면 언제나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이 관례다. 이것은 인물의 몸전체가 옆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제일 정성을 들여 꼼꼼하게 처리한 것은 곱슬곱슬하거나 땅은 머리카락과 수염이다. 시선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 눈동자는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손은 잘 표현되어 있고 몸짓은 표현이 매우 풍부하다. 원근법상의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발은 땅을 딛지 않고 대부분 수직으로 처리해 놓았다.

클레르봉 폐라의 노트르담 뒤 뵘르(Notre-Dame du port)에서 장인 로베르(Robert) 작품의 주두(기둥머리)

양식과 브레이에르(Brehier)의 것은 비슷한데 이러한 연유로 두 성당의 주두(기둥머리)들은 같은 아틀리에에서 제작된 것이 틀림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쉥넵테르 성당 내진의 주두(기둥머리)들은 세 아틀리에에서 제작되었다. 첫번째 아틀리에에는 로베르(Robert) 아틀리에로 그리스도의 수난, 그리스도의 빵의 기적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룬 주두(기둥머리)들이 이곳에서 제작되었다. 두번째 아틀리에에서는 넵테르 성인의 생애와 관련된 주두(기둥머리)를 제작했다. 세번째 아틀리에에서는 요한 묵시록과 마지막 심판을 표현한 아름다운 주두(기둥머리)들이 제작되었다. 로베르 아틀리에가 독창적이고 인물을 중첩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면 나머지 두 아틀리에에는 넉넉한 구성과 두드러진 부조로 주두(기둥머리)에 생동감을 부여했다고 하겠다. 쉥넵테르의 조각가들은 신비주의자들은 전혀 아니었지만 이로 인해 예술의 질이나 견고한 신앙은 조금도 감소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성당을 매력적인 상상의 장면으로 가득 채웠다. 그들은 표현이 풍부한 제스처를 본능적으로 발견할 줄 알고 감동할 수 있으며 위대한 예술에까지 다다를 능력이 있는 훌륭한 이야기 작가들이었다.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유다의 입맞춤", "악마에게 이야기하는 넵테르 성인", "무덤에서의 여인들", "의심 많은 토마" 등은 상상을 초월한 장면들로 생생한 실제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3-5 내진속의 주두(기둥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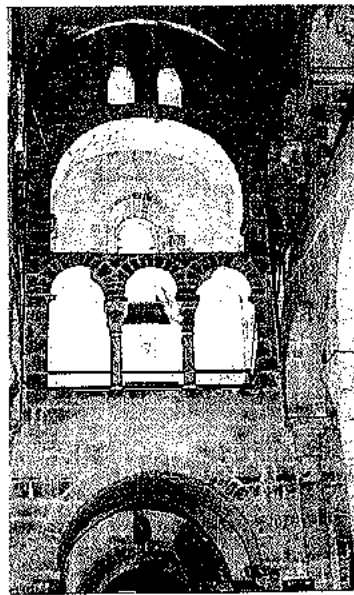
왼쪽 첫번째 주두(기둥머리)는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표현한 것으로 먼저 서쪽면을 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있으며 그의 뒤쪽에 있는 한 군인이 중간이 불룩한 막대기로 그리스도를 밀고 있다. 동쪽면에는 "체포당한 그리스도"를 표현했다.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의 주위에 십자가가 있는 후광이 있다. 그의 바로 곁에 나쁜 뜻으로 유명한 인물 유다가 있다. "배반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 순간의 장면이다. 기둥머리의 왼쪽 모퉁이에는 오른손에 검을 든 베드로가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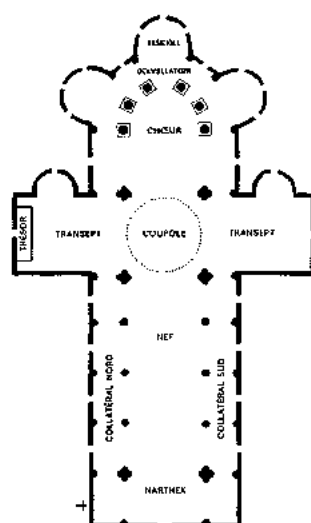
벽귀의 작은 홈에 위의 둥근천정



북쪽측랑 교차궁륭



삼각형 아치



성당의 평면도

그이 앞에는 귀가 찢린 대사제의 종이가 무릎을 꿇고 있다. 두손을 활짝편 예수가 개입을 하여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다. 후진 주위의 회랑쪽에는 “채찍질을 당하는 예수”가 있다. 그리스도는 기둥에 묶여 있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두 사람의 군인이 가는 가죽 끈이 달린 채찍을 들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법에 따라 39번의 채찍질을 하려하고 있다. 내진쪽 면에는 “의심많은 토마에게 나타난 예수”를 묘사해 놓았다. 부활한지 일주일만에 나타난 예수의 늑골에 토마는 두 손가락을 집어 넣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하고 소리치고 있다.

두번째 주두(기둥머리)에서 내진쪽 면은 “타보르 산에서 예수의 변모”를 표현했다. 그리스도는 주두(기둥머리)의 모퉁이에 서있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의 주위에 있다. 오른쪽에 있는 베드로가 두 손으로 세 초막을 가리키고 있다. 그 옆에는 요한과 야고보가 눈을 반쯤 감고 깊이 잠들어 있다. 후진 주위의 회랑쪽에는 “빵의 기적”이 조각되어 있다. 예수는 어린이와 여자의 손을 세지 않고도 오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위해 빵 다섯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두 손으로 축성하고 있다. 역시 후진 주위의 회랑쪽에 “교회에서 죄인을 숨겨줄 수 있는 권리인 비호권”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중세기의 매우 중요한 교회 권리였다. 강도가 원주에 묶여 있고 두 날개를 펼 천사가 그를 방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다. 세번째 주두(기둥머리)에는 넥페르 성인의 일생이 조각되어 있다. 성당의 수호 성인에게 할애한 주두(기둥머리)로 옛날에는 순례객들이 이곳에서 숭고한 마음으로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곤 했던 곳이다. 넥페르 성인에 의해 부활한 주교 브라뮐뤼스(Bradulus)가 모형성당 아래 있다. 후진 주위의 회랑쪽 면에는 티베르강에서의 장면으로 화가 난 표정으로 입을 크게 벌린 악마가 작은 배 속에 있다. 한 천사가 악마에게 맞은 편 강변으로 벡페르를 건네주도록 명령하고 있다. 불꽃처럼 머리카락이 선 벌거벗은 악마는 마침내 복종을 한다. 내진쪽 면에는 쉬트리(Sutri)에서 병이나서 죽은 넥페르 신부를 교황이 소생시킨 장면이다. 네번째 주두(기둥머리)는 요

한 묵시록의 장면들이 있다. 재판관 천사가 영혼의 선과 악의 무게를 달기 위해 오른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후진 주위의 회랑쪽에는 요한 묵시록의 천사 또는 세상이 종말이 되는 날의 전멸시키는 천사가 조각되어 있다. 안장과 굴레를 씌운 말에 탄 날개달린 천사가 저주 받은 사람들을 제물을 세계의 화살을 휘두르고 있다. 말의 재갈과 등자를 매우 섬세하게 조각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면에는 순교자들을 인도하는 천사가 있다.

다섯번째 주두(기둥머리)에는 마지막 심판이 조각되어 있다. 후진 주위의 회랑쪽에는 두 천사가 온나팔을 불고 있으며 그들은 세상의 종말과 심판의 시간을 알리고 있다. 그들은 왼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선한 사람들이 있으며 왼쪽에는 악인 네명이 탄식하고 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무시무시한 벌을 주고 있다. 내진쪽 면에는 물결 모양의 양각 무늬를 넣은 T자형의 구원의 십자가를 두 천사가 떠받치고 있으며 십자가의 중앙에는 그리스도를 못 박았던 못과 망치를 든 그리스도의 손이 있다.

여섯번째 주두(기둥머리)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각해 놓았다. 내진쪽에는 구세주의 무덤을 표현해 놓았다. 두 층으로 된 작은 기념물은 늘어진 주름과 기름등잔의 조각으로 전형적인 유대기념물을 나타내고 있다. 동쪽면에는 네 명의 무덤을 지키는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턱 가리개가 있는 원추형의 투구를 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조각이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잠을 자면서도 창을 쥐고 있으며 창은 비스듬하게 미끄러져 있는 상태이다. 후진 주위의 회랑쪽에는 지옥에서의 그리스도를 묘사했으며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예수는 지옥의 임보(구약시대에 선한 사람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강림까지 머물러 있던 곳)에 내려와 있다. 예수는 지옥문을 작은 십자가 자루로 밀고 있다. 그의 왼손으로 수염이 많고 벌거벗은 아담을 끌어내고 있으며 태초의 인간 뒤에는 본래의 차림인 이브가 다른 두 선인의 뒤를 따르고 있다.



첫번째 주두-십자가를 진 그리스도



채찍질을 당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수난-유다의 입맞춤



의심많은 토마에게 나타난 예수

서쪽면에는 무덤에 있는 성녀들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들은 세 사람의 마리아이다. 길고 뾰족한 손가락을 가진 그들의 손에는 향료가 가득 든 흰 대리석 향아리가 들려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다. 기둥머리의 모퉁이에는 묘석 위에 앉은 천사가 성녀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알리고 있다.

3-6 후진주위의 회랑

제단 오른쪽에 있는 첫번째 방사상의 작은 제단왼쪽에 자케오의 이야기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에 걸터앉은 세리 자케오는 그리스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으며 반면 기둥머리의 맞은 편 모퉁이에 십자가가 있는 후광에 싸인 그리스도는 자케오를 향해 손을 내밀어 나무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얼굴 표정들이 매우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음이 인상깊게 보는 이의 마음에 와 닿는다. 새겨지체한다. 후진 주위의 회랑 북쪽 입구에 탐욕스러운 자들의 형벌의 조각품은 텅수룩한 두 악마가 허리 위만 간단히 두른 인간을 묶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남쪽 입구에는 두 양치기의 조각이 있는데 그들 각각은 어깨 위에 양을 메고 무릎을 꿇고 있어 좋은 목자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3-7 중앙 회중석의 측랑

북쪽 측면에서는 강에서 구출된 모세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왼쪽에는 악어를 물리치고 있는 하인들이 조각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파라오의 딸이 아기쪽으로 몸을 굽히고 있다. 둥근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 가운데 중앙 회중석쪽에 있는 한 기둥머리에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관한 것을 볼 수 있다. "칠현금을 연주하고 있는 당나귀"가 그것이다. 매우 둔하게 아홉 줄을 튕기고 있다. 그의 맞은 편에는 음란함의 상징인 숫염소가 왼손에 포도나무 그루터기를 쥔 한 기사를 등에 태우고 있다. 안식일에 관한 주두(기둥머리)와 짝을 이루는 것으로 넥테르

성인의 친구이자 이 본당의 두번째 수호성인인 보듬 성인에 바쳐진 주두(기둥머리)가 있다. 생생한 구전에 의하면 보듬성인은 도르(dore)지방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만들었던 사나운 짐승을 죽였다. 이 짐승이 지나간 곳에는 수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주두(기둥머리)에는 승리의 성인이 발로 사나운 짐승의 거대한 머리를 누르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남쪽 측랑에서는 "황야에서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악마와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유명한 주두(기둥머리)로 양쪽 모퉁이에는 그리스도와 악마가 있고 그 사이에 악마가 "만일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도록 해보시오"라고 요구했던 돌이 있다.

4. 보물

프랑스 대혁명 전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 현재 이 성당에 남아 있는 것으로 많지는 않지만 예술 작품의 질과 수준에서 매우 훌륭한 것이 몇 점 있다.

이 작품들은 성당의 북쪽 익랑에 있는 두 진열장 속에 있다.

4-1 코르나도르(Cornadore)산의 성모 마리아

등받이가 있는 넓직한 왕좌에 앉아 있는 조각은 성모 마리아 상이다. 이 작품의 높이는 0.69m, 성모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있으며 아기 예수는 왼손에 복음서를 들고 있다. 12세기의 작품으로 표구용의 풀을 칠한 나무로 제작되었다. 색칠은 12세기에 했으나 백합꽃은 15세기에 덧붙인 것이다. 등에는 5cm×6cm의 작은 방이 있다. 이곳에 성유골을 넣어 보존하고 있으며 단조된 철로 만든 쇠 자물쇠로 잠궜다.

4-2 보듬성인의 흉상

넥테르 성인의 친구였던 보듬 성인은 몽 도르 지역과 남부 리나뉴 지역에서 3세기 말 넥테르 성인과 함께 전도를 했다. 높이 0.72m로 반신을 나타내고 있는 흉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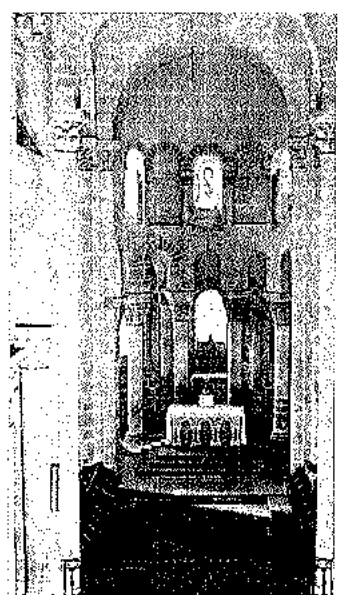
두번째 주두-현성용



빵의 기적



비호전



중앙회중석

기념비를 제외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4번째에 속하는 것으로 매우 수준높은 보물이다.

홍상은 떡갈나무에 돌을 무너 압착 세공을 하여 금도금을 한 동판을 입힌 것이다. 머리와 손은 주조된 순동으로 되었다. 토마스(Thomas)일당이 절도를 했던 그 유명한 날 1907년 5월 24일까지 제의의 장식은 동그스럼한 보석으로 되어 있었다.

확대된 동공과 함께 세모꼴의 눈은 매우 직선적이고 이성적인 느낌이 들게 한다. 이 성인의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은 그리이스나 마케도니아식이다. 수염은 우묵한 각인으로 제작되었다. 12세기 리모주 지방의 한 아폴리에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한 이 아름다운 작품을 한번 보고 나면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4-3 넥페르 성인의 손 모양의 성유골 함

15세기의 것으로 은을 무너 압착 세공을 한 작품으로 3세기에 이 지역에서 첫번째 사도였던 넥페르 성인의 손과 팔뚝모습이다.

4-4 책 표지

12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모티브가 드러나도록 바탕을 파내고 에나멜을 부었다. 화려한 가장자리 장식은 돌보기를 이용하여 관찰해야 한다. 가장자리는 장미나 별로 장식한 작은 에나멜 판과 정성들여 박은 동근 보석이 교차되어 있다. 중앙에는 십자가 상에 휴식중인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는 팔로 조각을 하여 에나멜 처리를 한 금도금의 동판으로 제작된 것이다. 중세기에는 고통받는 모습으로 예수를 표현하기 보다 오히려 나무 십자가 위에 매우 조용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려고 했다. 손과 발에 네 개의 못과 함께 머리에는 승리의 왕관을 씌워놓았다.

5. 오베르뉴지방 성당의 로마네스크 건축양식

이 내용에서는 무엇보다도 쥘레르 성당의 건축적 양

식만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오히려 쥘레르 성당이 건립되어있는 오베르뉴지방 성당이 전반적으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건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성당에 대한 설명을 부연하므로써 쥘레르 성당의 건축적 일부양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5-1 개요

초기 그리스도와 메로빙 왕조 시대의 것으로 클레르몽(Clermont) 대성당의 지하성당에 있는 석판과 몇가지 작품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클레르몽 대성당의 석판은 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매우 아름답게 조각된 것이 특징이다. 카롤링 왕조시대의 예술에서 로마네스크 양식 예술이 싹트기 시작했다. 남아 있는 것으로 완전한 건축물이 없지만 946년에 봉헌된 클레르몽 대성당의 지하성당이나 샤마리에르(Chamalières), 모작(Mozac), 리(Ris), 블레슬르(Blesle)와 쥘레르 쥘레르 시울르(Saint-Pourcain-sur-Sioule)의 성당들의 일부분에서 9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흥미있는 건축 요소를 볼 수 있다. 오베르뉴 지방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은 현재 알리에(Allier) 캉탈(Cantal), 오프 루아르(Haute-Loire)도가 포함되었던 옛날의 클레르몽 교구에서 11세기와 12세기 사이에 번성했던 한 학파에 속한다. 이 학파는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서구식 예술로 간주된다. 성당의 규모는 작지만 균형적인 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웅장한 인상을 받게 한다. 뮈르 부르제(Paul Bourget)는 이러한 성당들을 건축한 종족들처럼 거칠고 힘있는 모습으로 성당을 묘사했다. "성당을 보고 강하면서도 단순한 아름다움을 느낀 사람은 누구나 견고하고 육중하며 압축된 간결함을 지닌 이 성당들을 잊지 못한다. 외부의 질서 정연한 배열을 내부에서도 볼 수 있다. 건물 전체에 연결된 작은 계단들과 함께 후진의 외관은 조화로운 균형과 일치의 인상을 준다." 이 양식의 논리적이고 간결한 아름다움을 오베르뉴 지방을 거쳐가는 순례객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가장 아름다운 성당들로는 클레르



세번째주두 모형성당



넥페르성인의 생애
(티베르강을 지나감)



넥페르 성인의 부활



성당전경

몽 페랑의 노트르담 뒤 뽀르(Natre-Dame-Du-Port),
이수아르(Issoire), 오르시발(Orcival), 쟁 넥페르와
사튀르넵(Saint-Saturnin)성당이 여기에 속한다.

5-2 건축자재

클레르몽 페랑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있는 리마뉴지방
에서는 누르스름한 자연 변질성 사암인 아르코즈
(Arkose)가 13세기까지 사용되었다. 그 후 화산의 용암
을 교각의 아치나 궁륭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게하며 다
색배합으로 장식 역할을 하는 건물의 윗부분에 작은 크
기로 잘라 사용했다. 그러나 13세기, 용암을 작은 블럭
으로 자르는 도구들의 질이 향상되고, 자르는 기술이 발
달하면서 용암은 건축의 첫번째 자재가 되기 시작하였
다.

5-3 외부

1)서쪽정면

장식이 별로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 서쪽 정면은 아
름다운 후진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2)측면

성당의 측면에는 벽을 받치면서 중력을 덜어주는 대형
아치가 있다. 이 아치 아래에 크고 작은 돌을 적절하게
다색 배열을 하여 측면을 장식했다. 측면의 위쪽에는 홍
예문 모양의 장식으로 연결한 높은 창문들이 있다. 외부
와 내부를 연결하고 있는 문들은 장식되어 있고 대개는
오베르뉴지방 특유의 오각형 상인방이 있다. 이 상인방
은 보기 드물게 반원형 아치아래에 조각하여 장식한 합
각벽을 받치고 있다.

3) 8각 종루

두층으로 나누어 빛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광창
을 낸 8각 종루는 건축물에서 곧게 올라와 있다. 종루의
압력은 후진, 중앙회중석 그리고 측면에서는 좌우익랑
에 분산되어 있다. 8각 종루는 내진과 후진 위에 균립하

듯 우뚝 서 있게 설계했다.

4)후진

층의 아름다운 배열로 인해 후진은 오베르뉴지방 성당
의 가장 전형적이고 아름다운 부분이다. 우아하고 간결
한 이 절작품은 8각종루의 압력을 조정하고 있다. 후진
에 의해 성당은 유연한 조형미를 간직하게 되었다. 정성
스럽게 꾸민 피라미드처럼 질서정연하고도 완벽하게 건
립된 후진은 조화롭고도 안정된 느낌을 준다. 후진둘레
제단의 배내기는 그 장식이 목수가 대패를 사용할 때 나
오는 나무 찌꺼기를 연상케한다 하여 "대패밥으로 된 처
마 까치 박공"이라 불리우는 섬세한 S자형 까치발이 받
쳐주고 있다. 창문 둘레에는 장식쇠시리가 있어 쇠시리
가 돋보인다. 다색 모자이크가 후진 벽을 화려하게 꾸미
고 있다. 작은 박공 벽으로 후진 주위회랑에 있는 작은
제단 지붕을 마무리 지었다.

5-4내부

오베르뉴 지방의 로마네스크 양식 성당 내부로 들어가
보면 매우 견고하다는 인상을 받게된다. 그러나 얼마 지
나지 않아 곧 주두(기둥머리)가 장식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서쪽 정면에 있는 성당 정문
안의 현관 앞에 있는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강한 궁륭
이 특별석을 받치고 있고 종루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다.

1)중앙회중석 궁륭

중앙회중석과 양측면에 있는 두 측랑이 순례객들을 맞
이 한다. 중앙회중석은 반원형이 궁륭으로 되어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반원형 궁륭으로 5-11세기까지 주로
이용했던 골조지붕을 대체했는데 그 이유는 골조 지붕
이 인화성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다. 오베르뉴 지방의 로
마네스크 양식의 육중한 궁륭은 매우 견고하며 어떤 시
련에도 견디어 내고 대들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다. 양측랑은 교차 궁륭으로 처리되었다. 측랑숫
자의 윗쪽에는 2중 역할을 하는 1/4원형의 궁륭과 반원



네번째주두-심판하는 천사



천사와 순교자들



다섯번째주두-최후의
심판날을 알리는 나팔



심판-죄인들

형 궁륭으로 처리한 특별석이 있다. 2중 역할이란 중앙 회중석의 중심부를 직접 지지하고 작은 창을 통해 성당 윗쪽 부분을 밝게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석의 육중한 원주가 받치고 있는 2중 또는 3중 창구로 내부를 단순하게 장식했다. 대개 남쪽 측랑에 있는 창구가 3중으로 내부로 빛이 스며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내진

성직자들을 위한 내진은 미사 집전을 위한 장소와 중앙 회중석의 바닥보다는 몇계단을 높게 건립하고 궁륭은 낮게 처리를 하여 내진을 크게 보이게 했으며 내진을 향해 모든 시선이 집중될 수 있도록 했다. 조각가의 재능이 아낌없이 발휘되어 있는 곳이 내진에 있는 아름다운 기둥머리들로 성당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속한다. 내진의 반원형 후진 앞에는 곧은 트라베(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가 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이 차단되지 않도록 배열된 높은 원주들이 있는 반원형 후진 주위는 반원보다 높은 아치를 건립하여 왕관 모양으로 장식했다.

3) 후진 주위의 회랑

후진 주위의 회랑은 내진 들레의 측랑까지 연장되어 있으며 교차궁륭으로 처리되었다. “후진 들레의 제단”으로 불리우는 방사상의 작은 제단들은 후진 주위의 회랑에서 관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대 측일에는 동시에 미사가 집전되기도 한다. 작은 제단들 사이에 창문이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 성모마리아에게 봉헌되지 않은 성당(주: 성당을 건축할 때 대개는 성모마리아나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그 성인이나 성모마리아의 이름을 성당에 붙인다. 예를 든다면 노트르담 드 파리(Notre-Dame-de-paris)대성당은 성모마리아에게, 쉐넬페르 성당은 백페르 성인에게 바친 성당이다.) 내에 있는 후진이라 불리우는 작은 제단은 평면도 상에서 축에 위치한 작은 제단으로 특별히 성모마리아에게 바친 것이다. 브리우드(Brioude)의 쉐릴리앙(Saint-

juilien)이나 이수아르(Issire)의 쉐 오스트르무안느(Saint-Austremoine)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후진의 윗쪽에는 특별석이 없으며 높은 창이 바로 내진을 향해 있다.

4) 좌우익랑과 등근 지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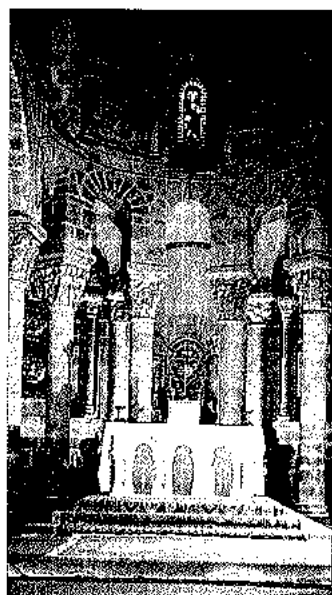
좌우익랑의 건축은 로마네스크 시대의 건축가들에게는 까다로운 문제였었다. 중앙회중석과 좌우익랑의 궁륭을 서로 의존시키면서 중앙 종루의 전체무게를 감당해야만 하는 대규모의 교차궁륭을 건립해야 했다.

5) 지하성당

내진의 아래에는 대개 지하 성당이 있게 마련이다. 강한 원주들이 지하성당의 교차궁륭을 지지하고 있다. 성당 일층에서 처럼 지하성당의 내진 주위에도 후진주 위 회랑과 방사상의 작은 제단들이 있다. 지하성당의 규모는 좌우익랑을 넘어서지 않는다. 지하성당에는 성유골과 성모 마리아가 모셔져 있다. 보통 “지하실”이라고 불리우는 클레르몽 페랑의 노트르 담 뒤 뽀르의 지하성당은 클레르몽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명상의 장소이다.

6) 기둥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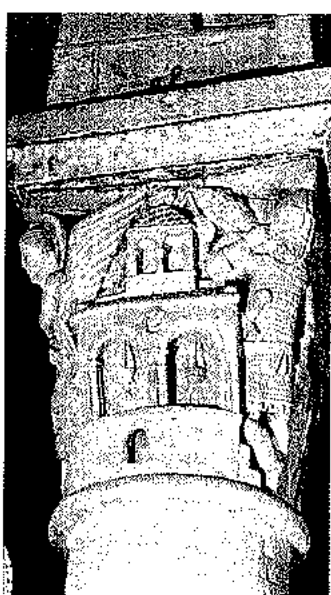
홍예문 모양의 장식을 지지하고 있는 원주 윗부분의 기둥머리는 건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기둥머리는 대들보를 가늘게 하지 않고 원주 구간을 줄이며 특히 한 기둥 위에 궁륭의 여러아치를 수용하여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성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내진주위의 기둥머리들은 상상으로 조각한 장면들로 장식되어 있다. 모작(Mozac), 클레르몽 페랑의 노트르담 뒤 뽀르(Notre-Dame-du-port), 브리우드(Brioude), 티에르(Thiers)와 샹퇴르(Chanteuges)의 예술가들처럼 아틀리에에서 그룹이 된 그들은 고대예술에서 독수리, 인어, 반인 반마의 괴물, 우두인신의 괴물, 남상주, 뱀, 요정, 등 주제를 인용했고, 동방에서는 서로 마주보는 독수리 사자, 잔속에서 물을 마시는 새들을, 지방의 생생한 역



내진



여섯번째주두-그리스도의 무덤에 있는 성녀들



그리스도의 무덤



후진주위의 주두-착한목자

사에서 성당 건립의 장면과 1차 십자군을 연상시키는 갑옷을 입은 세펠크르(Sepulcre)성인 또는 기사들을, 중세의 전통속에서 성지 사슬에 묶인 원숭이, 음악가 낭니귀, 천사와 악마, 아랑과 정의를 상징하고 선과 음란함과 목에 늘어진 지갑을 걸고 지갑에 끌려 가는 고리대금 업자로 표현한 탐욕을 상징하는 악을 인용했다. 또한 종교적인 주제도 많다. 유혹, 아담과 이브의 죄, 성모영보, 예수의 생애, 착한 목자의 이야기, 빵의 기적 등이 그것이다.

이 주제들은 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한 부분에 특별한 테마를 새겨놓은 작품들의 묶음으로 그룹지어져 있다. 성전 또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상기시켜 성당의 성스러운 특징을 부각시킨다든가 종교의 상징, 신약성서의 장면들을 미리 나타내는 구약성서의 장면들, 황도 십이궁 등이 그 예이다. 가장 아름다운 기둥머리들 가운데 클레르몽의 노트르담 뒤 뵈르, 쁘 백페르, 오르시발, 브리우드와 모작의 기둥머리들을 들 수 있다. 원근법과 입체감으로 완벽하게 배치된 인물들은 작고 뚱뚱하지만 매우 활기차 보인다.

6. 맺음말

오네르뉴지방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표적 성당인 쁘 백페르성당의 현상태와 건축적 특징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 성당의 외부는 많은 부분이 마멸되어 있는 상황이다. 서쪽 정면은 거의 보잘것 없는 반원형의 문으로 되어 있으나 19세기 재건립한 종루는 꼭대기가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후진의 장식은 장미 모양의 섬세한 모자이크 장식띠와 가느다란 원주가 있는 막힌 홍예문 모양의 장식, 작은 제대의 지붕이 없혀 있는 작은 박공 벽은 매우 간결한 것이 인상깊다. 내부에는 대들보가 없이 연속 반원형 궁륭으로 된 중앙회중석의 양쪽에는 교차 궁륭으로 된 좁은 측랑이 있고 측랑의 위쪽에는 특별석이 있으며 중앙회중석 보다 낮은 내진에는 아름다운 주두(기둥머리)가 있는 여섯 원주와 후진 주위 회랑 그리고

방사상의 작은 세 제단이 있다. 중앙회중석과 내진은 장식하고 있는 기둥머리가 103점이며 예술가들이 발휘한 상상력이 매우 돋보인다. 그리스도의 생애, 구약성서, 신약성서, 요한 묵시록의 장면들과 백페르 성인의 기적들을 기둥머리에 표현했다. 프랑스 대혁명때 약탈을 당하긴 했으나 아직도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보물로 남아 있어 그 가치가 더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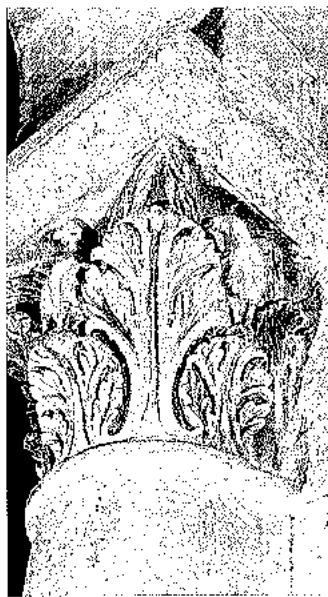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유명한 쁘 백페르 성당까지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으나 숲이 우거진 야산 계곡 높은 언덕에 그 많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크게 훼손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광경은 경이롭기 이를데 없었다. 성당 여러 모습과 상태를 살펴보았지만 화려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어색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수수하여 오히려 방문자를 경건하게 하는 그 무엇을 지니고 있음을 느낀다. 현실성과 현대 감각에 맞는 성당을 설계하여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쁘 백페르성당과 같은 건축양식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느낌을 종교적, 사상적, 예술적, 건축적인 상황에서 충분히 이를 소화하고 여과하여 현대 건축에 도입, 적용한다면 훌륭한 또다른 독특한 양식의 성당이 표출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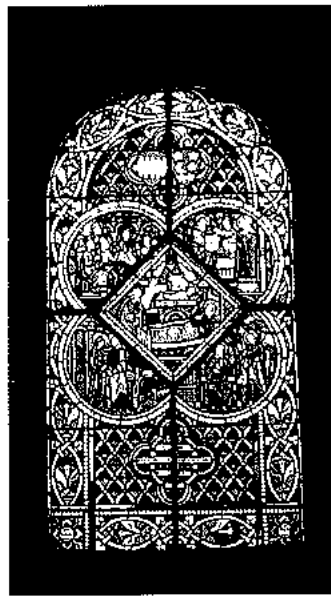
중앙회중석 측랑의 주두. 철현금을 연주하는 당나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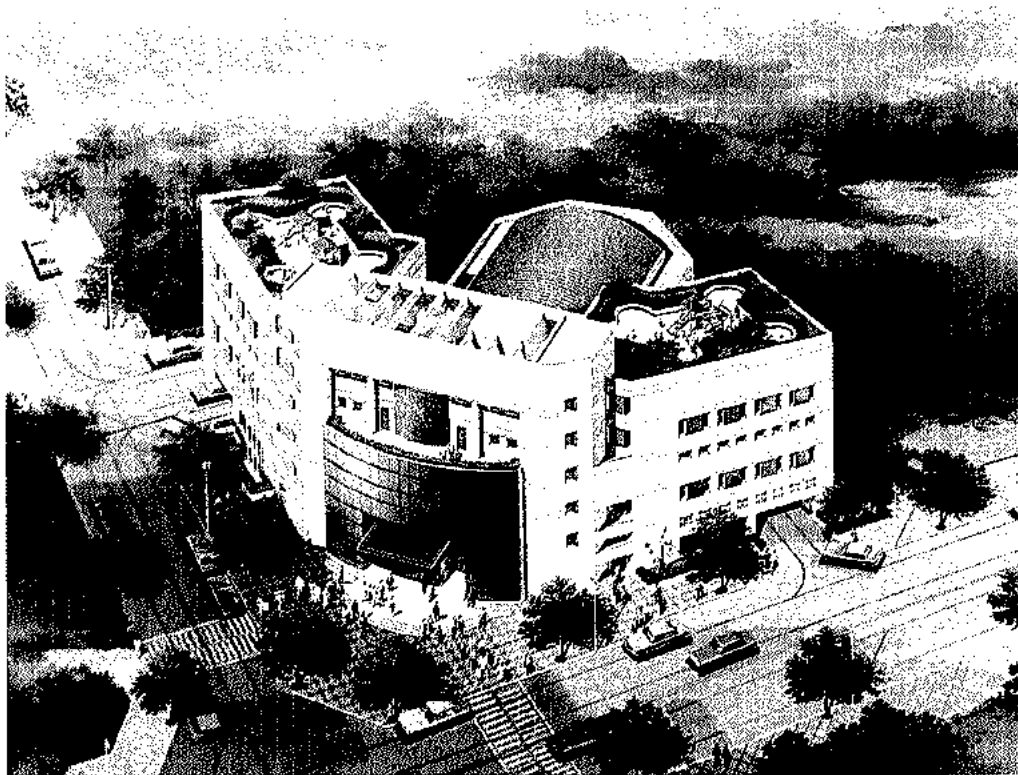
척표지



수메르독수리



그리스도의 생애(환희의 신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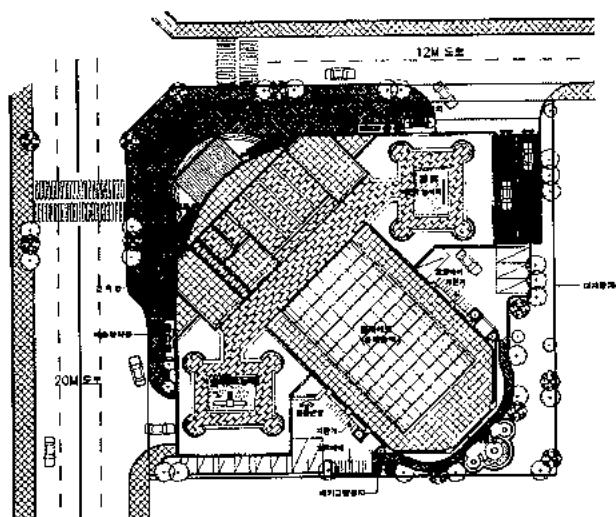


조감도

울산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Ulsan Total Labor Welfare Hall

울산시는 중소기업근로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취미생활 및 사회체육활동의 장이 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건전한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 현상설계경기 공모를 실시해 울산 우성건축안을 당선작으로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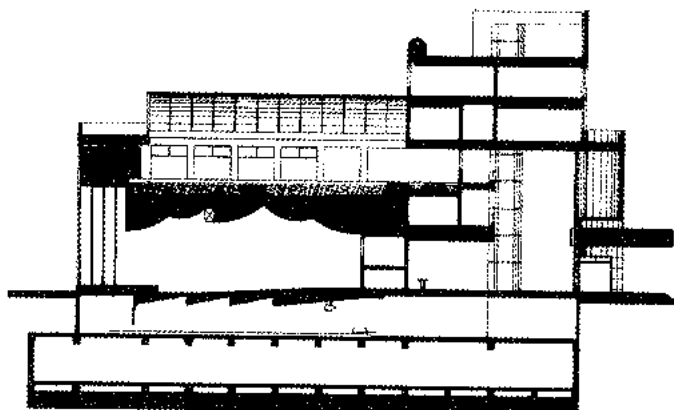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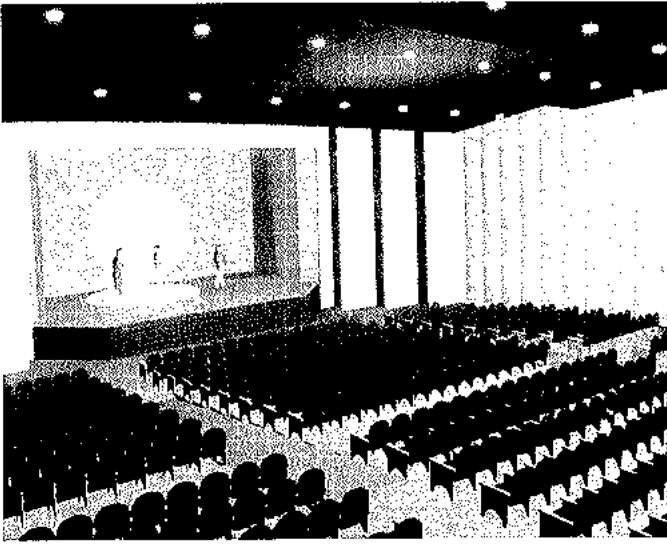
당선작

우성건축(최광식+박문철+노병기+박문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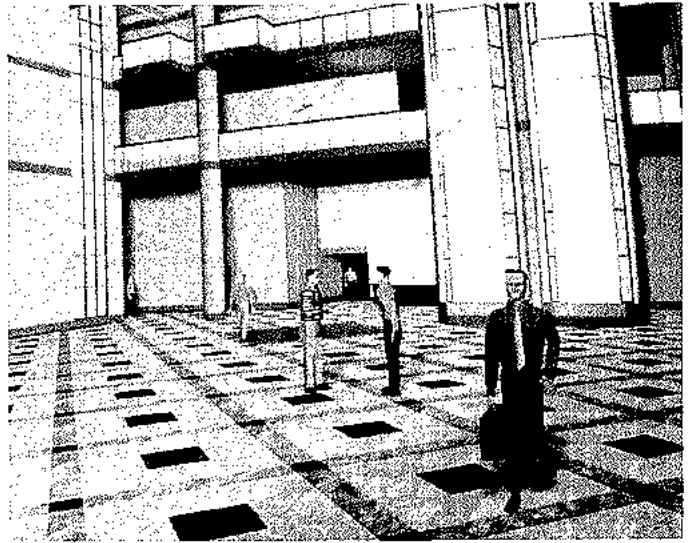
위치 / 울산시 남구 삼산1지구
토지구획정리지구내
대지면적 / 3,307.00㎡
건축면적 / 1,810.00㎡
연면적 / 10,278.46㎡
간폐율 / 54.73%
용적률 / 187.68%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부분 합골콘크리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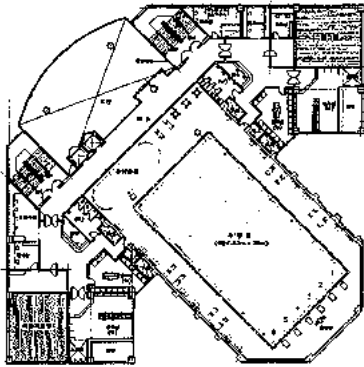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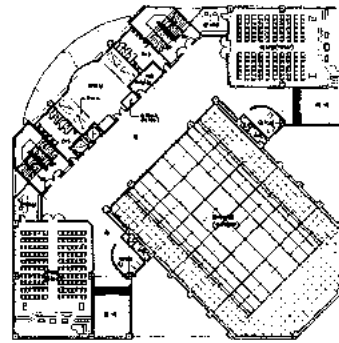
공연장 실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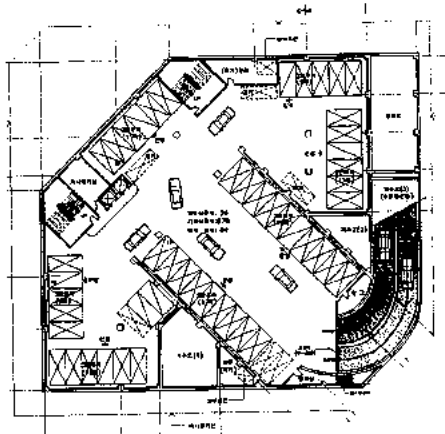
로비 실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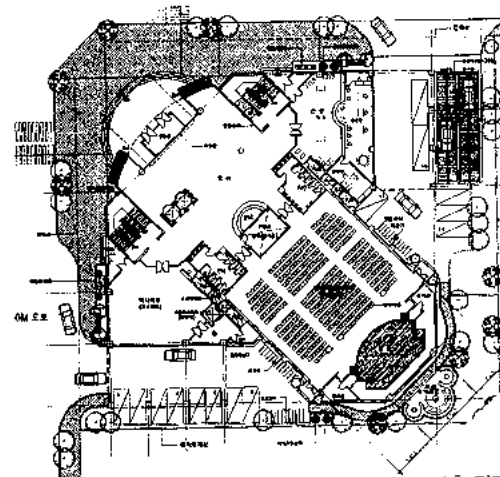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5층 평면도



지하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배치계획

-건물의 배치

- 상징성, 정면성 강조 : 대지의 주 진입방향과 태화강 측에서의 정면성
- 기능별 공간의 System화 : 장 Span이 필요한 공간과 단 Span이 필요한 공간과의 기능적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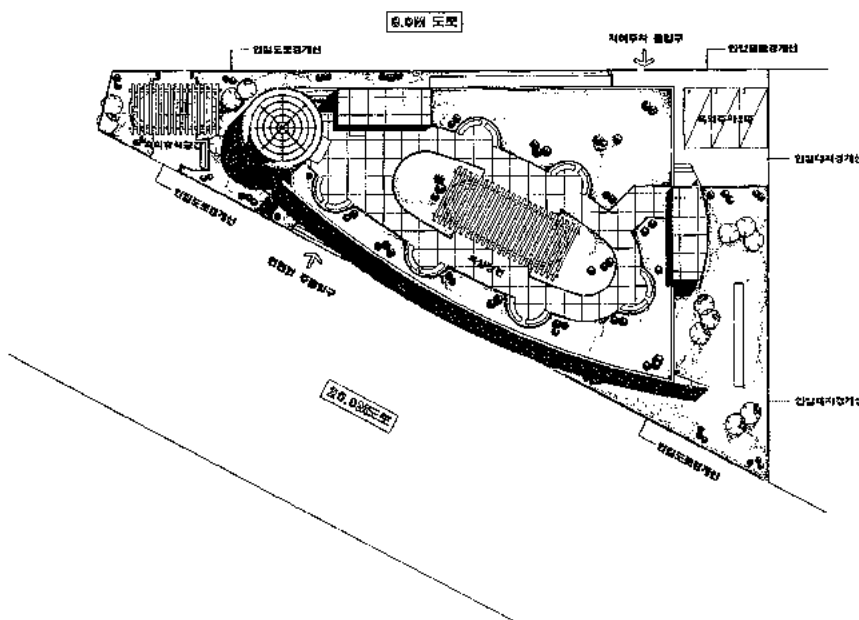
- 축의 설정 : 통일된 질서와 배치를 위해 축 설정-예상되는 동선의 강한 흐름에 의한 축방향을 수용하여 건물의 향과 주 진입 방향 설정
- 공공성 : 대지 모서리 부분에 진입광장 확보-대지의 성격에 맞춰 진입이 용이성과 입면의 정면성을 추구.

-외부공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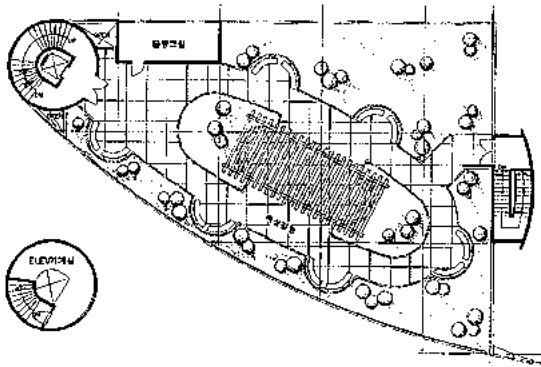
- 스텝기단에 의한 원충공간 형성 및 진입부 암시
- 옥외 휴게공간을 고려
- 협소 대지 조건의 극복
- 소음 및 공해에 대한 Buffer Zone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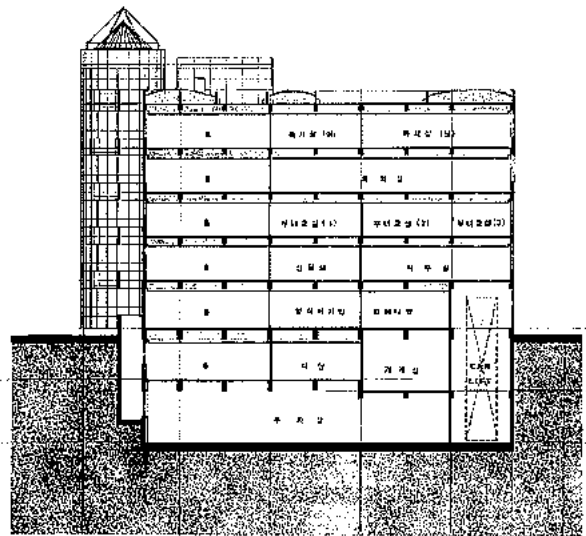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2개의 축을 가지는 형태를 도로축을 따라 짧은 Span으로 계획되는 실을 배치하고 대각선 보행자 진입축을 따라 긴 Span과 대응적용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배치한다. 또한 유사 기능을 통합과 고유 기능의 분리를 통해 상호 조화와 견제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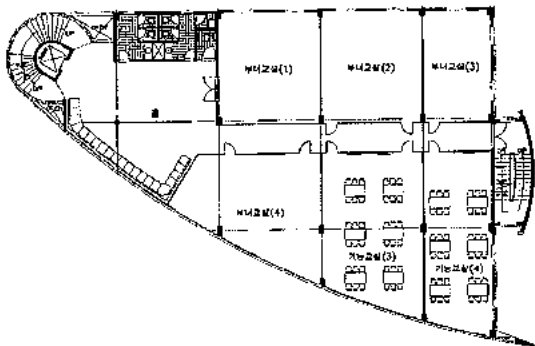
102 건축사 9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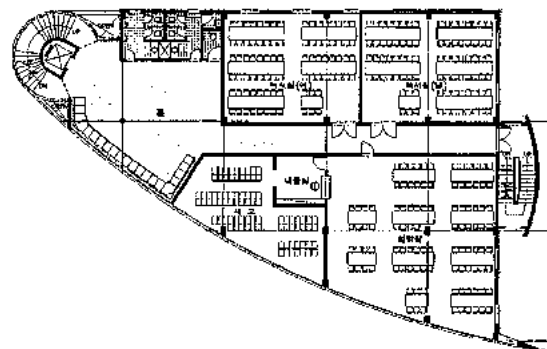
지붕충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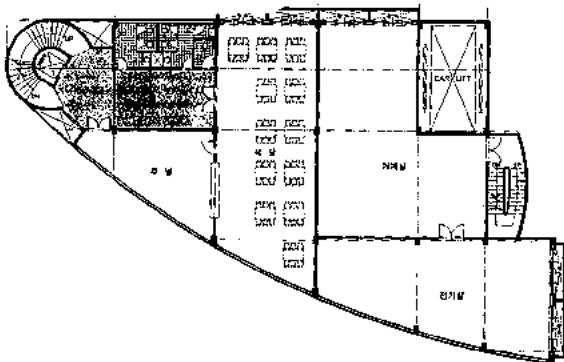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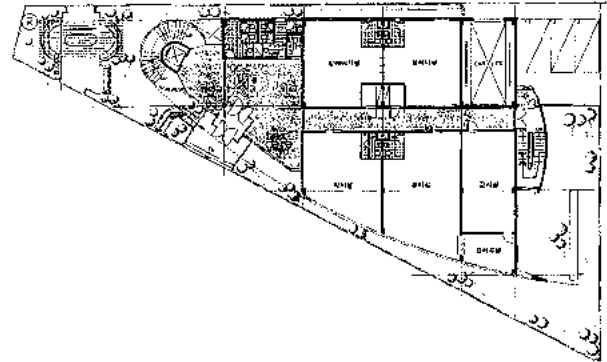
3층평면도



5층평면도



지하 1층평면도



1층평면도

배치계획

- 대지형태에 순응하고 대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3각형의 평면 형태로 계획함
- 이용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전면 주출입구 배치함
- 건물을 대지형태 및 도시축을 따라 길게 배치함
- 건물내로 출입하는 출입구는 이용객의 편리성을 감안하여 대지 전, 후면도로에 면하여 배치
- 전면도로와 후면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인 대지서측에 보행자 및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원 조성 (파고라, 음수대 등 설치)

평면계획

- 독서실 등 Privacy가 요구되는 부분은 대지북측에 계획하여 전면도로로 부터의 소음을 차단함
- 이용객의 휴식공간을 계획하여 이용에 편리하고 충분한 대기공간을 확보함
- 대지 여건상 주차장 입구는 Car Lift로 계획함
- 대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삼각형모서리 부분에 주수직동선 및 Core 공간으로 이용함
- 장애자의 이용을 위해 각 층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확보하여 장애인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함

입면계획

- 입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위치이므로 상징성을 감안한 입면 형태를 계획
- 남측 도로면을 일사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현대적 감각의 입면형태 표출
- 현대적이고 청련한 이미지의 깨끗한 색상계획
- 건물형태를 감안하여 수평선을 강조하고 건물 모서리에서 변화감을 표현함
- 20m 도로변의 Facade에 모듈을 주어 질서정연하고 정돈된 복지관으로서의 신뢰감 있는 이미

지 표현

단면계획

- 냉 · 난방 및 경제성을 고려한 층고 계획을 함
- 지하공간에 기계실, 주차장, 창고 등 일조 관계가 적은 실배치
- 노약자 및 이동시설을 하부에 배치하여 이용상 편리성을 도모함
- 업무공간과 겹쳐져 혼잡이 예상되는 회의실 및 부녀교실등은 상층에 배치함

■ 건축개요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화북1동 55번지 일원

—면적 : 223,550㎡ (67,623평)

· 주택건설용지-150,356㎡ (45,482평)

· 공공시설용지-73,194㎡ (22,141평)

—건설호수 : 2,511호

· 아파트-2,440호

· 단독필지-71필지

—용도지역 : 일반주거지역(택지 개발 사업지구)

—지형지세 : 완경사지(평균구배 5%)

—고도제한 : 최고높이 20m이내

—계획용적률 : 145%이내

제주 화북지구 아파트

Cheju Hwabuk-District Apartment

대한주택공사에서는 대단위 소규모 저층형 아파트를 제주시 화북지구에 건립코자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우원건축(문정일)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 지난 6월 2일 주공 연수처 3강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총 25개사무소에서 작품을 제출한 이번 설계경기의 우수작은 무영건축(안길원+손광민)안이 차지했으며, 가작은 우원건축·건축문화(조성룡)안과 동인·우양건축(윤태웅)안 그리고 건원건축(곽홍길)안이 각각 선정됐다.

■ 추진일정

—89년 12월 29일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92년 11월 26일 : 택지개발 계획승인

—94년 11월 3일 : 택지개발 변경승인

—95년 1월 13일 : 환경영향평가 신청

—95년 4월 3일 : 현상설계공고 (동아일보, 매일경제)

—95년 4월 6~7일 : 응모등록 (66업체)

—95년 4월 29일 : 설계지침 질의 회신

—95년 5월 26일 : 작품접수 (25업체)

—95년 5월 29~30일 : 현상설계 사전검토

—95년 5월 31일 : 본심사

—95년 6월 2일 : 입상작 시상

■ 심사절차

—총 응모작품 : 25작품

—심사일시 : 95년 5월 31일 10시

—심사장소 : 주공 연수처 3강의실(원양빌딩 4층)

—1차 : 12작품 탈락

—2차 : 5작품 탈락

—3차 : 최우수작 선정 1차 투표

—4차 : 최우수작 선정 2차 투표 (최우수작 선정)

—5차 : 우수작 선정

—6차 : 가작 2작품 선정

—7차 : 가작1 작품 추가 선정

■ 심사결과

- 최우수작(1점) : (주)우원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문정일)
- 우수작(1점) :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손광민)
- 가작(3점) :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 건축문화(대표자 조성룡)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 · 우양건축(대표자 윤태웅)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대표자 박홍길)

■ 심사위원

- 위원장 : 윤승중(원도시건축)
- 위원 : 이경희(연세대 교수), 이문섭(인하대 교수), 양동양(고려대 교수), 박찬무(명지대 교수), 최찬환(시립대 교수), 이규목(시립대 교수), 박영건(법건축), 변영진(도개공 시설이사), 김창익(주공 기술본부장), 이정우(주공 연구위원)

■ 심사총평

이번 설계경기는 주공이 시행하는 비교적 대단위로서 소규모, 저층형, 그리고 고밀도의 공영 주택단지의 설계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성과가 기대되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장소가 제주도라는 점과 바다와 산이라는 두가지 매력있는 환경요소를 갖추고 있는 Site는 이 프로젝트의 성격을 어느정도 규정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전체의 체계 및 공용옥외 공간의 계획, 단위주거의 집적을 통한 주동의 건축디자인, 그리고 각각의 단위주거 타입의 제안 등을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과제이다.

또한 이런 종합적인 새로운 마을계획을 통하여 제주도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앞으로 21세기의 도시주거로서의 제안과 바다, 산, 바람 등 자연환경적 요소들이 중요한 설계의 관점들이 될 것이다.

이번 설계경기에는 25작품이 참가하여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있었고, 뚜렷한 주관을 보여준 좋은 작품이 비교적 많은 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 이외에도 마지막까지 선고의 대상이 되었던 22번(원양, 한라, 성민)과 18번 작품(예

인, 빛) 그리고 4번(무원, 일정, 캠프), 10번(토당, 시은, 이데아), 9번(아키텔랜) 등이 관점의 차이는 있으나 매우 뚜렷한 주제를 보여준 작품들이었다.

수상작별 심사평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작/(주)우원 종합건축사사무소

- 이번 설계경기가 요구하는 단지의 체계, 건축디자인, 단위주거계획 등에서 고르게 성과를 보여줌
- 매우 간결하고 명확한 도로와 주차장 체계
- 사선으로 끌어들이는 보행자 전용도로와 오픈스페이스의 균형있는 배분과 연계
- 마당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기대한 Cluster형의 도입
-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 보이는 질서와 균형
- 단위주거에서의 다양한 변화시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우수작/(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 주변의 주동을 작게 분절함으로써 바다와 산을 향한 조망을 강조함 또한 잘게 분절된 주동을 자연스럽게 배치함으로써 제주도의 전통적 마을분위기를 살리려함
- 명확하고 단순한 도로체계
- 전체단지가 매우 Unique하나 강한 Scheme을 보여주지 못함

• 가작/(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인 · 우양건축

- 매우 확고한 배치형식의 도입
- 세개의 블록을 서로 다른 배치기법을 취함으로써 Identity를 부여함
- 옥외공간이 다소 답답한 느낌

• 가작/종합건축사사무소 우원건축 · 건축문화

- 전체적인 원리가 확고하고 Unique하며 매우 건축적임
- 마당을 강조한 주동형식, 접근로, 단위주거, 외관디자인 등에서 창의성과 세련미가 돋보임

• 가작/(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주동의 배치에서 평형을 배제하고 높이의 변화와 분절을 도입하여 외부공간의 자연스런 변화를 연출하고 Human Scale을 강조
- 많은 건축적 아이디어 포함
-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 요소를 계획

최우수작

우원건축(문정일)

1블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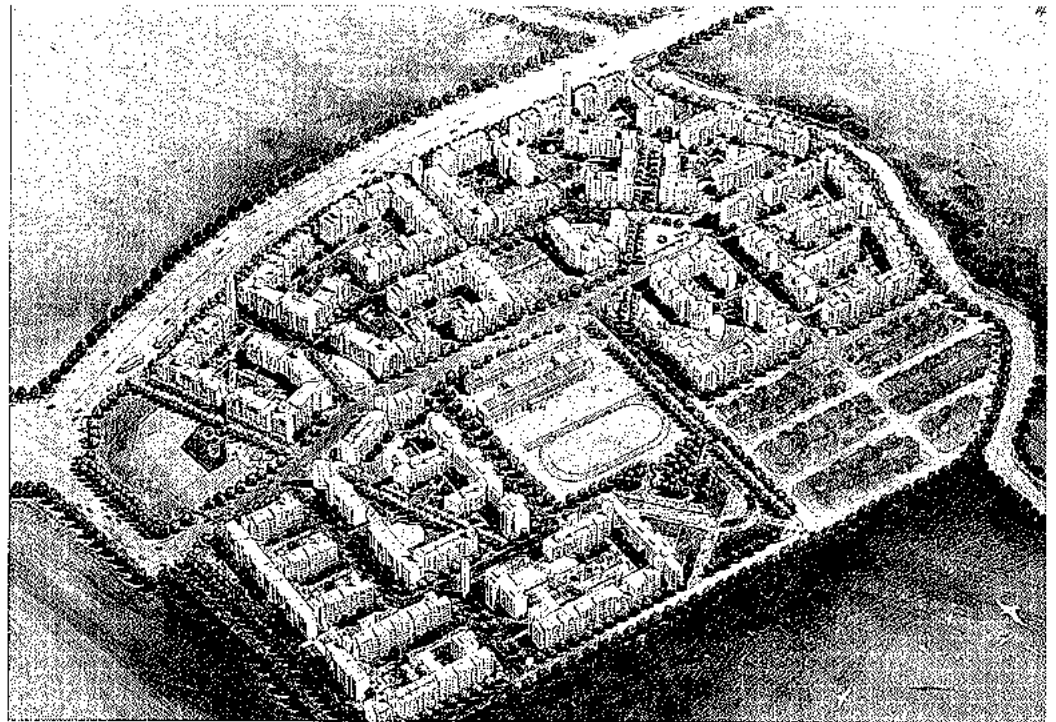
대지면적 / 30,264㎡
 건축면적 / 8,082.056㎡
 연면적 / 54,377.653㎡
 건폐율 / 26.71%
 용적률 / 140.63%

2블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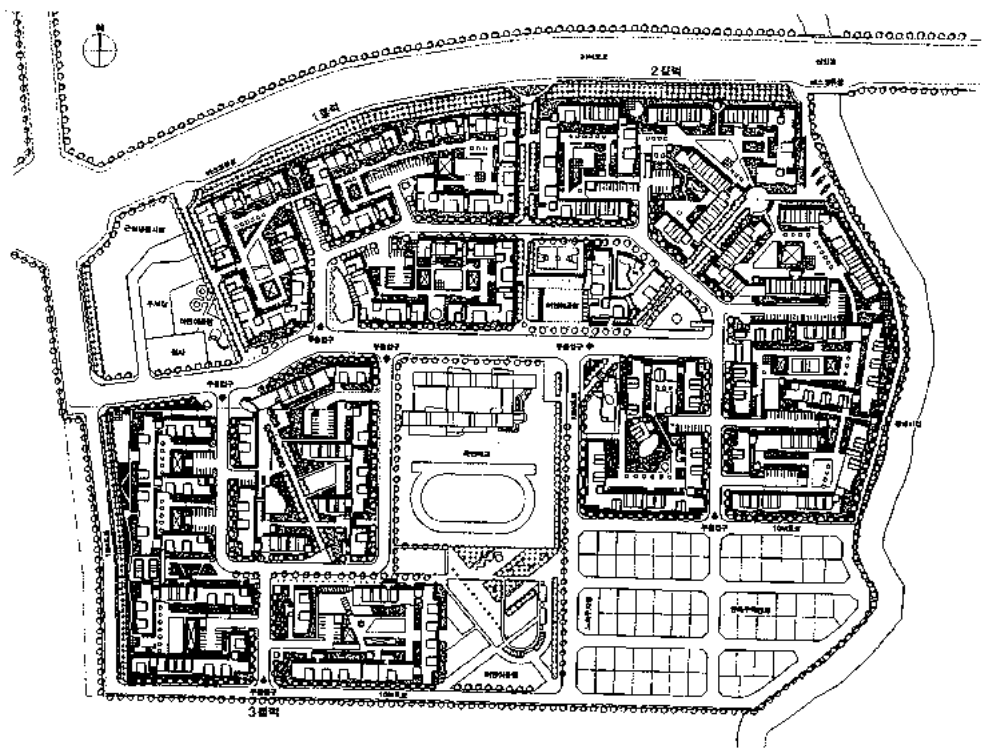
대지면적 / 58,586.0㎡
 건축면적 / 14,824.977㎡
 연면적 / 105,457.739㎡
 건폐율 / 25.30%
 용적률 / 141.63%

3블럭

대지면적 / 43,066.0㎡
 건축면적 / 9,489.009㎡
 연면적 / 65,148.378㎡
 건폐율 / 22.04%
 용적률 / 121.45%



조감도



종합계획도

계획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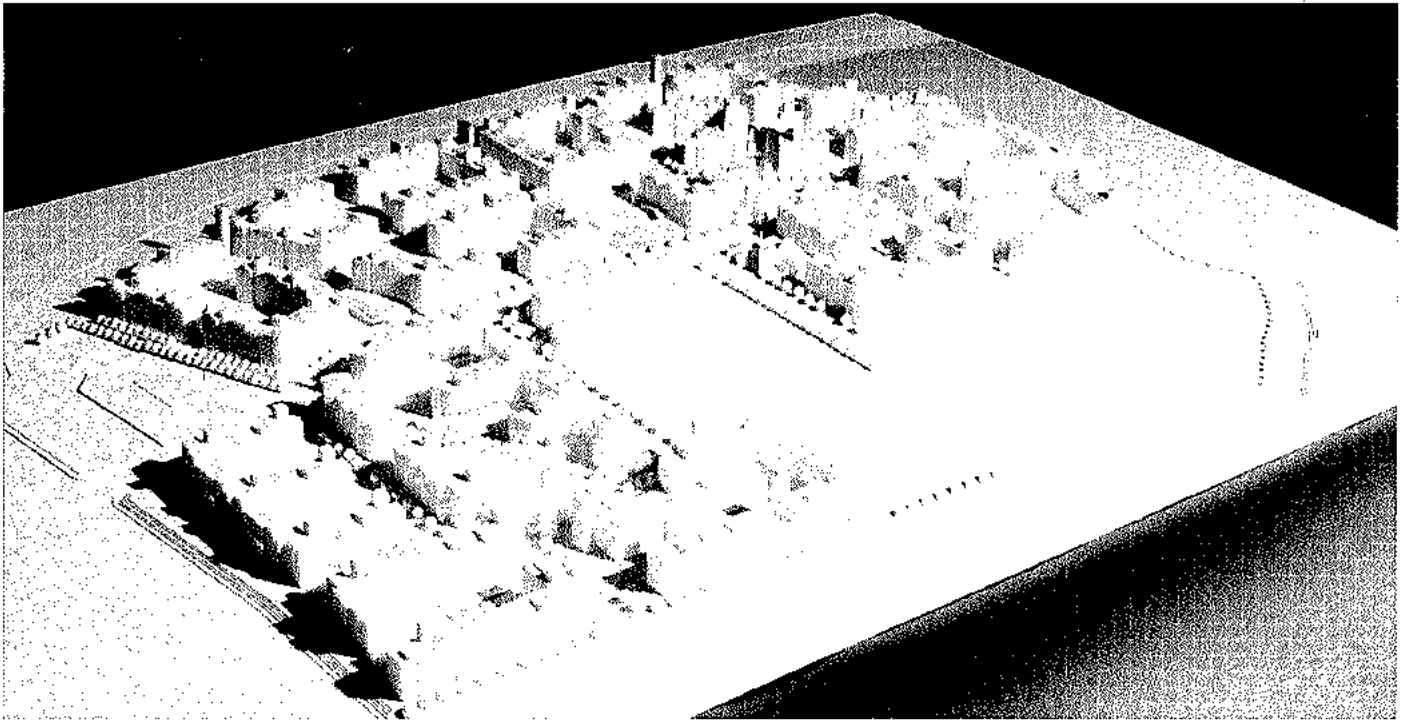
-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집을 추구
-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회복
- 제주도의 풍토적인 생활방식을 최대한 반영
- 이런 차원에서 최대한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녹지공간을 높이고 기존 아파트 단지의 단조움을 탈피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의 최대 목표이다.

기본구상

- 통상적인 공간 분절화를 중정형 (Cluster)으로 계획하여 공간의 통합화 시도
- 주거 부분의 성토로 인한 외부공간의 입체적 다변화와 도로율을 낮추고 지하공간의 주차장 도입적극 유도로 아파트 부지의 해방, 녹지 공간 대량확보
- 기존 보행자로의 연계로 3블럭까지 연장시킨 축과 버스정류장을 근거로 단지 중심으로의 최단거리

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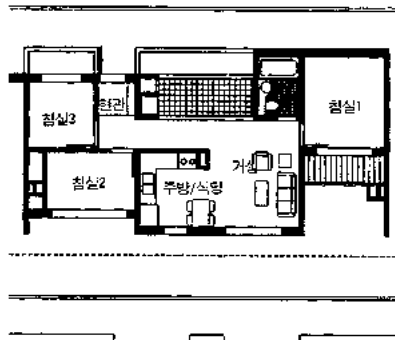
- 부속건물(노인정·관리실)은 아파트동과 연계하여 계획함으로써 기능의 순화 및 평면의 효율화
- 각동마다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점이 되도록 계획하여 생활공간의 연계
- 다양한 평면과 새로운 입면-발코니에 따른 시각적 연계, 최상층 세대, 축벽 세대, 코아세대 등-을 개발하여 아파트 동의 차별화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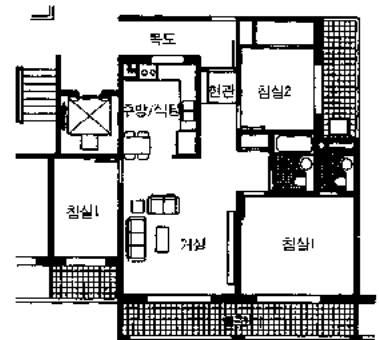
모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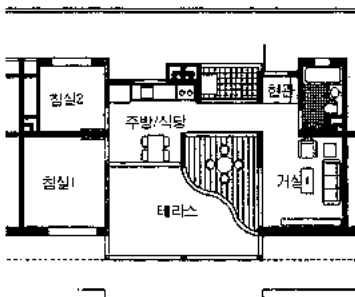
15평형(C타입)



18평형(R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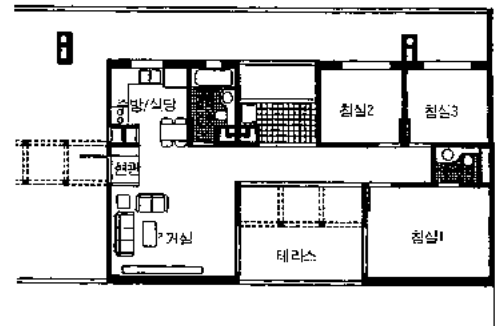
25평형(C타입)



15평형(R타입)



18평형(C타입)



25평형(R타입)

- 각 동마다 피로티를 두어 시각적 인 개방감 시도
- 제주 특유의 자연조건 및 재료 도입으로 향토성 부각

단지계획

- 자연환경에 부합
 - 자연과 사회적 환경 인지를 수용하고 제주도만이 가지는 소재와 표현이 되는 "향토성"을 찾고 록 한다.

- 부지 대부분이 완경사 임을 고려, 풍부한 공간감과 바다에로의 적극적인 전망 유입, 태풍으로 인한 홍수에의 대비 등으로 주거부분을 성토하여 레벨차듬.
- 외부공간의 발달된 모습(따뜻한 날씨)-폐쇄, 트임, 깎임 등의 다양한 공간언어 사용
- 기존 도시기본 골격에 연속적인 단지 구조

- 가로체계
- 상권형성 및 시설(학교등)
- 3개 블록을 하나의 단지로 통합
- 오픈 스페이스 네트워크
- 건축의 스케일과 형태
- 도로 체계
- 중심가로의 형성
- 3개 블록 중앙의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도로망 체계를 유도-최단거리 보행자축 설정
- 각블럭 내의 유입되는 차량 동

- 선의 최소화
- 단지형성 이미지/점·선·면
- 북측(바다)으로 전망대 설치(점)-Landmark
- Cluster 조합 방식(선)-Path
- 블록별 녹지형성(면)-edge
- 지하주차장
- 지상주차를 최대한 지양하고 Deck를 이용한 입체 주차장(지하)설치, 지하-썬큰-외부공간을 연결하여 공사비 절감 효과 기대

우수작

무영건축(안길원+손광민)

1단지

대지면적 / 30,264.00㎡

건축면적 / 6,318.12㎡

연면적 / 51,387.16㎡

건폐율 / 20.8%

2단지

대지면적 / 58,586.00㎡

건축면적 / 13,631.22㎡

연면적 / 98,611.38㎡

건폐율 / 23.2%

3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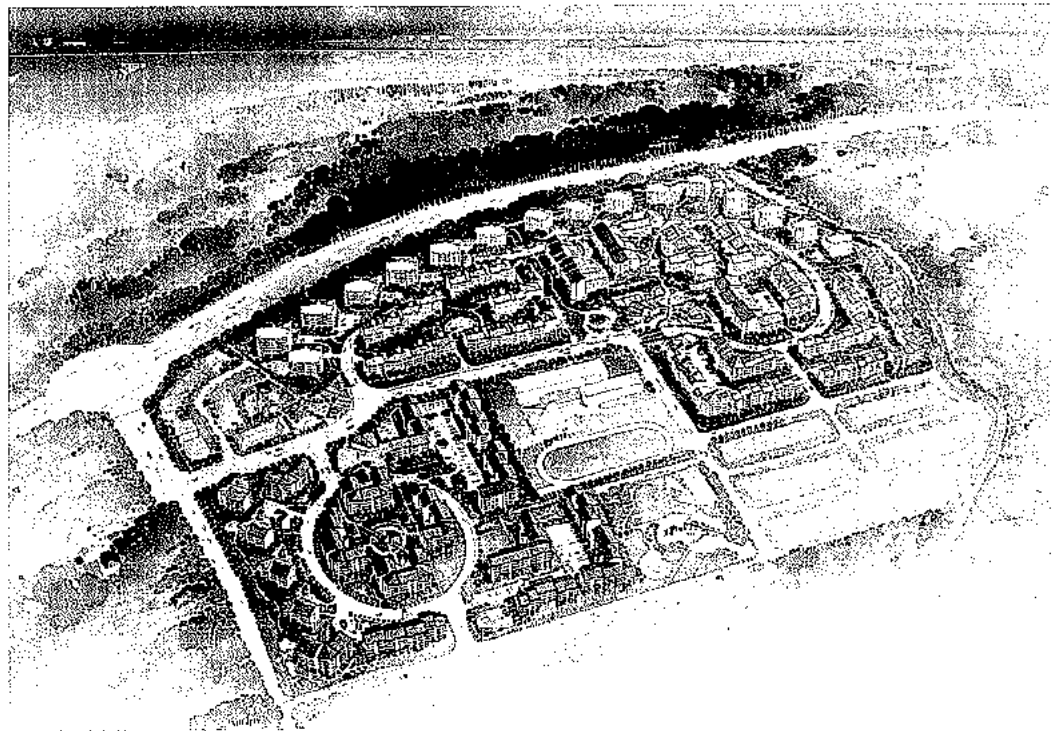
대지면적 / 43,066.00㎡

건축면적 / 8,92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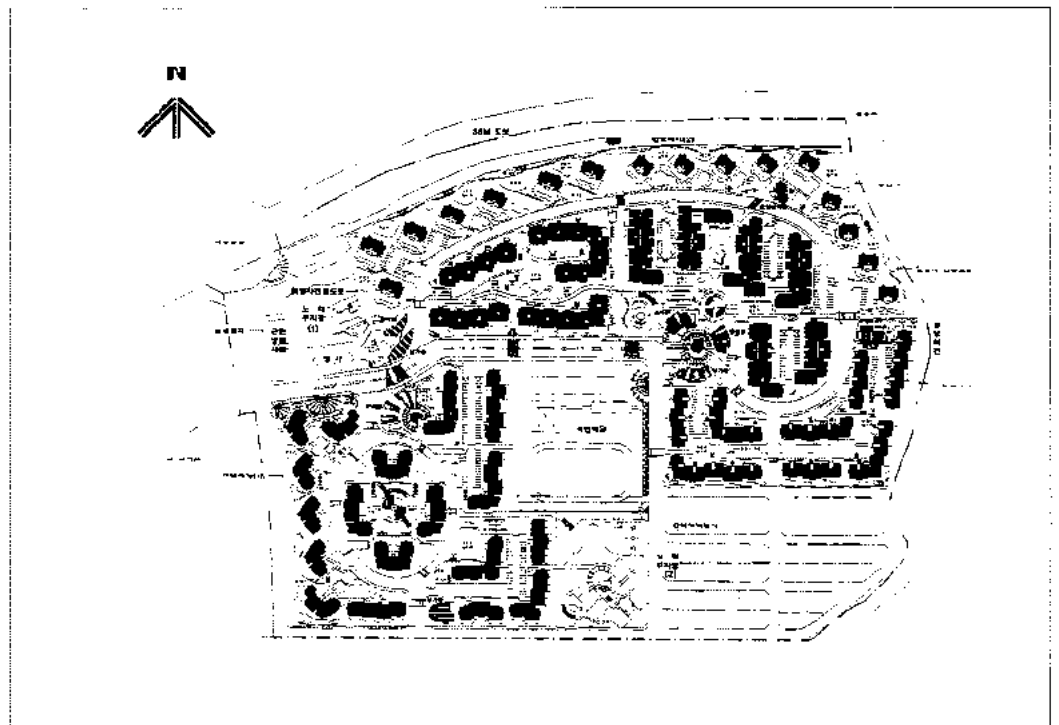
연면적 / 62,996.75㎡

건폐율 / 20.7%

계획담당 / 주창혁, 최대성, 조영선, 김영훈,
김영우, 김경순, 이미애, 박은경,
주경호, 최정봉, 차병철, 임창수



조감도



종합계획도

근간에 들어 단지·건축설계의 지역성 그리고 주변환경요소와 조화되는 단지·건축설계 방법론에 대한 탐색이 건축계 전반의 주관심사로 항상 대두되어 왔었다. 특히, 지역성의 반영에 대한 실제적인 설계적 용요소에 대한 문제는 건축설계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어려운 현실로서 여겨지곤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에 제시된 제주화복 현상설계 공모안은 참신한 설계적용 요소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라 여기고 참여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다 지형적 조건과 주변여건이 상호조화되는 개발개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주민이 가지고 있는 경관요소, 풍속, 문화적인 특성 등을 반영한 주거단지를 계획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제주의 기존 거주민과 정착민의 전통적인 마을 개념과 동네 의식을 블록별 Community계획으로 구체화하였고, 주변의 자연요소와 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동선 및 Open Space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을 하였다. 특히, 제주의 천혜 자연자원인 한라산과 해변가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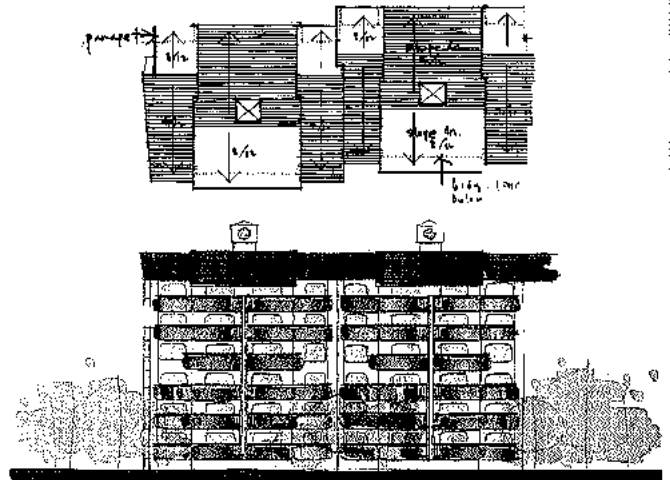
순환도로에서의 경관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순환도로변에 Tower형을 분산배치하여 시각적 개방감과 조망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동선계획은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기본 목표로 단지 중심부에 구상성이 강한 중앙광장과 마을 중심시설을 배치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블록별 Open Space체계를 마련하여 블록별 보행전용도로축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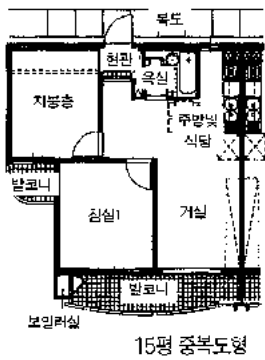
주동계획은 각 동별 Identity 부각을 위한 동네개념을 도입하여 주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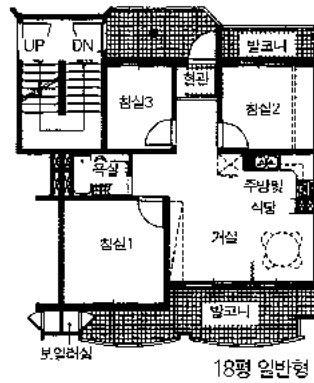
CAD 시뮬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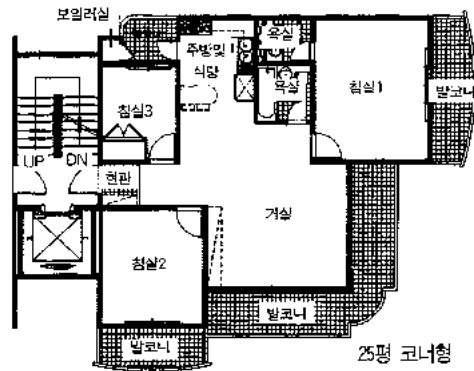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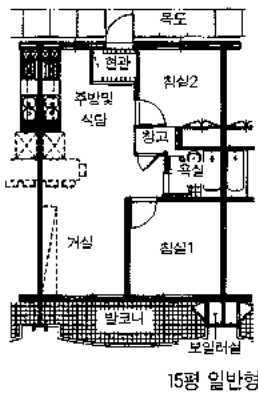
15평 중복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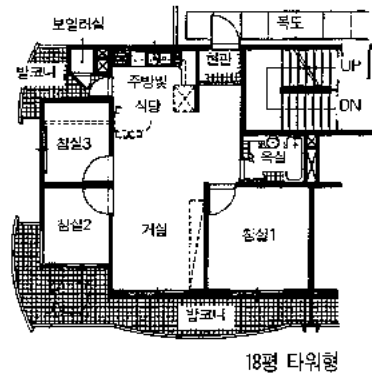
18평 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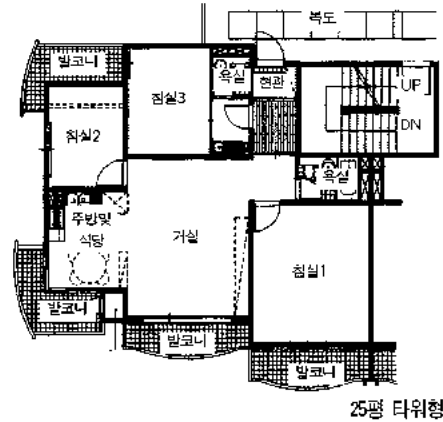
25평 코너형



15평 일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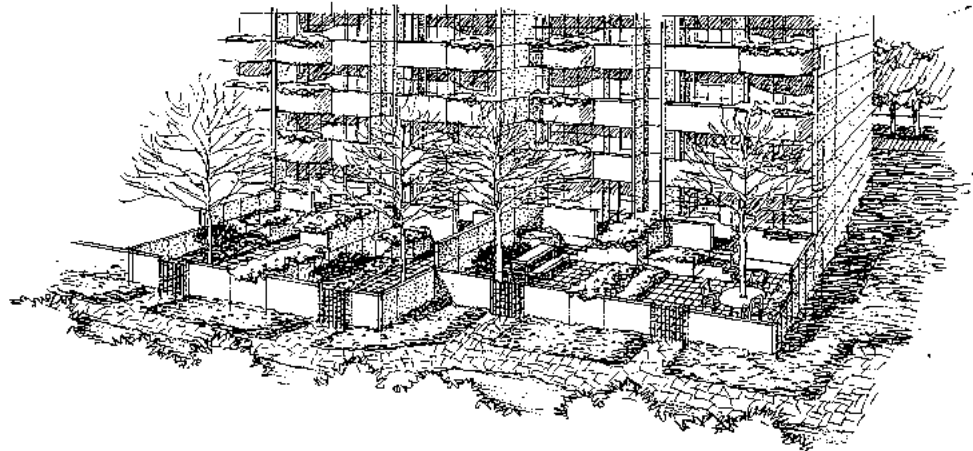


18평 타워형



25평 타워형

을 형성하도록 하였으며 부지조건에
순응하는 각 주거동의 남향배치로
합리성과 쾌적성을 제고하고 녹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편리성 및
독립성을 극대화시켰다. 또한 입면
계획을 주동형태의 다양화와 발코니
의 라운드로 리드미컬한 입면을
추구하였고, 각 층별·세대별 발코
니의 형태변화로 곡선미를 살려 부
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부분 투시도

가작

우원건축(조성룡+전은배)

대지면적 / 131,906.00㎡

연면적 / 229,602.78㎡

간폐율 / 25.55%

용적률 / 138.1%

지상연면적 / 182,310.30㎡

건설호수 / 2,393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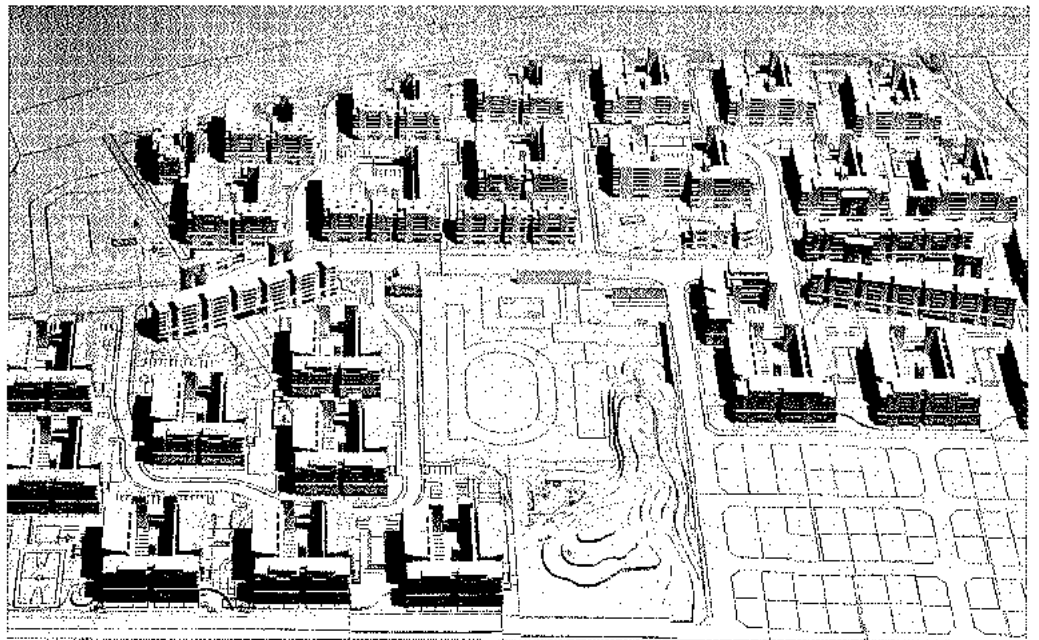
1블럭 413세대(25평형)

2블럭 1,168세대(18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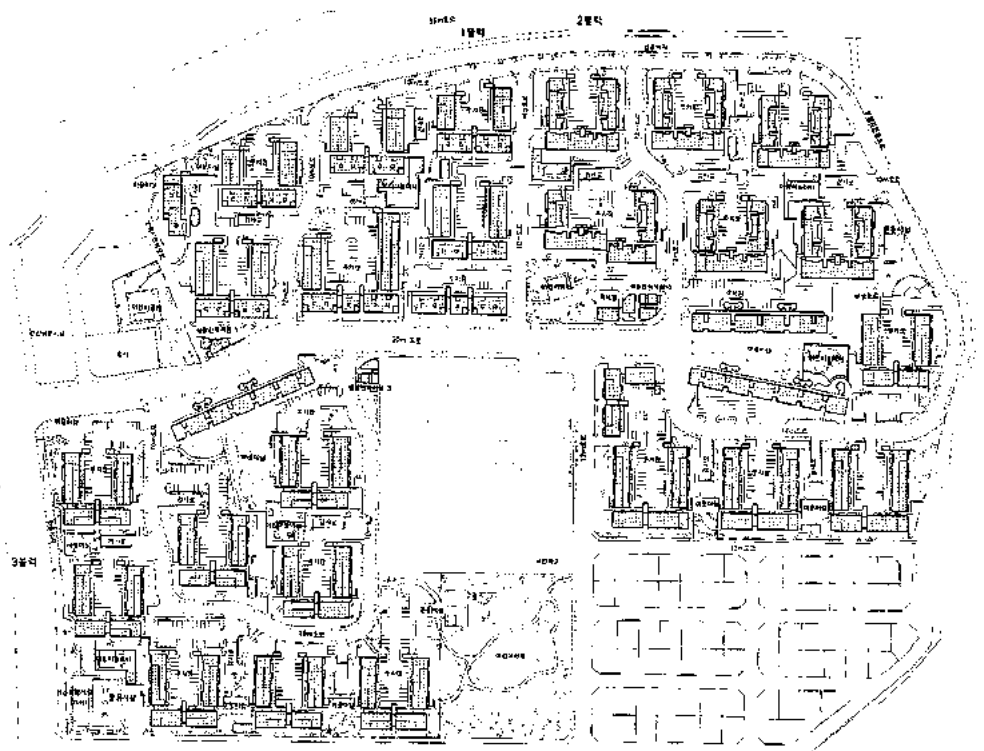
586세대(13평형)

582세대(15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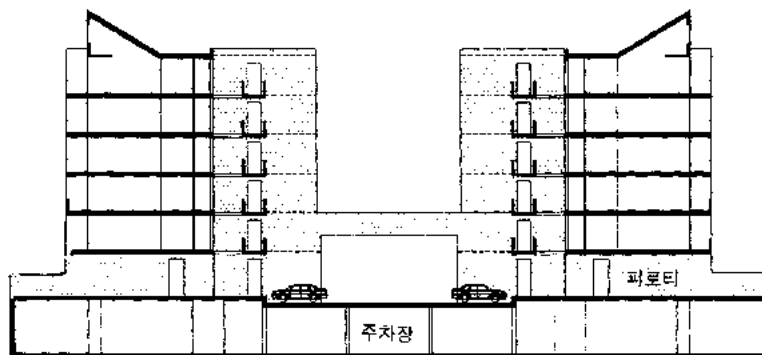
3블럭 812세대(15평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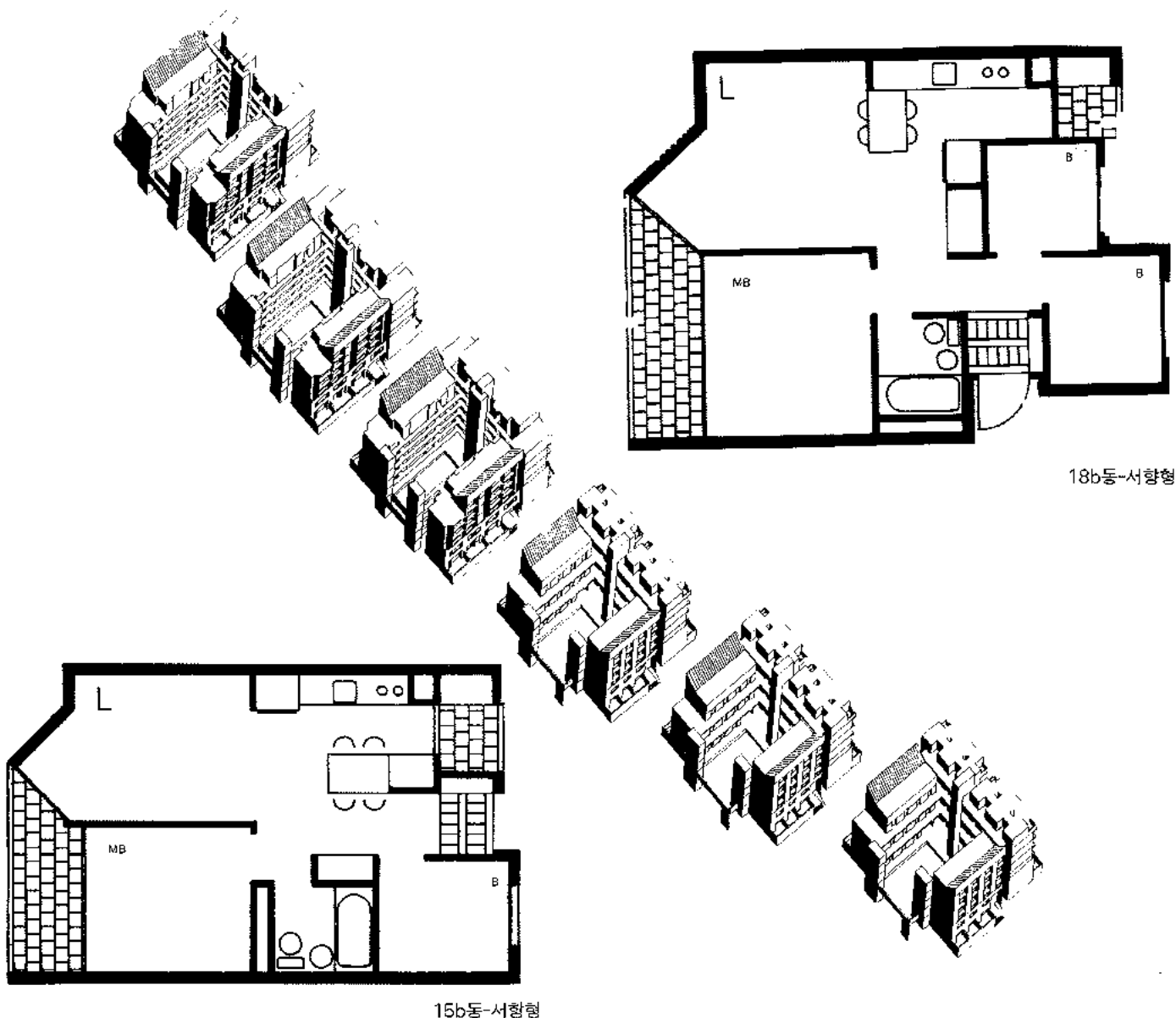
모형도



종합계획도



단면도



18b동-서향형

15b동-서향형

공중통로와 생활공간

주거용의 가운데 부분인 주차장과 세대 단위 사이는 벽을 높여 영역을 구분하고 식재한다. 2층이상의 단위 세대를 연결하는 복도는 벽면에서 떨어져 있고 그 사이는 비워져 있다. 주민은 자기층만이 아니라 아래, 위 3개층과 관계를 갖게 되므로 폐쇄된 계단식보다 커뮤니티가 활성화된다.

복도를 벽면에서 분리하여 공중통로(skywalk)를 만들면 우선 각 세대 현관근처에 여유가 생기고 복도쪽 방이나 발코니가 생활공간으로서 효율이 높아지며 통풍이나 채광면에서 유리하게되어 생활의 방향이 양면형(兩面型)이 된다. 이 양면 개방형에서 이웃 주민과의 커뮤니티가 가장 잘 살인다는 일본의 주민조사보고가 있다. 이 통로에서는 아래 윗층의 상태를 알 수 있게되어 반달리짐이나 외부인의 나쁜 행동도 미리 억제

할 수 있다.

복도형 커뮤니티의 활성화

최근의 경향은 복도식보다 계단식을 더 선호하는 쪽이다. 계단식에 비하여 공용연적비가 높고 복도와 거기에 면한 방의 효율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 그러나 계단식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고층이면 몰라도 중, 저층에서는 승강기대수가 늘어나고 운행 소음의 억제도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복도식도 그 형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복도의 디자인이나 공간의 설정에 문제가 많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개방적이고 여유가 생겨 공동주택의 커뮤니티를 살리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제주도는 중부지방의 기후에 비하여 온난다습하며 삶의 방식에서도 육지사람들과 많이 다르다. 바람과

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다. 철에 따라 바람부는 방향을 검토해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겨울과 여름의 바람은 서로 성질이 다르다. 이 점을 잘 이용하여 찬 바람은 막고 시원한 바람은 끌어 들인다면 오히려 제주도에서 생활하기에 별 불편 없는 생활방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활공간으로서의 중간영역

주거환경은 일반적으로 공적(public)인 사회생활 장소와 사적(private)인 사회생활장소로 나뉜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프라이버시와 영역에 대한 구분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양극적인 구조로는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없다.

반 공적(sami-public), 반 사적(semi-private)영역과 같은 중간영역을 만들면 개인의 생활에서 사회생활에 이르는 각 레벨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사회사이의 관계를 이어주게 된다.

인간을 위한 주거환경의 전기(轉期)를 모색하는 방법으로 생활영역 단위, 중심과 외곽, 동적 영역과 정적 영역, 공유영역과 그 체계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의 전개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으로서의 공간의 효율성과 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세대 단위 공간

블록별로 이미 평형배분이 확정된 상태에서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이런 계층의 주민이 함께 모여 살며 이루는 삶의 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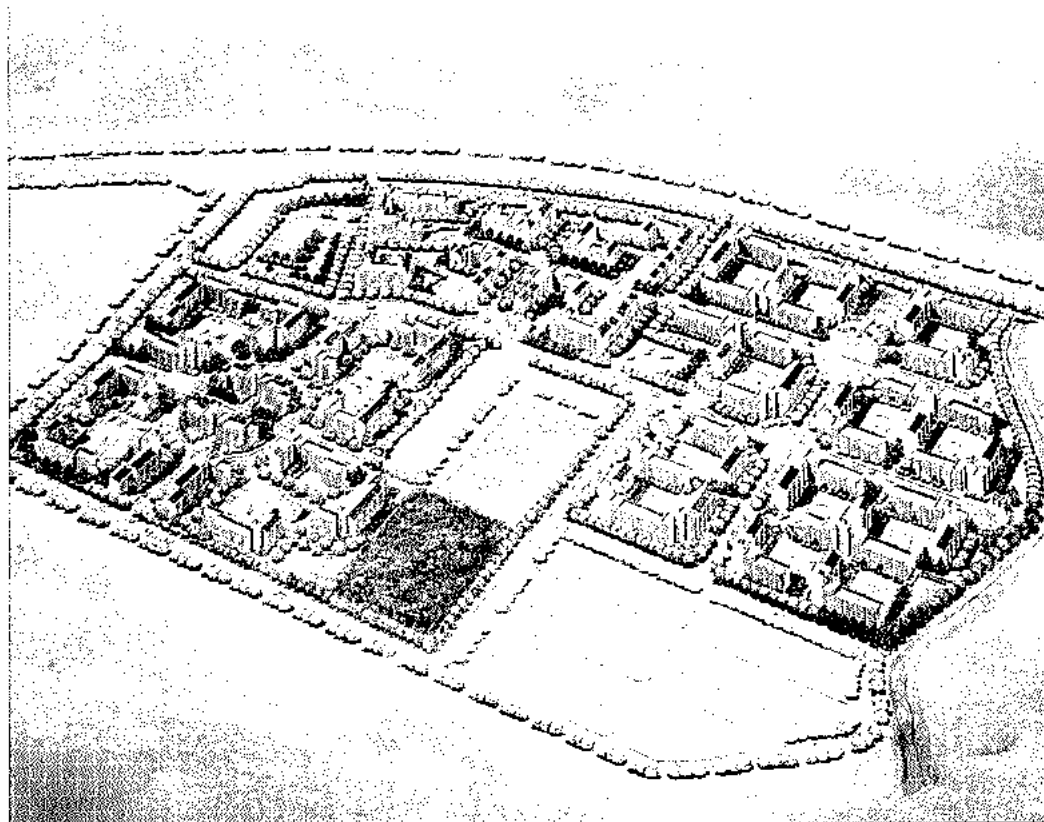
동인·우양건축
(윤태웅+강기호+강형석)

1 블록
대지면적 / 30,264㎡
건축면적 / 8,979.50㎡
연면적 / 52,011.08㎡
건폐율 / 29.57%
용적률 / 13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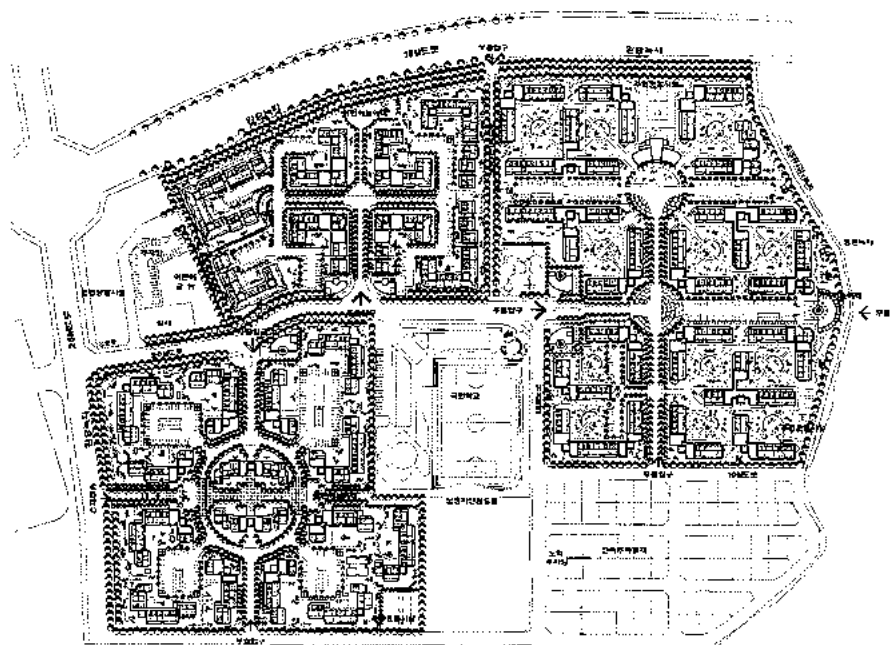
2 블록
대지면적 / 58,586.00㎡
건축면적 / 16,152.70㎡
연면적 / 113,279.00㎡
건폐율 / 27.57%
용적률 / 144.95%

3 블록
대지면적 / 43,066.00㎡
건축면적 / 10,532.26㎡
연면적 / 63,744.62㎡
건폐율 / 24.46%
용적률 / 123.79%

계획담당 / 배치·박규남, 임대수
건축·임두기



조감도



종합배치도

계획의 방향

- 제주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감안하여, 고층 고밀의 아파트 단지가 가진 획일적 구성을 지양하고 인간적 스케일의 단지 조성
-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임주를 고려하여 경제적 설계로 저렴한 주

거 제공

- 풍부한 녹지 제공
- 제주도 전통의 마을 구성원리 적용

계획의 주안점

- 모티브(MOTIVE)

• 제주 성읍마을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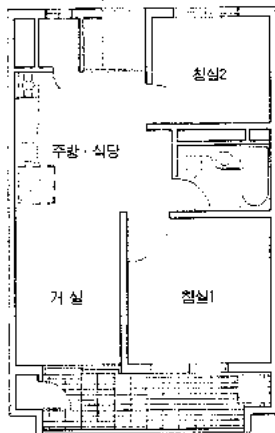
- 길, 마당, 집의 가하학적 체계
- 배치 패턴
바깥마당→중간마당→안마당
- 보행물 형성
어린이 공원, 운동시설, 국민학교, 부대시설, 시설녹지와 연계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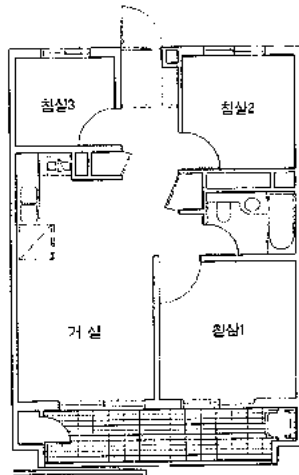
CAD 사물레이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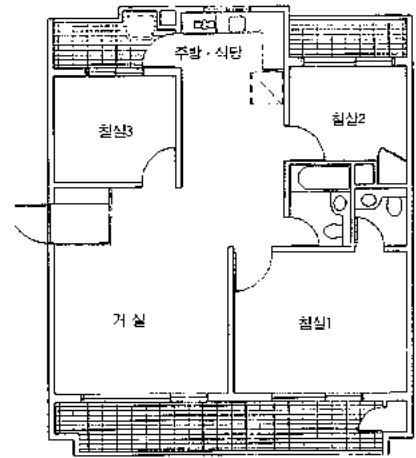
부분투시도



15평형 평면도



18평형 평면도



25평형 평면도

강한 보행물형성

계획의 개념

-마당

- 안마당 : 지상 1층에 작은 마당 제공
- 중간마당 : 배치에 의해 만들

어지는 마당에 놀이시설과 휴게시설 제공(커뮤니티 마당)

- 바깥마당 : 단지내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

-피로티

- 단지내 진입용이
- Human Scale에서의 개방

감

- 공원, 놀이터, 부대시설과의 연계용이

-지하주차

- 환기와 채광을 위한 Top Light 설치
- 중간마당에서 구심적 역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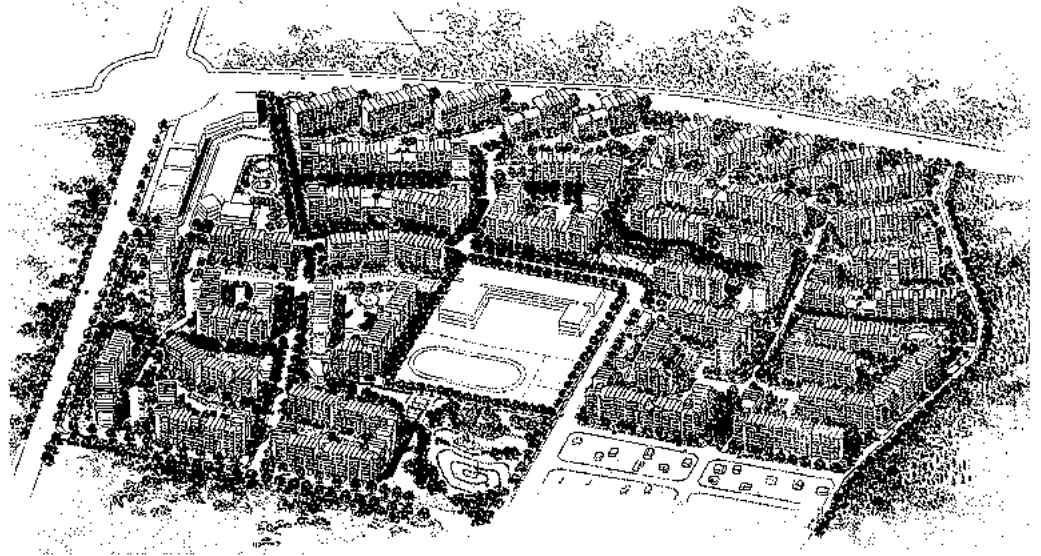
하는 삼각별

- 풍부한 조형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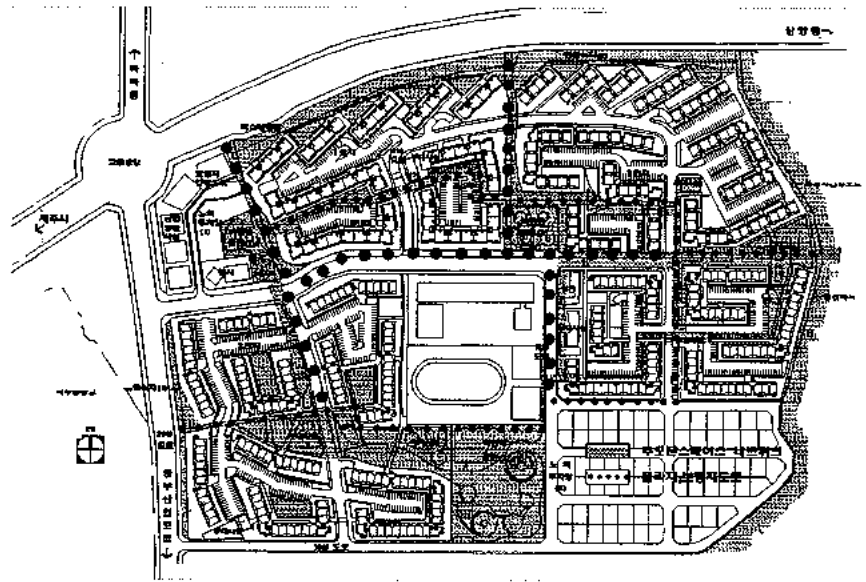
가 작

건원건축(곽홍길)+손학식

대지면적 / 43,066㎡
 건축면적 / 10,493.69㎡
 연면적 / 62,835.41㎡
 건폐율 / 24.37%
 용적률 / 128.93%



조감도



종합계획도

오픈스페이스 계획

- 모든 오픈스페이스, 축을 상호연계시켜 네트워크화 시킴으로써 단지 전체의 유기성을 높이고 커뮤니티 시설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한다.
- 오픈스페이스 축외에 소규모 자연공원과 통로가 합하여진 산책로 (Back Street)를 형성하여 인간적 척도의 공간을 형성한다.
- 오픈스페이스가 연결되는 주동의 1층 부분을 피로티화 하여 상호연계 되도록 한다.
- 단지별 오픈스페이스의 중심을 형성하고 여기에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상가를 형성하여 쾌적성을 높이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갖도록 한다.

배치계획

- 계획대지의 지역적 특성상 해안에

서 들어오는 풍속을 고려하여 북측에 면한 주동군을 사선으로 배치함으로써 강한 풍속을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한 유기적 형태의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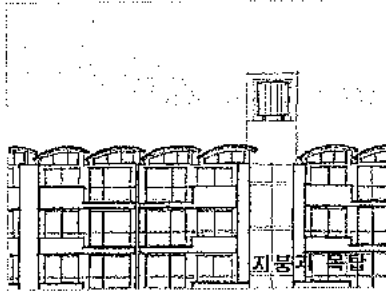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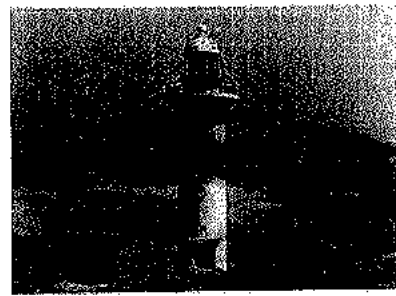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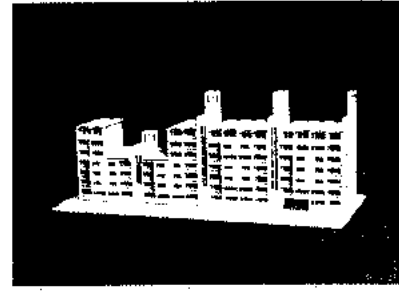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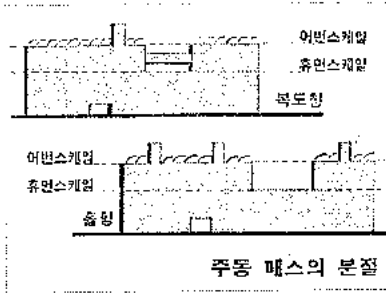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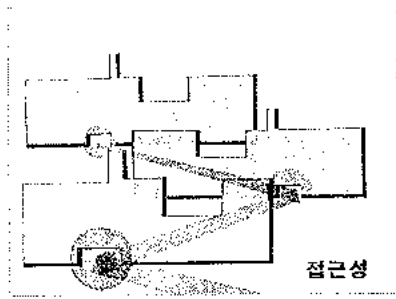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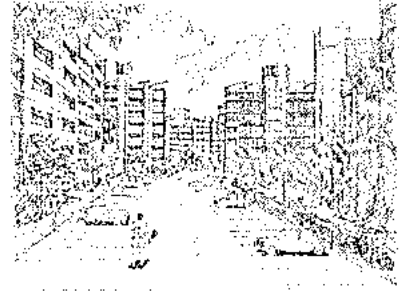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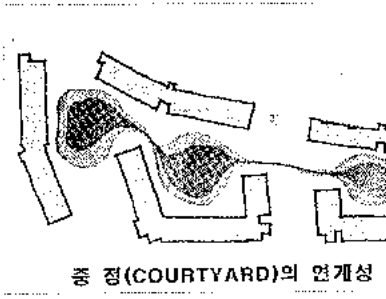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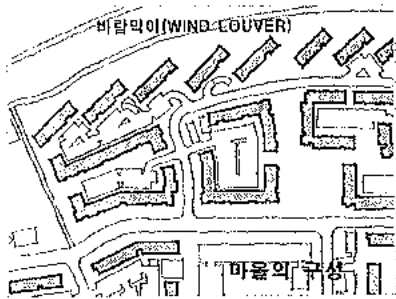
- 이것은 또한 35m 순환국도로 부터의 소음을 방지하고 관광순환 도로에서의 시각(VISTA)이 확일적으로 전개됨을 지양한다.
- 각각의 건물군을 형태와 크기를 다르게 하여 새로운 형태의 안뜰 (Courtyard)공간을 두어 각각의 특성을 부여한다.
-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대 등을 네트워크화 하여 3개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한다.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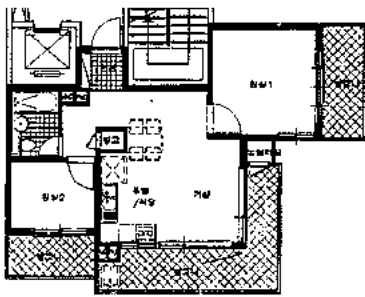
- 기존의 획일적인 계획에서 탈피하여 입면을 휴먼 스케일화 하기 위해 기단부, 중층부, 고층부의 디자인

을 하여 사람에게 주는 위압감을 극소화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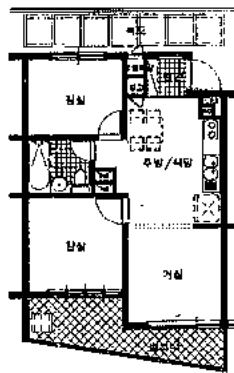
- 주동의 층수에 변화를 주어 낮은 단위층에서 안뜰(Courtyard) 너머의 경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입면(Fasade) 발생에 변화를 주어 하나의 기준선 (4층)을 창출한다.
- 기준선 이하에는 각기 다른 색채의 금속패널을 전면부에 부착하여 사적공간으로서의 외부시선 차단 및 각각의 좋은 시각적으로 차별화하는 역할을 부여한다.
- 지면높이 부분에는 지역특유의 자연소재(석재)를 이용 부착하여 시각적으로 지면과 자연의 만남을 유도한다.
- 휘어진 지붕의 모양을 옛제주의 고유한 초기지붕, 파도치는 물결과 바람에 순응하는 형태적 이미지를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상응하도록 하는 형태를 완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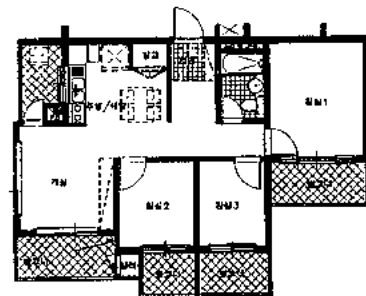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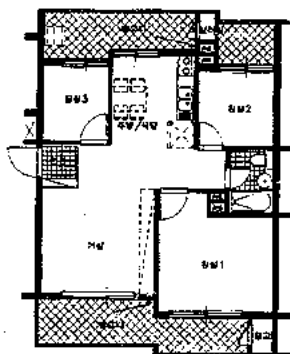
15평형 평면도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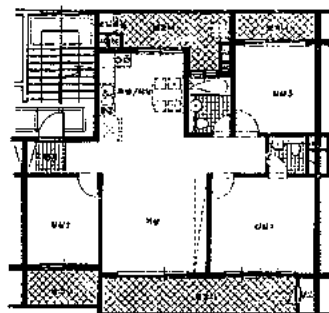
15평형 평면도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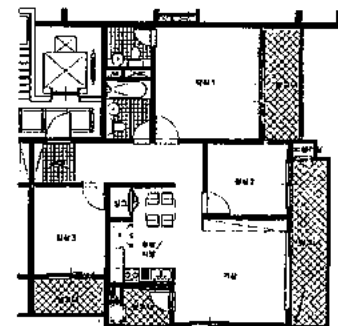
18평형 평면도 A



18평형 평면도 B



25평형 평면도 A



25평형 평면도 B

1995년도 5월분 설계도서신고현황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5월분 1천2백2십4만8천2백58㎡보다 3.3% (4십만9천6백56㎡) 증가한 1천2백6십5만7천9백14㎡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5월누계 6천2백3십3만4천28㎡ 보다 9.8% (6백8만

5천8백93㎡) 감소한 5천6백2십4만8천1백35㎡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4월분 1천2백1십8만5천1백17㎡ 보다 3.9% (4십7만2천7백97㎡) 증가한 1천2백6십5만7천9백14㎡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994년도	1995년도	증 감	비 율(%)
증가지역				
대 구	600,150	989,973	389,823	65.0
광 주	229,062	585,900	356,838	155.8
강 원	337,360	704,456	367,096	108.8
충 북	321,133	489,918	168,785	52.6
충 남	342,801	1,139,970	797,169	232.5
경 남	958,916	1,450,365	491,449	51.3
감소지역				
서 울	2,364,115	2,298,841	(65,274)	-2.8
부 산	713,455	456,265	(257,190)	-36.0
인 천	1,733,272	431,588	(1,301,684)	-75.1
대 전	225,819	219,734	(6,085)	-2.7
경 기	2,607,563	2,426,287	(181,276)	-7.0
전 북	300,767	294,745	(6,022)	-2.0
전 남	380,101	317,265	(62,836)	-16.5
경 북	1,015,808	749,601	(266,207)	-26.2
제 주	117,936	103,006	(14,930)	-12.7
합 계	12,248,258	12,657,914	409,656	3.3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

(단위/㎡)

구 분	1월분	2월분	증 감	비 율(%)
단 독 주 택	1,185,524	1,117,226	(68,298)	-5.8
다 세 대 주 택	416,972	559,559	142,587	34.2
연 립 주 택	156,785	240,668	83,883	53.5
아 파 트	4,469,967	4,910,969	441,002	9.9
근린생활시설	1,917,524	1,924,930	7,406	0.4
종 교 시 설	66,978	121,088	54,110	80.8
의 료 시 설	174,583	46,242	(128,341)	-73.5
교육연구시설	408,812	372,727	(36,085)	-8.8
업 무 시 설	566,452	317,209	(249,243)	-44.0
숙 박 시 설	160,744	207,338	46,594	29.0
공 장	1,188,547	1,443,560	255,013	21.5
기 타	1,472,229	1,396,398	(75,831)	-5.2
계	12,185,117	12,657,914	472,797	3.9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5월분)

구 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단 독 주 택	3,674	3,754	791,287	4,379	4,437	1,117,226	705	683	325,939	41.2	
다 세 대 주 택	600	653	289,807	962	1,020	559,559	362	367	269,752	93.1	
연 립 주 택	105	118	179,426	167	183	240,668	62	65	61,242	34.1	
아 파 트	191	857	5,827,746	225	784	4,910,969	34	(73)	(916,777)	-15.7	
근린생활지역	3,674	3,783	1,477,657	4,095	4,234	1,924,930	421	451	447,273	30.3	
종 교 시 설	129	155	68,549	153	176	121,088	24	21	52,539	76.6	
의 료 시 설	14	15	13,314	18	20	46,242	4	5	32,928	247.3	
교육연구시설	117	125	279,325	126	157	372,727	9	32	93,402	33.4	
업 무 시 설	101	105	246,617	144	151	317,209	43	46	70,592	28.6	
숙 박 시 설	288	303	367,934	137	144	207,338	(151)	(159)	(160,596)	-43.6	
공 장	748	1,113	1,125,269	984	1,383	1,443,560	236	270	318,291	28.3	
기 타	1,222	1,498	1,581,327	1,210	1,456	1,396,398	(12)	(42)	(184,929)	-11.7	
합 계	10,863	12,479	12,248,258	12,600	14,145	12,657,914	1,737	1,666	409,656	3.3	0=미예상

용도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5월분)

구 분 용도별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2,461	22,901	5,373,354	20,782	21,116	5,364,206	(1,679)	(1,785)	(9,148)	-0.2	
다 세 대 주 택	3,668	3,983	1,852,966	3,804	4,542	1,974,427	136	559	121,461	6.6	
연 립 주 택	506	687	1,040,823	571	615	789,833	65	(72)	(250,990)	-24.1	
아 파 트	896	3,721	20,007,186	844	3,002	19,680,415	(52)	(719)	(326,771)	-1.6	
근린생활시설	22,182	22,799	10,318,244	18,728	19,254	8,790,346	(3,454)	(3,545)	(1,527,898)	-14.8	
종 교 시 설	720	827	662,097	576	656	428,252	(144)	(171)	(233,845)	-35.3	
의 료 시 설	106	115	221,213	126	134	410,662	20	19	189,449	85.6	
교육연구시설	550	655	1,695,264	559	646	1,586,025	9	(9)	(109,239)	-6.4	
업 무 시 설	545	588	1,734,168	569	578	3,016,420	24	(10)	1,282,252	73.9	
숙 박 시 설	1,048	1,091	1,306,302	627	683	926,714	(421)	(408)	(379,588)	-29.1	
공 장	4,475	6,855	6,984,545	4,198	5,919	6,589,510	(277)	(936)	(395,035)	-5.7	
기 타	6,458	8,350	11,137,866	4,987	6,099	6,691,325	(1,471)	(2,251)	(4,446,541)	-39.9	
합 계	63,615	72,572	62,334,028	56,371	63,244	56,248,135	(7,244)	(9,328)	(6,085,893)	-9.8	()=미아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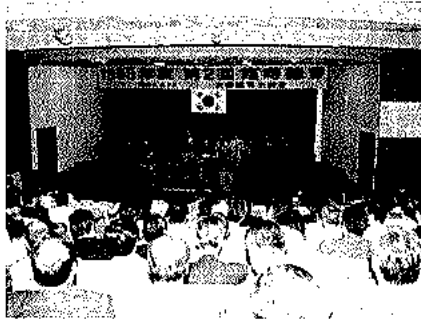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5월분)

구 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건 수	동 수	연 면 적		
서 울	1,468	1,536	2,346,115	1,938	1,951	2,298,841	470	415	(65,274)	-2.8	
부 산	791	926	713,455	1,061	1,136	456,265	270	207	(257,190)	-36.0	
대 구	1,393	1,502	600,150	1,317	1,409	989,973	(76)	(93)	389,823	65.0	
인 천	475	564	1,733,272	593	612	431,588	118	48	(1,301,684)	-75.1	
광 주	341	362	229,062	268	397	585,900	(73)	35	356,838	155.8	
대 전	332	349	225,819	341	353	219,734	9	4	(6,085)	-2.7	
경 기	1,586	1,998	2,607,563	2,301	2,572	2,426,287	715	574	(181,276)	-7.0	
강 원	572	622	337,360	765	947	704,456	193	325	367,096	108.8	
충 북	549	650	321,133	604	677	489,918	55	27	168,785	52.6	
충 남	446	457	342,801	520	577	1,139,970	74	120	797,169	232.5	
전 북	356	419	300,767	296	357	294,745	(60)	(62)	(6,022)	-2.0	
전 남	544	686	380,101	429	506	317,265	(115)	(180)	(62,836)	-16.5	
경 북	731	952	1,015,808	775	1,009	749,601	44	57	(266,207)	-26.2	
경 남	1,027	1,184	958,916	1,163	1,409	1,450,365	136	225	491,449	51.3	
제 주	252	269	117,936	229	233	103,006	(23)	(36)	(14,930)	-12.7	
합 계	10,863	12,479	12,248,258	12,600	14,145	12,657,914	1,737	1,666	409,656	3.3	()=미아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5월분)

구 분 건축사회	1994년			1995년			대 비			연면적 비 율 (%)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 울	8,869	9,243	8,282,923	8,680	8,734	8,495,953	(189)	(509)	213,030	2.6	
부 산	5,112	5,652	4,063,791	4,454	5,474	4,286,721	(658)	(178)	222,930	5.5	
대 구	6,767	7,434	3,324,566	6,158	6,404	3,835,532	(609)	(1,030)	510,966	15.4	
인 천	2,417	2,550	3,515,836	2,201	2,332	3,206,019	(216)	(218)	(309,817)	-8.8	
광 주	2,284	2,796	3,252,738	1,526	2,030	2,277,549	(758)	(766)	(975,189)	-30.0	
대 전	2,348	2,484	1,477,515	1,452	1,616	1,922,997	(896)	(868)	445,482	30.2	
경 기	10,837	12,894	12,790,063	10,848	12,219	12,045,577	11	(675)	(744,486)	-5.8	
강 원	2,781	3,108	1,552,400	3,003	3,613	2,512,990	222	505	960,590	61.9	
충 북	3,397	4,057	2,366,599	2,583	2,896	1,750,815	(814)	(1,161)	(615,784)	-26.0	
충 남	2,802	2,935	7,493,157	2,227	2,442	4,143,199	(575)	(493)	(3,349,958)	-44.7	
전 북	1,931	2,266	2,305,558	1,335	1,443	1,733,128	(596)	(823)	(572,430)	-24.8	
전 남	3,062	3,697	1,883,843	2,023	2,369	1,342,482	(1,039)	(1,328)	(541,361)	-28.7	
경 북	3,951	5,201	4,243,777	3,587	4,570	3,289,101	(364)	(631)	(954,676)	-22.5	
경 남	5,857	6,961	5,258,011	5,277	6,051	5,006,748	(580)	(910)	(251,263)	-4.8	
제 주	1,200	1,294	523,251	1,017	1,051	399,324	(183)	(243)	(123,927)	-23.7	
합 계	63,615	72,572	62,334,028	56,371	63,244	56,248,135	(7,244)	(9,328)	(6,085,893)	-9.8	()=미아너스

95년도 제2회 임시총회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22일(목) 오전 10시부터 협회 대강당에서 제41조(총회의 소집공고 및 성원)는 회원수 1,500인 이상인 건축사회에서는 총회 성원을 6분의 1로 조정하되, 필요시 대의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함.

• 제2호의 안 : 건축개혁 기본계획(안) 승인의 건

- 회비제도, 건축사연금제도, 95년도 예산조정, 건축사공제사업제도, 정관개정 등의 건축개혁 기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의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은 향후에 다루기로 함.

• 제3호의 안 : 회비제도 개선(안) 승인의 건

- 95년 7월 1일부터 사전 설계도서 신고 제도가 사후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협회 운영을 위한 재원은 월정회비와 신입회원 입회비로 하고 시·도건축사회는 자율 운영회비(월정회비, 운영회비)로 운영하되, 타 시·도관할의 업무를 수주할 경우 지역개발 분담금 형식의 "전국 공통 운영회비(안)"을 50% 인상하여 원(안)을 수정 승인함.

• 제4호의 안 : 건축사 연금규정 개정 및 연금정산(안)

- 연금정산 방법에는 정산시점의 연금기금 중 회원개인별 연금회비 납부원금 30%를 우선 배당한 금액과 배당후의 잔액을 연금규정 제10조에 의거 산정된 개인별 퇴직일시금에서 기금 부족액만큼 비율 공제하여 배당한 금액을 합산 정산토록 하며, 복지연금 수혜자에 대한 정산방법에는 기지급한 복지연금은 무시하고, 정산시점의 연금회원과 동일한 정산방법으로 정산토록 하였다. 또 정산후 자금처리 방법은 정산결의후 개인별 배당금을 확정 통보하고, 자금처리 방안은 총회에서 구성하는 정산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다. 이밖에 연금정산위원회의 직무는 현존 연금관련 사무의 종결, 채무의 변제, 정산배당금 확정 통보 및 자금처리방안결정, 정산배당금 지급방법 결정 및 지급, 기타 정산관련 세무실무 작업추진으로 하였으며 이를 운영할 위원은 7인 내외로 구성키로 하되, 위원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원(안)을 승인함.

• 제5호의 안 : 건축사 공제사업 조사 계획(안) 승인의 건

- 건축사공제사업 실행을 위한 조사사업 내용으로 회원들에 대한 거리의 운영자금 융자(여신), 설계, 감리계약 이행보증, 입찰보증, 선급금 지급보증, 설계, 감리하자 이행보증, 설계·감리하자 책임에 대한 전문적이고 법률적 공동대처 방안을 위한 연구(법률대처), 설계용품 공동구매 및 알선사업, 설계자가 필요로 하는 Data Bank운영의 타당성 조사 등을 설정하여 조사·연구분석을 위한 연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22일(목) 오전 10시부터 협회 대강당에서 제41조(총회의 소집공고 및 성원)는 회원수 1,500인 이상인 건축사회에서는 총회 성원을 6분의 1로 조정하되, 필요시 대의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승인함.

이어서 회순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부의안건 상정에 들어가 제1호의 안에서 제13호의 안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의에 들어갔다.

의안별 심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호의 안 : 정관개정(안)승인의 건

- 협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개정된 건축사법에서 개정이 불가피한 부분과 현행 법령내에서 개정가능한 부분만을 우선 개정하고자 함에 따라 주요개정 내용은 제10조(징계의 종류)의 회원업무정지를 권리정지로 변경하고 제명조항은 삭제한다. 또 회원 권리정지 처분내용을 협회 간행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제13조(임원)는 회원 부회장제를 도입하며 임원의 수도 15인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제15조(임원선출)는 비상근 부회장을 이사에서 호선하고 서울건축사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제20조(총회)는 정기총회 개최시기를 본부 총회는 10월중, 건축사회는 11월중에 개최하고, 또한 <건축사회의 경우> 제35조(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서 건축사회 회장과 부회장에 대해서만 본 협회 회장의 승인을

구용역비로 “장기발전 사업회계”에 1천만원을 우선 반영하는 원(안)을 승인함.

• 제6호 의안 :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94. 10. 14일 대법원 판결에 의거 협회의 회원제명 및 업무정지 권한이 무효화 됨에 따라, 정관에 명시된 회원의 정제에 관한 사항과 현행 윤리위원회 규정상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건축공사 부실방지 점검결과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정지 건의 및 등록취소, 건의 조항 신설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고자 함에 따라 주요내용으로 제2조(설치 및 구성)는 윤리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수를 회원수에 비례하여 조정토록하였으며 제11조(직무)는 건축공사 부실방지 점검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일부 조항의 경우 내용선별후 건축사회에 이첩처리할 수 있도록함. 제24조(직무)는 건축공사 부실방지 점검결과 문제점이 확인되었을 경우 건축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제18조 및 제31조(수락여부의 결정)는 업무정지 건의 및 등록취소 건의사항 신설에 따른 절차를 명시하는 등의 원(안)을 승인함.

• 제7호의 안 : 95년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8호의 안 : 95년도 임회비 관리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9호의 안 : 95년도 회관관리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0호의 안 : 95년도 회지발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1호의 안 : 95년도 장·단기 발전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2호의 안 : 95년도

창립30주년행사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13호의 안 : 95년도 건축사시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5월 30일(제10회)에 개최되어, 업무보고에 이어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순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개혁 기본계획(안) 승인의 건

- 내용을 정리하여 임인혁이사가 최종 검토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위임 승인함.

• 회비제도 개선(안) 승인의 건

- 본부는 임회비 및 월정회비, 시·도건축사회는 월정회비, 운영회비 및 전국 공통 운영회비를 제원으로 하기로 수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승인함.

• 건축사연금규정 개정 및 정산(안) 승인의 건

- 총회의결로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을 정산하여 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개정과, 연금정산 방법을 본인이 납부할 연금회비 원금의 30%와 해당회원별 퇴직일시금의 퇴직 일시금 배당율에 따른 금액을 합산 배당하고, 복지연금 수혜자도 기지급한 복지 연금을 무시하고 정산시점의 연금회비와 동일한 정산방법으로 산정 지급토록 하는 원안대로 총회에 산정키로 하고 승인함.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추진계획(안) 승인의 건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추진계획안”을 “공제조합 설립타당성 조사 계획안”으로 수정하고 내용은 회장이 검토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승인함.

•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 정관개정(안)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키로 하되, 전반적인 사항을 이종관이

사의 검토와 회장의 최종검토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위임 승인함.

•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회장 및 윤리위원장이 최종검토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위임 승인함.

• 30년사 발간 및 신문발간에 대한 건

- 30년사 및 신문은 발간하지 않기로 결의함.

• 95년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승인함.

• 95년도 임회비 관리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승인함.

• 95년도 회관관리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승인함.

• 95년도 회지발간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승인함.

• 95년도 장·단기 발전사업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예산(안)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정하여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승인함.

내 용	제출(안)	조정(안)
6. 해외진출 및 시장개방 대응 연구비	5천만원	4천5백만원
8. 건축연구원 및 건축교육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비	1천만원	5백만원
9. 홍보매뉴얼 제작비	7천만원	5천만원
10. 설계기준+감리기준 + 표준계약서 작성	비예산	2천만원
11. 건축사시험제도 연구	비예산	1천만원

• 95년도 창립30주년행사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승인함.

• 95년도 건축사시험회계 제1차 추가경정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승인함.

이사회 개최

우리 협회의 주요 당면 과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이사회가 김규태 회장 주재로 지난

구 분	개정(안)	수정(안)
(분회)	- 부회장 2인(상근1, 비상근1)	- 부회장 3인(상근1, 비상근2)
제13조(임원)	- 이사 15인 이내	- 이사 15인 이내(당면직 이사 포함)
제15조(임원선출)		- 비상근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하고, 서울건축사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는 조항을 삽입
제20조(총회)	- 대의원선출: 15인당 1인	- 현행대로 10인당 1인으로
(시도건축사회)		- 시·도건축사회 사업에도 제5조중 일부 해당사항을 이관사업을 명시키로 함.
제32조(사업)	삭제	- 부회장: 1인
제33조(임원)	- 부회장: 1~2인	- 제1항에 부회장은 간사중에서 호선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
제35조(인원 및 대의원 선출)		- 현행대로
제44조(위원회 구성)	(삭제)	- 현행대로 하되 부서명칭을 삭제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함.
제45조(사무국)	(삭제)	- 권한위임 임의규정으로 하되 제1항을 삭제
제54조(권한위임)	- 권한위임 강행규정	

- 95년도 제2회 임시총회 일정 및 의제 결정의 건
- 95년도 제2회 임시총회를 '95. 6. 22(목)에 개최하기로 하고 13개 의안중 4호 의안을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타당성 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12개 의안은 원안대로 승인함.
- 지역건축사회 명칭변경 승인의 건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전북건축사회 소속 이리지역건축사회를 익산 지역건축사회로, 경남건축사회 소속 삼천포지역 건축사회를 사천시건축사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원안대로 승인함.
- 건축 부실공사방지 자원봉사단 결성 승인의 건
- 전국건축사회별로 건축부실공사 방지 자원봉사단을 점점봉사단으로 개칭하여 결성하되 95년도 제2회 임시총회에서 결성식을 갖기로 결의함.
- 감사원 명예 감사관 후보 추천의 건
- 감사원 전문인 명예 감사관 후보에 이종만, 김택성이사를 추천하기로 결의함.

우리 회원, 4대 지방선거에서 30명 당선

지난 6월 27일 실시된 4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우리 협회 회원 30명이 당선되었다. 전국적으로 총 55명의 회원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 8명을 비롯하여 기초단체의원 22명이 당선되었는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원7명, 부산/의원9명, 광주/의원1명·의원1명, 대전/의원1명, 경기/의원1명, 강원/의원1명, 충남/의원1명, 전북/의원1명, 시의원2명, 전남/의원1명, 광역의원1명, 경북/의원1명, 경남/의원2명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별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울 박재범(법진, 상창, 가추건축/송파 구의원)
- 문제현(동도, 예향, 예원, 근화건축/송파 구의원)
- 장준평(평건축/송파 구의원)
- 전우대(삼원건축/은평 구의원)
- 최재웅(대경건축/영등포 구의원)
- 박윤식(박윤식건축/종로 구의원)
- 박정철(동보, 익성건축/동대문 구의원)
- 부산 송진호(송진호건축/연제 구의원)
- 박종석(신안건축/동래구 구의원)
- 정홍정(동광건축/해운대 구의원)
- 이태훈(삼안건축/수영 구의원)
- 황대성(우리건축/북 구의원)
- 김영상(한진건축/북 구의원)
- 윤동수(금성건축/부산진 구의원)
- 박선호(심원건축/금정 구의원)

- 안호형(원형건축/수영 구의원)
- 광주 김후진(반석건축/광주 시의원)
- 곽성재(삼미건축/동 구의원)
- 대전 이은규(태광건축/대전 시의원)
- 경기 유봉정(우림건축/안양 시의원)
- 강원 원창목(예당건축/원주 시의원)
- 충남 이갑준(갑진건축/충남 도의원)
- 전북 유철갑(한진건축/전북 도의원)
- 최락운(삼인, 삼중건축/전주 시의원)
- 박종윤(세림건축/전주 시의원)
- 전남 홍성창(홍성창건축/전남 도의원)
- 김호신(삼영건축/광주시 북구의원)
- 경북 강대홍(강진건축/ 구미 시의원)
- 경남 조태화(태화건축/ 경남 도의원)
- 김정수(새한건축/ 경남 도의원)

부산건축사회, 창립30주년 기념사업 행사개최

부산건축사회(회장 박성길)는 창립30주년을 맞이하여 건축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또한 건축제도의 개선과 기술향상을 도모하여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하기 위한 각종 기념사업을 오는 7월 11일 시민건축대학 개설을 시작으로 10월경 회원친선 체육행사까지 개최한다. 또한 이번 기념행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부산건축사회는 총 31명으로 구성된 「창립30주년기념행사준비위원회」를 지난 3월 9일 발족시켜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주요 행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민 건축대학 운영
 - 목적:건축주와 시공자의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이해와 건축행정 환경의 급변에 따른 인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건축을 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과 정보제공, 건축관련 교양 강화를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 개강일정 : 1995. 7. 11 ~ 11. 7
 - 장 소 : 부산건축사회관 12층 다목적홀
 - 강좌내용: ①실생활과 건축 ②건축관련 교양 ③건축설계 시공 ④고건축, 대형건축물 답사 또는 슬라이드 쇼(외국의 건축소개) ⑤기타(건축행정관련 정보)

- 건축 작품전 개최
 - ①부산건축 이제와 오늘
 - 전시대상: 1990년도 중반을 전후한 건축물이나 부산시가의 사진
 - 전 시 일: 1995. 9. 22 (화) 10:00~
 - 전시장소: 부산건축사회관 지하1층 전시실

- ②회원작품전
 - 작품제출 신청 접수 : '95. 6. 1 ~ 6. 30
 - 작품제출 마감 : '95. 9. 18 17:00
 - 전 시 일 : '95. 9. 22 10:00
 - 전시장소: 부산건축사회관 12층 전시실

- ③학생작품전
 - 공모명: 미·하야리아부대 부지활용 계획
 - 제출일시: 1995. 9. 18일 17:00시한
 - 당선작 발표 : 1995. 9. 21

- ④오사카 건축사회 초청작품전
 - 목적: 한·일건축사의 기술교류 및 우의증진 도모
 - 초청 대상작품: 10여작품
 - 전시일: 1995. 9. 22 10:00~
 - 전시장소: 부산건축사회관 12층 다목적홀

- 회원 취미 작품전
 - 전시품의 종류: 사진, 미술품, 서예, 시화 등
 - 전시회 일시 : 1995. 8월 및 9월중
 - 참석대상: 회원 및 회원가족
- 회원친선 체육대회
 - 일 시: 1995. 10. 8일(일)
 - 장 소: 사직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 참석대상: 회원 및 회원가족

경기건축사회, 경로소연 개최



경기건축사회(회장 최계남)는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 강화도에서 경로회원 39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로소연을 개최하였다.

이날 베풀어진 행사는 원로 건축사들에 대한 경의는 물론 웃어른을 공경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사상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제설계경기 작품접수 마감

문화체육부가 국내최초로 국제건축가연맹(UiA)의 공인을 받아 국제설계 경기로 실시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1단계 아이디어 설계공모에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명 건축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세계 46개국에서 3백 40건의 응모작품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응모현황을 나라별로 살펴보면 한국/78건, 프랑스/26건, 이탈리아/23건, 영국·미국/각 18건, 일본·멕시코/각 17건, 스위스/16건, 독일/15건, 홍콩/11건, 캐나다·핀란드·아르헨티나·말레이시아·스페인·네덜란드·이란 등/5건 순으로 나타났다.

『애니 와이즈, 서울』 개최

21세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도시의 위상을 모색하고자 세계적인 건축가와 철학자, 문학비평가 30여명이 참여하는 국제 건축토론회가 지난 6월 19일, 20일 양일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서울회의는 『현대 도시속의 건축의 책임』이라는 주제하에 세계의 유명 건축가들이 서울에서 모여 처음으로 건축토론회를 개최하였던 것으로서 급격한 성장변화를 겪고있는 한국의 도시문제를 진단해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려는 의도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의 도시개발방식, 녹지나 공원,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하여 정책의 무모성이 집중 토론되었다.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김석철(아키반 대표)회원은 주제발표에서 과포화 상태에 빠진 서울의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한강변에 도시의 공공시설을 집중시키고 한강을 도시의 원초적 흐름으로 유도하는 방안제시와 샛강을 통한 부도심지역의 창출 등을 주장하였다. 5개 주제별로 모두 25명의 세계 저명인사가 발표한 이번 토론회에 한국측은 김석철(아키반 대표)회원, 윤승중(한국건축가협회장), 이진영(국토개발연구원장), 임영방(미술평론가), 백낙청(문학평론가) 등이 참여했다.

김영섭회원, 건축사진전 개최

서울건축사회 김영섭 회원(우원건축, 건축

문화)이 “옛날 사진기로 본 건축세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남구 역삼동 갤러리 B/B에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건축사진전을 개최한다. 이번 건축사진전은 그동안 김영섭 회원이 여러 단체여행을 통해 옛날 사진기로 촬영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것으로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축을 통해 소홀하기 쉬운 옛 것을 되새겨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하기 위한 작은 시도라 한다. 또한 이번 사진전은 서울건축학교의 기금마련을 위해서도 개최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T. 566-0871~1)로 문의하면 된다.

건축역사학회, 월례학술 발표회 개최

한국건축역사학회(회장 임충신)는 지난 6월 17일(토)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 알렌관에서 일제시대의 도시계획 건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월례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김광우(한남대), 윤인석(성균관대)교수가 토론을 벌인 이날 주제발표에는 전우용(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연구원)씨의 한국 근대도시화와 도시형성, 김기호(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교수의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발표에 이어 송 울(아키반건축사사무소) 건축사의 일제시대 우리건축가의 활동과 건축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수근문화상 시상식 개최

지난 한해동안 발표한 건축, 미술, 공연예술 3부문중 우수한 작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 제6회 김수근 문화상 시상식이 지난 6월 14일(수) 오후5시에 공간사옥 정원에서 개최되었다. 문화예술계 인사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시상식에서 건축상은 「바른손 센터」를 설계한 이종호, 양남철(스튜디오 매타)씨가 수상하였으며, 박석원(홍익대)교수, 정치용(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가 공연예술상을 각각 수상했다.

앙리 시리아니 초청강연회 개최

한양대 공과대학 건축공학부는 지난 6월 17일(토) 오후 3시에 한양대 백남음악관에

서 프랑스 국립파리 건축8대학 앙리 시리아니교수를 초청하여, 『하나의 도시로서의 박물관』이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 서론부에서는 먼저 앙리 시리아니교수가 자신의 전반적인 건축관을 밝혔으며, 후반부에 아를르 고고학박물관, 페론느 전쟁박물관에 대한 작품들을 슬라이드를 통하여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서울건축학교, 워크숍2 전시회 개최

서울건축학교는 7월 1일(토)부터 7월 8일(토)까지 양재동 서울 건축학교에서 워크숍 2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서울건축학교 워크숍 2기 강의내용과 참가 수강생들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으로 관심있는 회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건축학교(T:02-529-3044)로 문의 하면 된다.

제13회 공간 학생 건축상 공모

(주)공간사는 국내대학의 건축 및 조경, 미술, 환경, 조각 등 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도시의 휴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3회 공간 학생건축상을 공모한다. 오는 8월 10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는 이번 건축상의 당선작은 9월중에 발표할 예정인데 최우수상 1점에 해외건축연수가 실시되며, 우수상 및佳作에게는 공간지를 각각 1~2년동안 정기구독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공간사 (T:747-2892~3)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대 건축공학과, '95 졸업작품 전시회 개최

경기대 건축공학과는 지난 6월 17일(토)부터 6월 26일(월)까지 Plus 사옥 지하1층 전시실에서 95년도 건축학과 졸업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갖고 있던 건축공학과 학생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외래강사의 특별강연회도 개최되어 많은 호응을 받았다.